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글로벌 일자리 창출 선도



유럽 스타트업 생태계 현황과 협력방안



Global
Market
Report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CONTENTS

목 차

I. 유럽 스타트업 생태계 여건 / 1

- 1. 유럽 스타트업 생태계 동향 1
- 2. EU의 스타트업 정책 11

II. 유럽 주요 스타트업 생태계의 현황과 정책 / 15

- 1. 영국 런던 15
- 2. 프랑스 파리 33
- 3. 독일 베를린 73
- 4. 스페인 바르셀로나 93
- 5.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116
- 6. 스웨덴 스톡홀름 137
- 7. 핀란드 헬싱키 157
- 8. 오스트리아 빈 171
- 9. 폴란드 바르샤바 194
- 10.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 218

III. 진출방안과 시사점 / 227

- 1. 유럽 스타트업 생태계의 위상과 진출 여건 227
- 2. 유럽 스타트업 생태계 진출방안 229
- 3.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에 대한 시사점 234

요 약

1. 유럽 스타트업 생태계의 위상과 진출 여건

□ 유럽은 최근 전세계 혁신 스타트업이 모여드는 'Tech Startup Hub'로 도약

- 2017년, 전년대비 84% 증가한 191억 6,800만 유로의 스타트업 투자 시현
 - 유럽에서 성사된 스타트업 투자건수 역시 3년 연속 약진을 기록, 2017년 전년대비 39% 증가한 3,656건 기록
- 유럽 각국은 4차산업혁명 전략 추진과* 더불어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에 역점
 - * EU 회원국·지역별로 30개 이상의 디지털 산업혁신 이니셔티브가 추진 중
 - 특히 런던, 베를린, 파리, 스톡홀름, 암스테르담은 '글로벌 20대 창업생태계' (2017년 기준, Startup Genome)에 진입하여 유럽 스타트업 성장을 견인

□ 유럽은 잠재력 있는 스타트업이 진출하여 성장할 수 있는 유망 지역

- 유럽 스타트업 생태계는 비즈니스 친화적 환경, 창업 클러스터 활성화, 대외 개방성 등 전반적인 조건이 우수*
 - * 2017년 Global Entrepreneurship Index(GEI) 상위 20개국 중 유럽 13개국 포진
 - 유럽의 스타트업 고객 중 약 20.7%가 비유럽 고객으로서, he지역 스타트업 글로벌 고객 평균치(12.8%)를 약 1.5배 상회(Startup Genome)
- 유럽 국가들은 스타트업 관련 해외(비유럽 포함) 인력의 유치에 적극적
 - * 영국 테크네이션 비자: 디지털기술 분야의 우수 창업자 대상 특별 비자 발급
 - * 프랑스: French Tech Ticket(국가)과 Paris Region Starter Pack(수도권)으로 혁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해외 창업자 지원
 - * 스페인 Rising Startups Spain: 자국 시장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한 해외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스페인 내 창업 지원

□ 우리 스타트업의 유럽 진출은 아직 많지 않으나, 고부가 영역 중심

- 한국의 해외진출 창업기업 가운데 61.6%가 동북아, 29.7%가 동남아에 진출, 유럽 진출 창업기업 비중은 10.1%(창업진흥원, 2018년 조사)
- 유럽 진출 분야는 비즈니스, 과학·기술, 교육, 정보통신 등 고부가 업종 중심
 - * 사업서비스 42.5%, 과학·기술 41.6%, 교육서비스 32.9%, 제조업 13.8%(복수응답)

2. 유럽 스타트업 생태계 진출방안

□ 딥테크(인공지능 등 첨단 디지털기술)를 중심으로 유럽 각국의 수요에 주목

- 유럽의 주요 스타트업 투자분야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사이버보안, 로보틱스, 전자상거래, 핀테크 등

- 인공지능의 경우 독·영·프 등 주요국의 전략적 육성 분야

- 유럽 기업과 정부는 신기술 확보를 위해 해외 스타트업과 협력을 늘리는 추세로서, 한국 스타트업과의 협력 수요 존재

- * 암호화폐 기술을 보유한 한국 스타트업 G사는 독일 핀테크기업 M사와 블록체인 개발 협업 중, C사는 독일 B사와 협력하여 휴대용 피부진단기 개발 중

□ 현지 창업을 통한 스타트업 생태계 진입

- 현지 인큐베이터, 엑셀러레이터, 지원프로그램을 통한 시장조사, 대기업과의 협업, 컨설팅 기회 확보 등 역량 강화가 중요

- 타깃 시장 및 투자처를 겨냥하고, 실효성을 우선하여 진출할 필요

- 국가·도시별로 매우 다양한 스타트업 생태계가 운영되고 있으며, 특성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면밀한 선택이 요구

- * 스타트업 실패요인 1위 시장수요 불매칭(42%), 2위 자금난(29%) (CB Insight)

- 코트라 등 유관기관의 현지 엑셀러레이터 참가 지원프로그램 활용

- * 최근 한국 A사는 현지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통해 초기투자(15,000 유로)와 멘토링을 받고, 유럽 벤처캐피탈에 IR을 실시하여 글로벌기업과 협업 진행

□ CVC 프로그램을 통해 Global Partnering 기회 창출

- 기업 기능의 수직적 분해 확대, 대기업의 스타트업 협력 수요 증가

- 엑셀러레이터 뿐 아니라, 대기업·금융기관도 스타트업 육성에 적극적*

- * 국내 스타트업 S사는 심방세동 탐지기를 개발, 독일 바이엘사로부터 5만 유로 투자를 받고 베를린의 제약부분 본사 입주(61개국 450여 스타트업 경쟁. '17)

□ 유럽 주요 스타트업 행사 참가를 통한 진출 가능성 모색

- 현지 스타트업 컨퍼런스, VC 네트워킹 행사 참가를 통한 네트워크 확보

- 주요 컨퍼런스에 한국관을 구성하여 VC 투자자 피칭, 1:1 상담 실시

- * TechCrunch Disrupt(독), Viva Technology(프), London Techweek(영), Slush(핀) 등

3.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에 대한 시사점

□ 스타트업 생태계의 활성화는 4차산업혁명 추진역량과 직결

- 스타트업은 기존기업에 자극과 혁신을 불어오며,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유럽 신생 스타트업(5년 미만)이 창출한 고용 규모는 약 110만 명, 경제적 가치는 약 870억 유로 규모(2017년 추산. EU 집행위)
 - * 국가 디지털 혁신역량은 기업가정신 수준과 뚜렷한 정(+)의 관계
- 특히 고성장, 기술기반 스타트업의 경제적 잠재력에 주목할 필요
 - 실질적인 혁신과 일자리 창출은 스타트업이 스케일업(Scale-up)했을 때 발생
 - * 고성장, 기술기반 스타트업의 경제성장과 고용 기여도가 가장 큼(ITIF 2017).

□ 산업별 클러스터는 건강한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의 주요 조건

- 유럽 국가들은 산업별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기술협력 및 트렌드 공유를 통해 신생 스타트업의 역량 강화
 - 글로벌화 역량이 높은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상호 윈-윈’ 협력관계 창출
 - * 네덜란드는 델프트, 헤이그, 로테르담 등 지역별 대표 산업 생태계를 중심으로 글로벌 기업과 연결되는 생태계 구축
- 성장 초기단계부터 스타트업의 글로벌화 촉진
 - 한국 스타트업의 해외 고객비율은 14%로, 글로벌 평균 23%에 못 미침.
 - * 글로벌 고객에 초점을 맞춘 스타트업은 2.1배 빠른 성장(Startup Genome)

□ 스타트업 진출지역 다변화 지원

- 북미·유럽·아시아 등 스타트업 생태계 성장에 따른 진출지역 다각화
 - 미국은 일부지역(실리콘밸리, 뉴욕, LA 등)에 편중된 스타트업 생태계를 확대, 캐나다는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스타트업 적극 육성 중
 - 중국, 동남아는 우리 스타트업의 정보·네트워크 수요 증가
- 국가 간 협업·교류 위한 민·관 네트워크 확보
 - 주요국 스타트업 기관과의 교류 강화, 스타트업 공동펀드 조성 등
 - * 독일은 독-이스라엘 스타트업 교류를 지원하는 등 국제 스타트업 협력에 관심

I

유럽 스타트업 생태계 여건

1. 유럽 스타트업 생태계 동향

가. 유럽 스타트업 생태계의 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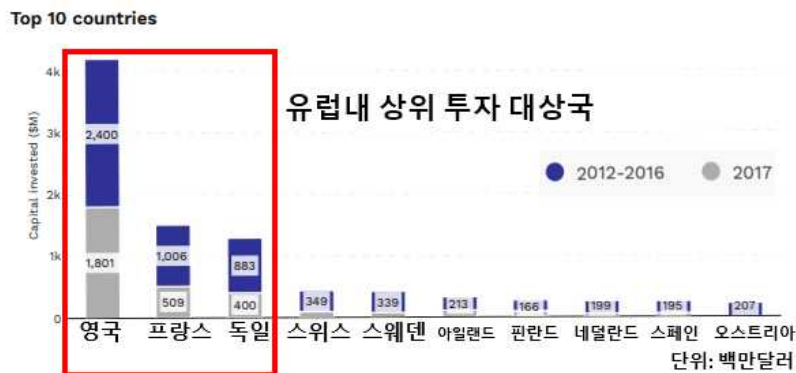
□ 유럽, 기술기반 혁신기업이 모이는 'Tech Startup Hub'로 도약

- 유럽 각국과 EU 차원의 4차산업혁명 추진전략에 힘입어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사이버보안, 빅데이터, 소프트웨어 등 혁신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급증*

* 딥테크(Deep Tech)의 경우 총 투자액(35억 달러) 중 77%(27억 달러)가 영·프·독에 집중

<유럽 국가별 딥테크 스타트업 투자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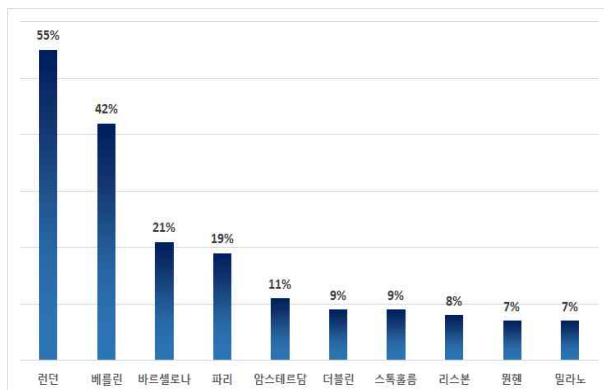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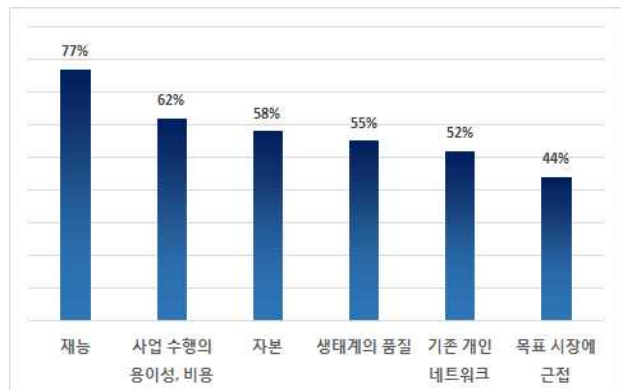
자료원: Atomico. 2017. State of European Tech 2017.

- 우수한 인재, 비즈니스 친화적 환경, 자금조달의 용이성, 성숙된 창업 생태계 등은 유능한 글로벌 창업자들의 유럽 선호도를 증가시키는 요인

<유럽내 창업 선호 도시>



<유럽내 창업지역 선택 기준>



자료원: 2017. Startup Heatmap Europe 2017. 유럽 내 321개의 스타트업 창업자 대상 설문조사(복수응답)

- 특히 주요 5개 도시는 ‘글로벌 20대 창업생태계’(Startup Genome 선정)에 진입하여 유럽 스타트업 생태계를 견인
 - **(런던)** 유럽 최대의 기술기반 스타트업 허브로서 실리콘밸리, 뉴욕에 이은 세계 3위의 스타트업 생태계*
 - * 생태계 가치 440억 달러 추산('17년)되며, 9,455개의 스타트업 존재('16). 영국에서 런칭된 스타트업 중 30% 이상이 런던에 집중(Centre for Entrepreneurs)
 - **(베를린)** 런던과 더불어 유럽 2대 스타트업 중심지로서 인정받고 있음.
 - * 특히 글로벌 개방도가 높아 외국인 창업자의 비중은 실리콘밸리 다음으로 높음(전체 창업자의 43%).
 - **(파리)** 적극적인 지원정책에 힘입어 유럽 스타트업의 요람으로 급부상
 - *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유니콘의 나라”를 목표로 스타트업 지원에 110억 달러 이상 투입, 스타트업 인큐베이터(Station F) 설립 및 외국인 스타트업 유치(La French Tech Ticket) 등 국제적인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에 적극적
 - **(스톡홀름)** 높은 수준의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형성된 스톡홀름 스타트업 생태계는 양질의 펀딩, 활발한 M&A 등으로 고평가**
 - * '16년 북유럽으로 투자된 총 금액의 54%가 스톡홀름으로 유입될 만큼 규모가 팽창
 - **(암스테르담)** 유럽 최대 스타트업 허브 ‘스타트업델타*’를 중심으로 ICT 분야 스타트업의 약진이 두드러진 도시
 - * 스타트업델타: 유럽 내 가장 큰 스타트업 허브로 네덜란드 스타트업의 역량강화, 네트워킹 구축, 자본 및 자본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정부, 네덜란드 혁신허브, 연구기관, 투자자, 대사관 및 스타트업의 긴밀한 협력으로 설립된 스타트업 육성 클러스터
- 유럽은 시장 접근성 및 국가간 연결성이 높아 글로벌 고객 확보 및 네트워크 기반 구축에 유리
 - 전체 고객대비 약 20.7%가 비유럽 고객으로 이는 타지역 스타트업 글로벌 고객 평균치(12.8%)를 약 1.5배 상회*
 - * 글로벌 고객확보에 초점을 맞추는 스타트업은 21배 빠른 성장률을 보이며(Startup Genome, 2017. Global Startup Ecosystem Report), 특히 런던은 전세계 스타트업의 1/4 가량이 관통할 만큼 글로벌 연결성이 세계적인 수준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 순위(2017)>

전체 순위 (변동)	도시명	수행 (Performance)	자금 (Funding)	시장접근 (Market Reach)	능력 (Talent)	스타트업 경험 (Experience)
1(-)	실리콘밸리	1	1	1	2	1
2(-)	뉴욕	3	2	3	7	4
3(▲3)	런던	4	4	2	10	5
4(new)	베이징	2	5	19	8	2
5(▼-1)	보스턴	6	6	12	4	3
6(▼-1)	텔아비브	9	8	4	11	7
7(▲2)	베를린	7	9	6	5	10
8(new)	상하이	8	3	10	9	13
9(▼-6)	로스앤젤레스	5	7	15	14	11
10(▼-2)	시애틀	12	13	14	3	6
11(-)	파리	14	14	9	16	8
12(▼-2)	싱가포르	16	16	11	1	20
13(-)	오스틴	15	11	18	6	9
14(new)	스톡홀름	17	20	8	18	12
15(▲3)	밴쿠버	19	19	7	15	15
16(▲1)	토론토	18	12	5	20	18
17(▼-1)	시드니	20	10	13	12	17
18(▼-11)	시카고	13	15	20	13	14
19(-)	암스테르담	10	17	17	19	16
20(▼-5)	벵갈로르	11	18	16	17	19

자료원: Startup Genome. 2017. Global Startup Ecosystem Report 2017

□ ‘글로벌 기업가정신 지수(GEI)’ 상위 20 국가 중 유럽 13개국 포진

- 2017년 유럽의 기업가정신 지수는 세계 평균 증가율 3.0%를 넘어서는 안정적인 추세로 전년대비 3.4%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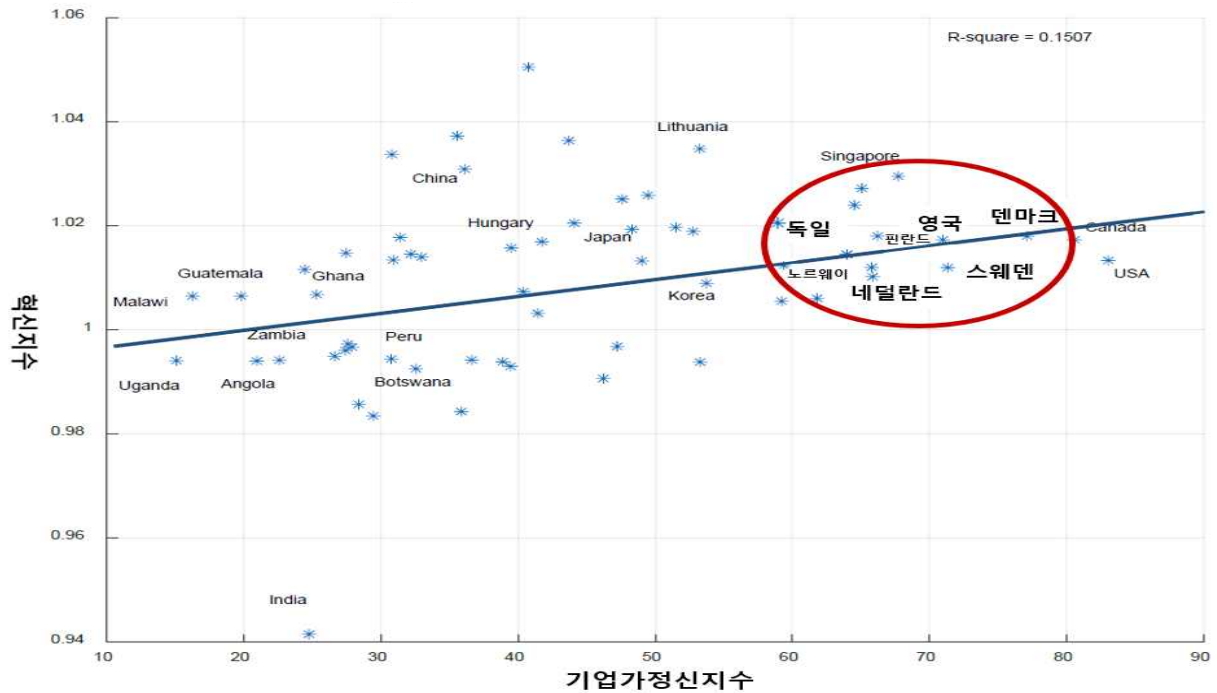
* 북미(25%), 아시아태평양(4.0%), 중남미(4.6%), 중동 북아프리카(29%), 아프리카(1.5%)

- 유럽 내 1위 스위스를 포함하여 영국, 프랑스, 덴마크, 스웨덴, 아일랜드, 프랑스, 네덜란드 등 북서유럽 국가들이 상위권에 진입

* 영국의 경우 전년 평가대비 4단계 상승(8위→4위)

- 기업가 정신은 한 국가의 혁신성과도 상관성이 높으며, 특히 타 지역 대비 성숙한 유럽의 기업가정신은 혁신적 스타트업 생태계 확장의 핵심 동력
- 유럽은 창업역량(창업교육환경), 신기술 흡수역량(ICT 수준), 국제화역량(대외 개방도)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기업가정신과 혁신수준의 관계>



자료원: GEDI 2018.

- 유럽 내 기업가정신 변창에는 EU가 추진해온 ‘Entrepreneurship 2020 Action Plan’ 도 주요한 역할
 - EU 집행위는 2012년부터 EU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을 위한 청사진으로 ‘기업가정신의 함양’ 을 제시
 - 汎EU 차원에서 창업 지원, 행정장벽 철폐, 기업가정신 육성 등과 같은 세부 액션플랜을 추진하여 기업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 조성

<글로벌 기업가정신지표(GEI) 순위 (137개국 중 상위 25개국)>

순위	국가	GEI	순위	국가	GEI
1	미국	83.6	14	오스트리아	66.0
2	스위스	80.4	15	독일	65.9
3	캐나다	79.2	16	이스라엘	65.4
4	영국	77.8	17	벨기에	63.7
5	호주	75.5	18	대만	59.5
6	덴마크	74.3	19	칠레	58.5
7	아이슬란드	74.2	20	룩셈부르크	58.2
8	아일랜드	73.7	21	노르웨이	56.6
9	스웨덴	73.1	22	카타르	55.0
10	프랑스	68.5	23	에스토니아	54.8
11	네덜란드	68.1	24	한국	54.2
12	핀란드	67.9	25	슬로베니아	53.8
13	홍콩	67.3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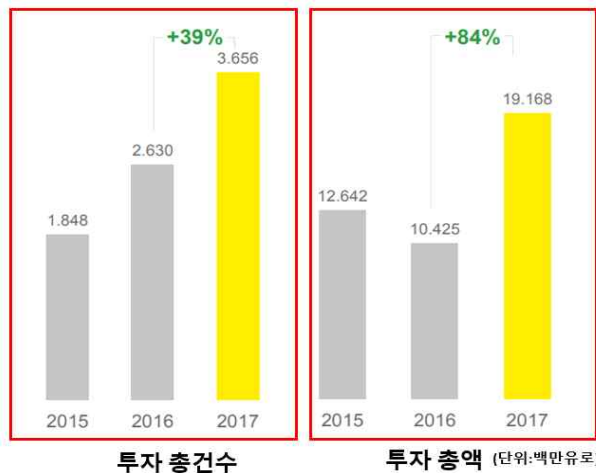
자료원: Global Entrepreneurship Development Institute. 2018. Global Entrepreneurship Index 2018. 유럽국가 음영처리.

나. 스타트업 투자 및 주요 분야

□ 유럽 스타트업 투자 규모 및 트렌드

- 2017년에 전년대비 84% 증가한 191억 6,800만 유로의 투자액을 달성하며 확장세 시현
- 유럽 전역의 스타트업 투자건수 역시 3년 연속 약진을 기록하며 2017년 전년대비 39% 증가한 3,656건 달성*
 - * 유럽 스타트업 투자건수 추이 : 1,848건('15) → 2,630건('16) → 3,656건('17)
 - * '17년도 對유럽 투자건수(3,656건) 중 893건이 對영국, 605건이 對프랑스, 507건이 對독일, 277건이 對스웨덴
-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이 전년대비 스타트업 투자 총액 증가를 시현, 특히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순으로 가장 많은 투자 유치*
 - * 영국: 64억 유로(+134.6%), 독일: 42억 7천만 유로(+87.9%), 프랑스: 25억 6천만 유로(+16.2%), 스웨덴: 7억 7천만 유로(+69.7%)

<유럽 스타트업 생태계 투자규모 3개년 추이>
(단위: 백만 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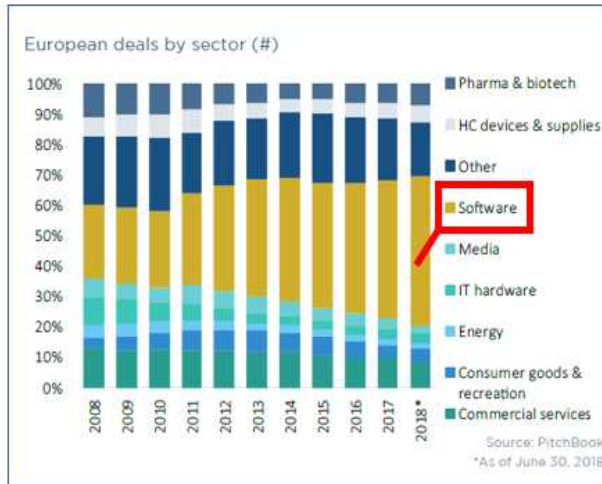
<2017년 스타트업 투자총액 유럽국 순위>
(단위: 백만 유로)



자료원: Ernst & Young, 2018.3 . Startup Barometer Euro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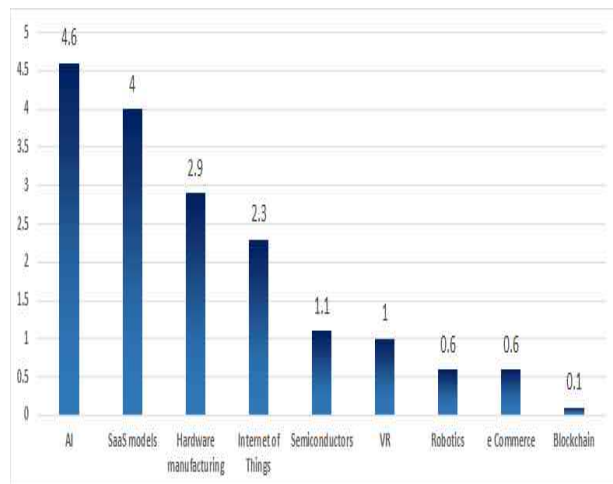
- 주요 투자분야는 AI(인공지능), SaaS, IoT, 사이버보안, 로봇틱스, 전자상거래 등
- 2012~17년 유럽 내 AI 분야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는 약 46억 달러로 추산
- ‘EU 지급결제시장 통합계획’ *으로 인해 핀테크 분야 투자 수요 급증
 - * EU Payment Service Directive II: EU내 모든 금융기관은 지급결제 서비스에 대해 API를 공유해야 함 주목
 - 적은 유럽 지급결제 시장 통합 안전한 결제, 소비자 보호 등임 이를 통해 은행이 보유한 시스템을 핀테크 기업들과 공유함으로써 핀테크 기업들은 API를 기반으로 은행과 고객간 중개인으로 기능할 수 있음

<연도별 유럽내 벤처캐피탈 투자분야 추이>
(단위: %)



자료원: Pitchbook, Report 2018 Q2 European Venture Report

<유럽내 스타트업 집중투자분야('12~'17 누계)>
(단위: 십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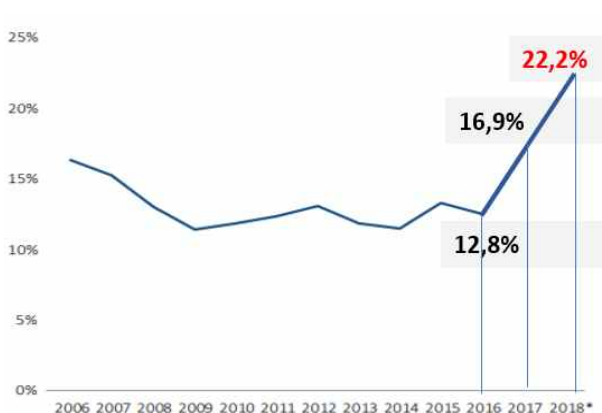
자료원: ATOMICO, 2017, State of European Tech 2017

- 첨단기술 중심으로 글로벌 투자 매력도가 상승하면서 미국, 아시아로부터 유입되는 글로벌 VC의 투자 증가*

- 상대적으로 초기 자본에 비해 후기 대형 자본조달이 어려운 유럽 지역 스타트업에 좋은 기회로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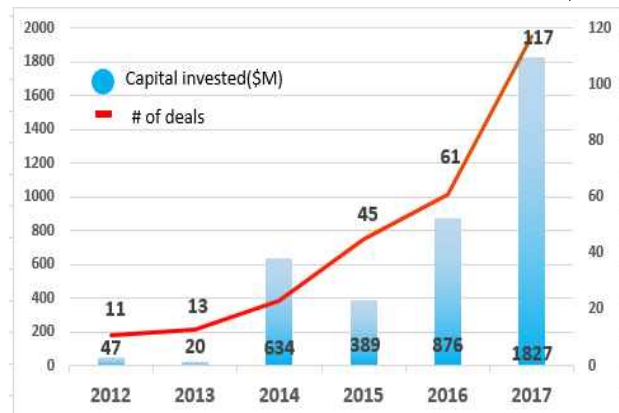
* '17년 아시아로부터 유럽 스타트업으로 투자된 금액은 18.2억 달러, 투자건수는 117건

<유럽내 미국 VC 투자비율 추이>
(단위: %)



자료원: Pitchbook, 2018 Q1, European Venture Report

<유럽내 아시아 VC 투자금액 및 건수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개)



자료원: ATOMICO, 2017, State of European Tech

- 유럽 내 주요 글로벌기업 중심으로 신기술 확보를 위한 자체 VC 설립이 활발해지면서 스타트업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음.*

* 예: Siemens는 '16.10 신기술 스타트업 투자 전문 벤처캐피탈 "Next47" 설립. 향후 5년간 전세계 유망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자금 총 10억 유로 운영 계획

□ 주요 도시별 스타트업 투자 현황

○ (런던) 2017년 스타트업 총 투자액 48.8억 유로 달성, 유럽 1위

- 거대 금융센터 및 VC의 투자 수요와 Apple, Google, Facebook 등 다국적기업의 기술협력 수요 집중, 테크시티(런던 중동부) 중심으로 형성된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신생 첨단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 주요 투자 분야는 핀테크, 블록체인, 애드테크(AdTech) 등이며, 최근 ‘Level 39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170여개의 스타트업이 활동 중인 핀테크 산업에 VC의 투자 집중*

* '17년 런던 내 VC 투자금액의 20%에 해당하는 13억 달러가 핀테크 기술에 집중

- 유니콘(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비상장 스타트업) 다수 배출*

* 영국 유니콘: TransferWise, Funding Circle, Improbable, Delieveroo 등 10개(유럽내 1위)

<2018 유럽 국가별 유니콘 기업 수>



<2018 유럽 국가별 유니콘기업 시장가치>



자료원: 2018. Statista

○ (베를린) 2017년 스타트업 투자액 최고치 경신, 29.7억 유로로서 유럽 2위

- 독일 연방정부의 “Digital Strategy 2025” 정책에 힘입어 독일 내 스타트업 투자건수는 3년 연속 지속 성장세(투자액 기준 유럽2위)

* 투자건수: 419('15) > 484('16) > 507('17), 투자액의 경우 전년대비 88% 성장

- 핀테크,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IoT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에 기반한 혁신 스타트업이 베를린을 중심으로 유입, 전자상거래, 핀테크, 디지털헬스, 소프트웨어, 모빌리티 분야가 VC 투자 주도(Ernst & Young, 2018.1. Startup Barometer Deutschland 발표)*

* 2017년 주요 투자분야 (투자액기준, 유로): 1위: 전자상거래(18.1억) 2위: 핀테크(5.4억), 3위: 디지털헬스(5.2억), 4위: 소프트웨어&빅데이터(2.95억) 5위: 모빌리티(2.94억)

- **(파리)** 2017년 스타트업 투자액 19.7억 유로, 투자 건수로는 베를린을 앞지르며 유럽 2위
 - 2,000~2,600여개의 스타트업이 파리 생태계에서 활동, 정부 주도의 스타트업 이니셔티브, 고학력의 인력자원, 및 양질의 VC 펀드 증가
 - 규제완화, 기술력, 풍부한 자금력을 기반으로 딥테크 기반 유망 스타트업이 급속도로 성장
 - * 파리 창업자의 81%가 석박사 학위 취득자로서 학력 수준이 매우 높은 편
 - * 17년 프랑스 딥테크 스타트업 투자액은 27억 달러(유럽 2위), 투자 건수는 753건(유럽 1위)
 - 교육기술(EduTech), 핀테크(FinTech), 바이오·헬스테크(HealthTech) 등이 빠르게 성장
- **(스톡홀름)** 2017년 기준 전년대비 50% 이상의 투자액 유치, 유럽 4위
 - '16년 북유럽으로 투자된 총 금액의 54%가 스톡홀름으로 유입, M&A를 통한 글로벌 기업의 스타트업 투자도 활발히 진행
 - * '마이크로소프트' Skype(스웨덴) 85억 달러 인수('11), 컴퓨터게임 '마인크래프트' 개발업체 Mojang(스웨덴) 25억 달러 인수('14) 등
 - 우수한 창업환경 속에서 Spotify, Skype, King, Mojang, Klarna 등과 같은 5개의 유니콘 기업이 탄생(시장가치 기준 영국에 이은 유럽 내 2위 규모)

〈유럽 도시별 스타트업 투자금액 현황 '16~'17〉

(단위: 백만 유로)

순위	도시	'16년	'17년	증감율
1	런던	1,461	4,878	234%
2	베를린	1,102	2,968	169%
3	파리	1,507	1,973	31%
4	스톡홀름	199	595	199%
5	룩셈부르크	3	290	9,567%
6	암스테르담	117	281	140%
7	뮌헨	346	278	-20%
8	함부르크	128	233	82%
9	마드리드	67	227	239%
10	더블린	293	193	-34%

자료원: Ernst & Young. 2018. Startup Barometer Europe 2018

□ 스타트업 엑시트(Exit) 시장 동향

- 영국, 독일, 스웨덴 중심으로 M&A형, 기업공개(IPO)형 엑시트 성장세
 - '17년 유럽 스타트업의 엑시트(투자금회수) 규모는 총 760억 달러로 전년의 기록적인 수치(1460억 달러) 대비 하락*
 - * '16년 성사된 ARM(영국), Alcatel-Lucent(프랑스), Supercell(핀란드)등 대형 인수 건이 반영되면서 발생한 기저효과로 분석
 - '17년 610건의 엑시트 중 121건은 스웨덴에서 발생, 전년대비 2배 이상의 빠른 증가율을 보이며 유럽에서 엑시트가 가장 활발한 국가로 부상*
 - * 2위: 독일 (112건), 3위: 영국 (77건), 4위: 프랑스(45건)
 - * '17년 발생한 610건의 EXIT 중 555건이 인수, 36건이 기업공개(IPO), 16건이 합병
 - 기업공개(IPO)를 통한 엑시트도 꾸준히 성장, 1억 달러 이상 규모의 IPO 엑시트 증가 추세

<유럽 M&A형 엑시트 건수 및 규모('12~'1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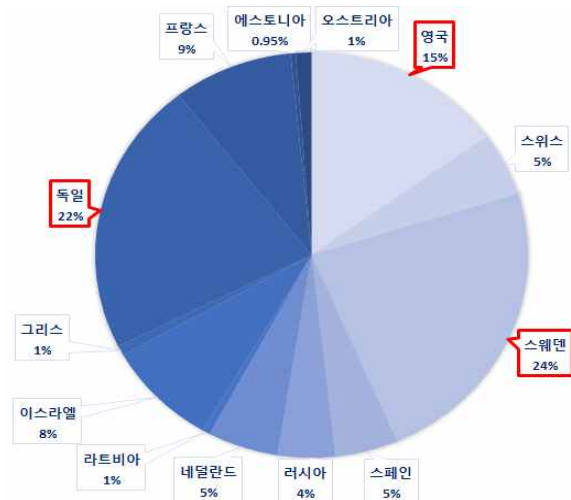
(단위: %)



자료원: ATOMICO. 2017. State of European Tech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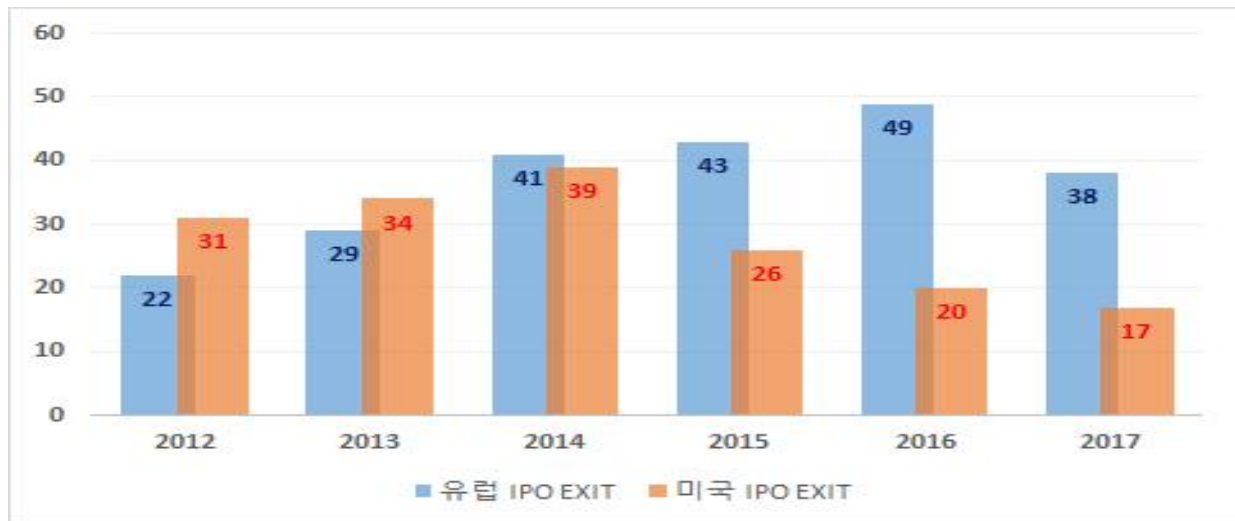
<유럽내 국가별 엑시트 점유율('17)>

(단위: %)



자료원: Techeu. 2017. European Tech Exits Report 2017

<유럽과 미국의 IPO형 엑시트 연도별 추이>



자료원: ATOMIC. 2017. State of European Tech 2017

다. 스타트업의 경제적 기여

□ 고용 창출 기여

- 유럽의 약 29만개 신생 스타트업(5년 이하)이 창출한 고용 규모는 약 110만 명, 870억 유로의 가치에 해당
- '06~' 15년간 디지털경제 분야에서 유럽국가 중 가장 많은 고용을 창출한 국가는 핀란드, 스웨덴, 영국, 네덜란드로서 EU 평균의 8배(EU 집행위)

<유럽 주요 도시별 스타트업 고용창출>

국가	도시명	5년 미만 스타트업(개)	수익 창출액 (백만 유로)	고용 창출규모(명)
영국	런던	161,059	70,300	585,037
	맨체스터	26,641	9,002	85,156
아일랜드	더블린	1,108	2,590	10,830
독일	베를린	55,270	3,110	207,931
	뮌헨	27,581	1,500	104,183
프랑스	파리	3,768	-	20,582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2,468	814	13,153
벨기에	브뤼셀	3,056	1,520	12,262
핀란드	헬싱키	3,258	4.34	37,128
스웨덴	스톡홀름	1,838	8.2	4,627
	말뫼	201	0.1	1,348
덴마크	코펜하겐	394	0.06	294
노르웨이	오슬로	45	-	189

국가	도시명	5년 미만 스타트업(개)	수익 창출액 (백만 유로)	고용 창출규모(명)
스페인	마드리드	1,435	1.1	8,621
이탈리아	로마	43	1.04	50
그리스	아테네	23	0.2	14
오스트리아	비엔나	3,546	1.21	16,804

자료원: EU Commission. 2017. Web Entrepreneurs and Startups Ecosystem Project

□ 예상 경제 효과

- EU 집행위는 스타트업 지원 정책 시행을 통해 매년 25만 여개의 스타트업 일자리 창출 및 유럽 GDP의 9.5%에 해당하는 스타트업의 가치 달성 등 경제 효과 기대(EIYF. European Startup Act, Vision 2020)

<유럽 스타트업의 기대 경제효과>



자료원: EUROPEAN YOUNG INNOVATORS FORUM(EIYF). 2015. European Startup Act, Vision 2020.

2. EU 차원의 스타트업 정책

□ 스타트업 유럽(Startup Europe) 이니셔티브

- 성장동력 창출 및 고용 확대를 목표로 추진 중인 “Entrepreneurship 2020 Action Plan” 의 일환
 - 전문인력, 스타트업, 연구기관, 지역 생태계 간 네트워킹 및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지원이 핵심 과제
- EU 차원에서 제공하는 주요 지원 서비스는 아래와 같음.
 - 법적 자문 제공: ICT 기업인 · 스타트업들과 주요 법률기관의 석박사 과정 학생을 연결시켜주는 iLINC(EU 자금 지원) 운영

- 국제화 지원
 - ① ACE: ICT 기업에게 맞춤형 국제화 프로그램 제공. 100개 스타트업을 선정하여 다른 EU 국가에서 성장하도록 지원
 - ② ATALANTA: 혁신적인 ICT 기업을 멘토·투자자·유럽 내 他지역 기업과 연결해주어 기업의 확장을 촉진
 - ③ GET: e-헬스 분야 기업에 대해 맞춤형으로 잠재적 파트너, 구매자, 관련자 등과의 연결 지원
- ICT 연구자와 기업간 연결 지원
- 스타트업의 정보 접근성 개선(Startup Europe Club One Stop Shop): 지원 프로그램, 네트워킹, 법적 지원, EU 자금 등에 대한 통합 정보제공 사이트¹⁾
- 포상 제도 운영(Tech All Stars): 유럽 내 우수 스타트업을 선정하여 양질의 역내 자금원, 우수 기업인 및 영향력 있는 인사들과 연결

□ 주요 스타트업 지원 펀드

- “Horizon 2020”, “COSME” 등 EU 미래 핵심과제 실현정책과 연계된 초기 창업자를 위한 다양한 펀드기금이 조성되어 있으며, 대부분 EU 역내 설립 기업을 대상으로 함.

① Horizon 2020 연계 SME Instrument

- (개요) EU내 연구·혁신분야 Startup 벤처기업의 발굴과 혁신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14년~'20년간(7년) Horizon 2020의 총예산 중 28억 유로 투입하여 재정 지원(Horizon 2020 기금의 3.6% 해당)
- '18-'20년도 사업예산 총 16억 3천만유로 편성('18년 4억7900만 유로, '19년 5억 5200만 유로, '20년 6억 유로, '15-'16년 대비 총 120% 증액)
- (지원 대상)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지원 가능. 지원기업은 EU 역내 또는 Horizon 2020 협정국에 설립되어 있어야함.
- 중소기업의 기준은 매출액 5천만 유로 미만, 직원 수 250명 미만

1) One Stop Shop. <http://startupeuropeclub.eu/tag/one-stop-shop> (검색일: 2018.10.8).

- **(시행 내용)** 심사를 거쳐 5만 유로에서 최대 250만 유로까지 프로젝트 재정 지원. 그 외에 비즈니스 코칭 프로그램, 워크숍, 네트워킹 기회 제공
- **(시행 절차)** 3단계로 구분하여 시행하며(① proof-of-Concept, ② development & demonstration, ③ go-to-market), 1, 2단계는 공모 대상이나 3단계는 1, 2단계 수혜자에 한하여 별도 공모 없이 수시접수(1, 2단계는 연 4회 공모접수 예정)

<SME Instrument 지원형태>

장려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ME Instrument 1단계) 혁신사업 실현가능성 확인을 위한 비즈니스 보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젝트 당 50,000 유로를 일시불로 지원 ○ (SME Instrument 2단계) 혁신사업 개발과 시연, 연구를 위한 비즈니스 보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만~250만 유로 (제안된 프로젝트 총비용에서 70%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비즈니스 코칭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ME Instrument 1-2단계) 혁신역량강화를 위한 무료 비즈니스 코칭 (최대 15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ME Instrument 1단계 : 3일 지원, SME Instrument 2단계: 12일 지원
네트워킹 기회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ME Instrument 3단계) 상품·서비스가 시장성을 갖추는 단계에서 Enterprise Europe Network* (EEN)를 통한 네트워킹 기회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EN: 중소기업 진흥과 혁신을 위해 EU집행위에서 운영하고 있는 최대 기술 연구협력 네트워크 조직(런던상공회의소, 스위스 연구재단 Euresearch 등 60 여개국, 600여개 기관, 3000여명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

자료원: 코트라 유럽지역본부 조사 작성

② Horizon 2020 연계 InnovFin 펀드

- **(개요)** Horizon 2020과 연계하여 기업 및 연구기관의 자금 지원을 위해 조성된 펀드
- **(지원 형태)** 유럽투자펀드(EIF) 및 중개 금융기관의 주도하에 InnovFin Equity(VC 투자) 및 InnovFin Guarantee(담보 보증) 방식으로 펀딩
 - (InnovFin Equity) 연구혁신에 기초한 초기 스타트업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유럽투자펀드가 VC 및 사모펀드에 최대 500만 유로까지 투자
 - (InnovFin Guarantee) 연구혁신분야에 기초한 중소기업(직원 수 500명 미만)이 대출 금융에 접근 가능하도록 유럽투자펀드에서 담보 보증 지원(2만5천~750만 유로까지 가능)

③ COSME financial Instrument

- (개요) 혁신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14~'20년 간 총예산 23억 유로를 투입한 “COSME Programme”에 근거한 재정지원 펀드(총 예산의 60%인 13억 유로가 COSME 펀드로 조성)
- (지원 형태) 유럽투자펀드와 중개 금융기관의 주도로 담보보증(COSME LG F)과 지분투자(COSME EFG) 두 가지 형태로 투자
 - (COSME LGF) 유럽투자펀드가 중소기업 대출의 리스크를 분담, 중개 금융기관에 담보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은 15만 유로까지 융통 가능
 - (COSME EFG) 유럽투자펀드가 벤처캐피탈 및 사모펀드에 최대 3천만 유로까지 투자, 해당 기관이 투자된 자금의 최소 50% 이상을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에 투자하도록 하여 다양한 자금 접근 기회 제공

<유럽 스타트업 생태계 관련 유용한 정보원>

이름	설명	웹 페이지
The European Digital City Index	유럽 도시별 스타트업 생태계 특징 및 현황 파악가능	https://digitalcityindex.eu/about
Your Europe European Union	EU 집행위 주도 스타트업 펀드 개요 확인 가능	https://europa.eu/youreurope/business/funding-grants/access-to-finance/index_en.htm
Startup Europe Map	EU 스타트업 생태계별 구성원 현황 맵핑	http://www.startupeuropemap.eu/map/
http://startupeuropeclub.eu/REULATION/	스타트업 관련 EU 규정 정리	https://europa.eu/european-union/life-business_en

자료원: 코트라 유럽지역본부 조사 작성

II

유럽 주요 스타트업 생태계 현황과 정책

1. 영국 런던

가. 스타트업 생태계의 위상과 특징

□ (위상) 런던은 2017년 글로벌 도시별 스타트업 생태계 평가에서 실리콘밸리, 뉴욕에 이어 세계 3위를 기록했으며, 유럽 내 1위*

* Startup Genome. 2017. Global Startup Ecosystem Report 2017.(자세한 내용은 1장 참고)

○ 유럽 테크 생태계의 수도

- 약 4,300~5,900개의 스타트업이 런던에서 활동, 그 대부분이 런던 동부의 올드스트리트(Old Street)와 쇼디치(Shoreditch) 지역에 분포

□ (특징·강점) VC·크라우드펀딩·엔젤투자(자본)가 있는 런던 동부 시티 외곽지역(토지)에 예비창업자와 기술자(인력)가 모여들면서 생산의 3요소가 충족된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

<세계금융센터 지수(Global Financial Centres Index)>

순위 (2018)	도시	GFCI지수 (2018)
1	런던	794
2	뉴욕	793
3	홍콩	781
4	싱가포르	765
5	도쿄	749
6	상하이	741

주: 금융전문가에 대한 설문조사와 통계데이터를 기초로 한 도시별 금융서비스 매력도 측정지수

자료원: GFCI, Z/Yen Group. 2018. Global Financial Centers Index

- (자금조달 여건) 런던 시 공식홍보기관인 런던애파트너스(London&Partners)에 따르면, 2017년 영국 테크 분야에 대한 VC 투자는 29.9억 파운드에 사상 최고액을 기록, 전년도 16.3억 파운드보다 약 1.8배 상승
- 런던 테크 산업은 영국 디지털경제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데, 2017년 런던에 위치한 테크 기업들이 유치한 투자액은 총 24.5억 파운드, 영국 전체 투자 유치액의 약 82%를 차지

- 2017년 주요 투자 사례는 임프로버블(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391백만 파운드), 딜리버루(배달앱, 364백만 파운드), 트루폰(모바일 네트워크, 255백만 파운드) 등
- (엑시트 용이성) 2010년부터 2017년간 15,500개사 이상의 스타트업을 추적한 결과, 영국에서는 1,234개의 스타트업이 엑시트(Exit)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8,704개사를 기록한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
- 또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런던에서 567개의 스타트업이 인수되어, 유럽도시들 중 가장 많은 스타트업의 엑시트 기록

<국가 및 유럽도시별 스타트업 인수 현황(2010~17년)>

(단위 : 개사)

순위	국가별	인수된 스타트업 수	순위	유럽도시별	인수된 스타트업 수
1	미국	8,704	1	런던	567
2	영국	1,234	2	파리	165
3	독일	434	3	베를린	124
4	프랑스	321	4	스톡홀름	76
5	네덜란드	186	5	암스테르담	66
6	스웨덴	159	6	더블린	65
7	스페인	131	7	뮌헨	60
8	이탈리아	100	8	마드리드	58
9	아일랜드	98	9	코펜하겐	44
10	스위스	89	10	바르셀로나	43
11	덴마크	85	11	헬싱키	42
12	핀란드	77	12	밀란	34
13	벨기에	65	13	함부르크	33
14	노르웨이	55	14	취리히	30
15	폴란드	37	15	바르샤바	24

자료원: Mind the Bridge. Crunchbase. 2017. *STARTUP M&As 2017 Report*.

- (대외 개방성) 전세계로부터 아이디어(ideas), 자금(money), 조언(advice)이 모여드는 한편,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 연계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 2017년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 리포트(Startup Genome 2017)에서 Market Reach 측면 세계 2위 선정(1위는 실리콘밸리)

□ 스타트업 창업 추이와 대표 스타트업

- 스타트업 창업 추이
 - 영국 기업가 센터(Centre for Entrepreneurs)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약 66만개의 스타트업이 영국에 설립

<영국 스타트업 창업 추이(2014~16년)>

(단위 : 개사)

2014년	2015년	2016년					
전체	전체	전체	런던	버밍엄	맨체스터	글라스고	리즈
581,173	608,110	657,790	205,325	17,473	9,416	7,845	7,645

자료원: 영국 기업가 센터(Centre for Entrepreneurs)

○ 대표 스타트업

- ① **트랜스퍼와이즈(Transferwise)** : 2010년 설립 이후 핀테크(P2P) 분야에서 영국을 대표하는 가장 성공한 대표기업으로 성장
- 송금 혹은 환전이 필요한 이용자들을 서로 매칭, 각각 필요한 금액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기존 은행에 지불해야 했던 수수료 절감
 - 세계 59개국에서 매월 약 백만 명의 고객이 총 10억 파운드에 달하는 금액을 송금
- ② **스카이스캐너(Skyscanner)** : 2003년 스코틀랜드에서 시작한 항공권 가격비교 검색엔진, 웹사이트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서비스 제공
- 숙박·자동차 렌트 등 여행 전반에 관한 가격비교로 서비스 확대
 - 30여개 언어, 70개 이상의 통화로 서비스 이용 가능, 월 방문자수 6천만 회, 2017년 매출 2억 1,420만 파운드에 이르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
 - 2016년 중국 기업 Ctrip이 17억 달러에 인수

<영국의 대표 스타트업>

기업명	분야	비고
Funding Circle	핀테크	개인간(P2P) 신용대출 플랫폼
Oak North Bank		스타트업 대출
Farfetch	전자상거래	명품의류 온라인 쇼핑몰
Global Switch	컴퓨터 하드웨어	컴퓨터 빅데이터 센터 운영
Improbable	가상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개발
City Mapper	모바일앱	실시간 대중교통 네비게이션앱

자료원: 코트라 런던무역관 조사 작성

나. 주요 창업 클러스터

□ 테크 네이션(Tech Nation)

○ 연혁

- (2010)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런던 동부지역에 미국 실리콘 밸리와 같은 테크 시티(Tech City) 조성 지원계획 발표
- (2011) 테크 시티 지역의 기업들과 예비창업가들을 위한 비즈니스 생태계 지원을 목표로 TCIO(Tech City Investment Organisation*) 설립

*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는 비영리기관으로 시작, 2014년 Tech City UK로 기관명 변경

- (2015) 테크 시티를 영국 북부로 확산시키고자 Tech City UK의 일부로서 테크 노스(Tech North) 설립
- (2018) Tech City UK와 테크 노스를 합병한 現 테크 네이션(Tech Nation)이 영국내 스타트업 클러스터 지원

○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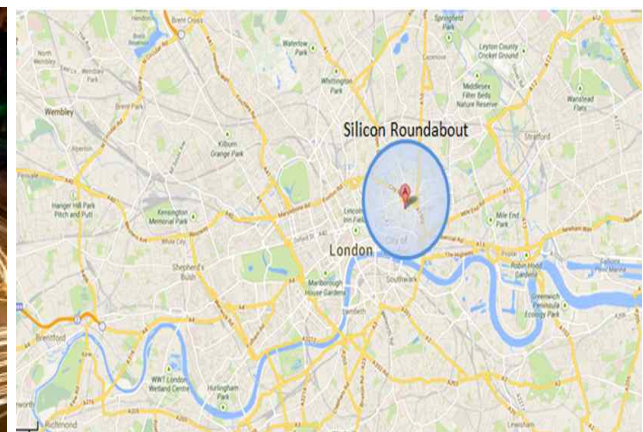
- 런던 테크 시티는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영국의 로터리를 지칭하는 ‘라운드어바웃’이 합쳐져, 실리콘 라운드어바웃(Silicon Roundabout)이라고도 불림.
- 런던 동부 시티지역(금융가) 외곽에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저(低)지가 지역이었던 쇼디치, 올드 스트리트를 중심으로, 테크 기업들과 예비창업자, 기술개발자들이 모여면서 자생적 클러스터 형성

<실리콘 라운드어바웃>



자료원: Guardian

<런던 동쪽 테크 시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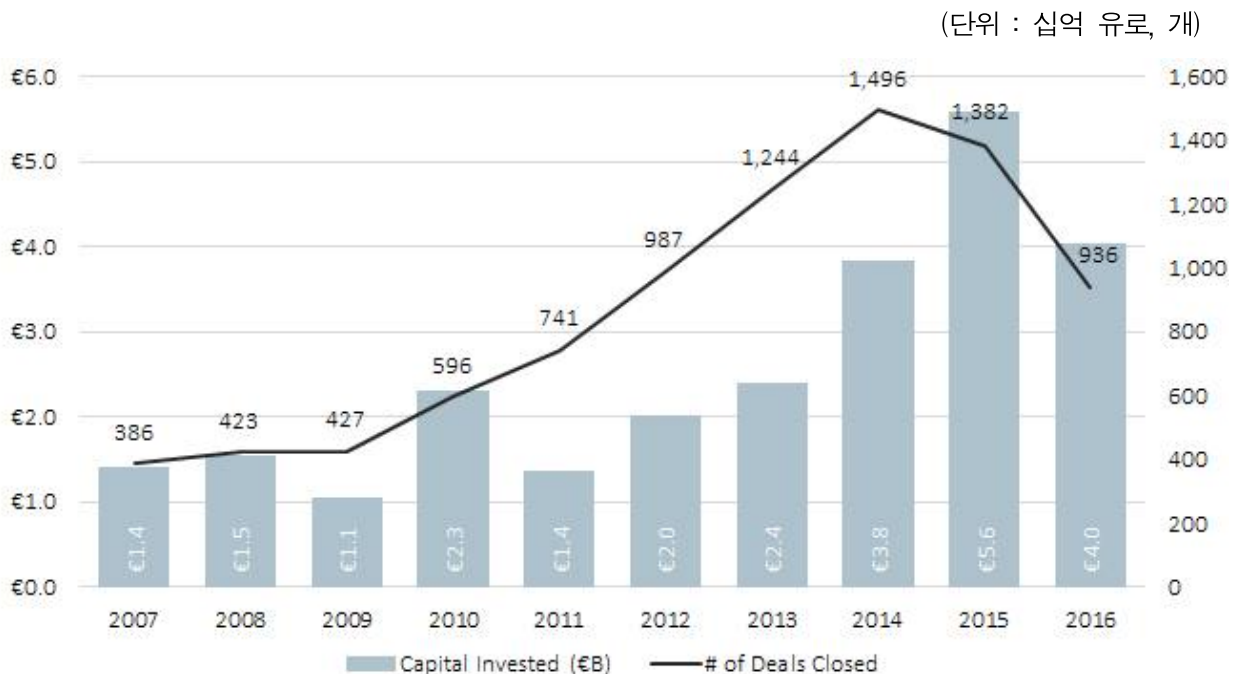
자료원: Google Map

다. VC 현황

□ 투자 규모

- (투자액) 지난 10년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2015년 기준 총 56억 유로를 투자, 2016년에는 약 16억 유로가 감소한 40억 유로 기록
- (거래 수) 2016년 기준 영국의 VC투자 거래 수(Deal Closed)는 총 936건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15년 1,382건 대비 약 32% 감소한 수치로서 브렉시트 국민투표 가결 등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영국 VC 활동(2010~16년) >



자료원: PitchBook, 2016. European Venture Report 2016

□ 주요 투자 업종

- (투자액) 2016년 기준 소프트웨어 13.3억 유로, 제약·바이오테크 5.6억 유로, 소비재·레크리에이션 4.9억 유로 순으로 나타남.
- (거래 수) 2016년 거래(Deal) 수는 투자액과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 분야가 426건으로 가장 높은 수치 기록

< 분야별 영국 VC 투자액 및 거래수(2010~16년)>

(단위 : 백만 유로, 개)

분야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상업서비스 (Commercial Service)	투자액	60.12	116.30	215.65	204.49	225.96	268.35	234.77
	거래수	80	88	124	137	162	134	99
소비재·레크레이션 (CS·Recreation)	투자액	105.42	61.46	183.12	116.99	227.98	548.30	492.05
	거래수	30	33	66	77	92	98	39
에너지 (Energy)	투자액	111.15	110.47	90.92	262.03	48.35	127.33	131.72
	거래수	39	32	40	47	37	28	17
IT 하드웨어 (IT Hardware)	투자액	1,046.74	131.92	125.27	213.19	268.97	567.25	240.06
	거래수	32	30	39	48	45	26	31
미디어 (Media)	투자액	65.97	32.15	109.02	40.33	191.48	242.56	78.79
	거래수	19	46	67	72	70	72	39
소프트웨어 (Software)	투자액	229.91	195.33	465.76	521.93	1,115.21	1,590.45	1,328.99
	거래수	157	206	304	451	606	560	426
기타 (Other)	투자액	335.89	326.41	473.01	628.72	1,115.54	1,146.27	749.95
	거래수	112	154	196	251	321	321	182
헬스케어 기기·제품 (HC Device&Supplies)	투자액	84.30	136.13	78.57	93.24	183.47	114.64	65.65
	거래수	48	58	53	57	67	40	27
제약·바이오테크 (Pharma&Biotech)	투자액	169.65	207.31	272.20	256.82	402.38	870.72	559.01
	거래수	64	73	73	75	60	63	50
헬스케어 서비스·시스템 (HC Services&Systems)	투자액	96.03	52.06	12.73	71.55	54.99	120.20	162.18
	거래수	15	21	22	29	36	40	26

자료원: PitchBook. 2016. European Venture Report 2016

<영국 스타트업의 주요 VC 거래(2017년 4분기 기준)>

투자유치 기업명	본사	단계 (시리즈)	거래일자	거래규모 (백만 유로)
딜리버루 (Deliveroo)	런던	Series F	2017.11.17	417.5
트루폰 (TruPhone)	런던	Late Stage	2017.10.3	286.3
트랜스퍼와이즈 (TransferWise)	런던	Series E	2017.11.1	238.7
오크노스 (OakNorth)	런던	Late Stage	2017.10.12	172.9
잉크팩토리 (The Ink Factory)	런던	Late Stage	2017.11.16	153.4
오차드 세라퓨틱스 (Orchard Therapeutics)	런던	Series B	2017.12.20	96.3
시크릿 이스케이프스 (Secret Escapes)	런던	Series D	2016.10.5	93.1

자료원: PitchBook. 2017. European Venture Report 2017

□ 주요 VC

회사명	Octopus Ventures
주소	33 Holborn, London EC1N 2HT
전화번호	+44 (0)80 0294 6831
연락처	hello@octopusventures.com
웹사이트	https://octopusventures.com/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 형태 : 임팩트(사회 환경적 임팩트) 투자, 금융 · 최근 투자 : 166개 · 투자회수(Exits) : 기업공개(IPO) 4건, 합병 18건 · 투자 규모 : 20만~2,500만 파운드 · 본사 : 런던
전문분야	모바일,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 보안, 창업 소프트웨어, IT 인프라, 미디어, 헬스케어, 소비재

회사명	Local Globe
주소	23 Tileyard Studios, London N7 9AH
전화번호	+44 (0)75 4149 2651
연락처	emma@localglobe.vc
웹사이트	https://localglobe.vc/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 형태 : 임팩트(사회 환경적 임팩트) 투자, 성장초기(Seed) 단계 투자 · 최근 투자 : 135개 · 본사 : 런던
전문분야	임팩트(사회 환경적 임팩트) 투자,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

회사명	Index Ventures
주소	3 Burlington Gardens, London, W1S 3EP
전화번호	+44 (0)20 7154 2020
연락처	sally@indexventures.com
웹사이트	www.indexventures.com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 형태 : 성장초기(Seed) 단계 투자, 초기 단계(Early stage) 벤처, 후기 단계(Later stage), 사모펀드(PE) 투자 · 최근 투자 : 568개 · 본사 : 제네바
전문분야	소비자를 위한 인터넷, 모바일, 창업 테크

회사명	Balderton Capital
주소	The Stables, 28 Britannia street, London WC1X 9JF
전화번호	+44 (0)20 7016 6800
연락처	abrownhill@balderton.com
웹사이트	www.balderton.com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 형태 : 성장초기(Seed) 단계 투자, 초기 단계(Early stage) 벤처, 후기 단계(Later stage), 사모펀드(PE) 투자, 채권 금융 · 최근 투자 : 203개 · 투자회수(Exits) : 기업공개(IPO) 4건, 합병 30건 · 투자 규모 : 100만~2,500만 파운드 · 본사 : 런던
전문분야	모바일, 소프트웨어, 핀테크, 웹사이트, 헬스케어, 전자상거래, 게임

회사명	Dawn Capital
주소	39 St Jame's Place, London, SW1A 1NS
전화번호	+44 (0)20 7529 5845
연락처	haakon@dawncapital.co.uk
웹사이트	www.dawncapital.co.uk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 형태 : 벤처캐피탈 · 최근 투자 : 24개 · 투자회수(Exits) : 10건 · 본사 : 런던
전문분야	테크, 핀테크, B2B 소프트웨어

회사명	Accel
주소	6th floor 1 New Burlington Place, London, W1S 2HR
전화번호	44 020 7170 1000
연락처	jbiggs@accel.com
웹사이트	www.accel.com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 형태 : 벤처캐피탈, 성장초기(Seed) 단계 투자, 초기 및 성장 단계(Early and growth stage) 투자 · 최근 투자 : 388개 · 본사 : 캘리포니아
전문분야	IT, 사이버 보안, 인터넷 인프라

회사명	Atomico
주소	50 New Bond Street, London, W1S 1BJ
전화번호	44 020 7499 1093
연락처	andrew@atomico.com
웹사이트	https://www.atomico.com/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 형태 : 벤처캐피탈, 성장초기(Seed) 단계 투자, 초기 및 후기 단계(Early and Later stage) 투자, 사모펀드(PE) 투자 · 최근 투자 : 90개 · 투자회수(Exits) : 합병 20건 · 본사 : 런던
전문분야	Curated Web, 모바일, 전자상거래

회사명	MMC Ventures
주소	3rd Floor, 2 Kensington Square, London, W8 5EP
전화번호	+44 (0)20 7938 2220
연락처	enquiries@mmcventures.com
웹사이트	www.mmcventures.com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 형태 : बैं킹, 금융, 벤처캐피탈 · 최근 투자 : 63개 · 투자회수(Exits) : 합병 7건 · 투자 규모 : 50만 ~ 500만 파운드 · 본사 : 런던
전문분야	창업 소프트웨어, 핀테크, 전자상거래, marketplaces, 디지털 미디어

회사명	Amadeus
주소	4 th Floor, 130 Jermyn Street, London, SW1Y 4UR
전화번호	+44 (0)33 0024 0777
연락처	cdickinson@amadeuscapital.com
웹사이트	www.amadeuscapital.com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 형태: 엔젤 투자, 금융 서비스, 벤처캐피탈, 사모펀드(PE) 투자 · 최근 투자: 142개 · 투자회수(Exits): 기업공개(IPO) 2건, 합병 24개 · 본사: 런던
전문분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웹 호스팅,

자료원: Barclays. 2017. Venture Capital in the UK.

라. 주요 액셀러레이터

□ Seedcamp

- (개요) 런던 구글 캠퍼스 내에 위치한 액셀러레이터로 2007년 설립된 이래 현재까지 약 235개 기업 지원
 - 특정 분야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을 지원하며 특히 초기단계(Early Stage)의 기업 대상
 - 파트너 기업으로는 Silicon Valley Bank, Paypal, Google, Amazon 등이 있음.
- (프로그램) 기간은 별도로 정해져있지 않으며, 자금 지원에서부터 작업 공간 제공, 네트워킹, 멘토링 등의 활동 지원

□ Level 39

- (개요) 2013년 런던 금융 중심지인 카나리 워프의 원 캐나다 스퀘어 빌딩 39층에 설립된 핀테크 전문 액셀러레이터
 - 최근에는 핀테크 외에도 사이버보안, 유통, 스마트 시티 등 최신 디지털 분야의 스타트업 지원
- (프로그램) 매월 최소 400 파운드 이상을 지불해야하는 유료 멤버십 프로그램 운영
 - 멤버십 종류별로 작업 공간 대여, 멘토링 등 차등적인 서비스 제공
 - 현재 약 200개에 달하는 스타트업을 회원사로 두고 있음.

□ Techstars

- (개요) 2006년 설립된 글로벌 액셀러레이터로 세계 150개국에서 1,503개의 기업을 보육했으며 매년 3백여 개의 기업을 선정해 프로그램 운영
 - Techstars London은 매년 전세계에서 약 10개 기업을 선정, ‘Techstars London Accelerator Class’ 운영
 - Barclays와 협력하여 13주간의 핀테크 기업 전문 육성프로그램인 Barclays Accelerator 프로그램 운영
- (프로그램) 3개월간 멘토링 서비스, 작업 공간 제공

- 기술 기반 기업이면 설립 초기이든, 성숙기이든 상관없이 지원 가능하나 1인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
- 프로그램에 선정된 기업에게는 생활지원금 및 투자금으로서 최대 30만 달러가 지급되며, 이 외에 법률 및 회계지원, 네트워킹 서비스 등 제공
- 프로그램의 최종 단계에서 투자가를 대상으로 한 Demo Day를 개최해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추가적인 펀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 마련

마. 지원정책

□ 정부 차원의 미래 산업 육성전략

- 영국정부는 2017년 11월 미래 산업전략을 담은 백서 공개
 - 미국, 독일 등 경쟁국 대비 낮은 생산성이 영국 경제의 문제점으로 지적
 - 영국 전역에서 생산성과 수익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미래 경제구축을 위해 5대 기초(Five Foundations) 비전과 4대 도전과제(Grand Challenges) 설정

<영국의 미래 산업전략 백서의 주요 내용>

생산성 향상을 위한 5가지 기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경제 - (인적자원) 모든 국민을 위한 양질의 직업 창출과 수익성 확대 - (인프라) 영국 주요 인프라 업그레이드 - (기업환경) 사업을 시작하고 성장시키는 최적의 환경 조성 - (지역) 영국 전역의 균형발전
미래 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4대 도전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공지능과 데이터 혁신에 선두를 점하는 영국 - 청정 성장의 강점을 극대화하는 영국 산업 - 인력, 재화, 서비스의 이동수단 개발에 앞장서는 영국 - 혁신으로 고령화 사회의 수요를 감당하는 영국

자료원: HM Government. 2017. Industrial Strategy: Building a Britain fit for the future.

□ 지원제도

<테크 네이션 비자(Tech Nation Visa) 발급>

- 명칭 : Tier 1 Exceptional Talent Visa (for digital technology)
- 대상 : 디지털기술 분야에서 ‘우수한 재능(exceptional talent)’을 가졌다고 평가받는 리더(recognised leader) 혹은 ‘특별한 가능성(exceptional promise)’

을 지니고 있는 차세대 리더(emerging leader)

- 체류 유효기간

- 영국 이외 지역에서 신청 시 : 5년 4개월
- 영국 내에서 신청 시 : 5년
- 추가 5년 갱신 신청 가능

- 신청절차

- 1단계, 승인신청: 우수한 재능을 지닌 리더 혹은 차세대 리더로서, 해당 비자의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 이민국(Home Office)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테크 네이션(Tech Nation)에서 평가(약 8주 소요, 신청비용 456파운드)
- 2단계, 비자신청: 1단계 자격이 통과되면 해당 승인레터와 더불어 3개월 내 이민국으로 비자 신청(영국 외에서 신청 시 약 3주, 영국 내에서 신청 시 약 8주 소요, 신청비용 152파운드)

<테크 네이션(Tech Nation)의 성장 프로그램(Growth Programmes)>

① 창업 초기 단계(Early Stage) : 창업자 네트워크(Founder's Network)

- 지원내용 : 창업 초기 단계의 창업자들을 위해, 전문가 및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 창업자들과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Peer-to-Peer 방식의 무료 네트워킹 프로그램 지원
- 참여자격 : 테크 분야 창업자이며, 시장에서 고객들이 실제 사용하는 제품이 있어야 함.

② 창업 중간 단계(Mid Stage) : 업스케일(Upscale) 프로그램

- 지원내용 : 규모를 확대하고 회사 문화를 유지해나가는데 지원이 필요한 창업가들을 위해 워크숍과 밋업(Meetups) 등 무료 6개월 멘토링 코칭 제공
 - 2017년 기준 33개 기업이 업스케일 프로그램 참여기업으로 선정
 - 2017년에는 캔드크러쉬(Candy Crush) 설립자인 리카르도 자코니(Riccardo Zacconi), Lastminute.com 설립자인 마사 레인 폭스(Martha Lane Fox)와 브렌트 호버맨(Brent Hoberman), FanDuel 창업자인 레슬리 에클스(Lesley Eccles), Just Eat 창업자인 데이비드 버트레스(David Buttress)가 멘토로 참여

- 참여자격 : 시리즈 A(이와 비슷한) 혹은 50만 달러 규모의 수익창출 기업
- ③ 창업 마무리 단계(Late Stage) : 퓨처 50(Future Fifty) 프로그램
 - 지원내용 : 유망한 50대 창업기업을 선정, 투자유치 · 해외사업확장 · M&A · IPO 등과 관련된 전문가 및 기업과의 네트워크 구축 지원
 - 지난 5년간 퓨처 50에 선발된 기업들이 유치한 투자액은 약 55억 불 규모이며, 런던증권거래소 기업공개는 5건, M&A는 26건 진행
 - 스카이스캐너(Skyscanner), 스위프트키(SwiftKey), 저스트 잇(Just Eat), 주플라(Zoopla) 등이 졸업기업
- 참여자격
 - 지난 12개월간 창출 수익 500만 파운드 이상
 - 지난 2년간 연간 기업성장률 30%
 - 영국에 본사(headquarter)가 있어야 함.

바. 주요 스타트업 컨퍼런스

TECHDAY (TECHDAY LONDON)

□ 행사개요

- 개최일자 : 2018.10.26
- 개최장소 : Old Billingsgate, London (미국 뉴욕, LA에서도 개최)
- 행사규모 : 참관객 7,000명, 스타트업 200개사 참여
- 홈페이지 : <https://techdayhq.com/london>

□ 프로그램

- ① 부스 전시 : 200여개의 스타트업이 개별 부스를 통한 홍보 진행
- ② 제품 시연 : 언론 및 투자가들을 대상으로 한 신제품 시연
- ③ 토론 : 업계 전문가들과 함께 격식 없는 대화 및 토론 진행
- ④ 피칭 연습 : 전시에 앞서 멘토링 세션을 갖고 실제 전시에 대비

<Techday London 이외 영국의 주요 스타트업 행사>

행사명	개요	프로그램	특징	웹 페이지
Startup Grind Europ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최시기 : 2018년 6월 13일, 2019년 미정 · 개최장소 : Cenral Hall Westminster, London · 규모 : (전 세계 기준) 참관객수 100만명 * 전 세계 120개 국가 400개 도시에 서 행사가 열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 - 피칭 - 피칭 교육 - 네트워킹 - 연사 ○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인 20명 미만 - 펀딩 300만 파운드 미만 - 참가비용 995파운드 지불(4인) 	구글 창업팀(Google for Entrepreneurs)과 오라클(Oracle)이 지원하는 행사	https://www.startupgrind.com
Unbound Lond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최시기 : 2018년 7월 18-19일, 2019년 미정 · 개최장소 : Old Truman Brewery, London · 규모 : 참관객수 5,000명, 연사 75명, 참가 스타트업 100개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 창업자 행사(Female Founders challenge) - 네트워킹 (Urban Experience) - 영국 Regulatory Hosting Services 기업과 네트워킹 (Met Facilities lunch) - 사무공간 대여 기회 제공 (Breather: Win a Workspace) 	바레인, 마이애미(미국), 싱가포르에서도 개최	https://unbound.live/London-2018

자료원 : 코트라 런던무역관 조사 작성

사. 스타트업 성공 사례

1) 딜리버루(Deliveroo)

	
기업명	딜리버루(Deliveroo)
설립연도	2013년 8월
거점	영국, 런던
업종 및 품목	음식 배달 앱
기업가치	10억 파운드
해외진출 현황	아일랜드,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스페인, 독일, 호주, 홍콩, 싱가포르, 두바이
직원 수	약 13,000명
주요 성과	2017년 대규모 투자유치 성공 사례기업(364백만 파운드)

□ 성장과정과 성과

○ 창업 동기·배경

- 중국계 미국인 창업자 윌리엄 슈(William Shu)는 레스토랑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지역식당의 좋은 음식들을 직접 가져다 줄 수 있는 배달앱 착안

○ 성장 계기

- 2013년 8월 딜리버루를 창업, 런던 첼시지역의 2개의 레스토랑 배달부터 시작, 2014년 6월에는 450만 달러 시리즈 A 투자 유치
- 영국 전역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면서, 2015년 1월 2,500만 달러 시리즈 B, 2015년 7월 7,000만 달러, 2015년 11월 1억 달러 시리즈 D 자금조달

○ 사업 규모·해외진출

- 12개국 84개 도시의 만여 개의 레스토랑과 계약을 맺고 배달서비스 제공

□ 성공요인

○ 기술 또는 비즈니스 모델의 특징

- 테이크아웃이나 배달을 하지 않는 고급식당과 계약을 맺어 소비자와 연결해주는 것이 특징. 주로 자전거·오토바이를 통해 음식을 집까지 배달
- 소비자의 삶을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간단한 혁신을 발견하고, 실제로 이행한다는 비즈니스 모델로 투자자에게 어필


○ 시장 수요

- 시장조사기업 NPD 그룹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영국의 테이크아웃 배달 시장은 24억 파운드 규모에서 2018년 2월까지 42억 파운드로 약 73% 성장
- 딜리버루(Deliveroo), 저스트 잇(Just Eat), 우버 잇츠(UberEATS)와 같은 모바일·온라인 기반 배달 플랫폼들이 해당 시장 성장 견인

□ 성과

- 2013년 창업 이후 기업가치가 10억 달러가 넘는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
- 13,000명 이상의 정직원(Full-time)과 자영업(self-employed) 기준으로 약 2만 명 이상의 배달원(Rider)과 계약 체결

2) The Dots

 The Dots	
기업명	The Dots
설립연도	2014년 9월
거점	영국, 런던
업종 및 품목	온라인 구인 사이트
기업가치	150만 파운드
해외진출 현황	-
직원 수	11명

□ 성장과정과 성과

○ 창업 동기·배경

- 창업자인 피프 제이미슨(Pip Jamieson)은 음악방송인 MTV 마케팅 책임자로 근무할 당시, 창조적인 인재와 서비스 제공업체를 찾는데 어려움을 느꼈다.
- 독창적인 개인 브랜드를 홍보하고, 공동 작업자를 찾고, 프리랜서들은 구인구직 등을 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창업

○ 성장 계기

- 이력서 위주의 구인구직 사이트가 아닌 창의적인 프로젝트 혹은 포토폴리오를 올릴 수 있도록 구성. 노칼라(No Collar)의 전문직종·프리랜서 공략
- 2017년 말 피칭을 통해 엔젤투자자들로부터 약 4백만 파운드의 투자 유치

○ 사업 규모·해외진출

- 약 30만 명의 회원을 보유, BBC·Google·Burberry·Sony Pictures·Viacom 등을 고객사로 두고 있음.
- 회원의 30%가 영국 외 지역에서 활동, 유럽과 미국시장 진출도 계획 중

□ 성공요인

○ 기술 또는 비즈니스 모델의 특징

- 창조산업에 종사하는 프리랜서 혹은 전문가들은 일반 기업 분야 종사자들과는 다른 네트워킹 선호도와 니즈가 있음에 착안

- 온라인 플랫폼 가입을 통해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네트워킹뿐만 아니라 자신만의 브랜드와 포트폴리오를 선보일 수 있고 상업적인 기회(직장·협업자·작업공간·고객 등)를 연결해줄 수 있도록 설계
- 개인과 기업의 가입 및 프로필 설정은 무료, 수익구조는 사용자들이 유료로 헤드헌팅 기능을 활용하거나 광고 게재 시 발생

○ 시장 수요

- 영국의 창조산업(creative industry)의 부가가치총액은 870억 파운드 규모로 영국 경제의 5% 이상을 구성하고 있고, 2~3백만 명 이상이 종사
- 피프 제이미슨(Pip Jamieson) 또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영국의 창조산업의 성장과 해당 시장의 가능성이 'The Dots'의 창업 계기라 밝힘.

□ (성과) 현지 고용 창출

- 2014년 설립 이래 약 30만 명 이상이 회원으로 등록, 이는 영국 창조산업 일자리(200~300만 개)의 약 10%에 해당
- BBC, M&C Saatchi, 버버리, 구글, Tate 등 약 8,000개 이상의 고객이 활용

<영국의 그 밖의 주요 스타트업>

분야	기업명	주요 내용
인공지능 미디어	Signal Medi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시간, 무제한으로 미디어를 모니터링 해주는 서비스 제공 ▶ AI기술을 활용하여 영국 및 전 세계의 뉴스, 방송, 온라인 정보를 수집, 미디어 모니터링 솔루션 및 실시간 번역 제공 ▶ 2018년 6월 1,600만 달러의 시리즈 B 펀딩 유치 마감
디지털 미디어	Mixclou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세계 라디오를 들을 수 있는 디지털 오디오 스트리밍 플랫폼 ▶ 백만명이 넘는 사용자가 라디오쇼, DJ믹스, 팟캐스트의 큐레이터로 활동 ▶ 2018년 4월 WindrCo Invets로부터 1,150만 달러의 투자 유치

자료원: 코트라 런던무역관 조사 작성

아. 협력방안

□ 현지 네트워킹을 통한 영국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이해 필요

- 영국은 네트워킹을 중시하는 문화로, VC, 파트너, 전문가, 유사직종 창업

가들과의 교류를 통해 사업 아이디어를 개발·확대해 나가는 특징이 있음.

- 2016년 국내 7개 핀테크 기업이 Level 39에 입주(아시아경제, 2017 보도)

- 유럽 주요 스타트업 행사에 참가하거나 런던 테크 시티에서 개최되는 소규모 피칭에 참여하여 현지 생태계를 이해하고, 네트워킹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중요

□ 글로벌 기업과 연계된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활용

- 영국에서는 최근 액셀러레이터 전문기업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 및 주요 은행들도* 자체적으로 혹은 전문 액셀러레이터 기업과 협력하여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추세

* Barclays, Natwest, HSBC, Unilever 등

- ① 창업 아이디어가 산업 분야·품목에 맞는지, ② 액셀러레이팅 기간 중 지원내역, ③ 액셀러레이팅 보육 이후 지원사항 등에 대한 전반적 고려 필요

□ 합법적으로 체류 가능한 영국 비자 발급 필요

- (Tier 1 Exceptional Talent Visa) 테크네이션 비자라고도 불리는 해당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총 2단계(승인, 비자신청)과정을 통과해야함.
- (Tier 1 Entrepreneur Visa) 영국에서 회사를 설립하거나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비자로, 최소 5만 파운드의 투자금을 받은 경우 신청 가능
- 영국정부 또는 승인된 VC 및 액셀러레이터(endorsed seed competition*)로부터 최소 5만 파운드 이상 투자를 유치한 경우 비자신청 가능

* TechStars London, Oxygen Accelerator, Seedcamp, Wayra, Collider, Entrepreneur First, Emerge Education Accelerator, StartPlanet NI, Pi Labs, Founders Factory, Deep Science Ventures, Zinc

자. 유용한 정보원

이름	설명	웹 페이지/(가능할 경우) 연락처
Tech Nation	영국 스타트업 생태계 지원기관	- 웹 페이지 : https://technation.io/ - 대표메일 : info@technation.io
Crunchbase	스타트업 기업정보 DB	- 웹 페이지 : https://www.crunchbase.com/

자료원: 코트라 런던 무역관 조사 작성

2. 프랑스 파리

가. 스타트업 생태계의 위상과 특징

□ (위상) 파리는 스타트업 설립 관련 유럽인이 가장 선호하는 도시 중 하나

- 유럽인들은 스타트업 설립 시 런던, 베를린에 이어 파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파리는 최근 순위가 9계단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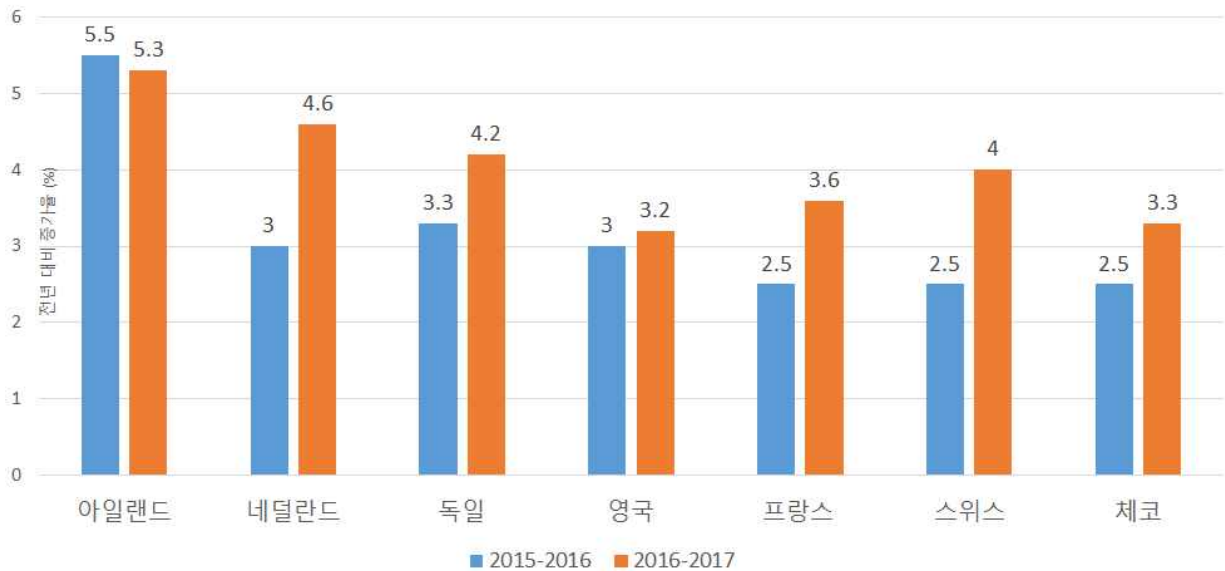
<유럽 창업자들이 선호하는 도시(2017년)>

순위	도시	2016년 대비 순위 변화
1	런던	1
2	베를린	-1
3	바르셀로나	1
4	파리	9
5	암스테르담	-2
6	더블린	0
7	스톡홀름	1
8	리스본	-3
9	뮌헨	-1
10	밀라노	15

자료원 : European Startup Initiative. 2017. Startup Heatmap Europe 2017

- 프랑스는 최근 높은 스타트업 관련 기술 인력 증가율 기록
 - 2017년, 2016년 각각 전년 대비 3.6%와 2.5%의 높은 스타트업 관련 기술 인력 증가율 기록
 - * 2015~17년간 유럽 국가 중 프랑스 (+1.1%), 네덜란드 (+1.6%), 스위스 (+1.5%)가 높은 스타트업 기술 인력 증가율 시현
- 2017년 기준 프로그램 개발자 수는 467,454명으로서 독일(837,398명)과 영국(813,500명)에 이어 유럽 최상위권
 - 파리(181,659명)는 2017년 기준 유럽 주요 도시들 중 프로그램 개발자 수가 런던(303,594명)에 이어 2위
 - 프로그램 개발자는 런던(37.3%)과 같이 수도 파리(38.9%)에 집중
- 스타트업 관련 세계 수준의 인력 보유
 - HEC Paris와 INSEAD 등 교육기관은 우수한 벤처랩, 액셀러레이터, 투자자 네트워크 보유

<유럽 내 스타트업 기술인력 증가율 상위 7개국>



자료원: Atomico. 2017. The State of European Tech 2017

<유럽 내 프로그램 개발자 수>

순위	국가	인원 (명)
1	독일	837 398
2	영국	813 500
3	프랑스	467 454
4	러시아	368 291
5	네덜란드	310 048
6	이탈리아	292 586
7	스페인	268 149
8	폴란드	254 682
9	스웨덴	175 794
10	우크라이나	172 2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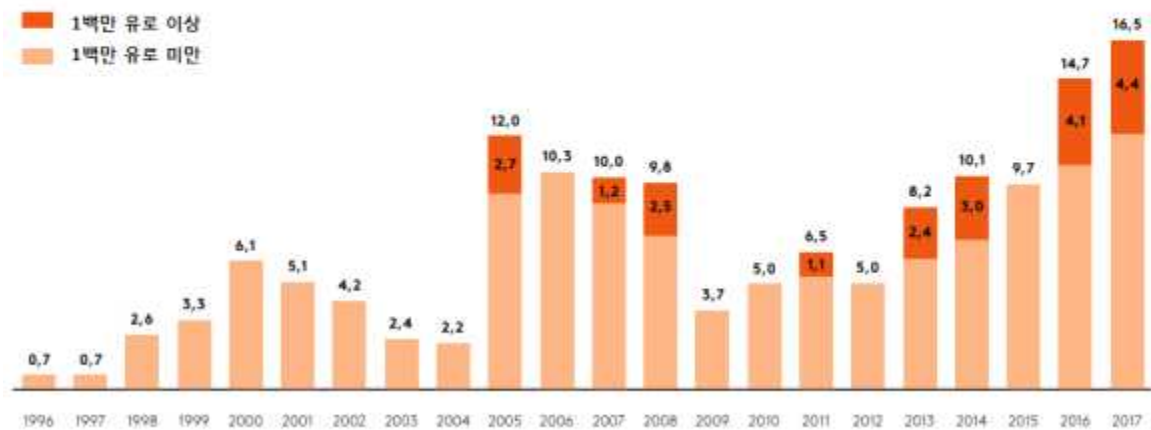
자료원: Stack Overflow.

□ 특징 및 강점

- (자금조달 여건) 안정적인 자금조달 환경
 - 프랑스투자펀드사협회(France Invest)에 따르면, 2017년 프랑스 기업이 조달한 자금 규모는 165억 유로로, 전년 대비 13% 증가
 - 2013년 82억 유로 대비 5년 사이 2배 증가

<프랑스 기업에 대한 자금출자규모 추이(1996~2017)>

(단위: 십억 유로)



자료원: France Invest. 2018.3 .Grant Thornton

- 2017년 자금 출처는 63%인 104억 유로가 프랑스, 36억 유로가 유럽국가, 기타 25억 유로는 비유럽으로서 자국 내 탄탄한 자금조달 환경 보유
- 투자자 유형별로는 VC가 39억 유로의 규모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이 중 50% 이상은 외국 VC로부터의 투자로서, 국내외 투자가 활성화
- 정부정책 및 투자환경 변화에 따라 VC(40%), 공공분야(49%), 산업분야(177%)의 투자규모가 전년대비 크게 상승

<프랑스 기업에 대한 투자자 유형별 자금출자규모>

(단위: 백만 유로, 전년대비 증가율)



자료원: France Invest. 2018.3 .Grant Thornton

- **(엑시트의 용이성)** ' 17년 유럽 내 스타트업 엑시트 규모는 총 760억 달러로서, 프랑스는 약 9%를 차지(Tech.eu. European Tech Exits Report 2017)
 - 같은 해 유럽 내 총 610건의 엑시트 가운데 프랑스에서 45건이 성사*
 - * 1위: 스웨덴(121건), 2위: 독일(112건), 3위: 영국(77건), 4위: 프랑스(45건)
 - 헬스케어, 영상분석, 전자상거래 분야 등의 신기술을 보유한 프랑스 스타트업들이 해외 기업에 인수되고 있음.
 - 단, 최근 프랑스 정부는 자국 혁신기업 M&A 규정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스타트업 진출 시 유의할 필요*
 - * 프랑스 정부는 '18년 6월 제출한 <중소기업의 성장 및 전환 위한 행동계획(PACTE)> 법안을 통해 외국인의 프랑스 투자 사전승인 절차(IEF)를 강화하고, 보호 대상 분야를 반도체생산, 우주, 드론, 국가안보 관련 AI, 사이버보안, 로봇산업 및 빅 데이터 등으로 확대할 계획

<해외 기업에 인수 된 프랑스 주요 스타트업 리스트>

기업명	설립 연도	분야	인수업체	인수연도	M&A 액수 (백만 유로)	인수업체 국적
Zenly	2015	Mobile app	Snap Inc	2017	213	미국
Teads	2011	비디오 광고	Altice	2017	300	네덜란드
Regaind	2015	영상 분석	Apple	2017	N/A	미국
Trophos	1998	Biotech	Roche	2015	470	스위스
Capitaine Train	2009	교통수단 티켓, e-commerce	Trainline	2016	200	영국
Medtech	2002	Biomed	Zimmer Biomet	2016	자본 59% 차지	미국
Chauffeur privé	2011	운전자 있는 자동차 예약 플랫폼	Daimler	2017-2019	현재는 50%, 2019년까지 자본 100% 점유 예정	독일

자료원: 코트라 파리 무역관 조사 작성

- **(대외 개방성)** 기술적 잠재력, 풍부한 인재 풀을 보유한 프랑스 스타트업 환경이 점차 부각됨에 따라 해외 스타트업의 프랑스 진출 증가
 - 프랑스 정부차원에서도 해외 스타트업 및 고급인력 유치에 위한 정책을 추진하며 개방성을 높여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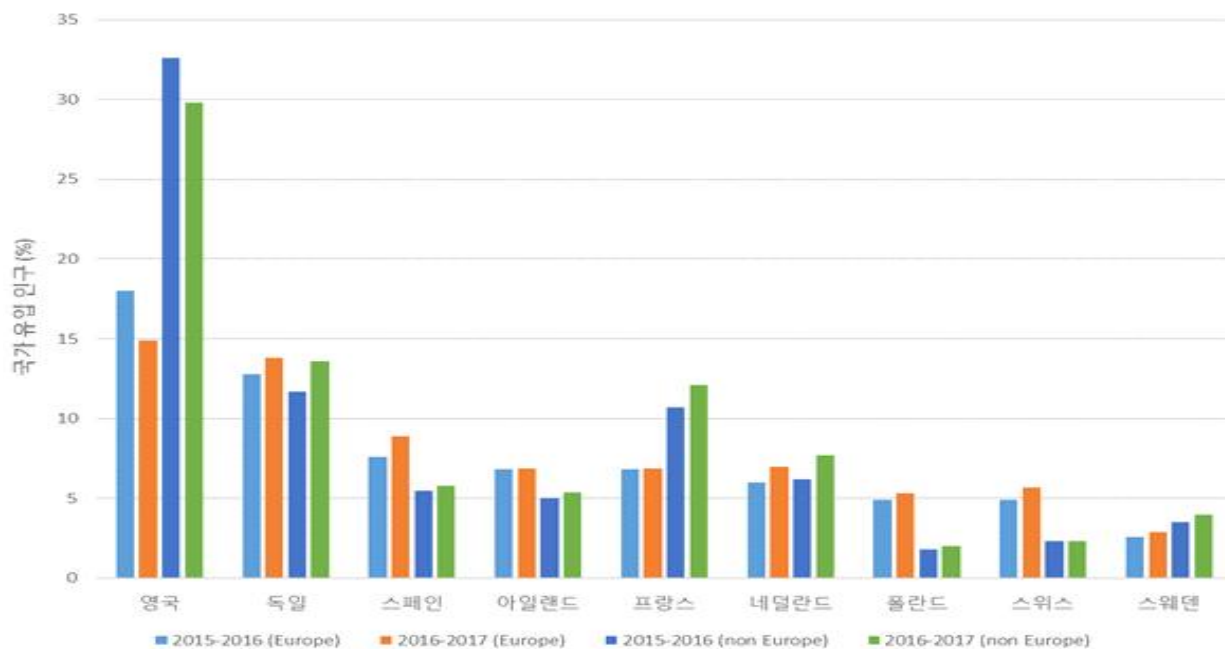
<프랑스에 진출한 해외 스타트업 주요기업>

기업명	출신국	2016년 기준 매출 (단위 : 백만 달러)	사업내용
Airhelp	미국	4.6	3시간 이상 늦을 경우 비행기 이용자에게 정원을 초과한 예약 접수나 결항에 대해 배상
Airbnb	미국	1600	미국 뉴욕 다음으로 파리에 많이 진출해 있는 플랫폼으로서, 세계적인 숙박예약 관련 유니콘
99designs	호주	60	로고, 광고 서포트, 웹페이지, 명함 등 디자인 제작 위해 기업들과 그래픽 디자인들을 연결 시켜주는 플랫폼

자료원: 코트라 파리 무역관 조사 작성

- 2016~17년간 프랑스의 스타트업 관련 해외인력 유입 중 非유럽인의 비중은 12.3%로 영국, 독일에 이어 3위로서, 프랑스의 자국 또는 유럽에 국한하지 않는 인력 유입 경향을 보여줌.
- 스타트업 조사기관 Atomico에 따르면, 해외에서 유입된 인력들이 유럽 내 근무를 선호하는 도시로는 런던에 이어 파리가 2위를 기록

<국가별 스타트업 분야 해외 인력 유입 비율>



자료원: Atomico. 2017. The state of european Tech 2017

< French Tech visa >

- * 개요 : 프랑스 대통령 엠마누엘 마크롱이 2018년 5월경 프랑스 Salon Vivatech에서 프랑스를 스타트업 중심 국가로 탈바꿈하게 하기 위해 만든 정책
- * 시기 : 2017년 6월 15일부터 유효
- * 대상 : Pass French Tech 프로그램 기준으로 선택된 초고성장 중인 업체에 고용된 해외 봉급자, 투자자 / 엔젤 비즈니스, 인큐베이터와 액셀러레이터에 의해 선택된 해외 창업자등
- * 목적 : 프랑스에 전 세계 인재를 끌어 들이고 프랑스 정착을 용이하게 함
- * 특징 :
 - i) 노동 비자는 대략 15일 이내에 후보자 출신국의 프랑스 영사관에서 배부되고 체류증 Passport Talent(4년)를 취득하게 하며 갱신 가능. 모든 절차가 간편하고 신속
 - ii) 배우자도 특별한 절차 없이 4년 체류증 취득 가능하며 프랑스에서 노동할 권리를 가지게 됨. 자녀들도 프랑스 거주 가능

< Paris Région Starter Pack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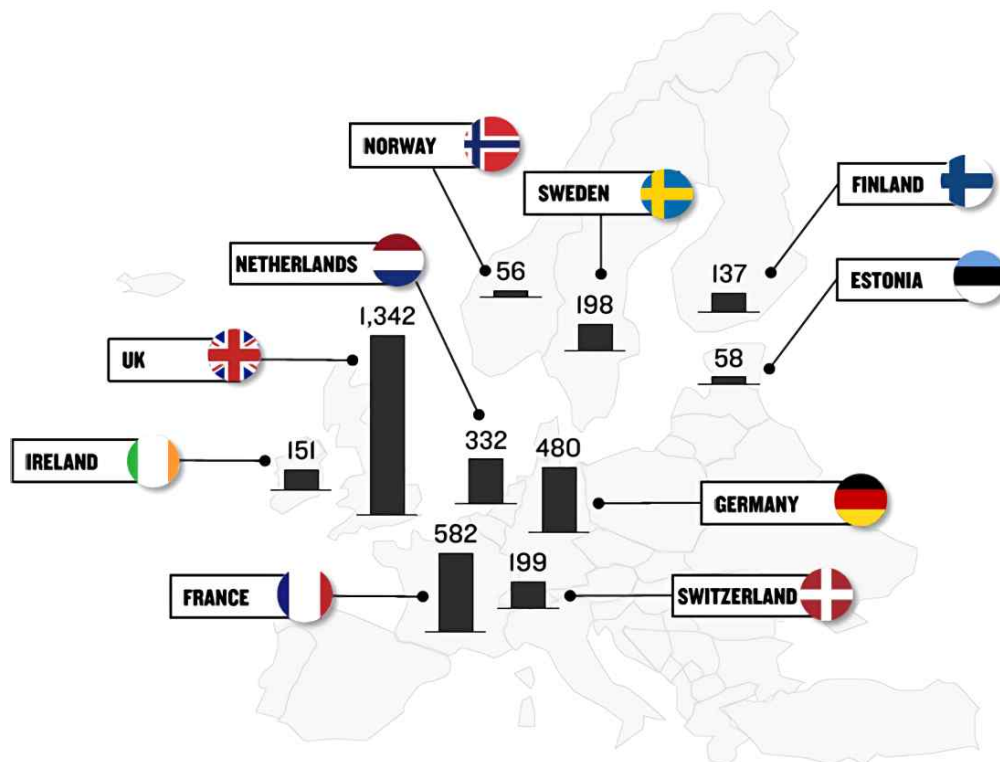
- * 개요 :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 CES 전시회에서 Valérie Pécresse, 일드프랑스(Île-de-France) 도지사가 프랑스 일드프랑스를 유럽의 실리콘 벨리로 그리고 프랑스의 스타트업 중심 도시로 만들기 위해 고안
- * 대상 : 일드프랑스에 지사를 설립하거나 정착하려는 매출 5천만 달러에 도달 가능하고 직원 수 5-250명인 중소기업
- * 목적 : 외국 기업의 정착을 원활하게 하고 그들 프로젝트에 맞는 정책 혜택을 입게 하기 위함.
- * 특징 : 비전이 있는 외국 기업에게 3년동안 개발 프로젝트를 위해 최대 250 000 유로 원조

< Innov'up Proto >

- * 대상 : 일드프랑스(Île-de-France)에 정착하고자 하는 외국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 * 목적 : 혁신적인 prototype을 실행하는데 원조
- * 특징 :
 - i) Capdigital 지역의 pôle de compétitivité에 의해 지원 받음.
 - ii) 2018년 5월에 시행되었고 10-15군데 선택된 업체들은 최대 10만 유로 재정적 지원을 받으며 2019년 5월에 개최되는 Vivatech와 같은 Paris Region Smart Weeks에 프로토타입 전시 가능
 - iii) 2018년에는 AI나 로봇 산업에 집중

- (성장 가능 영역) 딥테크, 에듀테크, 핀테크, 헬스케어 등이 유망 분야
 - (딥테크) AI, 로봇, 무인 자동차 등을 포함하는 산업분야로, 프랑스는 영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투자(약 6억 달러) 기록(2011~16년 Dealroom.co)
 - 프랑스 AI 연구논문 피인용 건수는 세계 100위권 내에 다수 랭크되어 있으며, 추후 성장가능성이 기대되는 영역

<DeepTech 분야 유럽 국가별 투자(2011~16)>



자료원: Dealroom.co

<프랑스의 기관별 AI 연구논문 피인용 순위>

세계 순위	연구 기관
4	CNRS
6	Paris-Saclay university
17	Institut National de Recherche en Informatique et en Automatique
73	PSL Research university

자료원: The Nikkei & Elsevier

- (에듀테크) 교육과 정보 기술을 결합한 분야로서, 약 22개의 관련 업체가 대부분 스타트업(French Edutech Observatory)
- 65%이상이 설립 3년 미만 업체이고 75%는 직원 수가 10명이 되지 않음.*

- * OpenClassrooms은 온라인 수업 플랫폼으로 현재 100만명이 가입, 천만 달러의 투자를 받았으며, Ornika는 최근 Series A 1200만 달러 투자 받은 프랑스의 대표적 자동차운전 온라인 학교임.
- (핀테크) 프랑스에서 가장 발달한 분야, 2012~17년간 VC 투자의 11%가 여기에 집중됐고 2017년 한해 동안 2억 달러 이상이 투자된 것으로 추산*
 - * Paris Fintech Forum같은 최상위 30% 이벤트가 파리에 집중
 - * 2017년 가장 큰 딜은 Series F에 4천 8백만 달러 투자 받은 Younited Credit
- (헬스케어) 고성장 관련 스타트업 보유
 - * Doctolib는 집 근처 전문의에게 진찰을 목적으로 리서치와 예약을 도와주는 온라인 과 모바일 플랫폼으로서 2017년 11월 4천 2백만 달러 Series D 투자를 받음.
 - * CardioLog는 2014년 설립됐고 최근 약 6백 5십만 달러 Series A 투자를 받았으며, 최첨단기술과 의학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의료 전문가가 심혈관 질환 환자를 진단하는 통역 서비스 제공

□ (대표 스타트업) 유니콘(2017년 하반기 기준, 4군데)을 비롯하여 장래에 유니콘으로 성장 가능한 프랑스 대표 스타트업은 다음과 같음.

<크리페오(Criteo)>

- 2005년 파리에서 설립, Adtech(온라인 광고) 전문 유니콘, NASDAQ 상장
 - 매출 18억 달러(2016년 기준), 기업 가치 25억 달러(2017년 6월 기준)
- 2018년 6월말 AI 연구소 설립 발표 광고 타겟팅 전 전자상거래 사이트에 맞춤 추천
 - 자체 개발한 알고리즘을 통해 검색 기록에서 사용자의 구매의도 예측 가능

<오브이에이치(OVH)>

- 1999년 설립, 클라우드 서비스 전문 유니콘
 - 매출 4억 2000만 유로(2017년 기준), 전세계 19개국에서 사업 중
 - 클라우드 솔루션, 전용 서버, 공유 호스팅, 도메인 이름 등록, ADSL, VDSL 및 SDSL 회선을 통한 인터넷 액세스 제공
 - 전세계에 자체 광섬유 네트워크를 구축, 총 용량은 10Tbps이고 호스팅 되는 실제 서버는 260,000 개가 넘는 것으로 추산

- 2017년 6월 Société Générale이 이끄는 은행그룹으로부터 4억 유로의 자금 조달 발표. 이는 2016년에 발표된 5년간 15억 유로 투자유치 계획의 일환

〈기타 유니콘〉

- 블라블라카(Blabla car)와 방트 프리베(Vente-privée)는 ‘사. 스타트업 성공 사례’ 참고
- 유니콘 이외의 주요 스타트업은 아래와 같음.

〈닥토립(Doctolib)〉

- 2013년 설립, 집 근처 전문의 검색과 예약을 도와주는 온라인/모바일 플랫폼
 - 2013년 말과 2017년 초 Accel Partners나 Bpifrance 등 투자기관으로부터 6,100만 유로 투자 유치
 - 2016년 독일 진출, 2018년 7월 몽닥터(MonDocteur) 인수
- 2018년 6월 이후 39군데의 파리 공공 의료기관 중에 9군데는 의무적으로 닥토립 서비스를 갖추어야 함.

〈악틸리티티(Actility)〉

- 2010년 설립, IoT 기업으로서, 기계들끼리 연결시키기 위해 라디오 주파수를 사용하는 통신인 LoRaWAN 전문, 매출 약 1500만 유로
- 2017년 Creadev, Bosch와 위성 통신 전문인 Inmarsat로부터 7천 500만 달러 투자를 받음.

〈시그폭스(Sigfox)〉

- 2009년 설립, IoT 전문기업으로서 매출은 2017년 기준 5,000만 유로
 - 2015년 Engie, Air liquide, Telefónica와 SK Telecom에 1억 유로 투자 유치
 - 2016년 1억 5천만 유로 조달 받으면서 Salesforce, Total, Henri Seydoux, Alto Invest, Swen CP는 지분에 참여

- 그 밖의 프랑스 스타트업은 다음 표와 같음.

스타트업명	분야	비고
Agricool	Food sustainability	Cooltainer라 부르는 container내에서 유기농 과일이나 야채를 도시에서 경작하고 판매
Nayva	교통	Automatic guided vehicle 제조
Prophesee	deeptech	autonomous navigation and connected objects에게 bio-inspired computer vision solutions 제공
Visiomed	medtech	의료용 자가 진단기 제조
Lemon Way	Fintech	"복잡한" 지불 관리를 하는 디지털 플랫폼과 e-commerce
Adikteev	Adtech	모바일 광고
EOVE	medtech	환기 장치 등 의료 기계 제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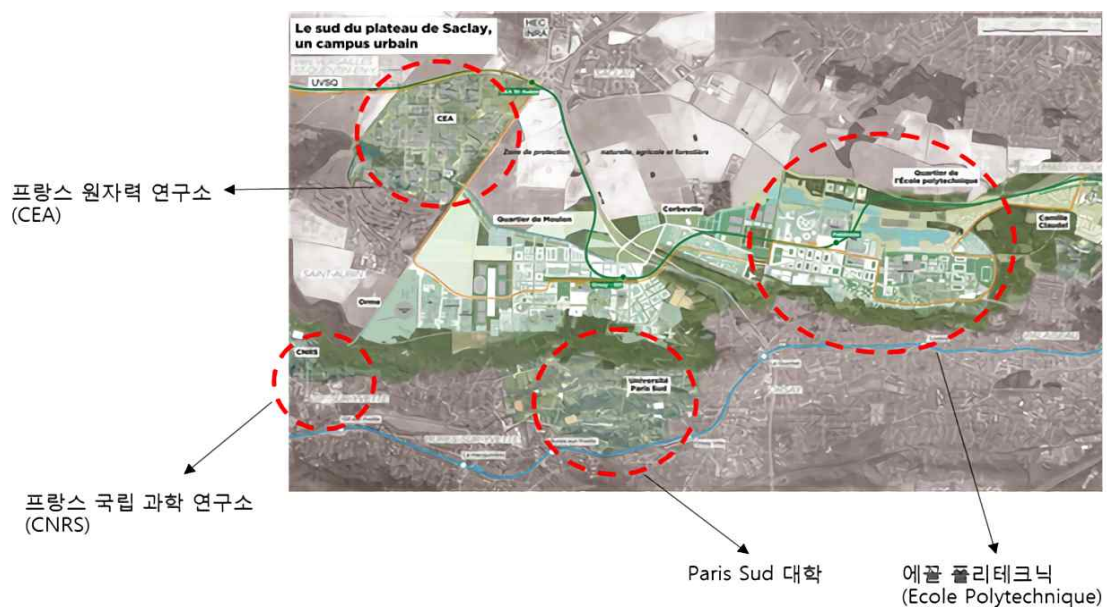
자료원: 코트라 파리 무역관 조사 작성

나. 주요 창업 클러스터

□ 클러스터 파리-사클레이(Cluster Paris-Saclay)

- Grand Paris 프로젝트의 핵심 중의 하나인 Paris-Saclay는 실리콘 벨리의 성공을 모범삼아 파리 남동쪽 근교인 Saclay에 프랑스 더 나아가 유럽 과학과 산업 단지를 결집시킨 현재 진행 중인 프랑스 대표 산업 클러스터

<클러스터 파리-사클라이>



자료원: Paris-Saclay

○ 조성의 3가지 주요 관점

- 과학기술: Paris Sud 대학 외 18개 대학과 에콜 폴리테크닉을 포함한 그랑제꼴, 프랑스 원자력 연구소 등 여러 연구소를 포함해 점차적으로 Paris-Saclay 대학 구성
- 경제: 대기업 R&D 센터 입주, 스타트업과 혁신적인 젊은 기업들에 이로 인한 경제 환경 조성, 선진적 과학기술의 상업적 가치 증진
- 국토 정비: 여섯 곳의 고등 교육 기관 입주, 현대적인 대형 캠퍼스 조성

○ 세계 8번째 클러스터, 3개 구역으로 구분

- Moulon 구역: 면적이 337 ha, 공공 교통 이용 편리(지하철 18호선 개통), 숙박 시설 보유, 고등 교육 기관과 learning center 입주
- Ecole Polytechnique 구역: 면적 232 ha, 공공 교통 이용 편리(지하철 18호선), 숙박 시설과 상업 단지, 기업, 학교 입주. 에너지, 물, 배수 관련 활동 시행과 생물 다양성(biodiversité) 수행
- Corbeville 구역: 면적 80 ha, 위 두 구역의 연결 고리. 공공 교통 이용 편리(지하철 18호선), 숙박 시설과 상업 단지, 특히 스포츠 장비 관련 단지가 있음.

□ 캡디지탈(Capdigital)

- 유럽에서 가장 큰 클러스터, 디지털생태계의 가장 큰 혁신 집단 중 하나
 - 2006년에 만들어진 비영리 조직으로서 2014년에 EU 집행위원회로부터 Gold Label를 받아 최고 클러스터 인증을 받음.
- 6개 영역, 1000명 이상의 회원과 150명 이상의 전문가 보유
 - 회원 및 전문가로는 네트워크 기업가, 투자자, 디지털 분야 교수 및 연구원, 수학자, 인류 및 사회학자, 기술 매니저, 경영혁신 매니저 등
 - 헬스, 웰빙, 미디어, 문화콘텐츠, 스마트시티 및 지속가능발전, AI, 데이터, 기술 분야를 망라하는 여러 분야의 종사자들로 다양성 확보
- 45명의 직원, 9개의 서비스로 구성
 - R&D, Administration&Finance, Europe, Business Development, Watch & Strategy, EdFab, Futur.e.s Festivals, Communication&Events, IT&Database
- 역할: R&D 지원, 비즈니스 코치 및 액셀러레이션, 디지털 전환 및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 연구 및 서베이

- 750개의 R&D 프로젝트, 16억 유로의 R&D 투자, 65곳의 Pass French Tech
 - 2017년 115개의 이벤트 개최,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에 8억 9천만 유로 지원
- 다양한 이벤트
 - 매년 100개 이상의 이벤트 개최
 - ① Futur.e.s in Paris festival: 2008년 이후 개최, 프랑스의 최신 디지털 혁신의 쇼케이스로서 유럽 내에서도 큰 규모를 자랑. 2018년 12, 475명의 방문객과 86개 전시
 - ② How I Met My Startup meeting: 파리나 여타 지역의 스타트업이 학생 및 디지털에 관심이 많은 일반인과 더불어 기술이나 관련 직업 등 공유
 - ③ EdFab: 디지털 관련 트레이닝과 워크숍으로 유명, 교육 또는 혁신 트레이닝 등 관련 이벤트 제공



□ 스테이션 F(Station F)

- 세계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캠퍼스
 - 2017년 6월 파리에 조성, 3만 4천 평방미터 규모의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및 액셀레이터
 - 3천 개의 업무 공간, 60개의 회의실, 8개의 행사장을 제공하며, 향후 100여 개의 공동 주거 공간도 제공할 계획임.
 - 스테이션 F의 주요 구역은 3개로 구분*
 - * 셰어존(Share Zone) : 행사, 미팅 등 업무 공간
 - * 크리에이트존(Create Zone) :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스타트업 전용 공간
 - * 칠존(Chill Zone) : 7일 24시간 운영하는 휴게 공간(식당, 카페 등)
 - 현재 1,000 여 개의 스타트업이 스테이션 F를 이용

<스테이션 F 내부>



자료원: Station F 홈페이지

○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 지원

- 글로벌 대기업(BNP Paribas, Havas, Facebook, Microsoft 등)이 30여 개의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운영*

* 글로벌 대기업이 주도하는 프로그램은 스테이션 F 홈페이지에서 상시 접수가능

* 2017년 6월 네이버 및 라인은 80석 규모의 ‘스페이스그린(Station Green)’ 공간을 마련하여 유럽과 아시아 스타트업들이 교류할 수 있게 지원 중

<파트너 기업의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기업명	지원 분야	주요 지원 사항
페이스북 (Facebook)	혁신, 데이터, 개인정보	- 전문가들의 멘토링 및 아틀리에 - 비즈니스 모델 설계 - 시제품 제작 가능
유비소프트 (Ubisoft)	게임, 엔터테인먼트, 증강현실, 블록체인	- 연 2회 모집 - 전문가들의 맞춤형 코칭 - 미래형 엔터테인먼트 제작 지원
로레알(L'Oréal)	뷰티테크, 화장품	- 맞춤형 멘토링 - 글로벌 규모의 협업 프로젝트 - 업계 종사자들과의 네트워킹 형성
하바스(Havas)	광고, 애드테크, 마케팅테크, 커뮤니케이션	- 마케팅 전략 설계 - 애드테크 관련 워크숍 및 행사 - 사내 그룹 커뮤니티 형성
방트프리베 (Vente-Privée)	패션, 기술, 리테일, e커머스	- 통합 아틀리에(법령, 마케팅 등) - 공동 세션 진행 - 프로젝트 투자 가능성
네이버/라인 (Naver/Line)	디지털 및 모바일 상거래, 미디어, O2O 서비스	- 업무 공간 제공 - 스타트업 네트워킹 - 협업 프로젝트

자료원: 코트라 파리 무역관 작성

- 2018년 6월 유럽 최초의 블록체인 전문 액셀러레이터인 ‘체인(Chain) 액셀러레이터’ 개시*

* 금융, 교육, e스포츠 등 여러 부문에서 활동 중인 13개의 블록체인 스타트업을 지원
* 동 프로그램에 선발된 스타트업들은 6개월 동안 마케팅, 인사관리, 시제품 생산 등에 대한 멘토링을 받는데, 참가비는 월 1,200 유로

- Founders Program

- 초기 단계인 스타트업을 위한 프로그램이며, 세계 각국의 기업가들로 구성된 선발위원회를 통해 최소 100개 이상의 스타트업을 선발
- 월 195 유로에 스테이션 F 업무 공간 및 서비스 이용 가능

- Fighters Program

-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들에게 동등한 발전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개발된 프로그램
- 선발되면 파운더스(Founders) 프로그램의 혜택을 1년간 무료 이용 가능

- Fellowship

- 스테이션 F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연간 멤버십 프로그램
- 연 900 유로를 지불하면, 월 5회 스테이션 F 내 사무실을 임대할 수 있으며, 각종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파운더스나 파이터 프로그램에 선발되지 않은 기업도 신청 가능

□ 에콜 42(Ecole 42)

- 프랑스 최초의 스타트업 인재 육성 캠퍼스

- 자비에 니엘, 프랑스 통신사업자 프리(FREE) 회장이 2014년 파리 북서부 17구에 설립
- 목적: 인터넷 기술 개발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컴퓨터 천재 양성
- 365일 24시간 학생들에게 오픈: 한 구석에 마련된 핫도그 트럭에서 끼니 때우고 잠은 침낭에서 해결
- 입학 조건은 코딩에 대한 관심과 실력. 졸업장, 성적 등 다른 것은 불필요하며 1개월에 걸친 서바이벌형 코딩시험을 통과해야 함.

- 수업료는 무상이며, 학생들의 배경은 수학 천재에서부터 요리사, 화가, 퇴학생까지 다양
- 교사나 교육이 없으며 유사 주제와 목적을 가진 학생끼리 팀을 만들어 경쟁*
 - * 학교는 학생들의 은력을 보여줄 문제를 내주고 학생 작품에 대한 상업성을 기업 전문가들과 함께 평가학생들이 프레젠테이션하고 대기업 간부들이 질문
- 매년 두 번 1,700여명만 선발. 대회 7배 이상의 지원자 응시
- 프랑스의 카풀서비스 블라블라카를 비롯해, 2014년 미국 어도비 시스템에 8억 8천만 달러에 팔린 디지털사진 스타트업 기업 포토리아도 이곳에서 배출되는 등 매달 1개의 스타트업 기업 배출

다. VC 현황

□ 투자 규모

- 2017년 프랑스 투자펀드의 투자규모는 165억 유로로 전년대비 13% 증가했으며, 2013년 이후 2배 증가
- 10억 유로 이상의 투자는 전체의 26.7%였으며 나머지 73.3%는 10억 유로 미만의 투자
- 프랑스 투자자들의 투자규모는 103.7억 유로로 총투자의 63%였으며 국제 투자자들은 61.7억 유로로 전체의 37%를 차지*
 - * 국제 투자자들 가운데 유럽 투자자들의 투자규모는 36.3억 유로로 전체의 22%였으며 제3국 투자자들의 것은 25.4억 유로로 전체의 15%
- 총투자 중 23억 유로는 부채 상환용, 68억 유로는 인프라 구축용 자금조달
- 2017년 프랑스의 스타트업 및 혁신기업에 대한 혁신투자 규모는 12억 유로로 전년 대비 40% 증가. 영국과 독일을 앞선 유럽 최대 혁신투자 규모
- 혁신투자펀드 수혜 기업 수는 2017년 847개로 전년대비 34% 증가. 이는 독일에 이어 유럽에서 가장 많은 것임(스페인 3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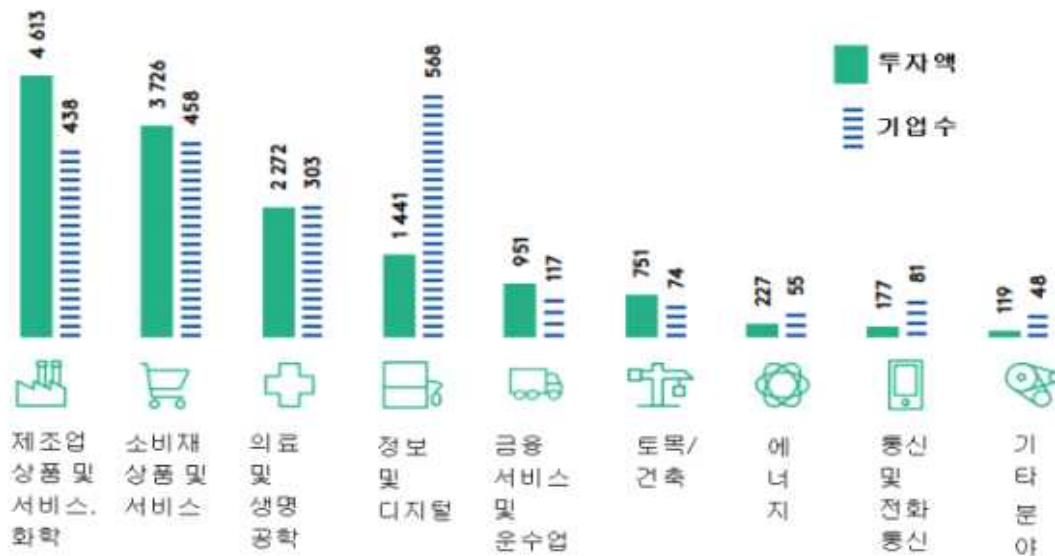
□ 주요 투자 업종

- 금액 기준 2017년 4대 투자업종은 제조/화학, 소비재, 의료/생명공학, 정보/디지털 순

- 제조업과 화학 분야가 46억 유로로 1위, 2위는 소비재 분야 37억 유로, 3위는 의료/생명공학분야 22.7억 유로, 4위는 정보/디지털 분야 14.4억 유로
- 기업 수 기준 2017년 4대 투자업종은 정보/디지털, 소비재, 제조/화학, 의료/생명 순
- 정보/디지털 분야가 568개로 1위, 2위는 소비재 분야로 458개, 3위는 제조업 및 화학 분야로 438개, 4위는 의료/생명공학 분야로 303개

<2017년 프랑스 분야별 투자펀드 투자규모 및 자금조달 기업 수>

(단위: 백만 유로, 개)



자료원: 프랑스 투자펀드사 협회(France Invest)

□ 주요 VC

회사명	Korelya Capital
주소	87, rue Reaumur, 75002 Paris
전화번호	N/A
연락처	N/A
웹사이트	www.korelyacapital.com
개요	프랑스금융위원회로부터 포트폴리오 관리회사로 승인을 받은 자본금 12만5,000 유로의 단순주식회사(SAS)로 단순한 벤처캐피탈의 역할을 벗어나 한국, 일본 및 유럽의 문화, 금융 및 기업 생태계 간의 쌍방향 연결 고리 역할을 하고 있음.
전문분야	Seed보다는 Series A, B 또는 C에 해당하는 기성 스타트업체(10여 개)에 투자

회사명	ID Invest Partners
주소	117, avenue des Champs-Elysees, 75008 Paris
전화번호	N/A
연락처	N/A
웹사이트	www.idinvest.com
개요	약 80억 유로의 펀드를 통해 혁신 및 성장용, 성장 프로젝트로 발생한 부채 상환용 및 사모펀드용 투자 전문업체로 유럽에서 리더급에 해당
전문분야	IT, 인터넷 분야 스타트업(B2B 및 B2C)

회사명	Global Space Ventures(GSV) Partner
주소(본사)	10250 Constellation Blvd Suite 2300, Los Angeles, California
전화번호	N/A
연락처	N/A
웹사이트	www.globalspaceventures.com
개요	비상장기업, 직원 10명 이내, Seed에서부터 Serie C에 이르기까지 항공분야 스타트업, 기술 및 인프라 투자
전문분야	항공우주 분야

회사명	Orange Fab
주소(본사)	46 Avenue de la République, 92320 Châtillon
전화번호	N/A
연락처	N/A
웹사이트	orangefabfrance.fr
개요	글로벌 통신 사업자인 오렌지(Orange)가 런칭한 스타트업들의 글로벌시장 진출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글로벌 경험을 지닌 멘토들의 조언과 오렌지가 진출해 있는 국가들(유럽/아프리카/중동)과의 파트너십 교류를 통해 초기 스타트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
전문분야	오렌지 및 오렌지의 고객들에게 제공 가능한 제품 및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스타트업들을 위한 멘토링

라. 주요 액셀러레이터

□ 파리앤크(Paris&Co)

- 파리가 출자한 프랑스 최초의 인큐베이터·엑셀러레이터로, 20여 년간 1천 개가 넘는 혁신기업 지원

- 파리를 혁신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12개의 주제*를 선정하여 주제별로 전문 플랫폼 운영
 - * 메디테크 및 복지, e스포츠, 순환경제, 디지털 출판, 미래형 건물, 디지털 문화, 지속 가능한 도시이동성, 인사관리, 스마트 푸드, 스포츠, 관광, 금융 및 보험
- 주요 프로그램은 국내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어퍼(Upper)와 해외 기업을 지원하는 꼬메(Comet)로 구성
- 또한 리빙랩* 프로그램인 어반랩(Urban Lab)을 운영하거나 혁신가 선발을 위한 아이디어 대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 * 사용자가 직접 참여하여 기술을 활용해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하는 ‘사용자 참여형 혁신공간’. 예컨대, 서울시가 북촌을 IoT 시범특구로 지정하면서 리빙랩 방식 적용
- 2016년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국내 문화창조벤처단지 등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을 지원 중

○ 어퍼(Upper) 프로그램

- 현지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 1년 단위의 인큐베이션 프로그램, 어퍼 홈페이지에서 상시 접수
- 지원자격 : 설립 중이거나 설립 5년 미만인 기업
- 비용 : 총 12,000 유로(세금 제외)
- 선발과정 :
 - * 공식 홈페이지에서 사업계획서(Pitch Deck)를 첨부하여 신청서 제출
 - * 최종 단계에서 국내외 파트너십 기업 관계자, 외부 전문가, 파리앰코 관계자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 사업계획을 발표, 선발까지 최대 3개월 소요
- 주요 지원 사항 :
 - * 2~5명이 사용가능 한 업무 공간 제공
 - * 전문가들의 비즈니스 모델 설계(법령, 재정, 고용 등에 대한 조언 포함)
 - * 파트너십을 체결한 국내외 대기업과의 비즈니스 관계 구축
 - * 파리로부터의 자금 지원. 인큐베이터에서 거주할 시 파리혁신개시기금(Fonds Paris Innovation Amorçage)을 통해 최대 3만 유로의 보조금 수령 가능

○ 꼬메(Comet) 프로젝트

① Paris Landing Pack_Explore

- 매년 3월, 6월, 10월 총 3회에 걸쳐 파리에 유치하고 싶은 해외 스타트

업을 선발해 4주 동안 지원하는 엑셀러레이션 프로그램

- 지원 자격 :
 - * 설립 8년 미만인 기업
 - * IT, 메디테크, 트래블테크, 스포츠, 푸드테크, 모빌리티 및 스마트도시, 순환경제, 창조산업, 미디어, 인사관리, 핀테크 분야 선호
- 선발과정 :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지원 → 1차 선발 → 스카이프로 화상 인터뷰 → 최종 선발
- 주요 지원 사항 :
 - * 꼬메 인큐베이터 내 사무 공간 제공
 - * 파리에서 회사 설립 시 필요한 사항(장기비자 취득, 인재고용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법적 조언 및 워크숍
 - * 파리에서 진행되는 혁신 에코시스템 프로그램 참여 가능

② Paris Landing Pack_Invest

- 해외 기업들이 파리에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꼬메 홈페이지에서 상시 접수
- 지원기간 : 2~6개월, 한 번 6개월 연장 가능
- 신청비용 : 1인당 월 350 유로(부가가치세 제외)
- 주요 지원 사항 :
 - * 꼬메 인큐베이터 내 사무 공간 제공
 - * 부동산, 이주, 세금 등에 대한 전문가와의 미팅
 - * 인큐베이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 및 워크숍 참여 가능
 - * 비용 협상 하에 주거 공간 제공

□ 크레아티브 벨리(Creative Valley)

- 2012년 설립된 프랑스 인큐베이터 및 엑셀러레이터로서, 혁신 프로젝트 개발을 위해 스타트업 기업들을 지원
 - 2,000m²에서 30여 개의 스타트업 기업들이 코워킹
 - 2016년부터 대기업, 스타트업 및 프리랜서, 연구원 및 대학생들이 공동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크레아티브 팩토리(Creative Factory) 운영
 - 진행 중인 35개 프로젝트 등 총 100여 개의 프로젝트를 지원해옴.

- 2016년 7월 4일 방한 시 한국창업진흥원과 업무협약 체결*

- * 1) 창업지원사업 및 관련 정보, 인적자원 공유, 2) 청년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노하우 공유, 창업기업의 기술 교류 협력, 3) 세미나 및 컨퍼런스 개최, 4) 프랑스 진출 희망 한국 스타트업을 위한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 운영

□ 파리 피오니에르(Paris Pionnières)

- 혁신 여성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05년에 설립된 액셀러레이터·인큐베이터
 -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파리시와 공공투자은행(BPI)으로부터 파리혁신 개시기금(Fonds Paris Innovation Amorçage)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동 액셀러레이터에서 운영하는 주요 프로그램은 총 4개
 - 이외에도 개인 및 공동 사무실 제공, 성공한 여성 기업가들의 강연, 여성 기업 네트워킹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
 - 모든 프로그램은 3개월마다 참가기업을 선발하며, 공식 홈페이지에서 사업계획서(Pitch)를 첨부하여 상시 접수 가능

<파리 피오니에르의 4개 프로그램>

액셀러레이터 명	내용
퍼시블(Possible)	스타트업 부트캠프로 3일간 진행됨. 매년 4회 개최되며, 회당 20개 기업 참가
위디(WoDi)	4~6개월 동안 진행되는 프리 인큐베이션 프로그램으로, 연간 약 60개의 스타트업 선발
레스프랑뚜즈 (Les Sprinteuses)	스포츠 분야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6개월 단위의 프리 인큐베이션 프로그램
인큐베이션 (Incubation)	1년 동안 진행되는 인큐베이션 프로그램으로, 연간 약 25개 스타트업 선발

자료원: 코트라 파리 무역관 조사 작성

○ 인큐베이션(Incubation) 프로그램

- 1년간 진행되는 인큐베이션 프로그램으로, 매년 25개의 스타트업을 지원
- 주요 지원 사항 :
 - * 파리시와 공공투자은행(BPI)의 보조금 지원
 - * 전문 재무컨설턴트의 금융 설계
 - * 저렴한 가격에 사무실 제공
 - * 전문가들의 월간 맞춤형 멘토링 및 워크숍, 투자자와의 만남 주선
 - * 국내외 파트너십 기업과의 네트워킹 구축

○ 워디(WoDi) 프로그램

- 4~6개월간 진행되는 프리 인큐베이션 프로그램, 매년 60개 스타트업 지원
- 비용 : 총 980 유로(세금 포함)
- 주요 지원 사항 :
 - * 전문가의 맞춤형 코칭(비즈니스 모델, 사업계획, 재정, 법령 등)
 - * 주간 아틀리에 및 단체 워크숍 참여 가능
 - * 리더십 교육
 - * 스타트업 커뮤니티
 - * 공동사무실 임대 가능

□ 르빌라즈 바이 CA (Le Village by CA(Crédit Agricole))

- 2014년 프랑스 주요 은행그룹 크레디아그리콜(Crédit Agricole)이 스타트업과 대기업들의 파트너십을 돕기 위해 설립한 액셀러레이터
 - 마을이라는 뜻의 프랑스어 르빌라즈(Le Village)를 컨셉으로 정하여 프랑스 각 도시마다 독립 액셀러레이터 운영*
 - * 현재 24개의 액셀러레이터가 운영 중, 15개의 액셀러레이터 개설
 - 액셀러레이터별로 프로그램, 지원내용, 선발 기간 및 기업 수, 선호 분야, 파트너 기업 등이 상이하므로, 각 액셀러레이터 홈페이지에서 모집 공고를 수시로 확인해야 함. 파리 기관은 상시 모집*
 - * 파리 기관의 지원이 가장 활발하며, 북프랑스(Nord de France), 오를레앙(Orléans), 툴루즈(Toulouse), 중동부 지방(Centre-Est) 기관 순으로 활발
 -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미국, 중국 등에도 액셀러레이터를 설립할 계획
 - 기관마다 선발기준 및 방법이 다르나, 일반적인 선발 기준*은 존재
 - * 설립된 지 6~36개월 된 기업, 높은 매출액은 없지만, 예산은 보유한 기업, 혁신적인 사업계획을 실행할 기업, 헬스테크·푸드테크·미래형 건축·에너지·환경 분야 선호
- 파리 액셀러레이터
 - 프로그램명 : 르빌라지바이쎄아파리(Le Village by CA Paris)
 - 40여개의 파트너 기업(엔지(Engie), 사노피(Sanofi), IBM, PSA 등)
 - 지원방법 :
 - *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

- * 신청서 제출 시 사업계획서, 최대 10장의 슬라이드로 구성된 기업소개서, 최대 2분 길이의 피치(Pitch) 비디오를 함께 첨부해야 함.

- 주요 지원 사항 :

- * 2년간 사무실 임대 가능. 파트너 기업들로부터 임대료 보조를 받을 수 있음.
- * 사무실 내 한 자리 : 월 300 유로(세금 제외)
- * 공동사무실 : 제곱미터당 연 685 유로(세금 제외)
- * 개인사무실 : 제곱미터당 연 895 유로(세금 제외)
- * 혁신 관련 공공기관 및 대기업들과의 비즈니스 관계 구축
- * 전문가들의 맞춤형 상담(테마별 워크숍, 자본 관련 코칭 등)
- * 해외 스타트업을 위한 행정지원[특히 프렌치테크비자(FrenchTech Visa)]

<파리의 주요 액셀러레이터>

이름	파트너 기업/기관	기간	기업수	지원내용	유망 협력 분야
La French Tech	공공투자은행, 투자진흥청, 투자위원회, 외교통상부, 기업청 등	6개월 이상	320	-신속한 행정처리 -보조금 지원 -인큐베이터 서비스 -French Tech Ticket	핀테크, IoT, AI, 디지털, 3D 프린팅, 메디테크 등
Station F	BNP Paribas, Thales, L'Oréal, Amazon, MS 등	1개월 이상	1,000	-업무 및 공동 주거공간 제공 -글로벌 기업들이 주도하는 프로그램 운영	블록체인, 핀테크, 3D프린팅, 바이오 테크 등
Paris & Co	파리 시청, 공공투자은행, AirFrance, Total, Carrefour 등	1개월 이상	1,000	-사업 계획(법령, 재정, 채용 등) 솔루션 -투자자 및 비즈니스 전문가와의 만남 주선	디지털 출판, e스포츠, 원격의료, 스마트 푸드 등
NUMA	La French Tech, Google, Paypal, OVH, AirFrance, Aircall 등	6개월	300	-1대1 멘토링 교육, 사업 로드맵 제시 -국내외 네트워킹 -파트너십 알선	이동성/운송, 클라우드, IoT, AI, 애그리테크 등
Paris Pionnières	파리시청, 일드프랑스 지방정부, FDJ, BNP Paribas, Contrex 등	4~6개월, 1년	350	-월간 맞춤 멘토링 -투자자와 교류주선 -사무실 제공 -커뮤니티, 네트워킹	디지털/정보기술, AI, 로봇공학, 바이오 테크 등
Le Village by CA	La French Tech, Sanofi, Engie, Orange, PSA Groupe 등	최대 2년	652	- 숙박 시설 제공 -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과의 비즈니스 관계 - 전문가 자문	헬스테크, 핀테크, 푸드테크, 블록체인 등
WAI BNP Paribas	공공투자은행, France Angel, Croissance Plus 등	6개월, 2년	2,000	- BNP 기업과의 네트워킹 - 작업 공간 제공 - 자금 지원	핀테크, 로봇공학, 증강현실, AI, 의료, 교통 등

자료원: 코트라 파리 무역관 조사 작성

마. 지원정책

□ 정부 차원의 스타트업 육성 전략

○ 미래투자프로그램(Programme d' Investissement d' Avenir: PIA), 2010~2017년

- 추진주체: 총리실 직속 미래투자총괄위원회(Commissariat general d' investissement)
- 목표: 미래 산업을 위한 기술개발,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직업교육 및 미래 일자리 확보, 유럽과 세계무대에서의 협력 강화

<미래투자프로그램의 산업별 주요 목표 및 추진 방향>

핵심산업	주요 목표	추진 방향
신재생 에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까지 재생에너지(풍력·태양광) 발전능력 배가 - 2025년까지 원자력 발전 50% 축소 - 2030년까지 화석에너지 소비에 대한 탄소세 톤당 100유로로 인상(現 30.5유로) 	바이오 연료, 폐기물 재활용, 에너지 효율 제고, 식물 기반 자원 개발
친환경 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 에너지 효율, 수자원 관리, 목조건축과 스마트 그리드 기술개발: 2020년까지 일자리 11만 개 창출 - 2020년까지 1000억 유로의 수출 달성 	스마트 그리드, 수자원 관리, 건물 에너지 효율성, 친환경 목재산업, 가정 자동화시스템
친환경 이동수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까지 신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30% 감축 - 2030년까지 에너지 저장 시스템 개발 부문의 일자리 8000~2만5000개 창출 - 2040년까지 오염 유발 신규 자동차 생산 제로화 	자율주행 자동차, 전기차 충전 인프라, 고효율 연비 자동차, 전기자동차 무선충전기술
미래형 교통수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의 화석 에너지 소비 50% 감축 - 디지털 교통통제시스템으로 혼잡시간 교통정체 해소 - 미래 TGV 성능 25% 향상 운임 30% 감소, 유지비 25% 감소 	TGV, 친환경 선박, 하이브리드 전기 항공기, 드론
미래형 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의료기술 개발 및 집중 투자 - 의료 부문의 액셀러레이터 플랫폼 마련 	신 의료 생명공학 및 혁신 의료기기 개발
데이터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세대 앱서비스 Provider(APS)로 SaaS 제공 - 2020년까지 미래형 컴퓨팅 기술(exascale) 개발 - 2020년까지 빅데이터로 13만 7000개 일자리 창출 	빅데이터, 슈퍼컴퓨터, 클라우드, 디지털 물레이션, 데이터 및 하부구조 보호 솔루션
스마트 디바이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까지 카드결제 보급, 스마트폰 결제 확대 - 5년 내 20만 명 이상의 도시 절반에 상호운용이 가능한 비접촉 발권 시스템 출시 - 테러 예방, 예측용 행동분석 기술 개발 	무선전자결제서비스, 사물인터넷, 로봇산업, 증강현실, 산업용섬유, 벤처기업 육성, 전자상거래 진품 감정기술
디지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를 통한 디지털 교육 강화 - 마크롱 대통령 임기 내 전 국토 4G 사용권 편입 - 2020년까지 5G망 상용화 - 2022년까지 정부 민원 100% 온라인 처리 	반도체, 이동통신인프라구축, 나노 전자기술, 전기 추진위성, 시스템내장 소프트웨어, 중소 및 벤처기업 투자지원, 사이버보안
미래형 식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까지 미래형 식품산업 내 일자리 9만 개 창출 - 2022년까지 모든 학교, 회사 식당 내 먹거리의 50%를 바이오, 지역특산, 품질 라벨 부착 식품으로 변경 	기능성식품, 미래형 식품포장, 식품안전, 식품냉동보관 기술

자료원: 코트라 파리무역관 조사 작성

○ 투자 대계획(Grand Plan d' Investissement), 2018년~2022년

- 목표 : 환경보호, 능력사회 구현, 혁신기반 경쟁력 확립 및 디지털국가 건설
- 추진 주체 : 총리실 투자 총괄 사무국(SGPI: Secretariat general pour l' investissement)
- 투자규모 : 2018년~22년까지 570억 유로 투자. 각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민간기업과 공동 투자하는 원칙 적용*
- * 자금지원 창구역할: 위탁금고(Caisse des Depots) 및 공공투자은행(Bpifrance)
- 투자 분야: 친환경, 직업교육, 혁신, 디지털 등 4개

<투자 대계획의 분야와 내용>

투자 분야	세부 투자 항목 및 내용
친환경 (200억 유로)	중고차 전환 (40억 유로) - 50만대의 공해차 폐차 후 공해가 적은 중고차 구입 지원
	재생에너지 (70억 유로) - 재생에너지 생산 70% 증가
	건물의 열효율 제고 (90억 유로) - 저소득자 주택의 50% 및 중소기업 5,000개 사 지원
	자격증 없는 청년실업자 취업 (67억 유로)
직업교육 (150억 유로)	장기실업자 취업 (71억 유로)
	공교육 기관 혁신 (3억 유로)
	실패자 없는 대학 만들기 (4억 유로)
	농업용 장비 혁신 (50억 유로)
혁신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130억 유로)	여타 분야 경쟁력 강화 (80억 유로)
정부부처의 경비 절감을 위한 디지털화(90억 유로)	초고속 인터넷망 전국 보급 완성 및 디지털의료 산업화 (50억 유로)
	정부 행정의 디지털화(40억 유로)

자료원: 코트라 파리무역관 조사 작성

○ 스타트업 육성 전략

- 육성기금 : 공기업 지분 매각 통해 100억 유로 조성
- 목표 : IT, 패션디자인 등 장래 유망 분야 스타트업 육성 지원, 스타트업 창업 및 혁신기업 기술개발 지원, 직업훈련 제도 개편 및 지원
- 인공지능(AI) 분야 스타트업 강국으로 도약. 2022년까지 15억 유로(약 2조 원)를 투입하고, 독일과 진행하는 AI 프로젝트 우선 지원(분산된 유럽의 AI 역량 집약 위한 유럽 AI 연구소 'Ellis' 설립 추진 중)*
- * 아울러 우수한 해외 AI 인력 유입 위해 인센티브 제공에도 자금 투입
- 패션산업 육성 통해 생태계 유지 및 다양성 확보: 매출규모 150억 유로 (약 20조원)로 자동차·항공우주분야 초월 목표

- 스타트업 창업 및 혁신기업의 기술 개발 지원: 파리에 세계 최대 스타트업캠퍼스(스테이션 F) 개설, 사업장 제공, 프랑스 공공투자은행(BPIFrance)을 통해 스타트업 기업 지원*

* 프랑스 무역투자진흥청(Business France)을 통해 스타트업과 대기업의 파트너십 지원

□ 지원제도

〈French Tech Ticket 프로그램〉

○ 지원자격 :

- 디지털, 메디테크(Meditech), 바이오테크(Biotech), 핀테크(Fintech) 등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한 창업 프로젝트(수출입, 컨설팅, 프랜차이즈 혹은 신기술이 아닌 기존 기술을 바탕으로 한 프로젝트는 선발 대상에서 제외)
- 영어로 의사소통이 원활한 자
- 프랑스 국적 혹은 그 외의 국적을 가진 자
- 프로젝트별 2-3명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이들은 공동창업자, 기업주주 혹은 임원이어야 하는데 1명의 프랑스인이 포함되어야 함.
- 프랑스 체류 시 최소 6개월간 프로젝트 활동 참여에 지장이 없는 자(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동안 타 직종 종사 금지)*

* 프로젝트 구성원의 나이, 회사 창립연도, 최종학력 등은 심사요건에 포함되지 않음.

○ 모집 기업 수 : 세션별 평균 25개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약 70개 기업선발 (1년에 2세션 운영, 총 140여개 기업 선발)

○ 선발과정 :

- 프로젝트 신청서 제출 및 선발과정에 대한 정보는 French Tech Ticket 공식 홈페이지(www.frenchtechticket.paris)를 통해 안내
- 피치(Pitch) 비디오는 신청서 제출 시 함께 첨부해야 하며, 그 이후 절차로 비디오 컨퍼런스를 통한 인터뷰를 거치게 되어 있음.
- 최종 선발은 French Tech 담당자, 파리시 의회, 프랑스 공공투자은행(Bpifrance), 프랑스 무역투자진흥청(Business France), 프랑스기업총국(Direction Generale des Entreprises), 인큐베이터 관계자, 혁신기술 기업 관계자 등으로 이루어진 심사위원회를 통해 선발

○ 주요 지원 사항 :

- 프랑스 체류 비자 취득을 위한 신속한 행정처리 지원
- 보조금 지원 : 동 프로그램에 선발된 기업은 프랑스공공투자은행을 통해 1년간 45,000 유로의 보조금을 지원하며, 지원 개시 6개월 후 심사에서 통과해야 1년 전체에 대한 보조금 확보 가능*

* 보조금은 직업 활동비 25,000유로 및 개인 생활비 20,000유로 지원

- 41개 인큐베이터 시설 제공 : 동 프로그램과 협약을 체결한 파리 내 인큐베이터의 사무 공간 제공뿐 아니라, 각 인큐베이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간·월간 프로젝트, 스타트업 트레이닝 및 컨설팅 지원 프로그램 참여 가능
- French Tech Ticket 선발기업을 위한 프랑스 정착 문의 전담 헬프데스크 운영
- 외국인 정착에 필요한 Air France 항공권 특가 혜택, 정착지원 프로그램

〈Paris Region Starter Pack: 일드프랑스(수도권)의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 지원 자격

- 수도권에 소재하는 기업이나 진출하려는 외국 스타트업
- 고용 규모 5명 이상 250명 미만
- 매출 규모 5천만 유로 미만 및 총결산액 4,300만 유로 미만

○ 선발과정

- 자금조달 계획서, 프랑스 내 채용 계획서, 지역경제 개발에 기여하는 개발 계획서와 함께 3개년 성장 전략 보고서 제출

○ 주요 지원 사항

- 보조금 지원 : 최고 25만 유로의 보조금을 3년간 지원*

* 투자 지원 한도: 소기업은 투자액의 20%, 중견기업은 10%

* 특허 출원 및 연장 지원: 50%

* 간부급 직원 채용 지원 한도: 1인당 25,000 유로씩 프로젝트 당 3명까지 지원(총 75,000 유로 한도 내)

* 국제화 지원: 첫 해외 전시회 참가 및 컨설팅 지원

- 수도권 지방 자문위원의 동반 지원 및 1,000개 이상의 기관 파트너 조직망에 가입시켜줌.

바. 주요 스타트업 컨퍼런스

<비바테크놀로지(VIVA Technology)>

전시회명	
전시 분야	스타트업, 디지털 산업, 혁신 산업, 퀀텀 컴퓨터 등 신기술, 최신기술 관련 마케팅 및 홍보
개최 기간	2018년 5월 24일~26일(3일간) / 2019년 5월 16일~18일(3일간)
개최 장소	프랑스 파리, Porte de Versailles 전시장
개최 규모	참관객 6만 8천명(2016년 대비 51% 증가), 참가기업 8000개 스타트업 기업(1112개 선정 프로젝트 스타트업 포함) 전시면적: 4만 5천 s/m ²
개최 주기 및 연혁	연 1회, 2016년 최초 개최
주최	Publicis, Les Echos
홈페이지	www.vivatechnologyparis.com

□ 행사개요

- 스타트업과 글로벌 기업 및 투자가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목표로 2016년 최초로 개최된 스타트업 전문 전시회
- 2018년 약 8000개의 스타트업이 참가, 참관객은 약 6만 8천명
 - 부대행사로 세계상위 10대 벤처투자자, 파트너 기업을 초청해 컨퍼런스 개최
 - 전시회 첫날, 마크롱 대통령, 르메르 디지털부 장관 등 정부각료들이 현장에 방문할 정도로 프랑스 정부는 강력하게 스타트업 육성을 지지

□ 프로그램

- ① Challenge : 스타트업 피칭 콘테스트(사전 선발 100개사 참가)
 - 파트너기업 및 투자펀드가 입상자에게 1천만 유로 포상금 지급
- ② Lab 1:1 상담 : 23개 대기업들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선발한 1,800개 스타트업체(50개국)들과 개별 상담, 파트너십 체결
- ③ 부스 시연 : 국가관 또는 개별부스를 통해 제품 시연

- ④ 세미나 : 기술 트렌드·스타트업 운영 관련 다양한 주제의 강연
- ⑤ Talent Connect : Start-up 및 국제 대기업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 국제 대기업 ↔ 선발된 구직자 간의 1차 상담 진행
 - * 전시회 3일간 파리에서 관련 이벤트 야간 행사 개최

<쏜메데스타트업(Sommet des Startup)>

전시회명	
전시 분야	우주, 건강,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미래 산업과 최신기술 관련 토론 및 전시
개최 기간	2018 년 4 월 11 일
개최 장소	프랑스 파리, 팔레 브롱니아르(Palais Brongniart)
개최 규모	참가기업 600 개 스타트업 기업 전시 분야 전문가 총합 1,000 명 참여 전시면적: 4 천 7 백 m ²
개최 주기·연혁	연 1 회, 2016 년 최초 개최
주최	Challenges, Sciences & Avenir
홈페이지	www.sommetdesstartup.challenges.fr

□ 행사개요

- 2016년 최초로 개최된 미래 산업과 최신 기술에 초점을 맞춘 스타트업 전문 토론 및 전시회
 - 2018년 약 600개의 스타트업 기업이 참가했으며, 토론 및 전시에 참여한 각 분야의 전문가는 1,000명
- 핀테크, 빅데이터, 건강 등 분야의 스타트업의 사업계획 발표와 그 가운데 가장 우수한 기업에게 1년간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의 행사로 프랑스의 미래 산업에 대한 큰 관심 확인 가능

□ 프로그램

- ① Opportunity with Sciences & Future : 인공지능, 우주, 블록체인, 건강, 사이버 보안 등 각분야 전문가들이 스타트업 대표들에게 조언 및 경영 노하우를 전달하는 세미나 진행
- ② 비즈니스 플랜 발표 : 100개 스타트업의 사업계획 발표 후 가장 우수한 기업 선정, 선정된 1개 스타트업은 전문가들의 전략 상담 및 2018년 한 해 동안 투자금을 지원받음.
- ③ PARIS? : 과학기술의 중심지인 파리가 스타트업의 수도가 될 가능성 고찰

<이노 제너레이션(Inno Generation)>

전시회명	
전시 분야	금융 성장, 국제적 발전, 딥테크,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모든 산업 분야
개최 기간	2018년 10월 11일
개최 장소	프랑스 파리, 아크로 호텔 아레나
개최 규모	참가기업 40,000개 스타트업 기업, 참가 인원 1,000명 300개 아틀리에 & 컨퍼런스 전시면적: 4만5천 sq/m ²
개최 주기·연혁	연 1회, 2015년 최초 개최
주최	Bpifrance
홈페이지	innogeneration.bpifrance.fr

□ 행사개요

- 스타트업과 글로벌 기업 및 투자가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목표로 2015년 최초로 개최된 스타트업 전문 전시회
 - 2018년 약 40,000개의 스타트업이 참가하며 금융부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대부분의 산업 분야를 아우르는 대규모 전시회
- 2018년에는 최초로 투자자·바이어·디렉터가 1대1로 만나는 자리 마련
 - 스타트업은 300개의 아틀리에, 컨퍼런스 및 마스터클래스를 통해 분야별 전문가들을 만나 전략 조언 및 상담을 받을 예정

<2018년 전시회 구성>

- Durable Development
 - 지속가능한 발전, 신기술에너지 발전 및 저장 관련 등 미래 에너지 분야의 핵심 안건에 대해 세미나 진행
- Tech & Home
 - 핀테크, 에듀테크, 리걸테크 등 신기술과 결합한 기존 분야들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법과 경영 전략 논의
- Future Challenge 및 미래산업
 - 비디오게임, 미래형 호텔, 미래형 식품, 새로운 소비자 유통 모델 등 도전적인 변화를 꾸준히 시도하는 분야들에 대한 접근 방법 논의
 - 프랑스 경제의 핵심 원동력인 자동차, 위생, 스마트 섬유 등에 대한 미래 전략에 대한 세미나 진행

<기타 프랑스의 주요 스타트업 컨퍼런스>

행사명	개요	프로그램	특징	웹페이지
Start-Up Factory	· 시기: 2018.2.4~6 · 규모 : 6만8천명 참관, 4,000개 스타트업참가(절반이 외국기업)	크라우드펀딩, 인큐베이터, 네트워킹, 혁신기업 지원제도 활용법, 신생기업의 국제화 지원 프로그램, 스타트업의 상장 비결	창업전시회(Salon des Entrepreneurs: 2018.2.7~8)에 앞서 스타트업 창업 및 성장 지원을 목표로 개최하는 행사	www.salondesentrepreneurs.com/startup-factory/
WEB2DAY	· 시기: 2019.6.5~7 · 개최 장소: 낭뜨 · 규모: 5000명 이상 참관, 270명의 연설자, 200회 컨퍼런스	디지털 생태계, marketplace와 SaaS 결합의 장점, 미래의 French Tech, 발전의 핵심 : 세계의 인재, 피터팬 신드롬, Blablacar 창업자 Frédéric Mazzella와의 대담	10년 역사의 디지털 컨퍼런스로서 스타트업을 위한 자금 조달, 액셀러레이터, 경영 등 주제를 다루는 다양한 페스티벌과 컨퍼런스가 있음.	https://web2day.co/
GEN	· 시기: 2018.9.13~14) · 장소: Centre des Congrès Robert Schuman, 메츠 · 규모: 약 3000명 참관 예상	10년 후의 실리콘 밸리, 커져가는 해킹, open innovation, e-solution	프랑스 동부와 룩셈부르크를 대표하는 디지털 컨퍼런스	https://gen.grandestnumentrie.org/

자료원: 코트라 파리 무역관 작성

사. 스타트업 성공 사례

- 유럽 유니콘 기업 총 57개사 중 프랑스 기업은 4개사
 - 블라블라카(카셰어링), 크리테오(온라인광고), 방트프리베(제고처리 온라인 쇼핑 몰), OVH(클라우드 서비스)*

* 크리테오 및 OVH는 ‘가. 스타트업 생태계의 위상과 특징’ 항목 참고

1) 블라블라카(Bla Bla Car)

	
기업명	COMOTU SA(Bla Bla Car 웹사이트 운영회사)
설립연도	2011
거점	프랑스 파리
업종 및 품목	웹 서비스
기업가치	16억 달러
해외진출 현황	유럽, 브라질, 멕시코, 인도 등 22개 국가에 진출
직원 수	5,000명
주요 성과	Insight Venture Partners 및 Lead Edge Capital 등 투자가들 특히, 외국 투자가들로부터 지속적인 자금조달을 받음(2억5900만 달러)

□ 성장과정과 성과

○ 창업 동기·배경

- 1997년 파리 엔지니어 그랑제꼴 졸업 이후 스타트업 초기 시절인 2002년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정보학 석사 취득
- 창업자 프레데릭 마젤(Frederic Mazzelle)은 고속도로의 승용차 대부분에 1~3인이 타고 있다는 점을 관찰하고 승용차를 합승하는 플랫폼 구상
- 시장조사 결과, 프랑스 내 총 승용차 보유량이 3,800만 대, 연간 유지비가 1대당 5,000 유로로 총 유지비가 2,000억 유로(GDP의 10%), 총 보유량의 4%를 평균 1.3명이 사용하는 등 카풀 시장의 잠재력 확인
- 지속적인 유가 파동에 따른 연료비 부담 및 환경보호 정책에 따른 시민 의식 고취 등 카풀 사업에 유리한 여건 확인
- 2006년 온라인카풀(Covoiturage.fr) 회사를 인수해 카풀 사업에 착수, 정보기술 전문가 프란시스 나페즈(Francis Nappiez)와 함께 웹사이트 설계

- 경영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2007년 인시아드에 입학해 MBA 취득 및 상법 전공자 니콜라 브뤼송(Nicolas Brusson)을 발탁
- 매스커뮤니케이션 전공 누이에게 스피치 기법 습득, 투자자 설득에 도움

○ 성장 계기

- 2009년 5개년 사업 계획서 작성 후 투자자 물색
- 프랑스 최대 석유회사 토탈(Total)과 계약하여 신규 가입자에게 토탈 주유소용 상품권(15 유로 상당)을 무료 제공해 가입자 확보
- 이사이(Isai) 펀드 창업자인 피에르 코시우스코-모리제(Pierre Kosciusko-Morizet), 장-다비드 샹보르동(Jean-David Chamboredon)으로부터 100만 유로 조달
- 2015년 미국 Idinvest Partners, 소련 Baring Vostok 등 투자자들로부터 총 2억 6천만 달러 상당의 자금 조달
- 2011년 이사로 영입한 피에르 코시우스코-모리제의 제안으로 개시한 플랫폼 사용 유료화(수수료 7% 책정 → 2015년부터 11%로 인상)가 성장의 열쇠
- 홍보대사 네트워크(1,500명)를 활용한 철저한 A/S
-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40세 이하의 100대 유니콘 및 미국-프랑스 펀드 서클에 가입해 젊은 세대 리더들과 관계 형성 및 두각 표출에 성공
- 2015년 AutoHop, Carpooling.com을, 2014년에 Podorozhniki.com을, 2012년에 postoinauto.it를 인수

○ 사업 규모/해외진출

- 매출 실적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Challenge 잡지에 의하면, 동사는 현재 EU 주요 회원국, 브라질, 멕시코 및 인도 등 총 22개 국가에 진출
- 고객 4천만 명, 자산 1억 6천만 유로로 프랑스 430대 기업에 들.

□ 성공요인

○ 기술 및 비즈니스 모델의 특징

- 2007년 당시 온라인카풀 플랫폼 40여개가 지자체와 계약해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비영리조합 형태들이어서 회비를 내는 회원 가입자가 43만 명에 불과했으며 주로 관할지역 내 단거리 이동에 주력

- 동사는 경쟁업체들이 진출하지 않은 장거리 카풀시장을 타깃으로 삼아 디지털 플랫폼을 개발해 운전자가 출발지, 도착지, 일시, 운전자의 성별, 금연 또는 흡연가, 고객의 소리 수치 등을 올리면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운전자와 고객 간의 비밀이 보장되도록 해 사생활을 중시하는 프랑스인들을 끌어들이는 데에 성공

- 3가지 가치관 제시

- ① 온라인상 신뢰 형성(In Trust we Trust)
- ② 고객 수요를 이해하기 위해 피고용자가 먼저 서비스 이용하기(Think it, built it, use it)
- ③ 회원이 보스다(The member is the boss): 고객의 수요 및 항상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 상설 고객의 소리 전담반을 10여개국어로 운영(온·오프라인)

- 마젤 사장은 6가지 비즈니스 모델 테스트를 통해 장거리 카풀 수수료를 정액제가 아닌 비율제로 정한 것이 성공의 열쇠였다고 밝힘.*

* 플랫폼의 유료화는 일부 지자체 및 고객들로부터의 반발 및 불매 운동의 대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었으나 동사는 운전자의 예약 취소비율 감소(35%에서 4%로 감소) 효과가 있어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 결국 수용됨.

○ 시장 수요

- 유가 상승 및 공공교통 파업 등으로 공유경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시장 수요가 증가
- 2011년 블라블라카로 회사명 변경 및 웹사이트의 유료화(수수료 11%)가 매출 성장에 기여
- 프랑스 카풀 시장의 95%를 석권했으며 10년 만에 세계 장거리 카풀시장의 리더로 성장

□ 성과

- 현지 산업지 Challenge에 의하면, 동사의 임직원 수가 설립 시 5명에서 2018년 초 5000명으로 7년간 1,000배 증가함으로써, 실업난으로 고심하는 지방 및 국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 장거리 카폴시장 확대로 인해 철도회사(SNCF)와 국내선 항공사들이 타격을 받아 저가 항공상품 등을 개발해 대응함으로써, 소비자의 여비 감소 및 물가 안정 등 직간접적인 경제효과 창출
- 한편, 프랑스 정부의 규제 폐지로 인해 도시 간 좌석버스 운수회사가 급격히 늘어남으로써 블라블라카의 매출 증가세가 둔화

2) 방트 프리베(Vente-Privee)

	
기업명	방트 프리베(Vente-privee)
설립연도	2001
거점	프랑스 파리인근(La Plane Saint-Denis)
업종 및 품목	전자상거래, 온라인 이벤트 판매 및 일반 소비재
기업가치	26억 유로
해외진출 현황	유럽 14개국에 진출
직원 수	2,196명(2016년)
주요 성과	매출 30억 유로(2016년) 순익 2600만 유로(2016년)

□ 성장과정과 성과

- 창업 동기·배경
 - 1990년대 말까지 유명 브랜드들이 도매상을 통해서만 시즌이 지난 상품을 판매하고 있어 동 분야에 인터넷 기술을 접목할 경우, 온라인 시장 잠재력이 크고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고 판단
 - 2001년 유명 브랜드의 이미지 보호하기 위해 한정된 고객(회원)을 대상으로 단기간(3~5일) 연 2~3회 온라인 매장을 통해 할인 판매를 하는 사업에 착안해, 프랑스 최초의 유명브랜드 재고판매 전문 전자상거래 업체 설립
- 성장 계기
 - 2007년 Summit Partners가 동사 자본금의 20%를 매입
 - 스페인, 독일, 영국,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베네룩스 3국에 진출(2007~11)
 - 2013~14년 파리극장 및 미쇼디에르극장 매입

- 2015년 경쟁사인 vente-exclusive.com 매입
- 2016년 스페인 온라인 아웃렛 업체 매입, 스위스 및 폴란드 온라인 매장 지분 참여, 파리 부프 극장 인수
- 2017년 포도주 온라인 매장(Le Petit Ballon) 인수 등

○ 사업 규모/해외진출

- 창업 10년 만에 매출이 11억 유로를 돌파하는 유니콘으로 부상, 2016년 기준, 30억 유로에 달하는 등 지속 성장
- 스페인, 독일, 영국,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베네룩스 3국 등 14개국에 진출
- 시즌이 지난 상품을 신속히 판매하기 위해 동사 플랫폼에 가입한 업체가 2,500개로 증가하였으며, 취급 상품도 의류, 스펙터클, 여행, 액세서리, 가구, 완구, 스포츠용품, 하이테크, 식품, 포도주 등으로 다양화

□ 성공요인

○ 기술 및 비즈니스 모델의 특징

- ‘프리미엄 정책과 프라이빗 판매전략’ 으로 차별화에 성공*
 - * 취급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회원가입에 엄격한 제한을 두어 기존 회원의 초대 없이 회원 가입이 불가능하게 함.
 - * 가입자가 스스로 초대된 사람이라는 우월감을 느끼게 해주고, 방트 프리베가 아무에게나 물건을 판매하는 잡화상이 아니라는 이미지를 심어줌.
 - * 고객들은 회원 가입을 기꺼이 하려고 하며 특별한 고급 브랜드 상품을 남들 모르게 저렴하게 구입하기를 즐김.
- 3~5일 정도만 판매하는 ‘판매기간 제한 전략’ 을 통해 지금 구매하지 않으면 다시 살 수 없다는 구매심리를 자극, 새 상품을 보기 위해서라도 사이트 방문을 꼭 하도록 유도
- 자사 제품이 온라인에 오르는 것을 주저하는 유명 브랜드들을 설득하기 위해 자체 스튜디오에서 상품 사진과 음악을 제작하는 등 상품 소개에 주력해 공급선을 확보하는 데에 성공*
 - * 동사의 60개 스튜디오는 3,800s/m의 유럽 최대 규모이며 260명의 사진사, 분장사, 컴퓨터그래픽디자이너 등이 매일 1만 5천 장의 사진, 카탈로그, 음향효과 등을 제작

- 현재 회원 수는 5,000만 명에 달하고 이들 중 53%가 구매하고 있으며, 매일 1만여 명이 신규가입, 450만 명이 웹사이트에 방문
- 2010년 7월 CNBC BUSINESS가 선정한 유럽 25개 창조적인 기업에 포함

○ 시장 수요

- 프랑스 최초로 유명 브랜드 제품을 온라인으로 할인 판매함으로써 Y 및 Z세대들의 수요를 충족
- 편안함을 추구하는 Y세대에게 브랜드 상품이란 실시간 배달이 가능하고 위치, 고객, 제품정보와 항상 연결돼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파악한 것이 성공의 열쇠
- 실용적인 성향이 강한 Z세대는 돈은 적게 쓰지만 만족은 크게 얻으려고 하는 특징이 있다는 점에서 40~70% 할인 판매 전략이 수요를 충족시킴.

□ 성과

- 2016년 기준, 2,200명 고용 및 16만m²의 물류창고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매출은 2008년 6억 3천만 유로에서 2011년 11억 유로, 2012년 13억 유로, 2016년 30억 유로로 지속 증가

<기타 프랑스의 주요 스타트업>

분야	기업명	주요 내용
수상 택시	Sea Bub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속 50km까지 소음도 파도도 공해도 없이 달릴 수 있으나 파리 시에는 이를 도입할 계획에서 센강 규정상 시속 12km로 지난 5월 20일 시범 운행 ▶발명가이자 요트 조종사인 알랭 테보(Alain Thebault)는 2016년 태양전지로 움직이며 수중익선을 이용해 시속 12km가 되면 물 위로 50cm 떠서 달리는 5인승 자연친화적 수상보트 버블(Bubble)을 개발 ▶2017년 프랑스 스타트업 전문전시회 비바테크(VivaTech)에 출시해 파리, 리옹, 마르세이유, 보르도 등 프랑스 주요 대도시에서 도입을 검토 중이며 세계 주요 대도시에서도 구입할 의향을 보이는 등 세계적인 이목을 끌고 있음. ▶2016년 프랑스 일부 투자가들로부터 10만 유로의 자금을 조달받아 시제품을 개발한 후 2017년 150대, 2019년 1,500대 등 양산을 해 2022년까지 50여 개 도시에 보급시킬 계획이며 이를 위해 1억 유로를 투자가들로부터 끌어들이 계획임.
정보 보안	Alsi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보안 스타트업 Alsid는 2016년 6월에 설립된 실시간 정보시스템(소프트웨어) 보안 전문업체로 지난 해 사이버보안 전시회(Assise de Securite)에서 혁신 상을 받음. ▶2017년 하반기 360 Capital Partner 및 Axeleo Capital로부터 150만 유로의 자금을 조달받아 폭발적인 시장에서 미국 및 이스라엘과의 경쟁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개발비로 활용하고 있음. ▶현재 프랑스 40대 기업의 절반 등 60만 개 업체가 사용 중임.
종합식품	Fe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타트업 Feed는 영양학 의학자, 농산물 가공 엔지니어 및 요리장으로 구성된 개발팀을 통해 운동가, 여행자, 식사시간 절약이 필요한 사회인, 작업장 인부 등을 대상으로 한 영양학적으로 완벽한 유당 및 글루텐 프리 스마트 식사를 개발함. ▶고품질 천연 재료(아몬드, 병아리콩, 쌀, 귀리, 당근, 메밀, 산딸기, 아마가루, 크랜베리, 양파 등)를 함유한 요리로 2017년 1월 이래 광고 없이 주로 채식주의자들을 포함해 약 1만 명으로부터 사전 주문을 받았으며 5만 끼니용 식사를 판매해 200만 유로의 매출을 기록함. ▶프랑프리(Franprix) 슈퍼마켓의 주문에 호응하기 위해 2017년 여름 300만 유로의 자금조달을 받았으며 유럽 시장 진출 계획 중
영속 농업 (컨넥티드)	Myfoo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마트 농업 스타트업 Myfood는 도시에서도 24s/m의 좁은 공간만 있으면 4인 가족이 1년 내내 자급자족할 수 있는 400kg의 과일

온실재배)		<p>및 채소와 40kg의 생선을 공급해주는 거의 자율적인(주 1시간만 할애하면 됨) 에코시스템을 개발함(극히 소량의 살충제 및 물만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난 9월 100만 유로의 자금을 조달받아 프랑스, 독일, 스위스, 스페인, 베네룩스 등에 60개의 스마트 온실을 설치함. ▶키트(8,000유로)를 구매하거나 온라인 DIY 도면 및 코드에 맞춰 소비자가 직접 조립할 수도 있음.
로봇	Stanley Robotics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5년에 설립된 로봇 스타트업 Stanley Robotics는 10여년의 R&D 결과, Stan이라는 세계 최초의 자율주차로봇을 개발해 공항, 장기 주차 등 밀집주차 공간 활용도를 50%~100% 향상시켜 파리, 리옹 국제공항에서 시험 중임. ▶100% 전동식이며 시속 30km, 무게 2.5톤으로 특히, 주차하기 어려운 밀폐된 공간(지하 주차장 등)에서 빠른 시간에 주차가능 ▶Eliaia Partners, Bpifrance 및 Idinvest Partners로부터 360만 유로의 자금을 조달받음. ▶동사는 국제화를 위해 추가 투자를 받아 증자할 계획임.
에너지	Oniriq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6년 설립된 태양광 에너지 스타트업 Oniriq은 전기 보급이 되지 않는 지역용 태양전지 키트 SolarBox를 개발함. ▶이 키트는 50와트짜리 태양전지판, 에너지 저장 박스, HD TV, 3개의 램프로 구성되어 있으며 또한 Wi-Fi 라우터가 박스에 장착되어 있어 유심을 끼워 통신망에 연결할 수 있음. ▶350유로인데 모로코, 세네갈 등에 보급하기 위해 매달 7유로 내지 12유로씩 분납 구매할 수 있도록 함. ▶Bpifrance로부터 3만 유로의 자금조달을 받았으며, 5년 내 10만 개의 박스 판매에 필요한 30만 유로의 추가 자금조달을 받을 계획
창조 예술	NoMad-Music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4년 설립된 NoMadMusic은 악기 연습 시 희망하는 오케스트라 반주를 선별할 수 있는 일종의 고음질 가라오케 Nomad Play를 개발해 2017년 말 파리시로부터 혁신 대상을 받음. ▶전문 음악가나 아무추어 음악가들은 자기 악기를 연주하면서 실시간으로 화면을 통해 원하는 악기를 선택하거나 다른 악기로 교체할 수 있어 클래식 음악 연주가나 학생들이 희망하는 오케스트라와 함께 실전 연주하는 경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함. ▶수십 명의 후원자들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으며 10여 개의 파트너 기업의 협찬을 받고 있음.

자료원: 코트라 파리 무역관 조사 작성

아. 협력방안

□ 프랑스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 프로그램 활용

- 프랑스 정부의 프렌치테크, 수도권의 Le Paris Starter Pack 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

□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 참여

- 캡디지탈(Capdigital)과 같은 현지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에 참여, 코치 및 액셀러레이션 등을 통해 유럽 내 경쟁력 강화

□ 현지 관심 육성 분야에 주목

- 프랑스는 핀테크, 딥테크, 헬스케어, 에듀테크 등에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인공지능,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외국 스타트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는데 주목할 필요
 - 실제로 수도권인 일드프랑스 지방은 2018년부터 100만 유로의 포상금을 내걸고 외국 AI 스타트업 선발 경연대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

□ 지식재산권, 개인정보보호법 등 현지 규제 사전숙지 필수

- 2018.5.24일부터 적용된 GDPR과 같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는 유럽 내 가장 주목받는 이슈로서, 규제 사전 숙지를 통해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
- 또한 2018.9월부 시행예정인 적대적 M&A 규제 법안(중소기업 성장 및 전환을 위한 행동계획 PACTE 법안) 등을 숙지하여 규제에 저촉되지 않는 분야에 진출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

차. 유용한 정보원

이름	설명	웹 페이지/(가능할 경우) 연락처
Station F	스타트업 캠퍼스	www.stationf.co
Paris&Co	인큐베이터	www.incubateurs.parisandco.com
Comet	Paris&Co 산하 해외 스타트업 전문 엑셀러레이터	www.comet.parisandco.com
Numa	엑셀러레이터	www.numa.co
Paris Pionnières	여성 기업 전문 엑셀러레이터	www.pionnieres.paris
Le Village by CA	Crédit Agricole은행이 운영하는 엑셀러레이터	www.levillagebyca.com
WAI	BNP Paribas 은행이 운영하는 엑셀러레이터	www.wai.bnpparibas
CNRS	프랑스 국립 과학연구센터	www.cnrs.fr
INRIA	프랑스 국립정보화- 자동화 연구소	www.inria.fr
INSERM	프랑스 국민보건연구소	www.inserm.fr

자료원: 코트라 파리 무역관 조사 작성

3. 독일 베를린

가. 스타트업 생태계의 위상과 특징

□ (위상) 유럽 2위 스타트업 허브 베를린

- 2017년 세계 스타트업 생태시스템 평가 7위 기록
 - 독일의 스타트업 시장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대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속적 발전을 거듭
 - '17년 베를린 스타트업 생태시스템 평가에서 2계단 상승한 7위를 기록, 그 위상을 더하고 있음.*

* Startup Genome(2017): 1위 실리콘밸리, 3위 런던, 7위 베를린, 11위 파리 등

- 독일의 IoT & 핀테크 허브 베를린
 - 베를린은 '17년 하반기 독일의 사물인터넷(IoT)과 핀테크 허브로 선정돼 베를린팩토리, 프라운호퍼, 디지털파워센터 등 연구 기관들과의 컨소시엄을 운영하며 허브로서의 역할 수행
 - 독일 연방정부의 '독일 디지털화(Germany Digitalization)'의 일환으로 총 7개의 디지털 허브를 놓고 독일 내 도시들이 경쟁, 베를린이 선정
 - 베를린에는 독일 내 가장 많은 핀테크와 사물인터넷 스타트업이 존재*
- * 독일 핀테크 기업의 1/3에 달하는 288개의 핀테크, 75개의 IoT 스타트업이 자리 잡음.
- 베를린 상원의원 Ramona Pop은 “베를린이 독일 디지털화에 큰 공헌을 하는 것은 물론, 디지털 신규 사업 창출 및 기존 비즈니스의 디지털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밝힘.

□ (특징·강점) 외국인 친화적 열린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

- (자금조달 여건) 베를린은 독일 내 투자비중 압도적 1위, 유럽 2위
 - '17년 독일 100대 스타트업 투자 중 베를린이 69.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독일 내 자금 조달에 있어 독보적*
- * 함부르크(8.1%), 뮌헨(7.9%), 뒤셀도르프(2.3%), 칼스루어(1.8%) 프랑크푸르트(0.6%)
- '17년 베를린 스타트업 투자 금액은 30억 유로를 기록, 런던(49억 유로)에 이어 유럽 2위를 기록

- 독일 스타트업의 자금원은 정부보조금(34.7%), 개인자본(31.6%), 엔젤투자(21.3%), 벤처투자(15.9%), 은행대출(14.1%) 순(중복응답)
- 그 중 베를린이 가장 낮은 개인자본 투자 비중(15.6%)을* 기록하여 양호한 스타트업 투자 생태환경 보유한 것으로 평가
- * 독일 전체(21.7%), 뮌헨(26.2%), 함부르크(25.8%), 라인/루어(23.9%), 하노버/올덴부르크(19.3%)

○ (EXIT 용이성) 기업투자자에 의한 M&A 활성화

- 해외 EXIT 증가로 ' 17년 54%의 EXIT가 독일 이외 투자자들에게서 발생
- * 투자자의 64% 유럽, 35%는 북미 출신이었으며, 아시아 투자자의 비중은 1% 수준
- 기업 투자자에 의한 M&A가 독일 스타트업 EXIT의 가장 큰 비중 차지(88%)
- ' 17년 121개의 M&A 거래가 이루어 졌으며, 그중 43%는 기술기반 기업 투자자에 의한 것*
- * 그 외 13%는 소비재 및 유통, 12%는 미디어 기업
- ' 17년 3건의 기업공개-상장(IPO)를 이루었으며, 15억 달러의 자금 조달*
- * IPO 스타트업 상장가치(USD): 딜리버리 히어로(4,840 백만), 헬로 프레쉬(1,870 백만), 뮌나릭(161 백만)

○ (대외 개방성) 외국인 친화적인 비즈니스 환경

- 창업자의 43%가 외국인으로 실리콘밸리를 이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외국인 창업 비율
- 스타트업 가운데 약 20%는 타지에서 창업하여 이주해온 기업으로 구성
- 외국인 창업자 대상 77%의 높은 비자 발급률 및 빠른 비자 발급기간
- 유럽에서 가장 높은 42%의 해외고객 대상 비즈니스 모델 보유
- 스타트업 종사자 중 57.7%는 독일 이외의 국적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

□ 스타트업 창업 추이와 대표 스타트업

○ 창업도시 베를린

- ' 17년 1,800~2,400여 개의 테크 스타트업 활동 중, 독일 스타트업의 17%가 베를린에 위치
- * 2위 라인-루르 지방 (14.1%), 3위 슈투트가르트(8.9%), 4위 뮌헨 (7%), 5위 하노버, 올덴부르크(14.1%), 6위 함부르크 (6.4%)

- 베를린 스타트업에는 평균 2.3명의 창업자와 27.2명의 직원 고용
 - * '17년 독일 평균: 2.3명 창업자, 10.9명 직원, 뮌헨: 2.6명 창업자, 11.1명 직원, 함부르크: 2.4명 창업자, 9.2명 직원
- 베를린 스타트업은 향후 1년간 기업 당 평균 14.4명의 고용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독일 평균(7.5명) 및 뮌헨(6.9명)보다 크게 높아 고용창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남.
- 베를린 스타트업의 메카, 동베를린
 - '17년 독일 스타트업의 반 이상인 55.7%는 B2B, 24.7%는 B2C 비즈니스 모델 운영, 약 20%는 두 영역 모두에서 서비스 제공
 - 주요 분야는 IT, 소프트웨어개발(19.4%), SaaS(12%), 산업기술/생산/하드웨어(9.1%), 전자상거래(6.8%), 오픈 마켓(5.4%)
 - 베를린의 스타트업 대부분은 주로 동베를린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로 전자상거래(17%), AdTech(11%), 핀테크(9%)에 종사
- 독일 스타트업을 이끄는 '로켓 인터넷' 군단
 - 로켓인터넷(Rocket Internet)은 '07년 잠버(Samwer) 삼형제가 설립한 스타트업 인큐베이터로서, '카피캣' 공장이라는 오명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독일 대표 스타트업 육성
 - '17년 30,000명의 직원 및 36.8 백만 유로 매출을 기록하였으며, 40여 개국 스타트업 인수 및 운영 중
 - 대표 스타트업 : 잘란도(Zalando), 딜리버리 히어로(Delivery Hero), 헬로프레쉬(Hello Fresh), 홈24(Home24) 등
 - * 잘란도 : '08년 베를린 설립, 온라인 신발 유통기업으로 시작하여, 7년 뒤 25억 유로의 매출을 올리는 유럽에서 최대 온라인 패션유통기업으로 성장, 독일대표 유니콘 중 하나
 - ** 딜리버리 히어로 : '11년 베를린에서 설립된 음식 배달서비스 기업으로 현재 40여 개국에서 운영 중, 한국에서는 요기요('14년 배달통인수, '17년 푸드플라이 인수)로 알려짐.
 - *** 헬로프레쉬 : '11년 베를린에서 설립된 밀키트(Meal kit) 배달 기업으로서, 미국에서 2번째로 큰 밀키트 기업으로 성장. 북미·유럽 7개국 진출, '17년 IPO 진행, 기업가치 17억 유로 평가

<베를린의 Top 10 스타트업>

스타트업명	분야	비고	총 펀딩(USD)
Delivery Hero	음식 배달 서비스	2011	1,856 Million
Auto 1 Group	자동차 소매	2012	520 Million
Sound Cloud	음악 스트리밍	2007	468 Million
Hello Fresh	밀키트	2011	370 Million
GetYourGuide	여행 관련 추천	2009	171 Million
Home24	가구 소매	2009	156 Million
GoEuro	여행 검색 엔진	2012	146 Million
Spotcap	SME 맞춤 대출	2014	113 Million
ResearchGate	지식 네트워크	2008	88 Million
Movinga	이사 서비스	2015	76 Million

자료원: 코트라 함부르크 무역관 작성

나. 주요 창업 클러스터/캠퍼스

□ 실리콘 앨리, Silicon Allee

○ 베를린 스타트업 생태시스템

- '11년 2월 베를린 스타트업 밋업(Meetup) 이벤트 개최를 개기로 현재까지 매월 1회의 밋업을 이어가고 있음.
- 베를린에서 영어로 진행된 최초의 밋업 이벤트
- '16년 스타트업을 위한 사무 공간, 주거, 이벤트 공간 조성
- 실리콘 앨리 캠퍼스는 미테(Mitte) 지역*에 7,500m² 규모로 조성되었으며, 주변에 10여개의 VC와 35여개의 스타트업, 코워킹 스페이스 보유
- * 베를린 중심에 위치한 舊동독 지역으로서 예술가 등 창의인재들이 몰려들어 유명해진 지역
- 입주기업 : Here, Strip, BIGCHAIN, ocean, Klara, Point Nine(엔젤 VC)

□ 팩토리 베를린, Factory Berlin

○ Organic Acceleration, 유럽의 실리콘 밸리를 꿈꾸는 ‘팩토리 베를린’

- '14년 구글의 투자를 받아 기존 사업과 하이테크 산업의 협업을 위해 세워졌으며, 사무 공간, 네트워킹, 컨설팅 서비스 제공
- 미테 지역의 과거 양조장 공간 16,000m²에 조성되었으며, '18년 Kreuzberg 지역에 14,000m² 규모의 2호점 오픈

- We Work처럼 국제적 확장을 위해 '17년 백만 유로의 자금을 유치한 바 있으며, '19년 리스본에 첫 캠퍼스 오픈 예정
- 입주기업으로는 6Wunderkinder, SoundCloud, Twitter, UBER, Zendesk 등이 있으며, 이들은 스타트업의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역할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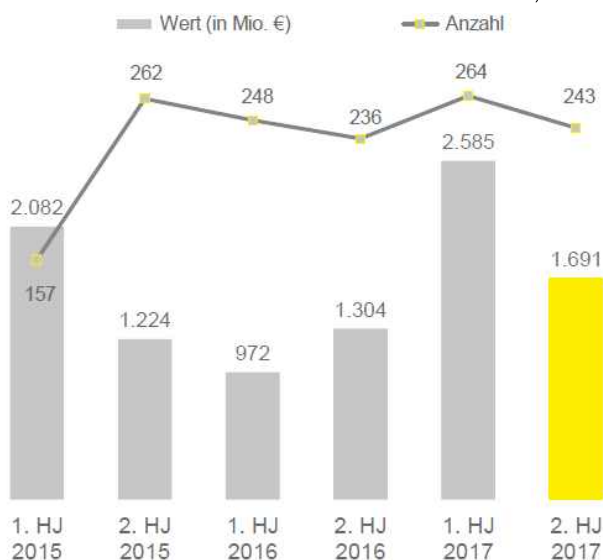
다. VC 현황

□ 투자 규모

- 독일은 '17년 스타트업 투자 최고액 기록
 - '17년 독일 스타트업 투자액은 상반기 폭발적인 투자에 힘입어 42억 7,600만 유로, 507건으로 영국에 이어 유럽 내 2위 기록*
 - * '17년 스타트업 투자 금액 1위 영국(64억 2,400만 유로), 2위 독일(42억 7,600만 유로), 3위 프랑스(25억 6,300만 유로)
 - '17년 독일 스타트업 투자는 전년대비 대비 88% 증가하였으며, 그중에서도 베를린은 170%의 높은 성장률 기록
 - 베를린 스타트업의 '17년 투자액은 29억 5,900만 유로였으며, 독일 전체 투자의 69%를 차지하며 독일 내 압도적 위치 점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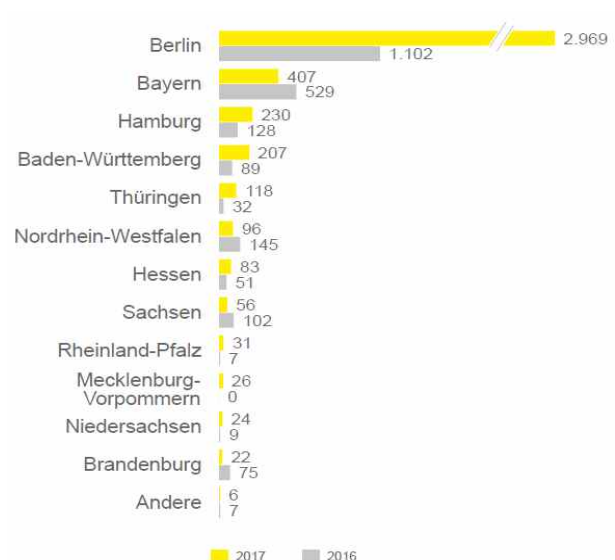
<2015~17년 독일 스타트업 투자액 및 건수>

(단위: 백만 유로, 건수)



<2016~17년 독일 도시별 스타트업 투자액>

(단위: 백만 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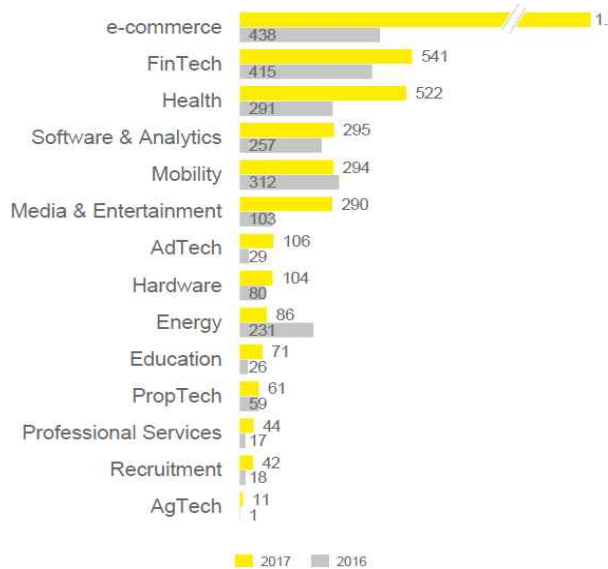
자료원: Ernst & Young, 2018.1. Startup Barometer Deutschland

□ 주요 투자 업종

- 전자상거래, 핀테크, 헬스케어, 소프트웨어, 모빌리티 주목
 - '17년 독일에서 가장 큰 금액이 투자된 분야는 전년대비 4배 이상의 성장을 보인 전자상거래 분야임.
 - 그 외 상위 10개 분야는 핀테크, 헬스케어, 소프트웨어, 모빌리티, 미디어, AdTech, 하드웨어, 에너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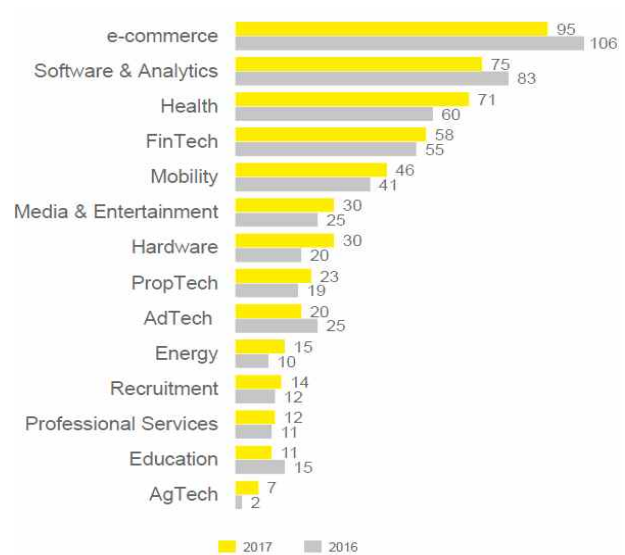
<주요 투자 업종 별 투자금액>

(단위: 백만 유로)



<주요 투자 업종 별 투자 건수>

(단위: 건수)



자료원: Ernst & Young. 2018.1. Startup Barometer Deutschland

□ 주요 VC

회사명	Earlybird Venture Capital
주소	Münzstraße 21 10178 Berlin
전화번호	+49 30 4672 4700
연락처	웹사이트를 통해서만 연락 가능
웹사이트	https://earlybird.com/
개요	1997년 설립되어 캐피탈 투자를 시작, 유럽에서 가장 많은 경험을 보유한 VC로 유럽의 초기 테크 스타트업에 투자진행(최소 투자 250K~천만 유로)
전문분야	모든 분야에 고르게 투자 특히, 디지털 헬스, 메디컬 장치, 진단장치

회사명	Point Nine Management GmbH
주소	Chausseestraße 19 10115 Berlin
전화번호	-
연락처	info@pointninecap.com
웹사이트	http://www.pointninecap.com/
개요	2011년에 설립된 Software as a Service, 디지털마켓 스타트업 대상 투자를 진행하며, 아시아로는 일본 스타트업에 투자한 바 있음(최소 투자 200K~2백만 유로).
전문분야	SaaS, B2B 소프트웨어, AI, 암호화 화폐

회사명	Project A
주소	Julie-Wolfthorn-Str. 1 10115 Berlin
전화번호	+49 30 340 606 321
연락처	newbusiness@project-a.com
웹사이트	https://www.project-a.com/en
개요	2012년에 베를린에 설립, 현재까지 140 백만 유로의 펀드를 조성 운영하였으며, 주로 시드, 시리즈 A에 투자하고 있으며, 45개 스타트업에 투자한 바 있음(최소 투자 500K~5백만 유로)
전문분야	인터넷, 디지털 인프라스트럭처, B2B 기반 비즈니스

회사명	Rocket Internet / Global Founders Capital
주소	Charlottenstraße 4 10969 Berlin
전화번호	0049 30 300 13 18-00
연락처	investorrelations@rocket-internet.com / contact@globalfounderscapital.com
웹사이트	https://www.rocket-internet.com / https://www.globalfounders.vc/
개요	2007년에 설립된 로켓인터넷은 독일에서 가장 큰 벤처 투자사로 독일 유니콘(딜리버리히어로, 잘란도 등)은 모두 로켓인터넷 출신. 창업아이템 발굴, 론칭까지 100일 정도 걸림. 로켓인터넷에서 운영하는 VC 유닛으로 Global Founders Capital이 있음.
전문분야	인터넷 기반 서비스 전반, 유통, 물류 등

라. 주요 액셀러레이터

□ 대기업 운영 액셀러레이터 주도

○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스타트업 육성

- 독일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신산업과 융합한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스타트업 지원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운영 중

<베를린의 대표적인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이름	파트너 기업/기관	기간	기업 수	지원내용	유망 협력 분야
Hub:raum	Deutsche Telekom (도이체 텔레콤), 마이크로소프트, 노키아	3개월	20+	- 투자 금액 - 작업 공간 제공 - 멘토링, 파트너십, 네트워킹 등	IoT, 커뮤니케이션, 5G, AI, 스마트홈 등
Axel-Springer Plug & Play Accelerator	Axel Springer SE, Porsche	3개월	100+	- 소액 투자 - 작업 공간 제공 - 멘토링, 파트너십, 네트워킹 등	디지털 미디어, 클라우드 서비스, 모바일앱, 인터넷 기반 비즈니스
Grants4Apps	Bayer AG	3개월	50+	- 소액 투자 - 작업 공간 제공 - 멘토링, 파트너십, 네트워킹 등	디지털 바이오 헬스 솔루션
METRO ACCELERATOR	Metro AG, Techstars	3개월	50+	- 소액 투자 - 작업 공간 제공 - 데모데이 준비 - 멘토링, 파트너십, 네트워킹 등	리테일(유통), 호스피탈리티(호텔, 음식 서비스, 카지노, 관광 등)

자료원: 코트라 함부르크 무역관 조사 작성

마. 정부·지자체 지원정책

□ 정부 차원의 스타트업 육성 전략

- 독일 스타트업 협회의 ‘스타트업 어젠다 2017’
 - 독일 연방정부는 스타트업 육성에 지난 4년 간 5억 유로 지원
 - 독일 스타트업 협회는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16개 항목의 어젠다 발표
 - 주요 내용은 학생 대상 창업교육, 창업자 지원, 외국인 창업자를 위한 제도 개선*, 유럽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스타트업을 위한 세제 개선 등
- * 독일 고용주가 외국인 고용 시 사유서 제출 폐지, EU 역외 시민을 위한 스타트업 비자 개설, 외국인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웰컴센터 설립 등 건의

□ 정부/지자체 차원의 지원제도

- 사업자금 특별 대출 프로그램
 - 정부 차원의 지원 프로그램은 크게 사업자금 특별 대출 프로그램, 테크

- 스타트업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환경보호 분야 지원 프로그램으로 구분
- 사업자금 특별대출 프로그램*은 종류가 다양하며 대부분은 독일재건은행 (Kreditanstalt für Wiederaufbau)에 신청**
 - * 창업자금(유럽부흥펀드), 초기자본 창업대출(유럽부흥펀드), 보편적 창업대출(유럽부흥펀드), 마이크로론, 기업대출(독일재건은행), 디지털/혁신대출(유럽부흥펀드) 등
 - ** 독일재건은행 연락처: Infocenter: +0049 (0)8 00 5 39 90 01, Tel.: +0049 (0) 69 74 31 -0, Fax: +0049 (0)69 74 31-29 44, E-Mail: info@kfw.de, Internet: <http://www.kfw.de>
 - 일반 자격 요건 : 3년 이내 신생 기업, 관련 분야의 학위를 소지한 창업인 등. 각 프로그램 별로 지원내역 요건이 상이

○ EXIST 창업 장학금

- 테크 스타트업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은 High-Tech 창업펀드, EXIST 창업 장학금, EXIST 기술이전, 정보통신 및 생명공학 스타트업을 위한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 등이 있음.
- EXIST 창업 장학금 신청 자격 : 학위소지자, 대학교 재학생
- 매월 최대 3,000 유로, 지원기간 내 최대 30,000 유로 생활보조금 지원
- 환경보호 분야 지원 프로그램은 대기오염, 소음, 기후변화, 폐기물 예방, 처리 및 재활용, 폐수 처리 분야의 창업이 신청 대상이며, 독일재건은행 은행 그룹에서 일반 대출보다 나은 조건으로 대출 지원을 받음.

○ 베를린 경제 진흥기관 “Berlin Partner”

- 베를린시 경제 진흥기관 베를린 파트너(Berlin Partner)는 베를린 스타트업의 발전과 사업 환경 개선을 위해 각종 스타트업 관련 사업 운영
- 다양한 창업 서비스 : ① 사무실 물색을 위한 로케이션 서비스, ② 재정 지원 프로그램을 찾기 위한 파이낸싱 서비스, ③ 인재 채용 서비스, ④ 연구소와 협업을 위한 기술 서비스, ⑤ 국제화 서비스, ⑥ 거주허가 비자 발급을 위한 이민 서비스*

* 각 서비스의 담당자는 베를린 파트너, 비즈니스 로케이션 센터(<http://www.businesslocationcenter.de/kr/service>) 에서 확인 가능

바. 주요 스타트업 컨퍼런스

□ TechCrunch Disrupt Berlin

○ 행사 개요

- 주최 : TechCrunch*

* 북미 테크/IT 뉴스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미디어 업체로 매달 3,700만 페이지뷰를 달성하고 있는 글로벌 스타트업 정보 플랫폼

- 기간/장소 : 2018.11.29(목) ~ 11.30(금) / Arena Berlin Eichenstrasse 4

- 행사 목적 : 유럽 지역 최신 및 스타트업 트렌드 파악

- 주요 참가자 : 유럽 진출을 희망하는 첨단기술* 보유 스타트업

* AI & Machine Learning, VR, AR, Fintech, IoT, Hardware, Foodtech Robotics, E-Commerce & Retail 등(TechCrunch, <https://techcrunch.com>)

○ 프로그램

- ① Battlefield : 스타트업 피칭 콘테스트(사전 선발 10개사 참가, 상금 50,000 USD)

- '17년 우승 : Lia (Femtech 여성 건강, <http://www.liadiagnostics.com/>)

- ② 1:1 매칭(Crunch Matching) : 스타트업 매칭 플랫폼을 통한 스타트업, VC 매칭

- ③ 부스 시연 : 국가관 또는 개별부스를 통해 제품 시연

- ④ 컨퍼런스 : 시장 기술 트렌드소개, 진출전략, 창업경험 공유, 스타트업 운영 관련 다양한 주제의 강연

- ⑤ 네트워킹 : 각종 부대행사*, 스폰서 주최 파티

* Korea & Tech Reception 진행

< TechCrunch Disrupt Berlin 2017 한국관 참가개요 >

- 규모 : 21개사(협업기관 4개, 총 60명)
 -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한국정보화진흥원, 경기경제과학진흥원
- 분야 : 소프트웨어/서비스, 클린테크, 에너지, 교육, 게임, 생명과학 등

<베를린의 주요 스타트업 컨퍼런스>

컨퍼런스명	개요	프로그램	특징	웹 페이지
Tech Open Air (TO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최시기 : 2018.6.19.-22 · 규모 : 참가객 20,000명 	컨퍼런스, 피칭, 전시, 1:1 상담, 네트워킹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년부터 베를린에서 크라우드 펀딩으로 시작된 테크 페스티벌로 현재는 유럽에서 잘 알려진 테크 컨퍼런스 	https://toa.berlin/
NOAH Confere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최시기 : 2018.6.19.-22 · 규모 : 참가객 3,500명, 투자자 700명, 스타트업 1,500개사 	컨퍼런스, 매치메이킹, 기업 프레젠테이션, 네트워킹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를린, 런던, 텔아비브에서 번갈아 열림. · '18년 10월30-31일 런던 개최 예정 	https://www.noah-conference.com/

사. 스타트업 성공 사례

1) Delivery Hero

	
기업명	Delivery Hero SE
설립연도	2011.05
거점	독일 베를린
업종 및 품목	음식 배달
기업가치	50억 USD
해외진출 현황	40여 개국 진출
직원 수	14,631 명
주요 성과	독일 유니콘, 40여 개국 진출,

□ 성장과정과 성과

○ (창업 동기/배경) 음식 배달 시장의 무궁한 성장 가능성

- 창업자 Östberg는 음식 배달문화가 거의 없던 스웨덴에 '07년 온라인 피자 배달앱 'OnlinePizza Norden AB' 설립
- 음식 배달시장의 가능성을 보고 유럽(핀란드, 오스트리아, 폴란드 등)으로 확장
- 그러나 자본력으로 인한 성장에 한계를 느끼고 베를린으로 이전, Delivery Hero 창업에 합류, OnlinePizza Norden은 '12년 Delivery Hero에 인수됨.

- (성장 계기) '14년 유럽에서 가장 큰 3.5억 USD 투자 유치
 - Delivery Hero에 인수되면서 급성장
 - ' 13년 50,000여개 레스토랑과 협업, ' 14년 매달 5백만 여개의 주문을 기록하며 꾸준한 성장세
 - ' 14년 미국 투자자로부터 3.5억 달러의 투자유치 성공, ' 99년 이후 유럽에서 3번째로 큰 스타트업 투자로 기록
- (사업 규모/해외진출) 40여 개국 진출, 19만 여개 레스토랑 파트너십 체결
 - 사업 초기부터 적극적인 M&A로 사업규모 확장, 해외진출에도 박차
 - ' 16년 설립 5주년 'Foodpanda' 인수 후 이미 40여개 국가, 매달 2천만 개의 주문 기록
 - 단, 시장 경쟁상황과 까다로운 당국의 승인으로 영국 사업 철수

□ (성공요인) 적극적인 M&A 및 초기 시장 선점

- (기술 또는 비즈니스 모델의 특징) 음식 배달 O2O 플랫폼
 - 딜리버리 히어로는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배달음식을 주문할 수 있는 O2O(Online to Offline) 플랫폼
 - 기본 사업모델: 레스토랑으로부터 광고비나 수수료를 받아 이용자와 연결
 - 이러한 사업 모델은 많은 고객, 레스토랑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딜리버리 히어로는 적극적인 M&A로 음식 배달 플랫폼 시장을 초기에 선점
- (시장 수요) 연평균 12%의 성장률, 성장하는 시장
 - ' 18년 독일 온라인 음식 배달 시장은 전년대비 13.5% 성장한 19.9억 달러 규모이며, ' 22년까지 30억 달러로 성장할 전망
 - 세계 매출 기준 주요 시장은 중국(\$416억) 미국(\$201억), 인도(\$71억), 영국(\$33억) 등(한국: 15억, 일본: 19억 USD)
 - 주요 고객층은 25-34세(30.7%), 18-24세(21.6%), 35-44세(21.2%)

□ (성과) 유럽 최고의 스타트업, 고용 기여도 역시 높음.

○ 유럽 최고의 스타트업 선정, 성공적 IPO

- '14년 네덜란드의 경제지 아머스는 딜리버리 히어로를 유럽 최고 스타트업으로 선정
- '17년 IPO 진행하여 2년 내 상장된 기업 중 가장 큰 테크 기업, 첫날 1주 당 26.9 유로에 거래
- 상장된 지 1년도 되지 않은 '18년 MDAX에 포함*

* MDAX : DAX에 상장된 기업 중 51~100번째로 크고 유동성 좋은 기업

○ 베를린 고용을 이끄는 스타트업

- 베를린은 분단의 역사로 인해 전통적으로 산업 기반이 약한 가난한 도시라는 평판이 있었으나, 최근 유럽의 스타트업 허브로 자리매김
- 베를린 스타트업의 성공을 이끌고 있는 기업으로 로켓 인터넷이 있으며, 딜리버리 히어로는 로켓인터넷의 중요한 성공스토리
- 베를린은 독일에서 스타트업이 가장 많이 설립되는 도시가 되었으며, 스타트업에 의한 고용효과가 가장 큰 도시
- 딜리버리 히어로는 '18년 현재 베를린에 1,000여 명의 직원 고용

2) N26

N26	
기업명	N26
설립연도	2013
거점	독일 베를린
업종 및 품목	금융업
기업가치	2.15억 USD
해외진출 현황	18여 개국 진출
직원 수	430 명
주요 성과	매달 10억 유로의 거래량

□ 성장과정과 성과

○ (창업 동기/배경) 모두가 사용하기 좋아하는 은행을 만들기 위해

- 창업자 Stalf와 Tayenthal은 오랜 친구로 현재 은행 시스템에 만족하지

못하여 창업을 결심

- 디지털 혁신, 고객 개별수요 맞춤형 서비스 등에 초점을 맞추어 '13년 앱 기반 모바일 은행 'Number 26' 창업

○ (성장 계기) 은행 라이선스 획득 및 대규모 투자 유치

- '15년 첫 제품 출시와 함께 1백만 명 이상의 고객 유치
- '16년 1천만 유로의 시리즈 A 투자유치에 성공하고, BaFin로부터 은행 라이선스 획득한 후 기업명을 Number 26에서 N26으로 변경
- '18년 중국 Tencent Holdings 와 Allianz X에서 2억 1,500만 유로의 시리즈 C 투자유치 성공

○ (사업 규모/해외진출) 유럽 17개국 진출, 베를린 및 뉴욕 사무실 운영

- 유로존 중 말타와 키프로스 이외 국가에 주소지를 둔 경우 계좌 개설 가능
- '18년 하루에 2,500명의 신규 계좌 개설, 매달 10억 유로 이상 거래량

□ (성공요인) 소비자의 니즈와 디지털 시대를 읽은 은행

○ (비즈니스 모델의 특징) 빠르고 이용이 간편한 계좌

- 사용하기 편리한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리얼타임뱅킹 서비스' 제공
- 기존 독일 은행에서 계좌를 열고 현금카드 혹은 신용카드를 받기까지 최소 2-3주의 시간이 걸리는 반면, N26은 화상통화 한번으로 계좌 개설 가능하며, 신용카드 수령까지 5-6일 소요
- 계좌 유지비가 없으며, 카드를 잃어버렸을 때 은행을 통하지 않고 바로 정지할 수 있다는 점, 해외 결제 시 수수료가 없다는 점 등이 장점

○ (시장 수요)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유럽을 넘어 세계로 확장

- 독일의 온라인 뱅킹 이용률은 '06년 32%에서 '16년 53%로 증가
- 미국에서는 '16년 모바일 뱅킹을 사용하는 인구가 1억 명으로 인구의 1/3이 사용하는 것으로 추산
- '20년까지 5백만 명의 고객을 유치하는 것이 목표


□ (성과) 베를린의 핀테크를 이끄는 N26

- 독일에서 최초로 은행 라이선스를 획득한 모바일 은행
 - '17년 베를린은 독일의 핀테크의 허브로 선정되었는데, N26은 베를린에서 새로운 산업을 개척한 핀테크 성공 스토리로 주목 받음.
 - 미국과 베를린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43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이란 평을 얻음.

<베를린의 주요 스타트업>

분야	기업명	주요 내용
자동차 소매	Auto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uto 1(아우토 아인스)는 2012년 베를린에 설립되어 현재 유럽에서 가장 큰 중고차 판매 플랫폼으로 성장 ▶ 30여 개국 2,500명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하루에 3000여대 이상의 자동차가 거래됨 ▶ 2018년 소프트뱅크는 Auto 1의 기업 가치를 29억 유로로 평가
음악 스트리밍	Sound Clou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7년 스톡홀름에 설립되었다 베를린으로 본사를 옮긴 글로벌 온라인 음악 유통 플랫폼 ▶ 사진에는 플리커, 영상에는 유튜브와 비메오가 있다면 음악에는 사운드 클라우드가 있다고 묘사되곤 했으나 최근 수익구조 악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음.
밀키트 배달	Hello Fresh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년 베를린에 설립된 밀키트 배달 서비스 제공 기업으로 현재 8개국 (미국, 독일, 영국, 네덜란드, 벨기에, 오스트리아, 호주, 스위스) 진출 ▶ 독일에서는 레시피를 포함한 식료품 배달 분야 1위이며, 미국에서는 경쟁사 Blue Apron에 이어 2위차지 ▶ 2017년 성공적인 IPO를 진행, 당시 17억 달러로 가치를 평가받았으며, 경쟁사 Blue Apron IPO 가치에 비해 2배 이상

3) 한국 스타트업 Bepro 11

	
기업명	Bepro 11
설립연도	2014.7
업종 및 품목	축구 경기 녹화 모니터링, 트레이닝 편집 앱
해외 거점	독일 베를린-> 함부르크
현지 진출방법	현지 법인(유한회사) 설립
투자규모	시리즈 B 103억 투자유치
현지 직원 수	20명
진출 성과	KOTRA 지원 현지 법인 설립, 설립 1년 만에 직원 규모 2배 성장, 오스트리아, 스페인 등 유럽 다른 국가로 확장

□ (진출 동기·방법) 현지 법인 설립으로 직접 진출

○ (진출 동기/배경) 독일에서 찾은 기회

- 독일 축구시장은 시스템이 잘 되어있고, 특히 비디오 및 데이터 분석의 가치와 활용법을 잘 인지하고 있는 시장
- 독일 출장에서 만나본 대부분의 축구팀들로부터 긍정적인 피드백을 얻었으나, 현지법인 없이는 계약이 어려워 현지 진출 결심
- 독일은 유럽의 가운데 위치하고 있어 다른 유럽 시장으로 확장에 유리

○ (진출 방법) 현지 법인 설립으로 시장에 가까이

- 해외사무소, 지사 설립에 외화 획득 실적 30만, 1백만 달러 이상인 기업 등의 조건을 스타트업으로서는 만족하기 어려워 현지법인 설립으로 결정
- 독일에서 법인설립까지 한 달 소요, '17년 7월 설립완료

○ (사업 규모/해외진출) 1년 만에 독일 직원 규모 2배로 성장

- 독일 진출 1년 만에 직원 수가 2배로 증가, 새로운 사무실 물색 중
- '18년 현재 독일, 오스트리아, 미국, 태국에 진출

□ (성공요인) 제품에 대한 자신감과 타이밍

○ (기술 또는 비즈니스 모델의 특징) 축구 경기 녹화, 편집 분석 앱

- 경기장에 3대의 카메라가 설치되며 이 3개의 영상을 하나로 붙이는 시스템 사용, 기존 각 축구팀에서 직접 찍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음.
- AI 기반 분석기술을 이용하여 선수를 인식하고 트래킹하는 기술로 기존의 분석에 소요되는 노동력, 비용, 시간을 절반으로 줄여 1부 리그 뿐 아닌 하부 리그팀도 사용이 가능케 됨.
- 쉽고 직관적인 플랫폼으로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영상과 데이터를 볼 수 있도록 시스템 최적화, 다양한 기능을 빠르게 업데이트

○ (시장 수요) 한국과 비교할 수 없는 시장규모

- 독일 축구는 9부 리그까지 존재(총 3천여 개의 축구팀), 8부 리그까지 소정의 급여를 받고 훈련을 받고 경기를 하며, 홈구장과 클럽하우스를 보유
- 독일은 전세계에서 교육받은 코치수가 가장 많은 나라이며, 2위인 영국보다 10배 정도 많은 것으로 알려짐.

□ (전망) 경쟁사도 존재하지 않던 독일 시장

○ 고객의 니즈가 있었음에도 마땅한 제공자가 없던 시장

- 진출 당시 축구의 나라 독일에서 막연히 존재할 것이라 생각했던 경기 녹화 및 분석 기술 솔루션 제공 기업이 없었음.
- 독일의 축구 시장도 매우 커 제품을 개발하기에도 좋은 조건
- 독일 시장을 발판으로 다른 유럽 시장으로 확장하는 것이 목표

□ (진출 시 유의사항) 현장 경험이 가장 중요

○ 인터넷 조사보다 중요한 현장 조사 그리고 타이밍

- 대표와 그의 팀은 독일에 연고도 없으며, 독일어도 못하고, 외국 경험도 없었으나, 열정 하나로 독일의 문을 두드림.
- 실제 독일 진출을 결심케 한 것은 두 번의 독일 출장이었으며, 출장에서 고객으로부터 직접 만나 들었던 피드백이었다고 함.

○ 선택과 집중의 전략

- 제품과 고객 두 가지를 제외한 모든 일을 없애버린 선택과 집중 전략을 가지고 해외 진출에 임함.

- 독일에 오겠다고 결정했을 당시 제품과 서비스가 완성되지 않았을 때였으나, 서비스 완성을 기다리지 않고 진출 및 서비스를 고도화를 동시에 구사하는 전략으로 적절한 타이밍을 잡을 수 있었음.
- 독일 비즈니스에서 만난 의외의 복병
 - 독일은 예상보다 매우 느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인터넷 설치, 계좌 개설, 관공서 방문, 사무실 구하기 등에 생각보다 긴 시간이 필요
 - 특히 독일의 주요 도시에서는 독일인도 집을 구하는데 매우 큰 어려움이 있으므로, 넉넉한 시간과 인내심으로 접근해야 함.
 - 해외에서의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팀워크가 매우 중요

아. 협력방안

□ 현지 대기업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 참가

- 현지 시장 조사, 대기업과의 협업, 컨설팅의 기회
 - 독일 대다수 대기업은 신 산업과 융합한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스타트업 지원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 운영 중으로 적극 활용
 - 한국 스타트업에 대해 현지 액셀러레이터들의 관심이 높음.
 - 프로그램에 선발되면 대개 3개월 간 현지 사무실 이용, 컨설팅을 받게 되므로 시장 조사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음.
 - 주요 프로그램 예시(아래 그림상자 참고)

- **Granst4Apps** : 150 여개국에 진출한 Bayer사의 유망 스타트업 발굴보육 프로그램으로서, 미래 혁신을 위해 베를린에서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50여개 이상의 스타트업을 보육하였으며, 2개의 한국 스타트업이 참여 한 바 있음.
- **Hub:raum** : 세계 3위 통신사 도이체텔레콤의 스타트업 투자, 육성 프로그램으로서, IoT, 5G, 스마트 시티 분야 유망 스타트업 발굴에 중점
- **Axel Springer Plug & Play Accelerator** : 유럽에서 가장 큰 디지털 미디어 그룹이 운영하고 있는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으로서, 모바일 앱, 인터넷 서비스, 인터넷 기반 창업에 관심이 많으며, 최근 포르쉐와 함께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 중

사례 분석: 국내 스타트업 “스카이랩스(Skylap)” 현지 Grants4Apps 프로그램 선발

- ‘스카이랩스’사는 40대 이상 인구 4명 중 1명이 앓고 있는 만성질환 심방세동의 정확한 진단과 맞춤 관리를 위한 초소형 반지형 탐지기 ‘카트(CART)’ 개발
- 동사는 17년에 KOTRA와 바이엘(Bayer)이 진행한 그랜츠포앱스(Grants4Apps) 코리아 프로그램 최종 선정된 바 있음.
- 독일 바이엘 본사의 '17년 프로그램에도 최종 4개사에 (총 61개국 450여개 스타트업 지원) 선정
 - 총 5만유로의 지원금 수혜 및 독일 베를린에 위치한 제약부분 본사에 입주
 - 3개월 동안 바이엘의 다양한 지원 하에 디지털 헬스 프로젝트를 진행
 - 바이엘 임직원 및 외부 전문가들이 선발 스타트업의 프로젝트와 사업모델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멘토링과 코칭을 제공
- 성공 포인트 :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에 선정 될 수 있었으며, 바이엘이 경구용 항응고제 등 심혈관 질환 분야 치료분야 선도 기업으로서 스카이랩과 협업 시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하다는 점 역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됨. '17년 5월 KOTRA와 바이엘이 진행한 그랜츠포앱스 코리아 프로그램에 참여 한 것이 해외시장을 진출 준비에 큰 도움이 됨.

□ 스타트업 국제화 노력

○ 현지 스타트업 컨퍼런스 적극 참가

- 현지 스타트업 컨퍼런스에 참가하면 최신 트렌드를 읽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현지 피드백, 홍보효과, 네트워킹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음.
 - * 베를린에는 Tech Open Air, NOAH 컨퍼런스, TechCrunch Disrupt, Startup Night 등 다수의 행사가 열림.
- ' 17년 TechCrunch Disrupt Berlin에 참가했던 국내 스타트업은 현지에서 받은 피드백을 적극 수용한 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으며, 매우 큰 도움이 되었다 밝힘.

○ 현장 경험이 가장 중요

- 한국에서 수행한 조사와 현지 상황은 다르므로 부딪혀 보는 것이 중요
- 현지에서 잠재 고객과 직접 만나고, 피드백을 받은 것은 매우 귀중한 경험
- 베를린에는 다수의 코워킹 스페이스*가 있어 이용해 볼 만하며, 한국 기관인 한국혁신센터(KIC)도 사무공간 제공
 - * We Work, betahaus, CRCLR House, Mindspace, Factory Berlin 등등
- 또한 크고 작은 스타트업 밋업, 네트워킹 이벤트가 열리므로 출장 시 확인하여 네트워크를 늘리는 것도 좋은 방법

- 정부, 베를린시 차원의 지원 제도 활용
 - 연방정부 차원의 EXIT 창업 장학금, 사업 자금 대출 프로그램, ProFIT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지원 제한은 없음.
 - Investbank Berlin에서 베를린 시 차원의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베를린으로 진출 시 베를린 경제진흥청과의 상담 추천

□ 독일 비즈니스 환경 이해

- 일처리 시간 소요 및 지연을 예상해 미리 미리 준비해야
 - 인터넷으로 검색한 것과 실제 상황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현장 조사가 요구됨.
 - 독일은 한국보다 보수적이며 관료주의적 사회로 관공서 방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편으로, 서류처리에 시간을 넉넉히 잡고 미리 처리할 필요
 - 기업 설립 절차는 현지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면 큰 어려움 없이 할 수 있으며 서류가 준비 되어 있을 경우 약 한달 소요
 - 서명이 갖는 의미가 중요하고 직접해야할 경우가 있으므로, 염두에 두어야 함.
 - 베를린은 매년 5만 명의 인구가 유입되고 있어 거주지를 구하는데 독일 인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유의해야 함.

자. 유용한 정보원

이름	설명	웹 페이지/(가능할 경우) 연락처
Berlin Partner	베를린 경제 진흥 기관	https://www.berlin-partner.de/
Bundesverband Deutsche Startups e.V.	독일 스타트업 협회	https://deutschestartups.org/
Investitionsbank Berlin	베를린 투자 은행	https://www.ibb.de/de/startseite/startseite.html
Gruenderszene	독일 스타트업 매거진	https://www.gruenderszene.de/
Existenzgründung	독일 연방정부 운영 창업 포탈	https://www.bmwi.de/Navigation/DE/Themen/themen.html?cl2Categories_LeadKeyword=existenzgruendung

자료원: 코트라 함부르크 무역관 조사 작성

4. 스페인 바르셀로나

가. 스타트업 생태계의 위상과 특징

□ 위상

- 바르셀로나는 유럽 주요 스타트업 창업도시로 부상
 - 남유럽 최대 스타트업 허브로서, 창업가들이 스타트업 창업을 시작하고 싶은 유럽 내 도시 3위 기록(Europe startup Initiative, 2017. Startup Heatmap Europe)
 - 2017년 총 7.2억 유로의 스타트업 투자 자본을 유치해 유럽도시 중 4위 기록 (Atomico. 2017. The state of Europe Tech 2017)
- 스페인 스케일업(Scale-up) 기업의 대다수가 바르셀로나에 집중
 - 유럽국가 중 스페인은 스케일업 기업 수 5위(SEP Monitor. 2017. Scaleup Europe)
 - * 주요국별 스케일업 수: 영국(1,412), 독일(442), 프랑스(513), 스웨덴(279), 스페인(207)
 - 같은 해 스케일러(1억불 이상 투자를 유치한 대형 스케일업) 기업 수는 6개사로 총 14억 달러 유치(SEP Monitor. 2017. Scaleup Europe)
 - * 유럽 주요국별 스케일러 수: 영국(29), 독일(15), 프랑스(11), 스웨덴(7), 스페인(6) 순
 - 스페인 스케일러 6개사* 중 4개사가 바르셀로나에 본사를 두고 있음.
 - * eDreams/Privalia/Letgo/Scyt(\바르셀로나), cabify/Alienvault(마드리드)

□ 특징 · 강점

- 저렴한 물가
 -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는 유럽 도시별 생계비 지수 순위에서 각각 55위, 53위를 기록, 런던(4위)이나 베를린(32위) 등 주요 스타트업 허브보다 사업비용과 생활비가 저렴한 편(Expatisian. 2017)
- 대형 IT 이벤트 개최
 -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인 MWC(Mobile World Congress, 바르셀로나)를 비롯해, 4YFN(바르셀로나), South Summit(마드리드), Web Summit(포르투갈) 등과 같은 스타트업 전문 이벤트가 매년 개최되고 있음.
- 바르셀로나 내 최첨단 산업 발달
 - (게임) Ubisoft, Sony, Activision King 등을 비롯해 약 125개의 게임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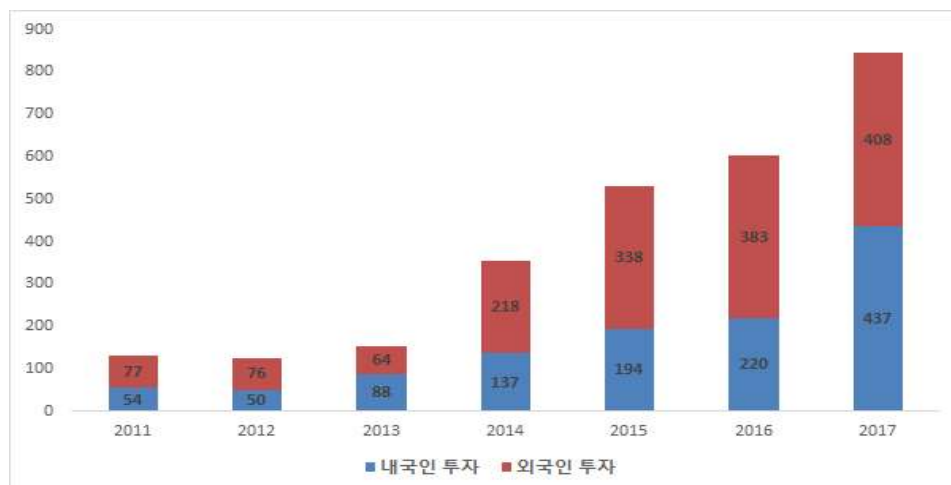
- 위치. 7개 대학에서 비디오/3D게임 제작, 시각영상효과 전문과정 제공
- (건강/생명공학) 스페인 내 생명공학 관련 기업 중 1/4 이상이 바르셀로나 지역에 위치. 100여개의 관련 연구센터, 대학, 과학기술단지 등 운영
- (스마트시티) 약 270여 개의 스마트시티 관련 기업이 바르셀로나 지역 내 위치하며, 약 11만 6천명이 동 산업에 종사 중. 바르셀로나는 세계 2위의 스마트시티로 선정(Juniper Research)

○ 외국인 스타트업 투자 활발

- 외국인 투자자들이 스페인 내 스타트업 투자 중 절반가량을 차지
- * 스페인 스타트업 내/외국인 투자 비중('17): 내국인(51.8%), 외국인(48.2%)

<스페인 스타트업 투자 추이>

(단위: 백만 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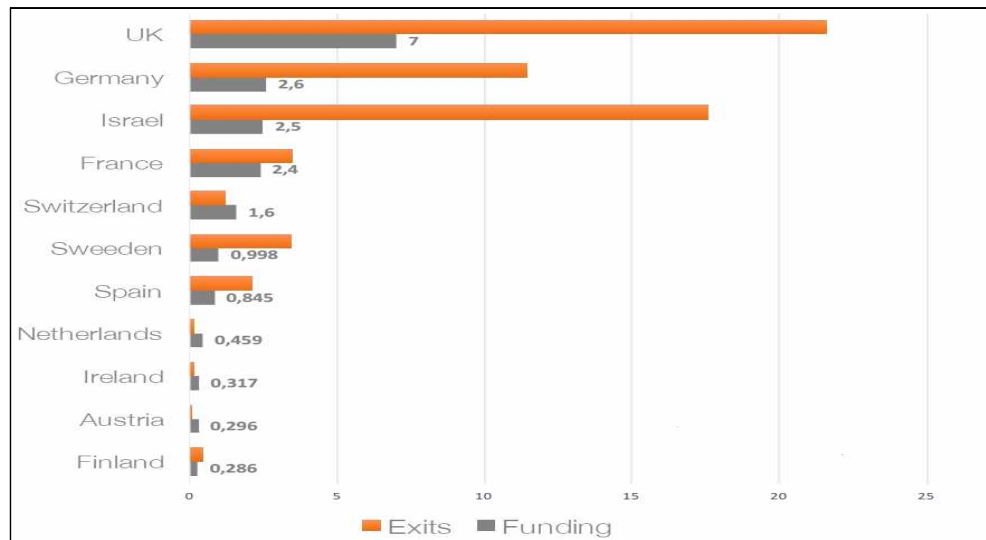
자료원: Startupxplore

○ EXIT 용이성

- 스페인 내 스타트업 펀딩 및 엑시트 규모는 2017년 기준 각각 8억 5천만 유로, 20억 유로 가량으로 엑시트가 투자의 약 2.5배 수준

<유럽 주요국의 스타트업 투자와 투자회수(Exit) 규모(2017)>

(단위: 10억 유로)



자료원: Startupxplore

○ 중남미 시장 진출의 교두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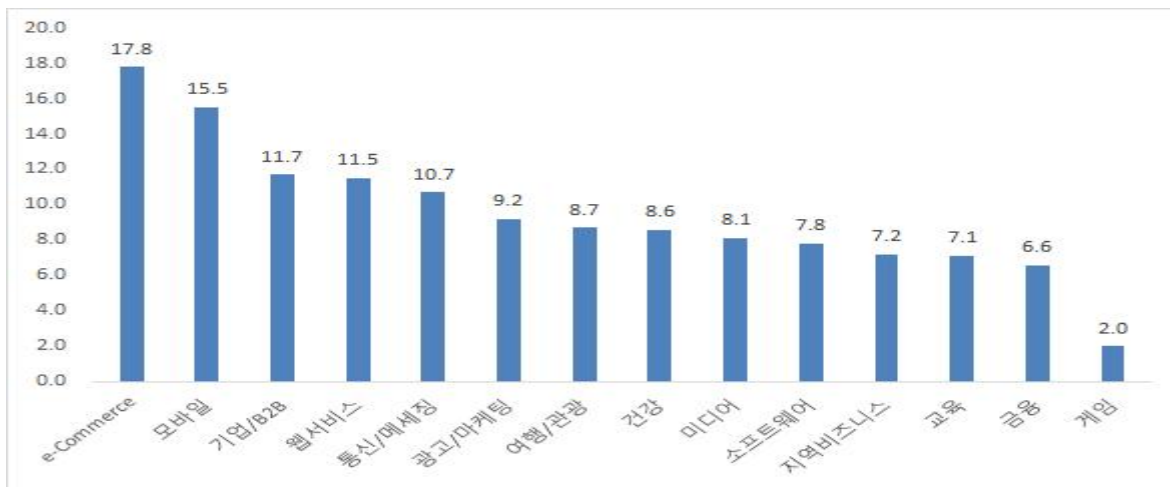
- 스페인은 언어 및 사회, 문화, 역사적인 부분에서 중남미와 유대관계가 깊어, 스페인을 통한 중남미 시장 진출이 용이
- 일레로 스페인 최대 통신사인 텔레포니카는 중남미 통신시장 1위 기업으로서, 중남미 내 총 2억 3천만 개의 통신라인 보유

□ 스타트업 창업 추이와 대표 스타트업

- 스페인 내 스타트업 수는 3,301개사로 전년대비 7% 증가(Startupxplore, 2017년)
 - 주요 지역별 스타트업 수 비중: 바르셀로나(32%), 마드리드(30%), 발렌시아(15%), 빌바오(4.5%), 기타(18.5%)
 - 주요 분야별 스타트업 수 비중: 전자상거래(17.8%), 모바일(15.5%), 기업/B2B(11.7%), Consumer Web(11.5%), 통신/메시징(10.7%) 순

<스페인 분야별 스타트업 분포(2017)>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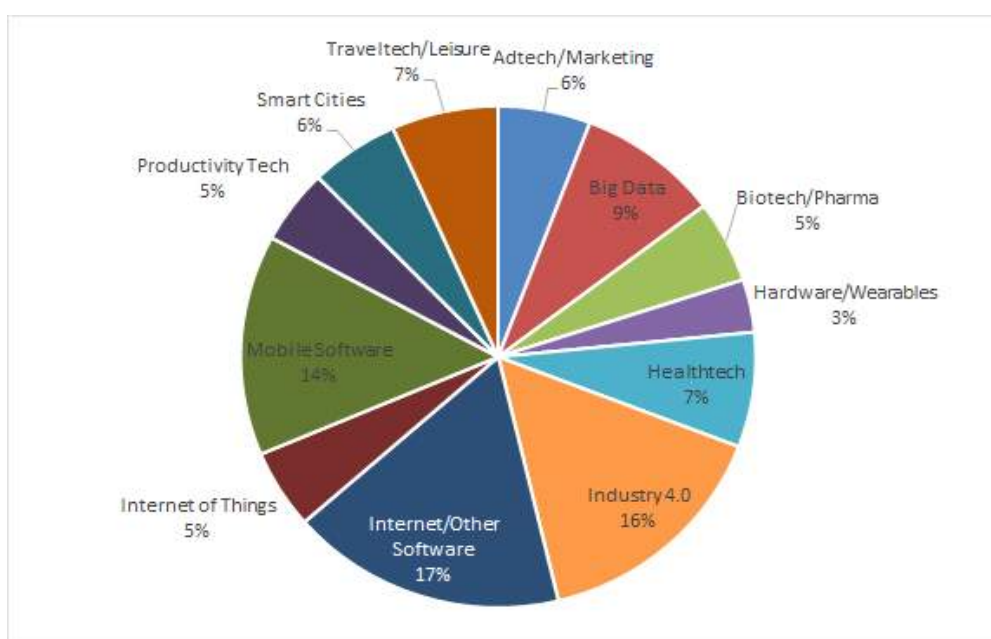


자료원: Startupxplore

- 바르셀로나 내 스타트업 수는 2017년 기준 약 1,300여 개로 연간 11억 유로 가량의 매출을 거둠(카탈루냐 무역투자진흥청).
- 2012~16년 사이 엑시트 건수는 5건에서 21건으로 증가
- 주요 분야: 인터넷 기술(17.3%), 4차산업혁명 기술(15.4%), 모바일 소프트웨어(14.2%), 빅데이터(8.9%), 여행/레저기술(6.7%) 순

<바르셀로나 스타트업 산업별 비중>

(단위: %)



자료원: Accio(카탈루냐 무역투자진흥청)

- 바르셀로나의 대표 스타트업은 아래 표와 같음.

<바르셀로나 대표 스타트업>

스타트업명	분야	비고
Glovo	Internet/Other Software	도심 배달 서비스
Lodgify	Internet/Other Software	숙박시설 대여 및 관리용 홈페이지 개발 지원 소프트웨어
Ulabox	Internet/Other Software	온라인 슈퍼마켓
Badi	Internet/Other Software	유저 맞춤형 주택 검색 서비스
Coverfy	Mobile Software	모바일 보험서비스 관리
21Buttons	Mobile Software	패션아이템 정보 공유 소셜네트워크
Typeform	Adtech/Marketing	온라인 앙케이트 서비스
Hutoma	Industry 4.0	대기업용 봇(bot) 개발
Datumize	Big Data	기업 시스템 내 다크데이터 수집 및 재 활용
TravelPerk	Traveltech/Leisure	출장자 대상 여행상품 예약

자료원: Wired 선정 2017년 유망 바르셀로나 스타트업

나. 주요 창업 클러스터/캠퍼스

□ 바르셀로나 테크시티(Barcelona Tech City)

- 바르셀로나를 국제적 기술개발 허브로 만들기 위해 설립된 민간협회
 - 700여 개의 회원 및 협력기관(창업가, 스타트업, 일반기업, 투자자, 인큐베이터, 액셀러레이터, 대학, 비즈니스스쿨, 정부기관 등)으로 구성
 - 주요 목표: 바르셀로나의 기술경쟁력 국제적 홍보, 디지털기업 생태계 조성, 바르셀로나 지역 내 기술개발 관련 투자 유치, 국내외 유망인력과 기업간 네트워킹, 기술개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등
- 회원사 주요 혜택
 - 바르셀로나 디지털기술 커뮤니티 활동
 - 국내외 기업, 투자자, 기관 등과의 네트워킹
 - 각종 산업정보 제공
 - Barcelona Tech City 주관 각종 행사(워크숍, 상담회, 컨퍼런스 등) 참가

- 국내외 스타트업 관련 행사 참여
- 바르셀로나 코워킹 사무공간(Barcelona Tech City Campus) 사용

□ 마드리드 구글캠퍼스(Madrid Google Campus)

- 세계 7개의 구글캠퍼스 중 하나로, 런던에 이어 유럽에서 두 번째로 설립
 - 일반인 대상, 코워킹 사무공간, 창업 관련 설명회 및 강연 등 무료 제공
 - 캠퍼스 레지던시(Campus Residency) 프로그램을 통해 B2C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과 능력을 갖춘 스타트업을 선발, 6개월간 별도의 창업공간, 맞춤형 컨설팅, 멘토링 등 지원
- 주요 실적
 - 2017년에만 총 317개의 스타트업이 구글캠퍼스를 통해 투자유치성공
 - 2015년 6월 개장 이후 2017년 말까지 1억 1,300만 유로에 달하는 누적 투자자금을 모았으며, 3천여 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 거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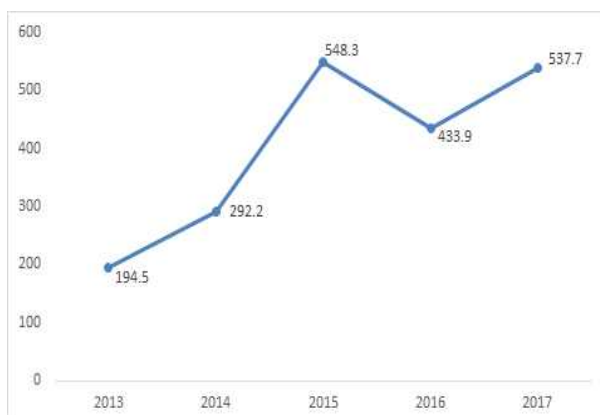
다. VC 현황

□ 투자 규모

- 최근 5년간 스페인 내 벤처캐피탈 투자 확대 추세
 - 2017년 스페인 내 VC 투자규모는 5억 3770만 유로로 전년대비 23.9%, 2013년 대비 176.5% 증가
 - 같은 해 VC 투자건수는 560건으로 전년대비 14.5%, 2013년 대비 54.7%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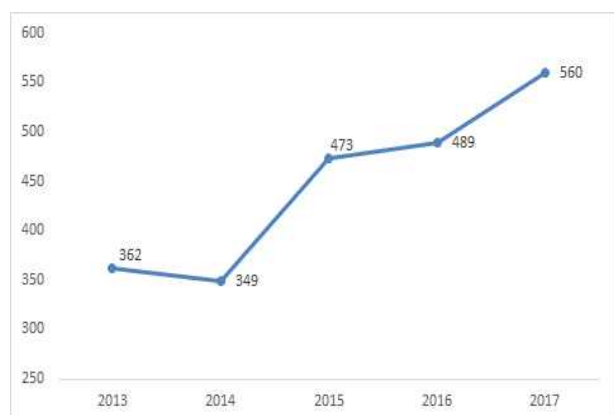
<스페인 내 VC 투자액 추이>

(단위: 백만 유로)



<스페인 내 VC 투자건수 추이>

(단위: 개 사)



자료원: ASCRI(스페인 벤처캐피탈&사모펀드 협회)

- 2014년을 기점으로 해외 VC 투자액이 국내 VC를 앞지름.
 - 2017년 스페인 전체 VC투자 중 해외VC 비중은 57.3%에 달함.
 - 같은 해, 국내 민간, 공공 VC 비중은 각각 34.4%, 8.3% 기록

<스페인 내 VC 투자 추이>

(단위: 건, 백만 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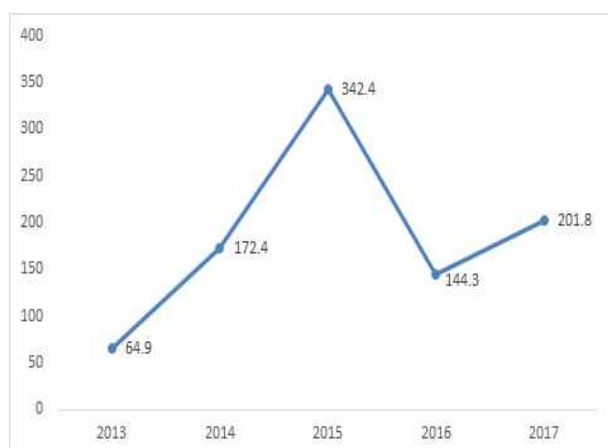
	2013		2014		2015		2016		2017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해외VC	33	58.6	38	158.1	73	401.3	43	256.0	63	308.1
국내VC(민간)	261	101.6	258	112.6	293	119.9	338	150.3	345	185.2
국내VC(공공)	68	34.4	53	21.5	107	27.0	108	27.5	152	44.4
합계	362	194.5	349	292.2	473	548.3	489	433.9	560	537.7

자료원: ASCRI(스페인 벤처캐피탈&사모펀드 협회)

- 2015년부터 바르셀로나의 VC 투자규모는 감소했지만, 투자를 유치한 스타트업 수는 꾸준히 증가
 - 스페인 전체 VC 투자 중 바르셀로나를 중심으로 한 카탈루냐 지역의 비중은 2017년 기준 25.6%로 스페인 최대 수준
 - * 스페인 지역별 VC투자 비중('17): 카탈루냐(25.6%), 마드리드(17.1%), 바스크(14.0%), 갈리시아(12.2%), 나바라(8.2%) 순
 - 2017년 카탈루냐 내 VC 투자규모는 2억 180만 유로로 전년대비 39.8% 증가했으나, 최고점을 기록한 2015년에 비해 41.1% 감소
 - 카탈루냐 내 VC 투자유치 스타트업 수는 2013년 75개사에서 2017년 115개사로 53.3%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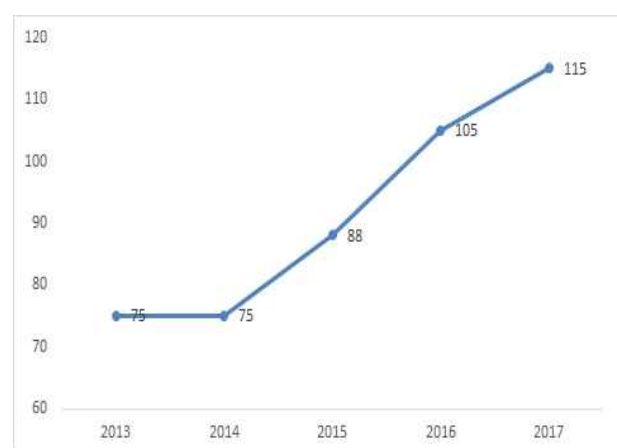
<카탈루냐 내 VC 투자액 추이>

(단위: 백만 유로)



<카탈루냐 내 VC 투자건수 추이>

(단위: 개 사)



자료원: ASCRI(스페인 벤처캐피탈&사모펀드 협회)

□ 주요 투자 업종

- 여러 산업에 비교적 균등하게 투자 분포
 - 주요 산업별 VC 투자 비중(* 17): 디지털/소비재(33.0%), 제조업/기타(28.3%), ICT(25.4%), 생명공학(13.4%) 순

<산업분야별 투자유치(2017, 투자유치기업 숫자 기준)>

(단위: %)



자료원: ASCRI(스페인 벤처캐피탈&사모펀드 협회)

- 2017년 가장 많은 투자를 유치한 스타트업 10개사 중 절반은 바르셀로나, 절반은 마드리드에 위치
 - 해당 연도 중, 가장 많은 투자액을 유치한 스타트업은 모바일 중고거래앱을 개발한 Letgo사로 약 2억 6천만 유로 기록
 - 그 밖에 핀테크, 여행, 음식, 건강, 분석, 도구, 운송 관련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대규모 투자자본 유치가 이루어짐.

<2017년 투자유치 규모 기준 스타트업 TOP10>

기업명	산업분야	도시	투자금액 (백만유로)	비고
LETGO	DIRECTORY	BARCELONA	259	모바일 중고거래앱
CABIFY	TRAVEL	MADRID	91	콜택시 서비스앱
NICE FRUIT	FOOD	BARCELONA	35	과일 보관 기술
MEDLUMINICS	HEALTH	MADRID	34	의료용 영상진단 기술
LOGTRUST	ANALYTICS	MADRID	35	IOT기반 분석 기술
TYPEFORM	TOOLS	BARCELONA	35	온라인 앙케이트 서비스
GLOVO	TRANSPORTATI ON	BARCELONA	25	도심 배달앱
FINTONIC	FINTECH	MADRID	25	개인용 금융관리앱
SPOTCAP	FINTECH	MADRID	22	기업용 온라인용자서비스
VERSE	FINTECH	BARCELONA	18.7	개인간 온라인거래앱

자료원: Startupxplore

□ 주요 VC

회사명	Caixa Capital Risc
주소	Av. Diagonal, 621-629, 08028, Barcelona, Spain
전화번호	+34 93 409 4060
연락처	http://www.caixacapitalrisc.es/en/envianos-tu-consulta-propuesta/ (홈페이지 통해 일반문의 가능)
웹사이트	http://www.caixacapitalrisc.es
개요	- 스페인 금융업계 3위 은행으로, 바르셀로나(카탈루냐)에 본사 소재 - 현재 약 2억 유로 가량의 VC 포트폴리오 보유
전문분야	기업용 소프트웨어, 인터넷/모바일 비즈니스, 생명과학, 산업용 기술

회사명	Nauta Capital
주소	Av. Diagonal, 593, 08014, Barcelona, Spain
전화번호	+34 935 03 5900
연락처	barcelona@nautacapital.com
웹사이트	https://www.nautacapital.com/
개요	영국계 VC기업으로 바르셀로나에 사무실 운영 중
전문분야	B2B 소프트웨어

회사명	Inveready Capital Company SL
주소	C/ Cavallers, 50, 08034, Barcelona, Spain
전화번호	+34 931 80 7260
연락처	info@inveready.com
웹사이트	http://inveready.com/
개요	기술 관련 투자그룹으로 VC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
전문분야	초기단계(early-stage) 스타트업 투자 전문

회사명	Sabadell Venture Capital
주소	Avda. Oscar Espla, 37, 03007, Alicante, Spain
전화번호	+34 902 323 000
연락처	bstartup@bancsabadell.com
웹사이트	https://bstartup.bancsabadell.com/
개요	스페인 금융업계 5위 은행으로 스타트업 대상 VC 서비스 제공
전문분야	e헬스, SaaS, 모바일앱, 마켓플레이스, 전자상거래, 빅데이터, IoT 등

회사명	Ysios Capital
주소	Travessera de Gracia, 11, 08021, Barcelona, Spain
전화번호	+34 935 17 3545
연락처	ysios@ysiocapital.com
웹사이트	http://www.ysioscapital.com/
개요	스페인 토종 VC기업으로 약 2억 유로 가량의 투자자본 관리 중
전문분야	건강 및 생명공학 관련 솔루션

라. 주요 액셀러레이터

□ Wayra

- 스페인 및 중남미 지역 최대 통신사인 텔레포니카 사가 운영 중인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 스페인, 독일, 영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 베네수엘라 등 총 10개 국가에서 액셀러레이터 운영 중
- 성장 가능성이 큰 스타트업을 선정해 공유오피스, 멘토링, 금융조달 등을 다각도로 지원

- 프로그램 기간은 약 6개월이며, 각 스타트업 당 최대 10만 유로를 투자 (주주대출(shareholder loan) 4만 유로/ 육성프로그램 6만 유로)
- 육성과정을 마친 스타트업 중 사업성이 높은 업체를 선정해 외부 투자기관과의 투자 매칭 프로그램 지원

□ SeedRocket

- 바르셀로나 주요 액셀러레이터로 마드리드 구글캠퍼스 협력사
 - 구글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인 “Google for Entrepreneur” 의 협력사로 참여 중으로, 2015년부터 마드리드 구글캠퍼스에 입주
- 스타트업 선정 조건
 - 초기단계의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1) 혁신적인 기술개발 프로젝트 및 제품 보유, 2) 다양한 능력을 갖춘 인력 보유, 3) 비즈니스엔젤로부터 투자유치 희망 여부 등을 검토
- 지원 방식
 - 선정된 스타트업은 3~6개월간 공유오피스 사용, 멘토링 등과 같은 육성 프로그램을 지원 받음
 - 자체 멘토 및 비즈니스엔젤 네트워킹을 통해 2~15만 유로 가량의 투자자금 모집 지원

<바르셀로나의 주요 액셀러레이터>

이름	국가/도시	파트너 기업/기관	기간	지원내용	유망 협력 분야
Wayra	스페인/바르셀로나, 마드리드 등	ICEX, Madrid/Barcelona 시청 등	6개월	- 공유오피스 - 멘토링 - 투자유치, 파트너 매칭 등	B2B, B2C 솔루션 등 다양
SeedRocket	스페인/바르셀로나, 마드리드	Google, Sabadell Bank, 바르셀로나 시청, ESADE 등	3~6개월	- 공유오피스 - 멘토링 - 투자유치 지원	B2C 관련 각종 솔루션
Impact (ISDI)	스페인/바르셀로나, 사라고사, 말라가	MWC, Ferrovial, PSA Groupe, Danone, FiA 등	6개월	- 트레이닝&멘토링 - 투자유치 지원 - 사업보조금 지급 - 투자자/대기업 네트워킹	스마트솔루션 (시티, 콘텐츠, 식품, 제조 등)

Demium Startups	스페인 / 바르셀로나, 마드리드, 발렌시아	n/a	6개월	- 공유오피스 - 투자유치 지원 - 멘토링 - 창업 아카데미	온라인 비디오 게임
Conector	스페인 / 바르셀로나, 마드리드	카탈루냐 주정부, MWC, IESE, EPSON, Amazon 등	4개월	- 멘토링 - 투자유치 지원	전자통신, 인터넷,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자료원: 각 기업 홈페이지를 토대로 코트라 마드리드 무역관 정리

마. 지원정책

□ 정부 차원의 스타트업 육성 전략

- 스페인 정부는 창업문화 발전과 손쉬운 기업 활동 및 일자리 창출 등을 목적으로 2013년 창업진흥법 시행
- 주요 지원방안
 - 창업 후 최대 30개월 간 사회보장세 감면
 - * 1~6개월: 80%(또는 75유로 고정세액)/ 7~12개월: 50%/ 13~30개월: 30% 감면
 - 기업 활동으로 부채 발생 시 개인자산 보호(30만 유로 미만의 거주용 부동산)
 - 부도 시 채권단 합의를 통해 최대 3년간 부채 지불유예 및 25% 탕감
 - 기업설립절차 간소화

□ 지원제도

<창업비자 발급>

- 대상
 - 만18세 이상의 외국인 중 스페인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분야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기업가
 - 최근 5년간 스페인 및 주재국에서 범죄사실이 없고 스페인과 각종 협약이 체결된 국가에서 추방된 적이 없는 사람
 - 체류기간 중 단독 혹은 가족과 함께 살아갈만한 경제력이 입증된 사람
- 신청절차 : 주한 스페인 대사관 상무관실에 창업비자 신청 => 스페인 입국 후 고용부에 거주허가증 신청

- 유효기간
 - 창업비자는 1년간 유효하며 1년 안에 스페인에 입국, 체류허가증 신청 필요
 - 체류허가증은 2년간 유효하며 이후 심사를 통해 갱신
- 필요서류 : 신분증, 신청서,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재무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등*
 - * 이 외 신청내역에 따라 여러 구체적인 추가서류 요청 가능
- 소요기간 : 보통 10일 이내 심사. 취업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하는 데 일반적으로 3-6개월 소요
 - * 창업비자 취득 후 스페인 현지에서 신청하는 거주허가증 심사기간은 통상 20일

〈스페인 창업 진출기업 지원 프로그램〉

- 프로그램명 : Rising Startups Spain
- 지원기관 : ICEX(스페인 무역투자진흥청)
- 지원목적 : 성장 잠재력이 큰 혁신기업을 적극 유치하여 스페인의 첨단산업 생태계를 확대하고 고용 창출에도 기여
- 지원대상: 자국 시장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한 바가 있는 해외 스타트업
- 지원업체 선정기준 : 기술수준, 시장잠재력, 경영능력 등
- 지원내역 : 최대 9개월 이내 아래 사항에 대해 지원
 - 창업비자 취득 지원
 - 마드리드 혹은 바르셀로나 지역에 사무공간 제공
 - 보조금으로 최대 1만 유로 지급 (기업이 2만 유로 이상 지출 시)
 - 맞춤형 멘토링 서비스
 - 소셜 미디어를 통한 홍보
- 과거 선정내역: ' 16년 10개사(50개사 신청), ' 17년 15개사(300개사 신청)
- 모집 : 매년 6~7월경 ICEX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
 - 홈페이지: <http://www.investinspain.org/invest/en/rising/index.html>

〈스타트업 대상 금융지원 서비스〉

- ENISA(스페인 중소기업 혁신지원공단)는 1982년 설립된 스페인 산업무역관 광부 소속 공기업으로, 자국 중소기업의 혁신적이며 실현 가능한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금융서비스 지원
- 초기단계(early-stage)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융자지원 서비스 제공
- 신청대상자
 - 40세 미만으로 혁신적인 창업 프로젝트 구상 중인 창업가
 - 신생기업(설립 2년 미만)
- 금융서비스 지원 형태: 융자
 - 융자 지원액: 25,000~75,000유로
 - 주요 융자 지원조건*
 - * 적용금리: 상반기: Euribor(유럽기준금리) + 3.25% / 하반기: Euribor + 3~6%
 - * 상환기한: 최대 7년
 - * 상환 유예기간: 최대 5년

〈바르셀로나 스타트업 지원 정책〉

- 지원기관: Accio(카탈루냐 무역투자진흥청)
- 지원목적: 카탈루냐 지역 내 스타트업 경쟁력 강화 및 창업생태계 구축
- 지원내역: 심사를 통해 경쟁력을 갖춘 초기단계(early stage) 스타트업을 선정해 45,000~75,000유로 보조금 지급
- 지원자격: 카탈루냐 스타트업 허브 디렉토리에 등록된 스타트업 대상
- 모집: 매년 9~10월 경 Accio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
 - <http://www.accio.gencat.cat/ca/serveis/innovacio/startups-i-innovacio-disruptiva/startup-capital/>

바. 주요 스타트업 컨퍼런스

<4YFN(4 Years from Now)>

□ 행사개요

-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매년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이동통신산업 전시회인 MWC 행사 기간 중 열리는 스타트업 육성 이벤트
 - 스타트업과 투자가 간의 네트워킹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및 창업 생태계 강화 등을 주목적으로 함.
- 행사기간: 2019년 2월 25~27일
- 2018년 행사에 2만 명의 관람객, 스타트업 600개사, 투자가 700명 등 참여

□ 프로그램

- ① 부스 시연 : 개별 또는 단체 부스를 통해 제품 시연
- ② 스타트업 피칭 : 대기업, 투자가, 언론 등을 상대로 제품정보와 사업 계획 발표
- ③ 멘토링 : 창업 관련 전문가로부터 투자자금 유치, 비즈니스 전략, 마케팅, 해외시장진출 등과 관련된 조언을 얻을 수 있음.

<바르셀로나 및 인근 지역 주요 스타트업 컨퍼런스>

행사명	개요	프로그램	특징	웹 페이지
South Summi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최시기 : 2018.10.3~5 · 규모: 투자가 650명, 스타트업 3,500개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테마별 연사 강연 · 스타트업 피칭 경연 · 마켓플레이스 · 1:1 투자상담 · 스타트업 대상 전문가 멘토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부유럽 최대 스타트업 관련 이벤트 · 행사 전 TOP100 스타트업을 선정, 투자가 대상 피칭, 참관객 대상 제품 홍보, 전문가 멘토링 	https://www.southsummit.co
Web Summi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최시기 : 2018.11.5~8 · 규모 : 참관객 수 7만 명, 연사 120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테마별 연사 강연 · 스타트업 피칭 경연 · 스타트업 대상 전문가 멘토링(연사, 투자가, 언론매체, 글로벌파트너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 최대 규모 인터넷 기술 관련 컨퍼런스 · 전시분야: 빅데이터, 인공지능, IoT, 핀테크, 블록체인, 헬스케어, 보안, 소셜, 전자상거래, 콘텐츠&미디어 등 	https://websummit.com

자료원: 코트라 마드리드 무역관 조사 작성

사. 스타트업 성공 사례

1) Privalia

privalia *	
기업명	Privalia
설립연도	2006.01
거점	스페인 바르셀로나
업종 및 품목	온라인 아웃렛 매장
연간매출	1억 6천만 유로(스페인, '16)
해외진출 현황	이태리, 브라질, 멕시코에서 서비스 제공
직원 수	405명(스페인)
주요 성과	스페인/이태리/멕시코/브라질 온라인 패션 아웃렛 시장 1위

□ 성장과정과 성과

○ 창업 동기/배경

- 공동 창업자인 Jose Manuel과 Lucas Carne는 같은 컨설팅 기업서 근무하던 동료 사이로 2006년 온라인 비즈니스를 시작
-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가 현지 소비자들에게 빠르게 보급되는 것을 보며, 이전까지 스페인에서는 시도된 바 없던 온라인 패션 아웃렛 매장을 창업

○ 성장 계기

- 창업 이후, 일곱 번에 걸친 투자모집을 통해 총 2억 유로를 유치하는 데에 성공, 사업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동력을 얻음.
- 2016년 Privalia사를 동종 경쟁업체인 프랑스 Vente Privee사에 5억 유로에 매각

○ 사업 규모/해외진출

- 현재 진출해 있는 스페인 및 이태리, 브라질, 멕시코 온라인 패션 아웃렛 시장에서 업계 1위를 유지 중이며, 약 3천만 명의 회원 보유

□ 성공요인

○ 기술 및 비즈니스 모델의 특징

- 유명 패션 브랜드 상품을 파격적인 세일가로 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판매 수량 및 기간을 한정, 소비자로 하여금 빠른 구매 결정을 유도
- 매일 새로운 상품을 업데이트 해 소비자들의 방문 횟수를 높임.
- 푸쉬(Push) 알림을 도입, 스마트폰을 통한 온라인 매장 접속 및 구매 촉진
- 200개 이상의 유명 브랜드 상품을 취급하여 소비자 선택권을 넓힘.

○ 시장 수요

- 과거 스페인 소비자들은 패션 아이템을 온라인 채널로 구매하는 것보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고르는 방식을 선호
- 그러나 초고속 무선 인터넷 보급 확대로 젊은 소비층을 중심으로 선택의 폭이 넓고 가격 경쟁력이 우수하며 구매 및 배송이 간편해진 온라인 패션 매장 이용 빈도를 늘려나가는 추세

2) eDreams ODIGEO

eDreams ODIGEO	
기업명	eDreams
설립연도	2011.06
거점	스페인 바르셀로나
업종 및 품목	여행상품 온라인 판매
연간매출	1억 8천만 유로(스페인, '17)
해외진출 현황	프랑스, 독일, 영국 지역 내 사무실 운영
직원 수	328명
주요 성과	유럽내 항공티켓 판매 부문 시장점유율 30%('17)

□ 성장과정과 성과

○ 창업 동기/배경

- 창업자인 Javier Perez는 항공엔지니어로 스탠포드 MBA 과정을 이수하던 중 여행상품 온라인 판매시장의 성장 가능성 예측
- 1999년 스페인에서 최초로 온라인 여행사 창업

○ 성장 계기

- 2011년 Go Voyage, Opodo 등 유럽 동종업계 경쟁사와의 M&A를 통해 대기업으로 성장하며 비즈니스 경쟁력 제고

○ 사업 규모/해외진출

- 44개국 국적의 1,600만 명의 회원 보유
- 스페인,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유럽 내 약 15개 지역에서 사무실을 운영 중이며, 1,700명의 인력 보유

□ 성공요인

○ 기술 또는 비즈니스 모델의 특징

- 다수의 컴퓨터 엔지니어 인력을 두고 있어 꾸준한 소프트웨어 개발을 통해 다량의 여행상품을 더 쉬운 방식과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공급
- 상기 기술력에 힘입어 비교적 적은 인력으로 많은 여행상품을 판매할 수 있어, 경쟁업체에 비해 가격경쟁력 추가 확보 가능

○ 시장 수요

- 매년 세계적으로 해외관광인구가 빠르게 증가, 비행기 이용이 보편화
- 온라인 유통시장에서 비행기 티켓, 호텔 예약 등 여행 관련 상품 판매 매출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 스페인 전자유통시장 매출 중 여행상품 비중 11.3%(‘17)

3) 해외 스타트업 성공사례 : Payfit

	
기업명	Payfit
설립연도	2016
업종 및 품목	각종 인사관리용 핀테크
해외 거점	프랑스
현지 진출방법	독자법인 설립
현지 투자규모	1,400만 유로 (스페인/이태리/독일/영국 투자예상규모)
현지 직원 수	5명
진출 성과	현지시장 진출 3개월 만에 약 20여 개의 기업과 계약체결 마무리 단계

□ 진출 동기·방법

○ 진출 동기/배경

- 프랑스 자국 시장에서 다수의 기업에 해당 솔루션을 제공, 큰 성공을 거둠.
- 2017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해외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했으며, 스페인을 첫 번째 진출지역으로 선정

○ 진출 방법

- 해외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투자자를 모집, 총 1,400만 유로를 확보
- 2018년 상반기 스페인 바르셀로나 지역에 법인 설립

○ 사업 규모/해외진출

- 프랑스 내 약 1800여 개의 기업에 해당 핀테크 솔루션 판매
- 2018년 초 스페인 시장 진출을 기점으로 향후 이태리, 독일, 영국으로 추가 진출 예정

□ 성공요인

○ 기술 또는 비즈니스 모델의 특징

- 직원 월급, 휴가 및 병가, 근무시간 모니터링, 인력 이동 등 인사와 관련된 각종 관리 및 공공기관과의 업무 등을 온라인 상에서 빠르고 간편하고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IT 솔루션 제공
- 우수한 가격경쟁력으로 해당 솔루션을 판매 중으로, 직원 수 50명의 기업에서 매월 759유로에 사용 가능

○ 시장 수요

- BBVA 금융기관에 따르면, 현재 스페인 내 약 300개의 핀테크 관련 기업이 활동 중이며, 이 중 26%는 안정적인 수익을 거두고 있음.

□ 전망

- 2020년까지 스페인에서 약 1500개의 기업에 대한 솔루션 판매 목표
- 2018년 말까지 15명의 현지직원 채용을 계획 중

<바르셀로나 주요 스타트업 리스트>

분야	기업명	주요 내용
도심운송	Glov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2015년 설립된 스타트업으로 앱을 기반으로 한 도심배달서비스 제공 ▶ 현재 스페인 및 유럽, 중남미, 북아프리카, 중동 등 총 14개 국서 해당 서비스 운영 중 ▶ 진출국서 약 500명의 인력 보유
마켓플레이스	Letg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설립된 스타트업으로 온라인 중고장터 서비스 제공 ▶ 현재 바르셀로나와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스페인어, 영어를 포함해 약 10개 언어로 해당 서비스를 제공 중 ▶ 100명에 가까운 인력 보유
운송서비스	Cabif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앱을 기반으로 한 차량 네트워크 서비스로 우버(Uber)와 유사 ▶ 2011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창업해 현재 스페인, 포르투갈 및 중남미 9개국에 진출 ▶ 앱 다운로드 약 5백만 건 기록
인터넷보안	Alien Vaul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이버공격 방어용 솔루션으로 2007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창업했으며,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두고 있음 ▶ 창업 후 10년 간 약 1억 2천만 불의 투자 유치 ▶ 2018년 7월 미국 AT&T사에 의해 인수
데이터관리	Scytl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투표 관리 솔루션 개발업체로 2001년 바르셀로나 주립 대학에서 스피노프로 독립 ▶ 2012년 미국 SOE사를 인수하며 전세계 시장 내 영향력 강화 ▶ 최근 10년간 전 세계 20여개 국에서 10만 건의 전자투표를 관리

자료원: 코트라 마드리드 무역관 조사 작성

아. 협력방안

□ EU 시장에서 스페인의 높은 중요도에도 불구하고, 한국기업의 스페인 경제에 대한 인식수준은 낮은 편이므로 스페인에 대한 관심 제고 필요

- 스페인은 EU 시장에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에 이어 4번째로 큰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고 Telefonica, Iberdrola, Repsol 등 세계적인 대기업들이 포진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기업들은 스페인 경제에 대한 평가가 낮은 편
- 스페인 대기업 및 액셀러레이터는 한국의 IT 수준에 대해 높게 평가하고 있고, 한국 스타트업의 기술력에도 기대가 높은 만큼 기업들의 관심 요망

□ 현지 창업을 통한 스타트업 생태계 신속 진입

-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스케일 업을 계획하는 기업은 현지창업 고려 필요

- 스페인이 유럽에서도 손꼽히는 스타트업 허브이기는 하나, 런던, 실리콘 벨리 등 스타트업 비즈니스 최선진국과 비교할 때 스페인 투자자들은 자국 소재 기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
- 스페인 정부에서는 혁신기술을 보유한 해외 스타트업 기업의 스페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Rising Startup Spain’ 프로그램 운영 중*
 - * 매년 15개 기업 이내 선정하여 비자취득, 사무공간, 자금, 멘토링 등 제공

□ 주요 CVC 프로그램을 통해 Global Partnering 기회 창출

-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면서 규모의 경제의 중요성이 낮아지고 기업 기능의 수직적 분해가 확대됨에 따라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협력 중요성 증가
- 이러한 추세에 따라 Telefonica, Iberdrola, Repsol, EDP(포르투갈) 등 업계 최고 수준의 스페인 기업이 스타트업과 활발히 협력 중
- 각각의 대기업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Pain Points)를 명확히 파악하여 이에 최적의 솔루션을 제안해야 함.

<스페인의 주요 CVC>

구분	기업특징	협력 희망 기술	지원사항
Telefonica	가입자 기준 세계 3위 통신기업, 14개국에 스타트업 프로그램 운영	사이버 보안, 동영상 기술, 엣지 컴퓨팅, 5G 기술, Wife 기술 등	4만 유로(현금), 6만 유로(엑셀러레이팅), 코워킹 스페이스, 전문가 멘토링
Iberdrola	스페인 최대 전력생산 기업이자 세계 최고 풍력에너지 기업	전력 스마트 솔루션, 신재생 에너지 통합시스템, 이모빌리티 등	Iberdrola 기술/노하우/데이터 접근, 기술 실재 적용(Pilot) 기회, 투자 등
Repsol	스페인 최대의 석유, 에너지 기업	CO2저감 기술, 이모빌리티, O&G 다운스트림 신기술, 데이터 분석 등	Repsol 기술/노하우/데이터 접근, 기술 실재적용 기회(Pilot), 투자 등
EDP	포르투갈 최대 규모의 전력기업	스마트 그리드, 에너지 저장기술, Data-Leap 등	투자, EDP 및 파트너사와 협업기회, 멘토링 등

자료원: 코트라 마드리드 무역관 조사 작성

□ 대형 스타트업 이벤트에 참가하여 인지도 및 네트워킹 확대

-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는 4YFN(바르셀로나), South Summit(마드리드), Web Summit(리스본) 등 스타트업 비즈니스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 개최 중

- 대형 이벤트는 스타트업 기업에게 ‘거인의 어깨’에 올라탈 수 있도록 하여 (자사를) 널리 알리고, (경쟁사와 시장을) 더 많이 알 수 있는 기회 제공

□ 스페인을 유럽과 중남미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활용

- 스페인은 언어적 동질성과 역사적 관계 때문에 중남미 진출이 활발하므로, 스페인에 사업기반을 둘 경우 중남미 시장 공략이 용이한 편
- 또한 스페인은 유럽 타국가 대비 물가가 낮으면서도 사업 인프라는 선진국 수준으로 갖추고 있어 유럽 시장 공략을 위한 허브에 적당

□ Co-Working Space를 활용하여 초기진출 경착륙 시도

- 마드리드에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Co-Working Space인 구글 캠퍼스와 Wework가 모두 위치
 - * 유럽에서 구글 캠퍼스와 Wework 2개를 모두 보유한 나라는 西, 獨, 英 3개국 뿐
- Co-Working Space는 사무공간으로 활용 가능함은 물론, 스타트업 기업, 투자가, 액셀러레이터 등과 교류가 가능하고 다양한 이벤트에도 참가가 가능해 초기진출 시 적극 이용 필요

자. 진출 시 유의 사항

□ 스페인 진출을 결정하기에 앞서 Why와 What에 대답하라

- 스타트업은 전반적인 자원이 부족하므로 초기에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구사해야 하며 진출국 선택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함.
- 진출국을 선택할 때는 기회요인과 유망분야에 근거하여 왜(Why) 그 나라에 진출해야 하는지, 어떤 서비스(What)가 유망한지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
 - * 西 기회요인 : 중남미 및 유럽 진출 교두보, 인근국 대비 저렴한 비용, 한국 대비 높은 국제화 수준(Startup Genome 기준 한국 2.1, 스페인 6.4), 세계 유수의 Co-Working Space 보유(구글 캠퍼스, Wework 등 대표 Co-Working Space 2개를 모두 보유한 나라는 유럽에서 西, 獨, 英 뿐), MWC, Web Summit 등 스페인 및 인근국에서 대형 IT 행사 개최
 - * 스페인 유망산업 : 관광 서비스, Telecommunication 기술, 에너지 기술, 게임 등

□ 단기간 내 투자유치는 무리, 레퍼런스와 대면 접촉을 활용하라

- 구글 캠퍼스 내에서 활동하는 액셀러레이터, ‘Tetuan Valley’에 따르면 스페인 투자자들은 해외기업 투자에 신중한 편이므로 한국이나 여타 국가에서 투자를 받았던 레퍼런스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
- 스페인 기업들은 대면접촉을 통한 신뢰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바, 투자자와 어느 정도 이야기가 진척이 되고 나서는 직접 방문하는 것이 좋음.

□ 투자자에게는 명확한 Exit 계획을 제시하라

- 스페인 최대 에너지 기업이며 사내 벤처기금(CVC)을 운영 중인 Inerdrola에 따르면, 협력 대상 스타트업 기업을 선택하는 기준으로 **명확한 Exit 계획을 중요시** 여긴다고 응답
- 자사 제품의 우수성만을 강조한다든지 근거가 부족한 장밋빛 전망만으로는 투자유치를 이끌어 내기가 힘들다고 충고
- 또한 어느 시장에나 적용되는 두리뭉실한 계획보다는, 스페인에 적합한 계획, CVC의 사업방향과 부합하는 **맞춤형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

□ 초기 진출 시에는 공공기관을 통해 접촉하라

- 스페인의 IoT 가상화 플랫폼을 운영하는 ‘IOTIFY’사에 따르면, 스페인 투자자들이나 대기업의 경우 스타트업이 단독으로 접근하는 경우, 이에 응대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함.
- 따라서 초기 진출 시에는 KOTRA와 같이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서 접근하는 것이 자사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얻기에 용이하다고 조언

차. 유용한 정보원

이름	설명	웹 페이지
Accio	카탈루냐(바르셀로나)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 정보	http://catalonia.com/startups-in-catalonia/
Startupxplorer	스페인 내 스타트업 사업 정보	https://startupxplore.com/es
ASCRI	스페인 내 VC 투자현황(지역별, 산업별 등) 정보	http://www.ascricri.org/

자료원: 코트라 마드리드 무역관 조사 작성

5.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가. 스타트업 생태계의 위상과 특징

□ 위상

- 암스테르담은 런던, 베를린, 파리에 이어 스타트업 생태계가 잘 이뤄진 유럽 내 4위 도시(전세계 19위, Startup Genome. Global Startup Ecosystem Report 2018)
 - 이 중심에는 네덜란드 민관협동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 기관 ‘스타트업델타(StartupDelta)’가 있으며 정부, 기업, 연구소를 연결

< 스타트업 델타 (StartupDelta) >

- 네덜란드 대표 오픈 이노베이션 스타트업 생태계로서, ‘One Single Hub’를 비전으로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의 중심 허브 역할
 - 스타트업 관련종사자들을 연결하고 그들을 초대해서 정보를 교환하고 전 세계 스타트업 생태계(실리콘밸리, 텔아이크 등)와도 제휴해 네트워크 효과 극대화
 - 모바일(암스테르담), 스마트항구(로테르담), 보안기술(헤이그) 등 네덜란드 13개 도시별 특화산업을 지정하고, 에라스무스기업가정신센터(ECE)를 중심으로 필립스, ING, KLM 등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10개 기업이 참여한 혁신환경을 조성

- 네덜란드, 2018년 글로벌 혁신 지수(Global Innovative Index) 2위
 - 2017년 3위에서 2018년 2위로 한 계단 상승하며 유럽의 혁신과 창의 중심국으로 발돋움, 스타트업의 ‘혁신 DNA’를 보여줌.*
 - * 네덜란드는 세계 최초로 동인도 회사를 설립하고, 해상무역으로 부를 축적한 모험상인의 기질을 타고 났으며, 新기술을 실험하고 상용화하는 분위기가 활성화
 - * 네덜란드 대표기업 필립스는 세계 최초로 CD를 개발했으며, 과거 엔지니어들은 와이파이, 블루투스의 핵심 기술을 고안
 - 델프트 공대(TU Delft)와 아인트호벤 공대(TU Eindhoven) 두 팀이 하이퍼루프, 로봇, 태양광 분야 세계 경진대회에서 1위 수상

- **(초고속 하이퍼루프)** 하이퍼루프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자동차 최고경영자(CEO)가 제안한 꿈의 초고속 열차로 하이퍼루프 개발 경진대회 중 탑승용 팟(Pod)을 설계한 MIT공대와 뮌헨 기술대학을 제치고 첫 번째 단계에서 델프트 공대가 1위를 기록. 이 팀원의 일부가 창업한 하이퍼루프 운송회사 '하트(Hardt)'는 건설회사인 BAM과 함께 유럽 최초 진공관 튜브 설계 중
- **(로봇)** 아마존이 주최한 로봇 콘테스트 '아마존 픽킹 챌린지(Amazon Picking Challenge)'에서 네덜란드의 델프트 공대가 인간을 대신해 작업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로봇을 개발해 5만 달러의 우승 상금 획득. 델프트 공대는 '흡착 컵, 두 손가락의 그리퍼, 거기에 3D 심도 센서 카메라'를 조합한 로봇으로 우승을 차지
- **(태양광 전기차)** 아인트호벤(Eindhoven) 공대팀의 태양광 패밀리카 '스텔라 비'(Stella Vie)는 세계 태양광자동차경주대회에서 미래 패밀리카로서 가능성을 겨루는 크루저급에서 우승. 차체 디자인, 실용성, 에너지효율, 혁신성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 평균속도는 시속 69km

○ 높은 교육 수준과 지역별 균형을 이루는 대학 생태계

- 네덜란드 주요 대학(9개) 모두 세계 대학 순위 200위 진입*

* 델프트 공대(엔지니어, 52위), 암스테르담 대학(컴퓨터공학, IT, 57위) 아인트호벤 공대(엔지니어, 99위), 와게닝겐 대학(식품, 농업, 125위)

- 네덜란드 교육 수준은 편중되지 않고 산업별로 균일하게 교육 기반을 이루고 있으며, 이는 기술 혁신 스타트업의 기반이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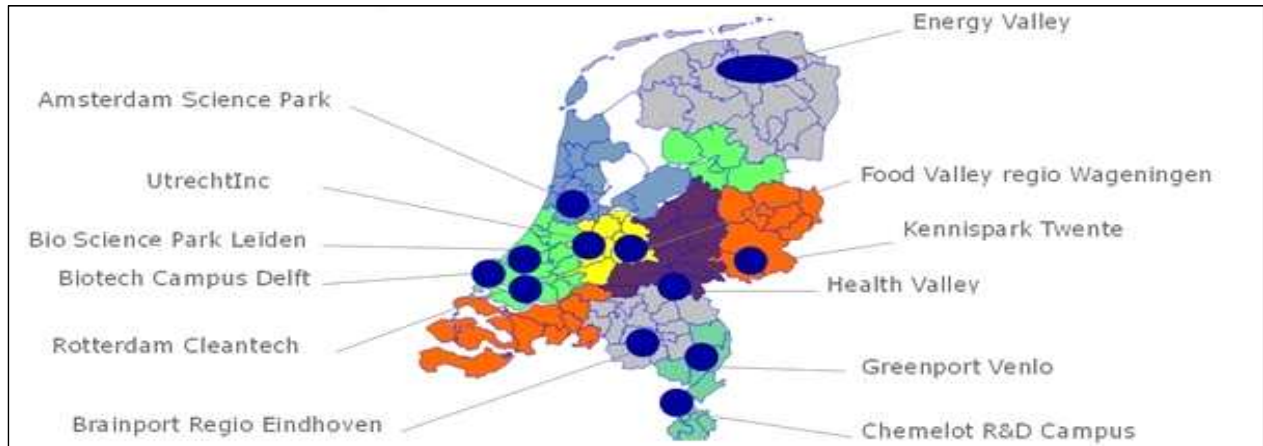
○ 2017년 포브스 선정 유럽에서 가장 비즈니스하기 좋은 나라

- 네덜란드는 정비된 인프라를 바탕으로 유럽연합 6위 경제 대국이자 비즈니스하기 좋은 국가 3위(유럽 내 1위)로 선정
- 테슬라와 우버·넷플릭스 등도 유럽 진출의 교두보로 암스테르담을 선택

□ 특징·강점

- **(클러스터)** 13개 주요 도시별 선도산업(Top Sector) 정책을 통해 분야별 스타트업 육성
 - 스타트업은 다른 기업·단체들과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자본(기업)과 인재(대학)에 대한 접근이 용이한 생태계를 속에서 관련 지식과 기술 공유가 활성화

<네덜란드 산업 클러스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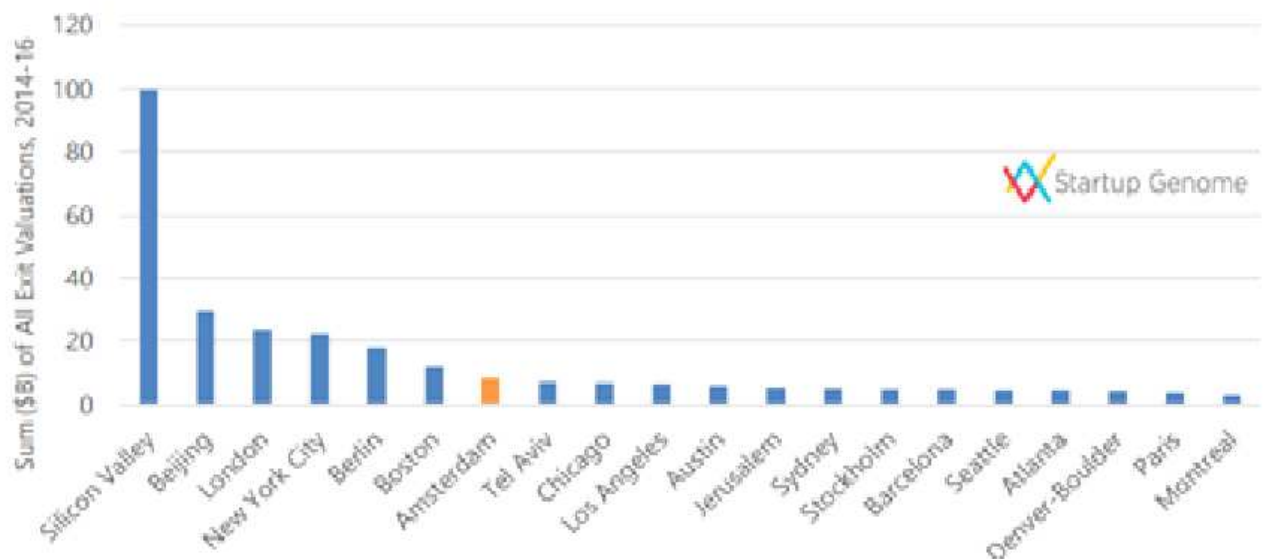


자료원: Rabobank.com

- **(EXIT 용이성)** 국가별 스타트업 엑시트* 가치 평가 7위(유럽 내 3위)
 - 2017년 네덜란드 음식배달플랫폼 Takeaway.com이 기업공개(IPO)로 10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인정받았으며, 최소 15개 스타트업이 5천만 달러 이상의 엑시트를 이루며 누적 80억 유로 기록
 - * 스타트업 엑시트는 창업자 입장에서는 출구전략을 뜻하며, 투자자는 자금을 회수하는 것으로, 대개 기업 인수합병(M&A)이나 기업공개로 귀결

<주요 도시별 엑시트 규모>

(단위: 10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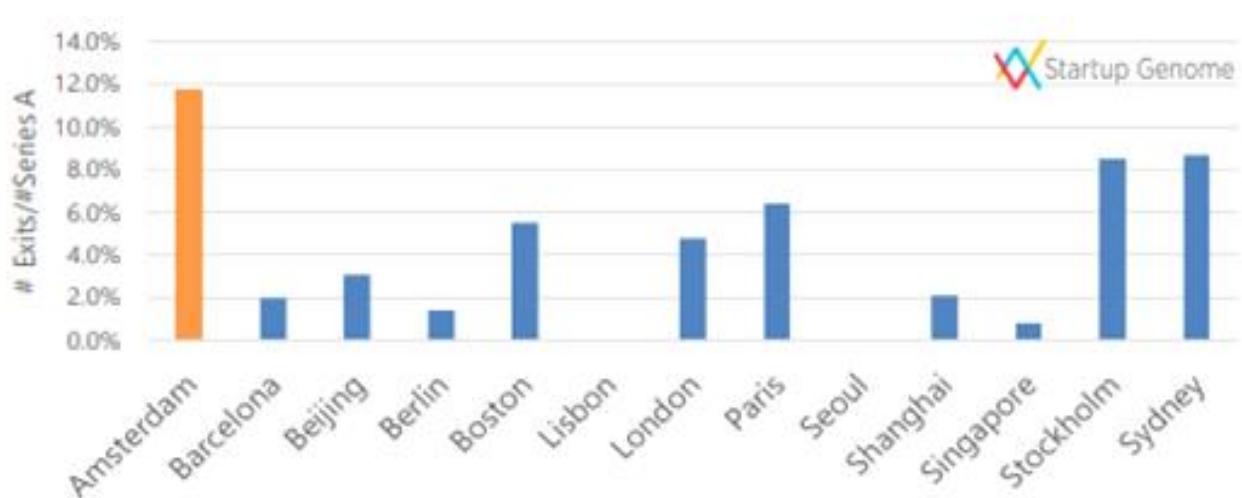
자료원: Startup Genome. 2017. Global Startup Ecosystem Report 2017

□ 스타트업 창업 추이와 대표 스타트업

- 스타트업의 스케일업 비중 약 12%로 세계 1위
 - 단순 스타트업 수보다는 높은 엑시트 용이성, 시리즈 A 투자 확보 등 스케일업(Scale-up) 기업*으로 성장이 중요
 - * Scale-up 기업: 시장 내 제품 유효성이 검증되어 사업 모델 지속이 가능한 기업
 - 네덜란드 내 스케일업한 스타트업 수는 약 3,237개로 증가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

<주요 도시별 스케일업 비중>

(단위: %)



자료원: Startup Genome. 2017. Global Startup Ecosystem Report 2017

-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스타트업
 - 에라스무스 기업가 센터(ECE)의 Scale-up Dashboard Growth 2017에 따르면, 2013년~2016년 간 스케일업 기업을 통해 약 39,000개의 일자리 창출
 - 또한 2014년 98개의 스타트업이 fast-growing 기업으로* 성장했고, 2016년에는 331개로 증가하며 급성장 중
 - * fast growing 기업: 최소 직원 수 10명, 연간 매출액 5백 만 유로, 최근 3년간 연평균 수익률이 20% 이상인 기업
- 스타트업 플랫폼인 Startup Delta, Founded in Holland, Dutch Startup Database에 따르면, 네덜란드 스타트업은 ICT 분야에서 약진해 왔으며, 그 외 핀테크, 전자상거래 솔루션 분야에서 활발

- 네덜란드 대표 유니콘 기업 : 부킹닷컴(Booking.com)
 - 1996년 네덜란드 3대 공대 중 하나인 트벤테(Twente) 공대의 엔지니어 기어트 잔 브라운스마(Geert-Jan Bruinsma)에 의해 설립, 2005년 최대 라이벌로 꼽히던 프라이스라인은 부킹닷컴의 모회사 부킹스NV를 1억 1,000만 유로에 인수
 - 소규모 스타트업으로 시작된 부킹닷컴은 현재 세계 229개 나라에서 약 3천만 개 숙소의 예약을 제공하며 매일 150만개 이상의 숙소 예약
 - 웹사이트는 43개의 언어로 제공되는 등 고객행동 기반 타겟팅 전략으로 방문자의 웹사이트 이용정보를 수집하여 일정기간 저장된 데이터를 쇼핑 기호, 정보이용패턴, 관심사 등을 판단하여 선별적으로 광고를 제공
- 세계적인 유니콘 온라인 지불 플랫폼 : 애드옌(Adyen)
 - 2006년 설립된 애드옌은 전자 상거래, 모바일 및 POS 등 전세계 단일 지불 플랫폼 제공
 - 애드옌은 은행 기반의 지불 방식인 신용카드, 직불카드, 계좌 송금 및 온라인 뱅킹을 통한 전자 지불 서비스 제공
 - 전 세계 15개국에 668명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2017년 기준 11억 4,00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여 유럽 유니콘 기업순위 6위
 - 페이스북, 넷플릭스, 로레알 등 4,500개 이상 기업이 애드옌의 플랫폼 이용
- 음식 배달 서비스 플랫폼 : 테이크어웨이닷컴(Takeaway.com)
 - 네덜란드에서 2000년에 최초 설립된 음식 배달서비스 업체로, 지역 내 레스토랑 메뉴를 온라인에서 찾기 어려운 것에서 시작
 - 기업공개를 통해 2016년 약 15억 유로의 가치로 평가되었으며, 현재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 폴란드, 오스트리아에서의 총 매출액이 약 90억 유로
 - 타사 대비 낮은 수수료(13%)와 주로 전기 자전거와 스쿠터를 통해 배달하는 차별화 전략 추구

<네덜란드의 대표 스타트업>

지역		주요 분야	대표 스타트업
1	암스테르담	창의산업, 모바일, 인터넷, 첨단기술, 공유경제, 핀테크	WeTransfer, Gitlab, Mobirise, Adyen(unicorn), Impraise , Scribbr
2	헤이그	정보 보안 기술	Talundo, Gracious Studios, Camptoo
3	로테르담	스마트 항구, 환경기술(Cleantech), 의학기술(Medtech), 에너지, 식품	Mendix, Bynder, Wearereasonablepeople, Treestle
4	라이덴	생명공학(Biotech)	Mimetas, Infradata
5	흐로닝겐	데이터 서비스, 에너지, 헬스케어	VOIPGrid, Athleteshop, Gadero, Haxo
6	위트레흐트	헬스케어	Sentia MPC, Ceradis
7	프리슬란트	수력 기술(Water Technology)	Fleet Cleaner, Salttech, Redstack
8	림부르크	물류, 농식품, 제조업, 스마트 제조	oThor, PharmaCell
9	트벤테	첨단 기술(High Tech)	Creative ICT, Scisports, Susteq, Coblue Cybersecurity
10	에인트호벤	첨단 기술(Hightech Systems), 스마트 모빌리티, 헬스케어, 에너지, 디자인	SendCloud, Future Cleaning Technologies,
11	델프트	산업 기술(Industrial Solutions), 환경기술(Cleantech), 의학기술(Medtech), IT	DENSsolutions,
12	와게닝엔	식품, 농업 기술	BunyaVax, Dutch Coral
13	아른헴/나이메이헨	헬스케어, 스마트 제조, 생명공학	Boldlemon, Nectar

자료원: StartupDelta. 2018. Startup report 2018, 코트라 암스테르담 무역관 조사 작성

나. 주요 창업 클러스터

□ 산업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형성

- 네덜란드 선도산업(Top Sector^{*})을 기반으로 10개 이상의 산업 클러스터 형성되어 있으며, 클러스터별 90분 이내 연결 가능

* 농식품, 원예, 첨단 기술, 에너지, 물류, 창의산업, 생명과학, 화학, 물 산업

- 10대 클러스터는 2018년 기준 약 4만개의 고용을 이끌며, 아인트호벤, 델프트 등 공대 중심의 기술 일자리 창출

□ TU Eindhoven Science Park

- 아인트호벤 하이테크 캠퍼스는 기업 R&D센터로, 1963년 필립스의 R&D 센터에서 출발하여 2003년부터 스타트업들이 참여하면서 캠퍼스가 형성
- 현재 IBM, NEC 등 다국적 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으며, 세계 50여개 국가에서 많은 연구원과 기업이 몰려들어 설비, 서비스, 지식을 공유

□ TU Delft Science Park

- 델프트 사이언스 파크 내에는 세계 대학 순위 52위 델프트 공대,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예스델프트(YES!Delft)가 입주
 - 예스델프트는 네덜란드의 대표적인 기술 대학 기반 인큐베이터로, 2018년 세계 인큐베이터 순위(Top business incubator 2018) 2위

<네덜란드 클러스터/캠퍼스별 스타트업 입주 현황 및 고용 규모>

캠퍼스명	분야	총 회사 수		스타트업 수	고용 규모		스타트업 수
		2014	2018	2018	2014	2018	2018
TU Eindhoven Science park	엔지니어링	123	143	77	1575	1980	1049
Kennispark Twente (Novel-T)	엔지니어링	400	471	50	5,741	6,087	200
TU Delft Science Park	엔지니어링	219	245	50	5,574	2,610	200
Campus Groningen	에너지	114	198	49	2017	3234	133
High Tech Campus Eindhoven	첨단산업	130	165	30	10000	11500	250
Amsterdam Science Park	컴퓨터공학	120	159	6	850	1340	40
Wageningen Campus	식품	90	140	15	1800	2600	80
Leiden Bio Science Park	바이오	122	135	5	6583	7500	100
Utrecht Science Park	헬스케어	80	103	31	1675	2088	84
Brightlands Chemelot Campus	화학	51	92	23	1410	1787	114
합계		1,449	1,851	336	37,225	40,726	2,250

자료원: startupjunction.com

다. VC 현황

□ 투자 규모

- 2017년, 네덜란드 스타트업 약 4억 5천유로 투자 유치
 - 네덜란드 및 외국 투자펀드들을 중심으로 네덜란드 스타트업에 약 4억 5천유로(한화 5,700억원) 투자가 일어남.
 - 인터네셔널 벤처캐피털 Prime Venture의 Alexander Ribbkink는 “구글과

우버 다음의 혁신 기업은 네덜란드에서 나올 것임에 틀림없다. 네덜란드는 창업의 경험과 자금이 순환하는 생태계를 만들고 있다.” 고 평가

<2017년 네덜란드 스타트업 투자액 Top 10>

	회사명	분야	금액(백만유로)	투자 형태	VC국가
1	Picnic	O2O	100	series B	NL
2	Messagebird	커뮤니케이션	60	series A	international
3	Xeltis	헬스	45	series C	international
4	Bloomon	전자상거래	21.4	series B	NL
5	GitLab	IT	20	series C	INT
6	Ohpen	핀테크	15	series B	unknown
7	EclecticlQ	정보보안	14	series B	NL
8	Tiqets	IT	14	series B	NL
9	Snappcar	전자상거래	10	venture	international
10	SolarNow	에너지	9	series B	NL

자료원: [StartupJuncture](#) 및 언론 보도(Xeltis), 코트라 암스테르담 무역관 조사 작성

□ 주요 투자 업종

- 주요 업종은 소프트웨어, 헬스케어 핀테크, 마케팅 등으로서, 암스테르담 내에서만 총 1,824건의 엑시트를 이룸.

<2017년 네덜란드 주요 투자 업종(산업, 비즈니스 모델별)>

INDUSTRIES		BUSINESS MODELS		TAGS	
Enterprise software	275	Subscription	574	Subscription	411
Fintech	159	SaaS	298	Software	218
Marketing	149	Commission	273	Media	212
Media	149	Marketplace	189	Mobile	196
Health	76	Agency	148	Deep tech	172
Transportation	71	Freemium	135	Content	169
Travel	71	Manufacturing	135	Platform	155
Education	64	Ecommerce	100	Analytics	151
Energy	63	Content	97	Social	127
Home	45	Advertising	62	Advertising	125

자료원: Dealroom.com

□ 주요 VC

회사명	Inkef Capital
주소	ITO Tower, Gustav Mahlerplein 66B, 1082 MA Amsterdam
전화번호	+31 (0)20 79 46 060
연락처	info@inkefcapital.com
웹사이트	http://www.inkefcapital.com/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년 ABP/APG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초기 자본 5억 유로 투자로 시작 · 시리즈A 투자에 집중하며 주요 투자 분야는 헬스케어 등 메디케어임
전문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헬스케어 관련 기술(Biotechnology, Medical Devices, Diagnostics and Digital Health) · IT 기술(Enterprise Software, SaaS, Internet, New Media, FinTech).

회사명	[스타트업 초기] UNIIQ
주소	WTC The Hague, Prinses Margrietplantsoen 32, 2595 BR Den Haag
전화번호	+31(0) 88 47 47 202
연락처	contact@uniiq.nl
웹사이트	http://www.uniiq.nl/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에 설립되었으며, 초기 자본 2천 2백만 유로로 시작 · 남쪽 홀란드 지역(암스테르담, 헤이그 등) 집중하며 다양한 분야의 초기 스타트업 대상으로 투자
전문분야	· 종합 품목(예. life sciences, Hightech 등)

회사명	[스케일업] Innovation Quarter
주소	WTC The Hague, Prinses Margrietplantsoen 32, 2595 BR Den Haag
전화번호	+31 88 47 47 255
연락처	info@innovationquarter.eu
웹사이트	https://www.innovationquarter.nl/en/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3년 설립되었으며, 남부 홀란드 지역(암스테르담, 헤이그) 지역을 중심으로 투자 중 · 초기 자본금은 8천 8백유로이며, 스케일업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함
전문분야	· Cleantech, Hightech & Smart Industry, Safety & Security, Horticulture, Life Sciences & Health, Water & Maritime

라. 주요 액셀러레이터

□ 하이테크 엑셀(HighTech XL)

- 주요 클러스터인 브레인포트(Brain Port) 아인트호벤에서 시작된 네덜란드 대표 액셀러레이터

- * 하이테크 캠퍼스(HTCE, High Tech Campus Eindhoven)은 기업들의 연구·개발(R&D)센터로, 1963년 필립스의 R&D센터에서 출발하여 2003년부터 스타트업들이 참여하면서 캠퍼스가 형성
- * 현재 HTCE에는 IBM, NEC 등 다국적 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으며, 세계 50여개 국가에서 많은 연구원과 기업이 몰려들어 ‘open innovation’을 근간으로 설비, 서비스, 지식을 공유하며 상호 협력, 합작, 파트너십,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통한 기회 창출로 또 다른 성장을 견인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이룸.

- 필립스, ASML 포함 28개의 기업이 HighTech XL을 통해 아이디어만으로 창업에 도전하는 많은 스타트업을 펀딩 및 다양한 방법으로 후원
- HighTech XL은 차세대를 이끌 기술을 사물인터넷, 첨단소재, 로봇틱스, 자율주행 자동차, 에너지 저장, 3D-프린팅, 신재생 에너지, 메디테크의 8개 분야로 나누어 창업경진대회 개최(평균 2년에 3번)
 - 선발된 스타트업은 하이테크 캠퍼스가 제공하는 공동 연구시설 사용은 물론, 글로벌기업 멘토링과 벤처캐피털 투자지원 등을 통해 회사를 성장시킬 수 있으며, 유럽, 중국, 인도 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받음.

<네덜란드의 대표적인 액셀러레이터>

이름	국가/도시	파트너 기업/기관	기간	기업 수	지원내용	유망 협력 분야 (협력 희망기술)
Startupbootcamp	네덜란드 / 암스테르담	ABN Amro, Achmea, Allianz, America Today	3개월	607	· 총 자금 4 억 2,400 만 달러 · 암스테르담 자금 2,200 만 달러 (평균 자금 1,168 백만 달러) · 업계 전문가, 비즈니스 멘토, 멘토십, 가이드 지원의 글로벌 네트워크 액세스 · 공동 작업 공간, 15,000 유로의 생활비	핀테크, 사이버보안, 스마트 시티, IoT, 식품공학
Rockstart	네덜란드 / 암스테르담	Engie, Cez Group, Gasunie	5-6 개월	124	· 총 자금 6,370 만 유로 · 네트워크 또는 멘토 및 투자자, 사내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및 대규모 재능 있는 기업가와 네트워킹 · 공동 작업 및 이벤트 공간	웹 및 모바일, 디지털 건강, 스마트 에너지 및 인공 지능
Next Amsterdam	네덜란드 / 암스테르	-	1년	3	· 실험 기반 검증, 전략 지원, 지식 및 코칭 세션, 지원 · 네트워크, 신생 기업, 전문가 및	소프트웨어 기반 기술

	담				투자자에 대한 액세스, 사무실 공간 제공	
Hightech XL Accelerator	네덜란드 /아인트호벤	Philips, NXP, EY, High Tech Campus	3개월	20	· 멘토링, 워크샵, 개인 관리자, 법률 및 재정 지원, 피치 훈련 · 무료 사무실 공간 제공 · 3 ~ 9 개월 기간, 성과에 따라 2~8 %의 지분	IoT, 로봇 공학, 자율 주행 주행 차량, 3D 프린팅, 신 재생 에너지
Present your Startup	네덜란드 /하를렘	Rabobank, EvoSwitch, Lexence	2-3 개월	-	· 금융 교육, 피치 훈련, 네트워킹, · 파트너들과 할인 계약 · 웹사이트에 회사 노출	기술, IoT 뉴미디어, 게임, 3D 프린팅
PortXL Accelerator	네덜란드 /로테르담	Van Oord, 로테르담 항, EY, Shell, Vopak, Boskalis	3개월	12	· 멘토링 주도 프로그램(워크샵, 시장 조사, 비즈니스 모델 개발) · 일대일 코칭, 네트워킹, 피칭 피드백	항만 관련 산업 (드론, 스마트 소프트웨어, 3D 프린터, 컨테이너 잠금 장치 등)
Media Matters	네덜란드 /힐베르숨	NPO, Avrotros, BNNVARA, EO	1개월	10	· 미디어 신생 기업을 위한 협업 프로그램 · 피치 훈련, 워크샵, 코칭 및 지도	미디어 관련 신생 기업
Collider	네덜란드 / 암스테르담	-	3개월	-	· 엔젤 투자자로부터 코칭 및 교육 네트워킹	MadTech (미디어, 광고 및 기술)
World Startup Factory	네덜란드 /헤이그	The Hague Security Delta, Health Valley Netherlands, SPIE, KPN	5-6 개월	40	· 총 자금 15,000유로 투자 · 회사의 8 % 지분에 대한 보답으로 맞춤형 지원	스마트 시티, 건강 및 노화, 스마트 빌딩 및 이동성
BlueWhale (BW Ventures)	네덜란드 /아인트호벤	Microsoft, Prezi, DB&P, Startupdate	3 개월	-	· MVP (최소 실행 가능 제품) 구축 및 실험 시작 · 유럽 최대의 사이버 보안 생태 시스템에 액세스 · 미국 및 아시아 생태계 액세스, 멘토십, 3 개월간 사무실 공간 확보, 피치 훈련	사이버 보안 신생 기업 (사이버 보안, 위협 정보, IoT 보안, 모바일 보안 등)

자료원: 코트라 암스테르담 무역관 조사 작성

마. 지원정책

□ 정부 차원의 스타트업 육성 전략

- 네덜란드 경제부는 네덜란드 왕자를 스타트업 특사로 임명
 - 2017년 7월, 네덜란드 콘스탄테인 왕자는 네덜란드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기관인 스타트업 델타의 특사로 임명
 - 특사의 미션은 네덜란드 스타트업의 국제적 입지 강화와 혁신 스타트업

유치와 2020년 네덜란드의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 3위를 목표로 함.

- 경제부 Henk Kamp 장관은 “현재 네덜란드에서 성공한 스타트업이 점점 늘고 있지만, 더 많은 외국 스타트업을 유치하고, 내수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장려해야한다” 고 밝힘.

○ 네덜란드 스타트업 생태계 허브, 스타트업 델타(Stratup Delta)

- 스타트업 델타는 비영리 공공 민간 파트너십으로 네덜란드의 높은 기술력, 기업, 자본, 우수한 인력을 한 곳에 모으는 스타트업 네트워크 생태계
- 네덜란드 각 지역의 허브를 연결하며, 격주 간격으로 각 허브의 사이언스 파크 디렉터 등 10명이 정기적으로 만나 지역의 업무와 비전 공유
- 스타트업 델타는 정부, 연구기관, 스타트업, 금융기관과 비즈니스 서비스 기관이 협업하는 플랫폼으로서, 경제부는 기업이 빠르게 창업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 규제개혁, 창업비자제도 도입에 힘쓰고 있음.
- 현재 네덜란드에 조성된 하이테크캠퍼스(High Tech Campus, Eindhoven), 케니스파크(Novel-T, Twente)와 같은 스타트업 허브와 협력하며 스타트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

□ 지원제도

<스타트업 거주허가(Startup Visa) 제도>

- 2015년부터 스타트업 거주비자 도입, 2018년 기준 약 120개 발급
- EU외 국적자가 네덜란드에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1년 기한의 거주허가증을 발급해 주는 제도이며, 1년에 지난 후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해 자영업자 거주허가(Residence permit for self-employed)로 전환해야하며, 스타트업 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퍼실리에이터’가 있어야함.

< 스타트업 거주허가 지원 요건 >

① 퍼실리에이터(Faciliator)와 조력

- 퍼실리에이터는 액셀러레이터 혹은 인큐베이터 기관을 지칭하는 것으로, 스타트업 기업과의 계약에 따라 창업가에게 생산관리, 마케팅, 투자가 물색 등 기업을 처음 시작할 때 필요한 사항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혹은 기업)

② 혁신 제품 및 서비스 개발 필요

- 제품 및 서비스는 △네덜란드에 새로 도입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이거나 △생산, 유통, 마케팅을 위한 새로운 기술 △조직 또는 프로세스의 혁신적인 접근법일 경우 ‘혁신적’이라고 인정됨. 네덜란드 선도산업(Top Sector) 정책에 연관된 활동, 직접 개발한 제품 및 서비스, 사회적 책임 또는 에너지 보존에 대한 독창적 접근법, 새로운 제품 등이 인정됨.

③ 아이디어 사업화 로드맵 보유

- 창업가는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단계별 계획을 제시해야 함. 로드맵에는 △조직 구성(조직구조, 역할 및 기능, 법적 형태, 인원, 기업의 목적 등 포함) △혁신적인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서술, △1년간 기업 설립 및 활동 계획이 포함되어야 함.

④ 스타트업 기업과 퍼실리에이터 모두 네덜란드 상공회의소(KvK)에 등록

⑤ 스타트업 창업가는 네덜란드에서 거주하기에 충분한 자금 보유

- 창업가는 네덜란드에서 생활하기에 충분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복지수당 등 공적 자금을 의존하고 있어서는 안 됨. 네덜란드 최소임금의 70% 이상 수준의 잔고가 있는 은행계좌 명세서를 제출하거나 퍼실리에이터 등 다른 사람(기업)이 창업가에게 생활자금 지원도 가능(잔고상태는 네덜란드에서 머무는 1년간 유지되어야 함)

<스타트업 초기 자금조달 제도, Vroegefasefinanciering(VFF)>

- 2014년 7월부터 스타트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한 제도로써,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장에 내놓기 위해 필요한 초기 자금을 4.82%(’18년)의 이자율로 대출
 - 총 정부예산 800만유로가 투입되며, 그 중 277만 유로는 학계, 연구소 등 R&D분야 예산으로 투입
 - 대상기업은 중소기업과 창업 5년 이하의 스타트업, 그리고 대학이나 대학병원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스핀오프한 기업
 - 보조금은 경제부에서 주관하며, RVO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집행하고, STW(Stichting voor de Technische Wetenschappen, 기술과학

재단)는 대학 스핀오프 기업을 대상으로 보조금 집행

〈학술지식 상업화 프로그램, Valorisatieprogramma〉

- 학술지식을 경제활동으로 전환시키고자 2010년부터 Valorisation Programme (Valorisatieprogramma) 프로그램 시행
 - 학술적 지식을 경제적 활동으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프로그램
 - 2010~2018년 Valorisation Programme 예산은 약 1억 3,240만 유로이며, 2010~2014년간 약 100만 개의 스타트업에게 평균 3만 5,000유로를 대출
 - 2015년 3월 경제부는 2010년부터 대학에서 분할돼 새롭게 설립된 스타트업이 650개사가 넘어, 동 프로그램이 결실을 맺고 있다고 평가

바. 주요 스타트업 컨퍼런스

□ 유럽 최대 테크 컨퍼런스 : TNW Conference Europe*

- * TNW(The Next Web)는 2006년 미국에서 설립된 온라인 테크 미디어 TNW가 주최하는 스타트업 컨퍼런스로 매년 암스테르담과 뉴욕에서 개최('18년 약 15,000명 참가)



□ 프로그램

- ① Tech5 경진대회 : 유럽 주요 6개국별(네덜란드, 독일, 영국, 스페인, 프랑스, 스웨덴) 급성장 기술 기반 스타트업 선정
 - '18년 네덜란드 우승 스타트업 : Picnic(피크닉, 식료품배달앱)
- ② VC 1:1 상담 :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주선했던 투자 상담 실시

- ③ 부스 시연 : 국가관 또는 개별부스를 통해 제품 시연
- ④ 세미나 : 기술 트렌드, 스타트업 운영 관련 다양한 주제의 강연
- ⑤ Recruiting : Start-up 대상 취업 지원 프로그램
- ⑥ 네트워킹 : 식사, 보트 승선, 각종 파티 등 부대 행사 진행

< TNW 2017 한국관 참가개요 >

- 일시: 2017.5.18.(목)~2017.5.19.(금) / 암스테르담
- 규모: 20개사 참가, 총 24건 상담 주선(스타트업 11개사, 투자가/바이어 9개사)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경기혁신센터,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본투글로벌, 한국콘텐츠진흥원, 창업진흥원, KOTRA 등
- 분야: 웨어러블기기, 액화수소, 홍채인식 솔루션, 스마트 보안 솔루션 등
- 참고: KOTRA 암스테르담 무역관과 협력, 현지 1:1 상담회 참가 희망 스타트업을 대상 현지 VC, 바이어들과 1:1 상담주선 및 상담회 운영

사. 스타트업 성공 사례

1) 센드클라우드(Sendcloud)

	
기업명	Sendcloud
설립연도	2012년
거점	네덜란드 아인트호벤(Eindhoven)
업종 및 품목	전자상거래 배송 플랫폼
기업가치	2017년 약 5백만 유로 투자 유치
해외진출 현황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진출
직원 수	약 55명
주요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 주변 국가 총 10,000명이 넘는 고객 보유 · 설립 이래 매출액이 5,463% 증가 · Sendcloud 서비스를 통해 일평균 배송량 1,000개를 기준으로 하루 평균 18.7시간, 200유로 이상 절감

□ 성장과정과 성과

○ 창업 동기/배경

- 온라인 소매업체 운영비 중 물류비용은 약 20~40%를 차지하며, 소비자는 배송, 반품 등 요구 사항이 증가하는 추세

- 판매자 측에서는 생산적이고 경제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샌드클라우드 서비스 개발

○ 성장 계기

- 2012년 설립된 SendCloud는 중소 규모 전자상거래 기업을 대상으로 빠르고 효율적인 배송 플랫폼 제공
- 설립 이래 매출액이 5,463% 증가, 2017년 스타트업 경진대회인 ‘Deloitte Technology Fast 50’ 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혁신기업 1위를 기록

○ 사업 규모/해외진출

-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의 5개국에 55명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10,000명이 넘는 고객 보유
- 2017년 BOM, TIIN Capital 등 투자자로부터 500만 유로의 투자 유치

□ 성공요인

○ 기술 또는 비즈니스 모델의 특징

- 최적화된 배송 및 반품 프로세스를 갖춘 자체 배송 시스템을 통해 전자상거래 기업의 경쟁력 제고
- Amazon, Ebay, Shopify 등 25개의 전자상거래 업체와 연결, DHL, UPS 등 10개의 글로벌 택배업체를 통해 국가별 최적화된 배송 서비스 제공
- 판매자는 택배송장을 일일이 수기로 작성하는 것 대신, 바코드를 통해 단순히 프린트할 수 있어 택배 보내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절감*

* Sendcloud 서비스를 통해 일평균 배송량 1,000개를 기준으로 하루 평균 18.7시간, 200유로 이상 절감

○ 시장 수요

- 전자 상거래 배송시장에서 유럽 내 배송 네트워크 최적화를 선도
- 중소 규모의 전자상거래 업체를 타겟으로 기존의 대형 업체들을 주로 상대하는 글로벌 택배업체들과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2) 피크닉(Picnic)

	
기업명	Picnic
설립연도	2015년
거점	네덜란드 아머스포트(Amersfoort)
업종 및 품목	온라인 슈퍼마켓, O2O 서비스, 온라인 식료품 배송
기업가치	2017년 4개의 대형펀드로부터 1억 유로 투자
해외진출 현황	뒤셀도르프를 중심으로 독일 진출
직원 수	약 750명 배달원 보유
주요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개가 넘는 도시에서 750명의 배달원 확보 · 일용 소비재를 주로 판매하며 약 20,000개의 제품을 제공

□ 성장과정과 성과

- 창업 동기/배경
 - 2015년 네덜란드 Amersfoort 지역에서 오프라인 매장이 없는 온라인 슈퍼마켓 Picnic 설립
- 성장 계기
 - 온라인 슈퍼마켓의 소비자는 매번 80%의 같은 식료품을 주문하며, 소비자가 옷, 전자 제품에 비해 생필품 구매 목적 매장 방문의 필요성이 더 낮음을 계기로 아이디어를 구상
- 사업 규모/해외진출
 - 2017년 4개의 대형 펀드로부터 1억 유로의 투자를 받았으며, 독일 뒤셀도르프 지역을 중심으로 주변 국가 진출

□ 성공요인

- 기술 또는 비즈니스 모델의 특징
 - 최소 주문량 및 제품 가격이 여타 주요 식료품 체인에 비해 낮음.
 - Picnic은 도시 내 각 지역에 배달 노선을 설정하여 소형 전기 배달 밴을 통해 무료 배달 서비스 제공

- Picnic은 30개가 넘는 도시에서 750명의 배달원을 확보, 일용 소비재를 주로 판매하며 약 20,000개의 제품 제공

○ 시장 수요

- 네덜란드에서는 Amersfoort, Almere, Utrecht, Rotterdam, Leiden, Delft, The Hague 지역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 점차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

<네덜란드 주요 스타트업 리스트>

분 야	기업명	개요
ICT	Shake-on	▶ 명함 없이 악수만으로 연락처 교환을 가능하게 해주는 스마트 팔찌
	Sendcloud	▶ 온라인 스토어를 위한 전자상거래 물류 소프트웨어
	Bynder	▶ 문서, 그래픽, 비디오 등 각종 콘텐츠 작성, 사용을 용이하게 해주는 마케팅 소프트웨어
	Wetransfer	▶ 클라우드 기반 컴퓨터 파일 전송 시스템 ▶ 건당 20GB까지 전송이 가능하며 최대 100G까지 자체 시스템 내 저장 가능함.
	Bux	▶ 주식 거래 경험이 없는 고객들을 위한 주식 거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첨단 기술 (High Tech)	Cybe Construction	▶ 3차원의 구체적인 프린팅 인쇄에 적합한 3D 프린터
	AeroVinci	▶ 착륙, 데이터 분석 등이 가능한 무인 드론 거치대(Docking station) 기술
	Microsure	▶ 높은 정밀도를 보유한 미세 수술 보조 로봇
식품	Picnic	▶ 오프라인 매장이 없는 전기차 배송 기반 온라인 슈퍼마켓
	Boon Foodconcepts	▶ 육류 대안으로, 콩으로 만든 햄버거 등의 준 식사용 식품
	Instock	▶ 잉여 음식을 활용한 레스토랑, 푸드트럭 운영 및 식료품 생산

3) 한국 스타트업 성공사례 : 원소프트다임(OSD)

	
기업명	원소프트다임(OSD)
설립연도	2014.7
업종 및 품목	증강현실 스마트글래스
해외 거점	스웨덴 스톡홀름
현지 진출방법	Hightech XL 경진대회 참가 헬스테크 분야 1위 수상 경진대회 주관사인 하이크데 액셀러레이터 진출 사무공간 임대하여 법인 설립 완료
현지 투자규모	15,000유로
현지 직원 수	약 4명
진출 성과	· 네덜란드에 법인 설립 · 필립스를 포함한 유럽 VC에게 IR 실시하여 글로벌 화학 기업인 DSM사의 CEO와 미팅 진행 중

□ 진출 동기·방법

○ 진출 동기

- 원소프트다임은 경북소프트웨어융합센터의 지원을 받아 2015년 창업
- 포항창조경제센터에서 GSV(Global Star Venture)로 선정, 투자 유치
- 세계 최초 스마트폰용 체지방 측정기를 개발한 원소프트다임은 2015년에 설립된 종업원 수 20명 미만의 벤처기업으로, 스마트폰과 연계된 휴대용 체지방분석기를 개발하여 시장의 좋은 반응을 얻음.

○ 진출 방법

- 2017년 네덜란드 액셀러레이터 HighTech XL(HTXL) 주관 창업경진대회에 Med Tech 31개사, High Tech 9개사, Fin Tech 63개사가 지원했고, 원소프트다임이 Med Tech 분야 1위로 선정

○ 사업 규모/해외진출

- OSD는 HTXL로부터 네덜란드에서의 초기 투자금 15,000유로를 받고 네덜란드에 법인을 설립, 필립스를 포함한 유럽 VC에게 IR 실시하여 글로벌 화학 기업인 DSM사의 CEO와 미팅 진행
 - * DSM은 네덜란드의 글로벌 화학기업이나, 현재 화학 사업뿐 아니라 Nutrition사업 도약을 위해 진단 장비 관련 스타트업에 관심을 보임.
- OSD에게 공식 진단 장비 파트너 및 Nutrition의 독점 공급처를 제안, 향후 세일즈 협력 관련 LOI를 체결했고, 제네바의 뉴트리션 푸드 전시회(VITA FOOD)에 OSD를 공식장비 지원 파트너로 초대
- DSM은 SARCOPENIA라는 노인근감소 질병에 탁월한 진단 디바이스로 개발하려하고, 이에 OSD는 하이테크 캠퍼스 인근의 Fontys대학의 마케팅 인턴팀과 파일럿 프로그램을 위한 리서치 준비 중

□ 성공요인

○ 기술 또는 비즈니스 모델의 특징

- 원소프트다임이 개발한 ‘원스마트다이어트’는 휴대용 체지방 측정기로 양손 엄지와 검지로 살짝 잡기만 하면 체지방이나 근육량 등을 측정
- 네 개의 접촉 전극을 통한 ‘생체전기 임피던스법(BIA)’으로 제작됐으며

담배 라이터 크기에 무게는 20g으로 가벼워 휴대하기 편리

- 전문 의료용 체지방 측정기에 가까울 만큼 정확도(98.8%)가 높으며 운동 방향이나 식단 조절 등 생활 습관을 고치는 종합 생활건강 서비스 제공

아. 협력방안

□ 네덜란드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 활용

- 네덜란드는 대학-연구소와 기업, 정부의 협력에 강점을 가진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많은 성공사례를 보유
 - 해외 기술 기반 스타트업은 이러한 협력 체계 안에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어야 성공적으로 기업 생태계에 뿌리내릴 수 있음.
- 코트라 암스테르담 무역관은 현지 창업경진대회를 매회 참관하는 필립스, ASML 등 글로벌 기업의 수요를 파악하고, 글로벌 기업과 한국 유망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 진행
 - 창업진흥원, 협회 등 유관기관 등과 한국의 유망 스타트업 기업을 발굴하여, 현지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에 참가선정될 수 있도록 밀착 지원
 - * 최근 한국 기업이 현지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통해 초기 투자(15,000 유로)와 멘토링을 받고, 유럽 VC에게 IR을 실시하여 글로벌 기업과 협업사업을 진행하며 성공 사례 창출(본 보고서의 진출사례 참고)

□ 유럽 테크 스타트업 컨퍼런스 활용

- 유럽 주요 스타트업 컨퍼런스에 한국관을 구성하여 실제 VC 투자가들과 피칭, 1:1 상담의 장 활용
 - * 현지 Startup 지원기관인 Brainport는 지난 TNW 연계 K-Startup 참가 스타트업에게 현지 파트너(투자자) 발굴, 입주지원 등에 대해 협조 의사 표명

□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기본 요건 획득 필요

- 스타트업은 신기술 또는 신제품을 제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투자자, 바이어들은 제품의 시장성 분석에 시간이 소요
 - 유럽시장 진출을 위한 요건(CE인증 획득 등)을 사전에 갖추 필요*
 - * 2017 TNW 연계 K-Startup 글로벌 로드쇼 투자가 상담 내용

자. 유용한 정보원

이름	설명	웹 페이지/(가능할 경우) 연락처
Dealroom	암스테르담에 본사를 둔 스타트업 주요 연구기관	https://dealroom.co/
NVP	네덜란드 주요 벤처 투자 기관	http://www.nvp.nl/#!lang=en T. +31 (0)20 571 22 70 E. info@nvp.nl
NLfunding	네덜란드 주요 기술 혁신 기업 벤처 투자 정보 플랫폼	http://nlfunding.co/
Silicon Canals	베네룩스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 연구 기관	https://siliconcanals.nl/
StartupDelta	네덜란드 스타트업 생태계 허브	https://www.startupdelta.org

자료원: 코트라 암스테르담 무역관 조사 작성

6. 스웨덴 스톡홀름

가. 스타트업 생태계의 위상과 특징

□ (위상) 스웨덴, 세계적인 스타트업 허브로 급부상

- 스웨덴은 인구 1백만 명 당 스타트업 수를 기준으로 할 때, 5.52개의 스타트업을 배출, 룩셈부르크(14.9 개)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
- 스웨덴은 TEA* 지수 7.3으로 유럽 4위
 - * Total Early-Stage Entrepreneurial Activity: 18-64세의 경제활동인구 중, 창업 42개월 이하의 스타트업에 종사하거나 또는 창업단계에 있는 인구 비중
 - 2017년 스웨덴의 TEA 지수는 7.3%로 서유럽 국가 중 네덜란드, 스위스, 영국에 이어 4위(네덜란드 9.9%, 스위스 8.5%, 영국 8.4%, 독일 5.3%)
 - 특히 스톡홀름은 Spotify, Skype, King, Mojang, Klarna, IZettle, Truecaller 등 7개의 유니콘 배출
- VC와 CVC 투자 증가
 - 최근 기술창업의 핵심기반이라 할 수 있는 VC 투자가 확대 추이
 - '15.1~'16.8월간 세계 90개국에서 8,700건의 스타트업 M&A가 이루어졌으며, 스웨덴의 스타트업 M&A는 53건*
 - * 미국은 총 984건의 스타트업 M&A건이 발생했으나 인구 1백만 명당 기준은 3.05 개로 12위 (Mattemark Data, '15.1.-'16.8.)
 - 인터넷, 모바일, 헬스케어 등 미래산업을 중심으로 CVC(Corporate Venture Capital, 기업벤처캐피탈)를 포함한 글로벌 기업의 스타트업 투자 확대

<글로벌 스타트업 M&A('15.1-'16.8)>

순위*	국가	건수	인구	인구 백만명당 건수
1	룩셈부르크	8	536,427	14.91
2	스웨덴	53	9,595,619	5.52
3	캐나다	189	35,309,555	5.35
4	이스라엘	41	7,939,745	5.16
5	스위스	35	7,788,196	4.49
6	핀란드	22	5,434,241	4.05
7	노르웨이	20	5,022,555	3.98
8	덴마크	21	5,628,958	3.73
9	영국	226	63,556,184	3.56
10	아일랜드	15	4,682,042	3.2
11	싱가포르	17	5,336,859	3.19
12	미국	984	322,422,965	3.05
13	뉴질랜드	11	4,554,858	2.42
14	홍콩	17	7,352,945	2.31
15	호주	43	23,502,754	1.83

* : 순위는 인구 백만명당 M&A 건수 기준

자료원: Mattemark Data.

□ 스웨덴의 스타트업 환경

○ 기초과학 발달

- 물리, 화학, 생물 등 기초과학이 잘 발달하여 이를 토대로 한 연구와 응용과학 분야가 활발하며, 창업으로도 연계
- 스웨덴은 기초과학 분야에서 다수의 노벨상 수상자 배출(물리학 4명, 화학 5명, 생리학 8명 등)

○ 창업초기부터 글로벌 시장을 목표

- 스웨덴은 북유럽에서 가장 큰 시장이지만, 유럽 주요국에 비해 내수시장(인구 1천만 명)이 작기 때문에 창업초기부터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선정
- Ericsson, Volvo, Saab, H&M, Electrolux, Atlas Copco, IKEA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웨덴 브랜드의 탄생도 창업초기부터 내수시장이 아닌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평가
-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입소 심사요건에 기술이나 제품, 서비스의 글로벌화 가능성을 판단하는 항목이 들어있을 정도로 초기부터 글로벌화 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를 집중 지원

○ 혁신을 위한 테스트베드 역할

- 스웨덴은 1990년대부터 고속인터넷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컴퓨터 구매시 세금을 감면해주어 컴퓨터 보급률을 높이는 등 디지털사회로의 전환 촉진
- World Economy Forum은 스웨덴을 ‘세계에서 가장 디지털화된 경제’ 라고 언급
- 디지털 지식을 갖춘 젊은 세대들이 ‘개방형 액세스’ 와 ‘기업 협력 문화’ 를 만들어 냈고, 스웨덴은 ‘혁신을 위한 테스트베드’ 로 부상
- Spotify의 최대 주주인 VC 펀드 Northzone은 “스웨덴은 혁신을 위한 테스트베드” 라고 밝히면서, “스웨덴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투자하기 보다는 문제해결을 위한 것에 투자하는 국가” 라고 소개. 이런 맥락에서 투자사들은 스웨덴을 ‘게임의 승자’ 또는 ‘게임 체인저’ 라고 칭함.

○ 기업가 정신이 번성할 수 있는 토양

- 개인보다는 집단을 우선하는 북유럽 특유의 정서인 안테의 법칙(안테 라젠) 이 스타트업 발전의 토양이 됨.
- 안테의 법칙은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다는 정서로 오래 전부터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에서 내려오는 겸손과 평등을 강조하는 국민정서
- 이러한 정서가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기업가 정신이 번성할 수 있는 공공정책의 원동력이 된 것으로 분석

○ 학계, 직무발명 지적재산권의 개인 귀속

- 스웨덴 지적재산권법에서는 교사 예외조항(Teachers Exemption)을 만들어 대학 교수나 연구원이 발명한 특허의 소유권을 교수와 연구자에게 부여
- 연구자가 연구 성과물에 대해 광범위한 권리를 보유하고 보상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스웨덴의 혁신 요인 중 하나로 간주

○ 대학에서의 창업 활발

- 대학은 창의성을 강조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아이디어부터 파일럿 제품 생산까지 단계별로 지원
- 대학에서 발명자의 특허 소유권을 인정해주고 있고, 대학교수의 산업체 겸직과 파견 근무도 허용하고 있어 창업이 용이한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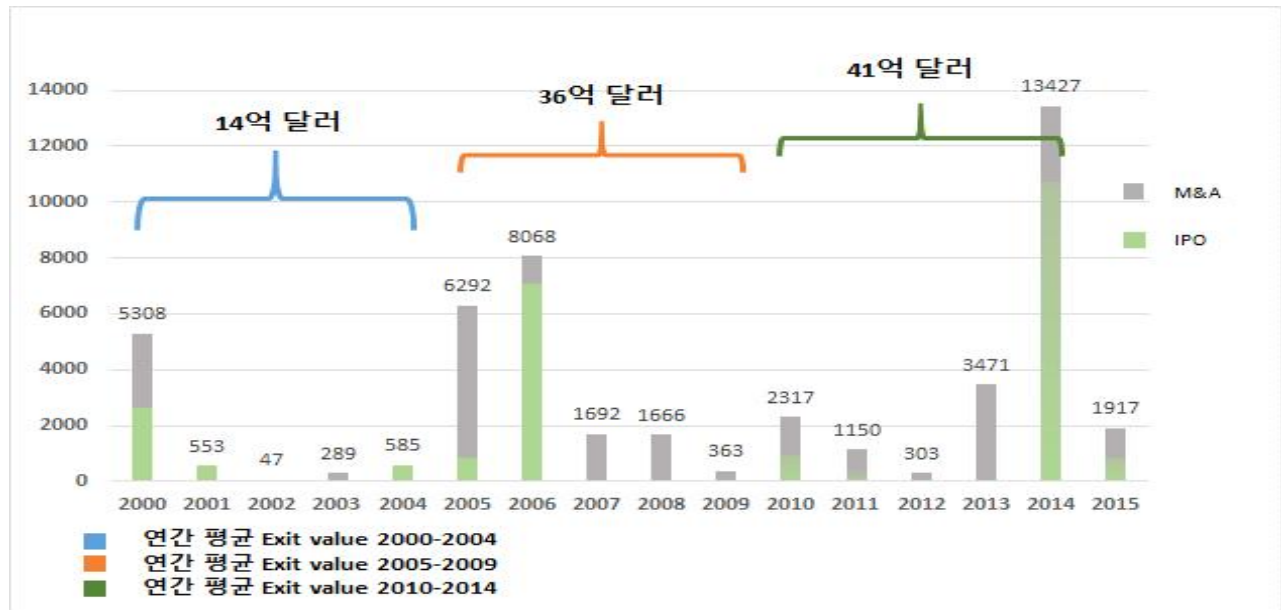
- 사회안전망 구축에 따른 실패에 대한 부담 최소화
 - 개인이 창업에 실패하더라도, 개인파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이 잘 구축되어 있어 실패에 대한 부담이 적은 편

□ 특징 · 장점

- 자금조달 여건
 -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극 지원해주는 분위기로써, 지역별 창업지원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어 누구나 부담 없이 이용 가능
 - 경쟁력 있는 스타트업의 경우 Swedish Agency for Economic and Regional Growth, VINNOVA, ALMI, Industry Fund에 초기 창업자금이나 R&D 지원 자금을 신청할 수 있음.
 - 이외에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기술 보유업체에게는 일반 금융권으로부터 금융지원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종자돈 지원
 - 스타트업들에게는 설립년도의 손실분을 차기 영업실적에 적용토록 허용함으로써, 사업초기 세금부담의 완화 지원
 - 인큐베이터의 파트너사인 민간 벤처투자가로부터의 자금조달도 용이한 편
- EXIT 용이성
 - ' 15.1~' 16.8월까지 20개월 동안 세계 90개국에서 발생한 스타트업 M&A 건은 총 8,700건으로 이 가운데 약 45%가 미국에서 이루어짐.
 - 같은 기간 유럽에서는 영국이 226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인구비율에 따른 M&A건은 노르딕국가가 높은 것으로 알려짐.
 - 전세계 인구의 3%에 불과한 노르딕국가(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가 글로벌 스타트업 엑시트의 7%, 유럽 스타트업 엑시트의 53% 차지
 - 스웨덴은 노르딕 엑시트의 50%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편
 - 2010~14년 노르딕 국가의 연평균 엑시트 규모는 41억 달러
 - 한편, 2000~15년간 스웨덴 스타트업의 M&A는 총 247건, USD 180억 규모로 노르딕국가 중 최대. 그 뒤를 노르웨이(72건, USD 90억), 덴마크(57건, USD 70억), 핀란드(86건, USD 40억) 순

<2000~15 노르딕 국가 스타트업의 엑시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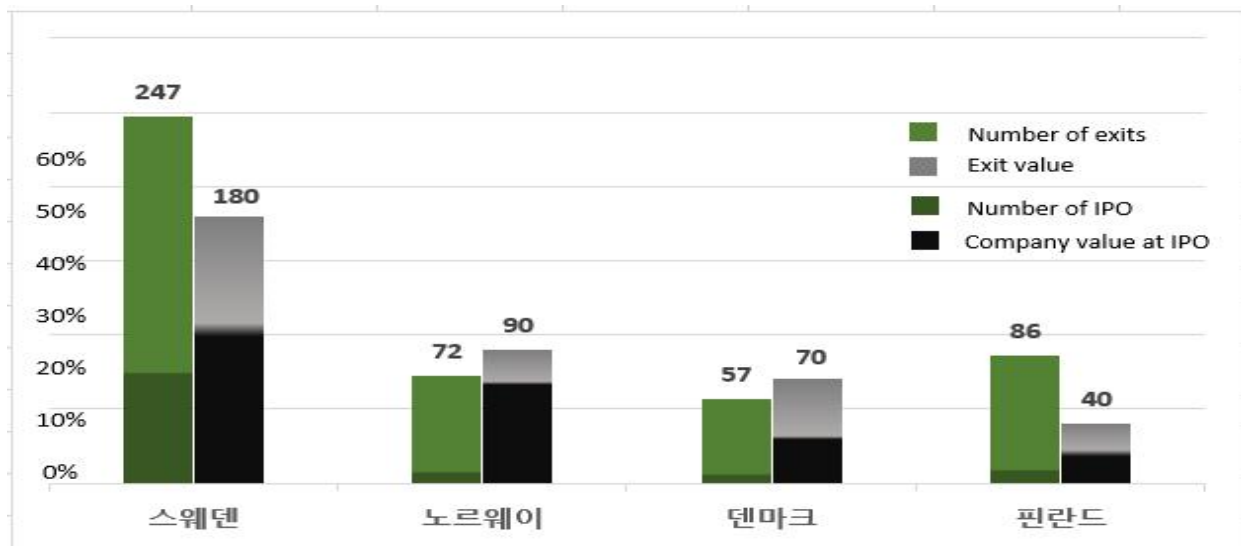
(단위: 100만 달러)



자료원: Medium. 2015. Nordic Tech in on fire-almost 10% of global BUSD exits over past 10 years

<2000~15 노르딕 국가별 스타트업 엑시트 현황>

(단위: 10억 달러)



자료원: Medium. 2015. Nordic Tech in on fire-almost 10% of global BUSD exits over past 10 years

□ 스타트업 창업 추이와 대표 스타트업

- 2016년 스웨덴의 신규 창업기업 수는 7만여 개로 전체 등록 기업(약 100만 개)의 7%였으나, 2017년에는 전년대비 2.7% 감소한 68,113개로 집계

○ 유니콘

- 2018년 기준, 스톡홀름의 스타트업 유니콘은 Spotify, Skype, King, Mojang, Klarna, Izettle 등 6개
 - Spotify는 세계 최고의 스트리밍앱 서비스기업으로 '06년 스톡홀름 최초의 유니콘(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인 스타트업)이 되었고, Skype, King(Candy Crush Saga 모바일게임 개발), Mojang(컴퓨터게임 Minecraft 개발), Klarna(전자상거래 지불서비스), Izettle이 뒤를 이음.
 - . Spotify: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06년 설립, 1억8천만 유저
 - . Skype: 인터넷 전화, 85억 달러에 마이크로소프트에 매각('11)
 - . King: 모바일게임 '캔디 크러쉬 사가', '12년 Facebook에 출시, 하루 93백만 유저, 59억 달러에 Activision Blizzard에 매각('16)
 - . Mojang: 어드벤처게임 '마인크래프트', 마이크로소프트사에 25억 달러에 매각('14)
 - . Klarna: 전자상거래 지불서비스, 3,500만 유저, 18개국 진출
 - . Izettle: 핀테크, 24억 달러에 미 Paypal에 매각('18.5월)
- (자료원 : Stockholm Business Region)

○ 2017 스웨덴 Top 10 스타트업

- Pagan Research가 선정한 2017년 스웨덴의 Top 10 스타트업 리스트에 따르면, 핀테크와 디지털헬스 분야 기업이 각각 3개로 60%를 점유
- 스웨덴 핀테크 산업은 2018년 발효된 PSD2와* 브렉시트로 인해 유럽내 핀테크 거래건수 부문에서 점유율 증가를 보이고 있어 성장세 기대

* PSD2는 Payment Service Directive II의 약자로 2018년부터 EU내 금융기관들의 지급결제 서비스에 대한 Open API 공유를 의무화

〈2017 스웨덴의 Top 10 스타트업 기업〉

순위	스타트업명	분야	비고
1	Klarna	핀테크	온라인 지불시스템
2	iZettle	핀테크	온라인 지불시스템
3	Spotify	음원스트리밍	음원 스트리밍
4	Lendify	핀테크	피어 투 피어 론 플랫폼
5	Northvolt	제조업	전기자동차용 리튬이온 배터리제조
6	NA-KD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온라인 글로벌 마켓플레이스
7	Kry	디지털 헬스	디지털 헬스(디지털 닥터)
8	Natural Cycles	디지털 헬스	배란기 분석으로 가임기간을 알려주는 앱
9	Min Doktor	디지털 헬스	디지털 헬스(디지털 닥터)
10	Truecaller	IT	caller ID확인 및 call-blocking App

자료원: Pagan Research('18.4월 기준)

나. 주요 창업 클러스터

□ Stockholm Innovation & Growth/STING

○ 개요

-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Kista Science City)의 모기업인 Electrum 재단 산하의 비영리 기관으로 2002년 설립
- ICT, 인터넷/미디어, 클린테크, 생명공학 분야의 스톡홀름 지역 창업기업 지원
- 2002~15년간 1,962건의 프로젝트/기업평가를 통해 181건의 창업 프로젝트 지원
- 비즈니스개발 코칭, 비즈니스 네트워크 연결, 벤처캐피탈 소개, 국제 네트워크 연결 등, 매년 150~200여개 프로젝트를 심사하여 10~15개 기업 지원
- 주요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STING Incubate와 STING Accelerate
 - STING Incubate는 스타트업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4개 산업군(ICT, 인터넷/미디어, 클린텍, 라이프 사이언스)의 프로토타입 개발, 시장분석과 테스트, 영업/판매전략 등 비즈니스 개발, 파이낸싱, 리쿠르팅, 네트워크 등 트레이닝 과정을 6~18개월 진행, 1주일에 최대 4시간 씩 멘토가 직접 개별 코칭
 - STING Accelerate는 인터넷/미디어 관련기업들에게 시제품/서비스의 판매/마케팅 단계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서, 1회에 8개 기업씩 연간 2회 16개 기업을 선정하여 지원

- 트레이닝 과정은 4개월로 멘토와 함께 상품 또는 서비스의 시장소개에 초점을 두고 진행
- 2015년 STING 입주기업의 연매출액은 1억 2,200만 유로로, 이 가운데 90%가 수출로 인한 매출이며, 같은 기간 VC 규모는 381백만 유로

□ Uppsala Innovation Centre/UIC

○ 개요

- 1999년 STUNS*, 읍삽라시, 스웨덴 농과대학, 읍삽라대학의 공동출자로 설립된 인큐베이터
- * 읍삽라 지역내 대학, 기업, 공공기관 간의 협력증진을 도모하고 유망 신진기업의 발굴과 육성을 주목적으로 하는 기구
- 읍삽라 이노베이션센터는 UBI Global에서 발표한 ‘Top Business Incubation Rankings 2015’에서 10위로 선정
- 5개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70여명의 비즈니스 코치 가동
- 전·현직 기업인들로 구성된 비즈니스 코치는 창업기업들에게 2년간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매주 UIC에 담당기업의 운영현황과 자금현황, 제품개발 방향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
- UIC는 매월 한 번씩 비즈니스 코치와 기업인을 만나 상황을 점검하고 6개월에 한 번씩 진행 프로젝트의 시장성과 경쟁력, 혁신성, 상업화 성공가능성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 실시
- 멘토의 자문서비스는 서비스가 제공되는 2년간 무료이며, 기업이 정상적으로 운영(세금을 2년간 납부)되고 난 이후 5년간에 걸쳐 자문료 지급
- 지원 프로그램은 창업자의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단계에서부터 창업기업의 설립 초기과정, 제품 생산과정 등 5단계 프로그램으로 운영
- UIC의 지원을 받아 창업한 기업의 90% 이상이 시장에서 생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창업기업이 세금과 직원급여 등으로 1년간 사회에 환원하는 투자회수지수(ROI, return on investment)가 투자금액의 11배로 매우 높은 편

다. VC 현황

□ 투자 규모

- 스웨덴 스타트업에 대한 VC의 2017년 총투자 규모(민간, 국영 포함) 통계는 파악이 여의치 않은 상황
- 다만, 스웨덴 국영투자사(ALMD)의 2017년 스타트업 투자건 수는 총 4,208건으로 총 2,559백만 SEK(3억 100만 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집계
- 이 가운데 포트폴리오 투자 건수는 총 155건으로 181 백만 SEK(2억 1,200만 달러) 규모 포트폴리오 투자 중 104건은 기존 포트폴리오 기업이며, 나머지 51건은 신규 포트폴리오 기업

□ 주요 VC

회사명	Investor AB
주소	Arsenalsgatan 8C, 10322 Stockholm, Sweden
전화번호	+46-8-614 2000
연락처	info@investorab.se
웹사이트	www.investorab.se
개요	스웨덴 최대 재벌 Wallenberg에서 1916년 설립한 투자사
전문분야	Tech(제조분야)

회사명	EQT
주소	Hovslagargatan 3, 11148 Stockholm, Sweden
전화번호	+46-8-503 55300
연락처	info@eqtpartners.com
웹사이트	www.eqtpartners.com
개요	북구 최대 VC중 하나로 1994년 설립
전문분야	Tech

회사명	Nordic Capital AB
주소	Master Samuelsgatan 21, 111 44 Stockholm, Sweden
전화번호	+46-72-207 4090
연락처	info@nordiccapital.com
웹사이트	www.nordiccapital.com
개요	1989년 설립, 현재 약 100억 유로 펀딩
전문분야	ICT, 테크닉

회사명	Schibsted Growth
주소	Vastra Jarnvagsgatan 21,
전화번호	+46-8-725 2500
연락처	stockholm@schibstedgrowth.com
웹사이트	www.schibstedgrowth.com
개요	Schibsted Media Group의 자회사로 벤처캐피털사, 현재 스웨덴 등 북구를 비롯 전 세계 30개국 진출
전문분야	디지털 테크닉

회사명	Altor Equity Partners AB
주소	Jakobsgatan 6, 111 52 Stockholm, Sweden
전화번호	+46-8-678 9100
연락처	info@altor.com
웹사이트	www.altor.se
개요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스위스에 소재한 벤처캐피털사로 주로 북구 제조업 분야에 투자
전문분야	에너지, 제조업, 서비스

회사명	Swedish Private Equity & Venture Capital Association
주소	Kungsgatan 8, 111 43 Stockholm, Sweden
전화번호	+46-8-678 3090
연락처	info@svca.se
웹사이트	www.svca.se
개요	1985년 설립된 스웨덴 벤처캐피탈협회로 벤처캐피탈사,비즈니스 엔젤 등을 회원사로 두고 있음.
전문분야	전 분야

회사명	ALMI Foretagspartner(ALMI)
주소	Klarabergsviadukten 70, Box 70394, 107 24 Stockholm, Sweden
전화번호	+46-771-55 8500
연락처	info@almi.se
웹사이트	www.almi.se
개요	1994년 설립된 국영 벤처캐피탈사
전문분야	전 분야

라. 주요 액셀러레이터 · 인큐베이터

□ STING Incubate

○ 지원 분야 및 자격

- 디지털, 메디테크, 바이오테크, 핀테크 등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한 창업 프로젝트(단, 수출입, 컨설팅, 프랜차이즈 혹은 신기술이 아닌 기존 기술을 바탕으로 한 프로젝트는 선발 대상에서 제외)
- 시장의 장애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
- 시장 확장가능성이 있는 아이디어 기업
- 글로벌 시장 잠재력이 큰 기업
- 기술과 비즈니스개발 분야에서 앞서가는 인물 2인 이상이 구성한 팀에 의해 개발된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
- 6~12개월 이내에 시장진출이 가능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보유한 기업
- 유관 산업계에서 관심을 갖는 프로젝트 진행기업 등

○ 신청요건

-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 가능성이 높은 제품이나 서비스 보유기업으로 초기 Proof-of-concept 기업
- 프로토타입 완성 기업
- 프로젝트별 2-3명으로 구성하고 이들 구성원들이 공동창업자, 기업주주 혹은 임원이어야 함.
- 프로젝트 활동 참여에 지장이 없는 자로 영어로 의사소통이 원활한 자(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동안 타 직종 종사 금지)
- 관심기업은 해당분야 비즈니스 코치를 접촉, 프로젝트나 사업계획서와 함께 입주 신청서도 접수 가능*

* 프로젝트 구성원의 나이, 회사 창립연도, 최종 학력 등은 심사 자격요건에 포함되지 않음.

○ 모집 기업 수

- 세션별 8개 기업선발(1년에 2세션 운영, 총 16개 기업 선발)

○ 선발과정

- 피치(Pitch) 비디오는 신청서 제출 시 함께 첨부해야 하고 그 이후 비디오

컨퍼런스를 통한 인터뷰를 거치게 되어 있음.

- 사업계획서 및 시장성 고려하여 심사하며, 심사기간은 보통 2개월 소요
- 최종 선발은 비즈니스 코치와 산업계의 평가를 통해 선발

○ 주요 지원사항

- 입주 오피스제공(STING Incubate 6개월 무료, STING Accelerate 4개월 무료)
- 사무인프라, 설비기기 이용(Incubate 무료, Accelerate 회비 5000 SEK)
- 외국 스타트업의 현지 거주를 위한 별도의 비자, 행정 지원은 없음.

<스웨덴의 대표적 액셀러레이터>

이름	도시	파트너 기업/기관	기간	지원내용	유망협력분야
STING Accelerate	스톡홀름	Kista사이언스시티, 스톡홀름 시	4~6개월	. 작업 공간 제공 . 멘토링, 파트너십, 네트워킹 등 . 1회 8개사, 연간 16개사 지원	ICT, 인터넷/미디어, 클린테크, Life Science
Uppsala Innovation Centre(UIC)	웁살라	STUNS 웁살라시 웁살라대학 스웨덴 농과대	연1회 모집 2년	. 연간 5개 트레이닝과정 70~80개사 . 파이낸싱, 네트워킹, 비즈니스 코칭 등	Life Science ICT
Ericsson Garage	스톡홀름	Ericsson 사	-	. 6~7개사 지원 . 작업공간 제공, 파트너십 네트워킹	ICT
Chalmers Innovation	예테보리	샬머스 대학 예테보리 시	10주	. 연 2개 과정 운영 . 네트워킹, 비즈니스 코칭, 이벤트 및 세미나 개최 . 스타트업에서 액셀러레이터로 상급한 기업들에게는 기업 별로 연간 3만불 지원	기술 기반 early stage startup
Ideon Bioincubator (Lund Life Science Incubator)	룬드	룬드대학 룬드 시	-	. 사무실과 Lab제공 . 비즈니스 코칭 . 인터내셔널 프로그램 운영	바이오 메디신, 바이오 테크닉 메디신 테크닉

자료원 : 코트라 스톡홀름 무역관 조사 작성

마. 지원정책

□ 정부 차원의 스타트업 육성 전략

- 스웨덴 정부는 스웨덴을 연구·혁신부문 세계적 선도국으로 만든다는 비전으로, 스웨덴 혁신청(VINNOVA)을 통해 혁신기업 창업 지원정책 실행
 - 연구개발 지원, 연구 성과의 상업화,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산업 및 학계의 경쟁력 강화, 연구혁신 환경개선 및 연구 성과의 사회발전 기여를 주 사업목표로 설정
 - 스웨덴 혁신청을 통해 매년 약 160개의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최근 15년간 지원한 프로젝트는 약 2,500개
 - 특히 연구결과의 상업화 전환 초기단계 지원, 10년 이상의 중장기 연구사업 지원, EU 공동연구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 총R&D예산 중 6.7%를 집행
 - 스웨덴 정부는 '16~' 19년까지 8.2백만 유로(7.8백만 스웨덴 크로나)를 투입하여 4차 산업혁명을 위한 다양한 스타트업 프로젝트와 지속성장성 향상, 제조업 부문 스킬 확대, 테스트베드 확대에 투자
 - 북구이사회에서도 '16년 말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펀드(1.5백만 유로)를 조성하여 매년 10여개 프로젝트 진행
- 지원 프로그램
 - 스웨덴에서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본적으로 지원해주려는 사회분위기이며, 이를 토대로 자연스럽게 활발한 창업이 이루어짐.
 - 스웨덴 각 지역마다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지원기관이 있어 창업지원 시스템이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는 편으로, 일반인이 창업 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언자 역할을 하는 등 도움을 줌.
 - 스웨덴 혁신청은 '15년 기준 총 592건의 창업·혁신부문 프로젝트를 지원(3,340만 유로)했고, 67개의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프로그램도 운영. 이외에도 공공부문 이노베이션을 비롯하여 기업 및 대학연구소 이노베이션 등 혁신 프로그램 등을 다양하게 운영
 - 신규 창업기업이 1년 내에 실패하는 비율이 35% 정도이나, 개인이 파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이 잘 구축되어 있어 실패에 대한 부담이 적음.

□ 주요 창업 지원기관

- Swedish Incubators & Science Parks(SISP)
 - 스웨덴 전역의 창업보육센터(Incubator)와 산업단지(Science Park) 65개가 소속된 비영리 기관
 - 2005년 창업보육협회(SwedSpin)와 산업단지협회(Swede Park)를 통합하여 설립, 현재 약 5,000여 회원사(종사원은 약 72,000명)를 두고 있으며, 연간 동 협회에서 평가하는 비즈니스 아이디어는 4,000여개
 - 회원사 대부분은 중소기업이나, 열린 혁신 추세에 맞춰 대기업 가입 증가
- Research Institutes of Sweden(RISE)
 - 스웨덴 정부산하 연구기술기관(Research & Technology Organizations, RTO)의 통합연구소
 - 에너지/환경기술, ICT, 재료공학, 제지펄프/바이오연료 등 4개 산업분야 16개의 연구소를 두고 있으며 유망 창업기업도 지원

□ 지원제도

- 창업 지원시스템
 - 기본적으로 누구나 어떤 종류의 소규모 창업이든 초기 지원자금 신청 가능
 - 창업자가 사업계획서 및 자금운용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이를 바탕으로 생산성과 이익창출 등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아이디어를 심사하여 지원하는데, 지원규모는 아이디어, 경험 및 경력에 따라 상이
 - 또한 지역별 지원기관의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통해 사업계획, 비즈니스 모델, 자금조달계획 등 경영전반에 대한 사업지원, 그리고 교육 및 투자 지원, 네트워크 구축 지원, 사무실 및 인프라 구축 지원도 받을 수 있음.
 - 창업이 실패했을 때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잘 주어지는 편임. 단, 회사를 부정적인 방법으로 운영하다 도산하면 10년간 창업을 할 수 없음.
- 정부 지원현황
 - 스타트업 지원 전담 공기업으로 VINNOVA(스웨덴 혁신청)가 있음.

- 스웨덴 혁신청은 '15년 기준 총 592건의 창업·혁신부문 프로젝트를 지원 (3,340만 유로)했고, 67개의 스타트업 인큐베이트 프로그램도 운영함. 이외에도 기업 및 대학연구소 등의 혁신 프로그램 운영
- 스웨덴 정부는 '16~'19년간 8.2백만 유로(7,800만 크로나)를 투입하여 4차 산업혁명을 위한 다양한 스타트업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 4차산업 이외에 지속가능 성장, 제조업 기능 확대, 테스트 베드 확대 등 포함
- 북구이사회에서도 '16년 말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1.5백만 유로의 펀드를 조성하여 매년 10여개 프로젝트 진행

□ 비자 발급

○ 개인사업자 비자

- EU/EES 역외국 국민이 스웨덴에서의 회사설립과 운영 또는 스웨덴 회사의 지분 소유자로 3개월 이상 스웨덴에 머무르면서 일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거주비자(2년) 취득이 선결되어야 함.
- 현지에 스타트업 회사를 직접 설립하거나 혹은 기존에 설립된 스타트업 회사에 투자하여 지분을 소유하거나 고용계약을 받는 형식으로 취업거주 허가를 받을 수는 있음. 단, 조건이 매우 까다로운 편
- 거주비자를 취득한 이후 스웨덴에 입국하며, 이때 회사설립을 위해 발급 받은 거주비자로는 다른 직장에 취업할 수 없음.

○ 개인사업자의 거주비자 요건

- 유효여권 보유
- 설립하고자 하는 사업 분야에 대한 경험이나 한국에서 회사를 설립한 경험이 있음을 증명
- 본인이 설립하고자 하는 회사를 경영하거나 책임이 있고 회사지분의 최소 50%를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
- 회사가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는 스웨덴에서 생산하거나 판매해야 함.
- 영어나 스웨덴어 구사가 가능해야 함(관련 증빙 요구)
- 창업 후 3개월 미만 일할 경우에는 취업비자 불필요

○ 대상

- 만18세 이상의 외국인 중 스웨덴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분야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
- 최근 5년간 스웨덴 및 주재국에서 범죄사실이 없고 스웨덴과 각종 협약이 체결된 국가에서 추방된 적이 없는 사람
- 체류기간(2년) 중 단독 혹은 가족과 함께 살아갈만한 경제력이 입증된 사람으로 본인(20만 크로나), 배우자(10만 크로나), 자녀 당 5만 크로나 필요*
 - * 자녀가 두 명인 4인가족의 경우 최소 40만 크로나(한화 약 5600만원) 필요
- 필요서류는 신분증, 신청서,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재무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등이며, 이 외 신청내역에 따라 여러 구체적인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스웨덴의 혁신/창업 관련 정부조직

- 스웨덴 혁신청(VINNOVA)
 - 기업혁신부 산하기관으로 스웨덴의 혁신과 연구, 지속성장 진흥 담당
 - 모든 혁신업무를 단독으로 수행하지 않고 주요 관련부처와 함께 추진. 정부 혁신 예산('15년 약 38억 달러)은 교육연구부(63.3%), 기업혁신부(14.3%), VINNOVA(6.7%), 환경청(3.1%), 국방연구소 등이 분산 지원
- 혁신위원회(Innovationsrådet)
 - 2015년 2월 설립된 총리실 산하기관으로, 스웨덴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자문기구
 - 스테판 뢰벤 총리는 스웨덴의 혁신역량이 하락하고 있다면서 '12년부터 동 위원회의 필요성을 주장, '14년 총선 주요 공약으로 내세움.
 - 총리, 관계 장관 4명, 산학연 대표 10명으로 구성, 분기별 회의 개최
 - 주요 논의 분야는 미래를 위한 투자, 건강한 중소기업 육성,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유능한 인재양성 등
 -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고 기업들이 신제품 개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환경 조성을 목표
- 스웨덴 경제·지역개발청(Swedish Agency for Economic and Regional Growth)
 - 경제발전과 지역 균형발전을 전담하는 기업·혁신부 산하기관으로서 지역

내 창업기업 지원

- 스톡홀름, 예테보리 등 9개 지역에 11개 사무소 운영
- ALMI Företagspartner AB(ALMI)
 - 국영 벤처캐피탈 기업으로 혁신적 아이디어의 성공적 시장 진출을 위해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금(대출, VC)과 컨설팅 제공
 - 투자관리사(ALMI Invest AB)와 16개 지역에 21개의 사무소를 가동 중

바. 주요 스타트업 컨퍼런스

□ Uppstart Conference 2018

- 행사 기간: 2018. 11. 3~4.
 - 프로그램*
 - ① Pitch Up Final : 스타트업 피칭 컨테스트(최종 선발 4개사 참가)
 - ② VC 1:1 상담 : 사전 주선된 투자상담(Pitch Up Elevator Pitches)
 - ③ 세미나 : 기술 트렌드스타트업 운영 관련 다양한 주제의 강연
- * 부대행사 : Investor/Startup Dinner

□ Stockholm Tech Meetup


- 행사 기간: 매월 1회 개최
- 프로그램
 - ① 세미나 : 기술 트렌드스타트업 운영 관련 다양한 주제의 강연
 - ② Pitch Up : 유력 스타트업의 피칭

<스웨덴의 주요 스타트업 컨퍼런스>

컨퍼런스명	개요	프로그램	특징	웹 페이지
Uppstart Conference 2018	· 개최 시기 2018.11.3.-11.4 · 규모 : 참가객수 1,000명	· 피칭 · 세미나 · VC 1:1상담	· 매년 개최	www.facebook.co m/uppstart.co
Stockholm Tech Meetup	· 개최시기 매월 1회 개최 · 규모 : 700명	· 피칭 · 세미나	· 매월 1회 개최	www.meetup.com
Sweden Game Conferenc 2018	· 개최시기 2018.10.17.-10.19	· 피칭 · 세미나	· 게임분야 스타트업 대상	http://swedengame arena.com

자료원 : 해당 홈페이지

사. 스타트업 성공 사례: Spotify

	
기업명	Spotify AB
설립연도	2006.4.23
거점	스톡홀름
업종 및 품목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기업가치	3000억 달러('18 뉴욕증시 상장 당시)
해외진출 현황	현재 영국과 스웨덴에 본사 소재
직원 수	2016년말 기준 902명
주요 성과	연매출액 247억 SEK(29억 USD)

□ 성장과정과 성과

○ 창업 동기/배경

- 음반회사들이 독점적으로 공급해 오던 음악을 인터넷을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무료로 제공한다는 컨셉으로 탄생한 온라인 음원스트리밍 스타트업
- ‘모든 사람을 위한 음악’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Daniel Ek과 Martin Lorentzon 두 사람이 2006년 4월 23일 스톡홀름에 설립

○ 성장 계기

- 설립초기에 광고수익 만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원하는 음악을 듣기 이전에 우선적으로 광고를 들어야 되는 시스템
- 이후 광고 스킵을 원하는 소비자들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는 시스템을 병

행하면서 큰 폭으로 성장

-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이나 컴퓨터, 태블릿으로 필요한 음악을 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친구나 아티스트들이 즐겨 듣는 음악도 확인가능하고 나만의 라디오스테이션을 만들 수 있어 수요가 확대

○ 사업 규모/해외진출

- 세계 1위 음원스트리밍업체로 성장하여 2018년 4월 뉴욕증시에 상장함. 상장 당시 기업 가치는 200십억 SEK(약 3,000억 달러)
- 현재 벨기에, 독일, 캐나다, 덴마크, 스페인, 핀란드, 프랑스, 이태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영국, 미국, 멕시코, 홍콩, 일본 등에 진출

□ 성공요인

○ 기술 또는 비즈니스 모델의 특징

- 사람들이 음악에 접근하고 즐기는 방식을 혁신적으로 전환한 사례
- 콘텐츠를 구매하고 소유하는 과거의 ‘거래 기반’ 경험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스트리밍하는 ‘액세스 기반’ 모델로 전환하여 음악 산업을 변화시킴.

○ 시장 수요

- 현재 65개국 소비자들이 3,500만 곡 이상을 접할 수 있음.
- 서비스 가입자 8,300만 명, 월간 액티브유저 1억 8천만 명, 트랙 수 35백만 이상

□ 성과

- 창업 당시 2명으로 시작, 폭발적인 고용창출을 통해 창업 10년째인 2016년도 말 902명의 종업원을 거느린 거대기업으로 성장
- 세계 1위 음원 스트리밍업체로 2018년 4월에 뉴욕 증시에 상장
- 상장 당시 Spotify는 신주 발행과 공모절차 없이 기존 주식을 그대로 상장하는 직상장 방식 추진

<스웨덴의 주요 스타트업>

분야	기업명	주요 내용
ICT	Skype	인터넷 전화
ICT	Spotify	음원 스트리밍
핀테크	Klarna	온라인 지불시스템
게임	Mojang	PC게임
게임	King	모바일게임
핀테크	Izettle	온라인 지불시스템
ICT	Truecaller	Caller ID 확인 및 call-blocking 앱
핀테크	Lendify	피어 투 피어 론 플랫폼
제조	Northvolt	전기자동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제조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NA-KD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디지털헬스	Kry	디지털 닥터
디지털헬스	Natural Cycles	배란기분석으로 가임기간을 알려주는 앱
디지털헬스	Min Doktor	디지털 닥터

자료원 : 코트라 스톡홀름 무역관 조사 작성

아. 협력방안

□ 기술 및 자본협력, 수출에 집중

- 현지 직접 창업보다는 기술 및 자본협력이나 수출에 집중필요
- 우리 스타트업이 스웨덴에서 직접 창업하는 것은 아직 용이하지 않은바, 기술 및 자본 협력, 온·오프 플랫폼을 활용한 직접 수출에 집중할 필요

자. 유용한 정보원

이름	설명	웹 페이지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www.worldbank.org
World Economic Forum	Network Readiness Index 2016	www.weforum.org
Global Entrepreneurs Monitor	TEA Index, GEM Global Report	http://gemconsortium.org
Mattemark Data	Top15 Countries Ranked by Inbound Acquisitons per 1 million people	www.mattemark.com
CB Insights	Fintech Trends, Investments & Exits	www.cbinsights.com
ALMI	스웨덴 국영벤처캐피탈사	www.almi.se
Stockholm Business Region	스톡홀름 스타트업 현황	www.stockholmbusinessregion.com
VINNOVA	스웨덴 창업혁신	www.vinnova.se

자료원: 코트라 스톡홀름 무역관 조사 작성

7. 핀란드 헬싱키

가. 스타트업 생태계의 위상과 특징

□ 위상

- 핀란드는 노키아 쇼크* 이후로 대기업 위주의 경제구조에서 벗어나 중기 기술창업 주도의 성장을 도모한 결과 스타트업 강국으로 부상
 - * 노키아 쇼크 : 핀란드 GDP의 24%를 차지하던 노키아가 주력인 무선사업부를 Micro soft에 매각, 국가적으로 대량 실업과 경기 침체를 야기
 - 핀란드 벤처투자 규모는 ' 16년 383백만 유로(전년比 +42%)로 최근 급성장
 - 스타트업 수 또한 약 2,400개로 인구수 대비 세계 1위
- 특히 산학연 협업을 기반으로 정부가 선도적으로 창업을 지원, 선진 창업 생태계를 구성하며 유럽 스타트업 허브로 도약 중
 - 기업환경 13위, 창업환경 26위를 기록(World Bank)
 - 5G TNF(5G Test Network Finland) 프로젝트 등 정부기관대학연구소기업 공동의 협력 프로젝트가 다수

< 핀란드의 대표 산학연 협업 프로젝트 >

- 5GTNF : '20년 5G 상용화를 목표로 €1억 규모의 자금이 투입되는 5세대 Gear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5G 이동통신과 관련한 제반 테스트를 수행 중이며, 테스트 권한은 연구기관부터 학생까지 광범위하게 개방
- 산업인터넷 캠퍼스 : 산업인터넷 관련, 교수·학생·협력 기업을 망라하는 연구 플랫폼으로 노키아(NOKIA), 지멘스(SIMENS), 에이비비(ABB) 등 유수 기업들과 협력관계를 맺고 장비를 지원음.

□ 특징·강점

- 자금조달의 이점
 - 민간-공공 협력을 바탕으로 장기적 생태계 조성에 집중
 - 초기 스타트업은 정부 지원금을 받는 것이 상대적으로 수월하나, 민간 V C 투자규모도 점점 확대되는 추세

- 정부는 TPO인 Business Finland(과거 Tekes)를* 통해 '16년 전체 기업지원 예산 369백만 유로 중 142백만 유로(38%)를 스타트업에 편당
- * Tekes : '18년 Business Finland에 통합된 경제고용부 산하 연구소/R&D 지원기관. 年 R&D 지원 프로젝트 1,500여개·대학연구소 지원 프로젝트 600개 수행
- 창업시 네트워킹 및 협력을 중요시하며, 특히 스타트업 커뮤니티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어 투자유치를 위한 다양한 기회 존재

< 한국-미국-핀란드 창업 문화 비교 >

한 국	미 국	핀 란 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주도 ▪ 공적 자금 기반의 인프라 ▪ 스타트업 “육성” 및 “정책” 중심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 자본 주도 ▪ 기업체·민간자본 기반 인프라 ▪ 아메리칸드림·실리콘밸리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공공 협력 ▪ 고등교육기관 중심 인프라 ▪ 지속가능성을 중시하는 노르딕 가치(Nordic Value)와 사회적 책임 경영문화

자료원: 핀란드 미래산업 동향 및 스타트업 생태환경 조사(핀란드 과학기술인협회)

○ 전략적 거점

- 영국독일 등 기타 유럽 국가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이 수월하여 EU 시장 진출을 위한 거점으로 활용 가능
- 스타트업 컨퍼런스 SLUSH를 중심으로 VC투자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어 있으며, 지리적으로도 접근이 수월
- 유럽 주요국 중 최저 수준의 법인세(20%) 등 기업친화적 여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교육 수준이 높아 우수 현지인력* 채용이 용이
- * 세계 5위 수준의 영어 구사율, 유럽 최상위권의 학력 수준 보유

○ 대외 개방성

- 정부의 투자자 유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핀란드 시장에는 외국 스타트업의 진입이 부진한 상태
- 최근 핀 정부는 외국인법(Aliens Act) 개정 등 외국인 창업유치를 위한 규제개혁을 위해 노력 중
- 그러나 경제규모의 한계 및 협소한 내수시장 등의 이유로 외국스타트업들이 진출하기에는 매력도가 낮은 편*
- * 외국인 창업가에 대한 비자발급 요건완화를 위해 외국인법 개정, '18.4월 시행

□ 스타트업 창업 추이와 대표 스타트업

- 슈퍼셀(Supercell)·로비오(Rovio)·크리티컬 포스(Critical Force) 등 핀란드의 대표 스타트업은 현재 대부분 중소기업 이상의 규모로 성장
 - 기업규모를 확대하고 있지 않은 유니콘기업 슈퍼셀만 스타트업으로 분류
 - 그 외 스타트업 2세대로 불리는 신생 게임기업 및 e-러닝, 비즈니스 솔루션 등의 스타트업이 주축

<핀란드의 대표 스타트업>

순위	스타트업	업종	분야
1	Supercell	온라인 게임	게임
2	Seriously	온라인 게임	게임
3	Yousician	악기연주 교육 App	교육/엔터테인먼트
4	Dealdash	온라인 유통(경매)	이커머스
5	Fingersoft	온라인 게임	게임
6	LocalBitcoins.com	비트코인	핀테크
7	Jolla	태블릿PC·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	전자기기
8	MariaDB	DB·서버 등 기업솔루션	비즈니스 솔루션
9	Shiver Games	온라인게임	게임
10	Tuxera	DB·서버 등 기업솔루션	비즈니스 솔루션

자료원: Start-up100(기술력·마케팅 능력·브랜드 경쟁력 등을 기준으로 선정)

나. 주요 창업 클러스터

□ The Greater Helsinki(헬싱키+인근도시 Espoo·Vantaa)는 현재 유럽의 창업 중심지로 성장 중

- 헬싱키시 지원 스타트업 커뮤니티인 Helsinki Business Hub는 스타트업 관련 정보 제공 및 행사 개최를 통해 네트워킹 기회 제공
- 특히 GE의 헬스케어 이노베이션 빌리지(스타트업 입주공간)를 중심으로 의료 산업 스타트업이 활성화되며 헬스케어 허브로 부상 중

다. VC 현황

□ 투자 규모

- 핀란드 VC의 스타트업 투자규모는 '17년 소폭 감소하였으나, 해외 VC의 핀란드 스타트업 대상 투자는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
 - 핀란드 VC 투자규모는 1.4억 유로, 해외 VC 투자규모는 2.1억 유로 수준
- 최근에는 핀란드 스타트업의 해외진출이 가속화되고 있어 해외소재 핀란드 스타트업의 투자유치 규모 또한 급성장 중
 - 2015년 16 → 2016년 52 → 2017년 130

< 핀란드 VC 투자규모 증가추이 >



자료원 : FIBAN(Finnish Business Angels Network ry)

□ 주요 투자 업종

- 게임의 비중이 높았던 핀란드 VC투자는 최근 헬스와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추세
 - 헬스케어·바이오테크가 차세대 유망분야로 급부상 중이며, 정부정책*까지 더해져 최근 헬스케어 분야가 활성화
 - * 핀란드 정부는 50년 이상 수집한 환자 데이터 활용하여 헬스케어 산업 HUB를 조성하기 위해 창업 활성화 및 기업유치 노력 중
 - 이미 450개사 이상의 헬스케어 기업이 활동 중이며, GE·필립스·바이엘

등 글로벌 기업이 핀란드내 R&D센터 설립

- 5G 분야는 NOKIA·VTT(정부출연연) 등 대기업·연구기관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어 민간 VC의 투자는 미미한 상황

□ 주요 VC

회사명	FIBAN
투자규모	€53백만
주요분야	비즈니스 서비스, 핀테크, 미디어 마케팅, 헬스케어
투자동향	핀 엔젤투자자들 간의 비영리 네트워크로 엔젤투자에 집중.
웹사이트	www.fiban.org

회사명	Aboa Venture Management Oy
투자규모	€1.6백만(추정치)
주요분야	헬스케어, 로봇
투자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공공 투자사와 6개의 벤처캐피탈 펀드를 조성 및 투자 ▪ 매출 U\$10-20백만의 기업에 집중투자, U\$37백만의 자금보유
웹사이트	www.aboaventure.fi

회사명	Butterfly Ventures
투자규모	€2.5백만
주요분야	IoT·인공지능·가상/증강현실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투자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립 이후 스타트업 40개 이상에 투자, U\$35백만 자금 보유 ▪ 북유럽·발틱 지역까지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투자시에는 80%의 기업이 손실을 기록했으나, 6개월 후 흑자전환
웹사이트	www.butterfly.vc

회사명	Conor venture partners
투자규모	€1.4백만(최대 €8.6백만까지 투자 가능)
주요분야	ICT·전자·임베디드 시스템(Embedded System)·광학
투자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U\$59백만 자금 보유 ▪ Neo Technology·Scoopshot·Verto Analytics 등에 투자(총 Exit 4회, 투자 회수 16회)
웹사이트	www.conor.vc

자료원: 코트라 헬싱키 무역관 조사 작성

라. 주요 액셀러레이터

□ 액셀러레이터 간 공공·민간 협업환경 조성

- 경쟁보다 협업을 중시하는 핀란드의 가치에 맞게 스타트업 생태계도 민간·공공의 긴밀한 협업관계가 특색
 - 액셀러레이터 : 민간·공공을 불문하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협업 중심의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 핀란드의 대표 액셀러레이터 >

이름	파트너 기업/기관	기간	지원내용	유망 협력 분야 (협력 희망기술)
Startup Sauna	알토大 협업	7주-2개월	인큐베이팅·멘토링 프로그램 및 SLUSH 참가권한 부여(SLUSH 주관)	기술 스타트업 쏠분야
Avanto Ventures	-	4-6개월	인큐베이팅·멘토링 프로그램, 과정 종료시 파일럿 제품·서비스 출시	IT 신기술 위주
Gorilla Ventures	-	2-3년	엔젤투자 및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IT 신기술 위주
Aalto Startup Center	알토大 소속	프로그램별로 차이	인큐베이팅·멘토링 프로그램 및 각종 네트워킹 이벤트	기술 스타트업 쏠분야
Turbiini accelerator	Vantaa市 지원	10주	인큐베이팅·멘토링 프로그램	IoT 위주, 그 외 IT 혁신기술

자료원: 코트라 헬싱키 무역관 조사 작성

마. 지원정책

□ 정부 차원의 스타트업 육성 전략

- 핀란드 정부는 ‘지원하되 개입하지 않는’ 정책을 표방하며, 민간 부문과의 네트워킹 강조
- (자금) 정부와 민간 수출 신용기관이 설립한 특수금융 공적자금 기관인 Finnvera는 스타트업 인수, 투자 및 자금조달 방안 제공
- (기술) 창업 붐 조성을 위해 프로젝트 특성에 맞게 지원하는 디지털 라이트하우스(Digital Lighthouse) 전략 추진

<디지털 라이트하우스 전략 개요>

단기(Short-term)	특정 회사가 자사 연구를 사업 아이템화하도록 다양한 비즈니스 형태로 도움을 주는 전략으로, 핀란드 정부 산하 Business Finland(전 Finpro)가 추진 중
중기(Mid-term)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략으로 Business Finland(前Tekes)가 추진 중
장기(Long-term)	5G·가상현실·인공지능 등 미래기술을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국책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으로, VTT(Technical Research Centre of Finland)가 운영

자료원: 코트라 헬싱키 무역관 조사 작성

□ 지원제도

① 핀란드 창업비자 발급제도

- 관련법 : 외국인법(Aliens Act)
- 지원내용 : 외국인 창업가가 Business Finland의 타당성 평가 합격시 이민 청을 거치지 않고 거주허가 발급
- 대상 : 하기 요건을 충족하는 무한책임회사(1인 기업) 또는 유한 책임회사의 대표
 - 최소 2인 이상의 창업자로 구성된 전문기술 보유
 - 핀란드에서 성장 모색 중이거나 혁신적인 비즈니스 플랜 보유
 - 사업 아이디어에 대한 헌신과 궁극적으로 기업설립 의지 보유
 - 해당 기업에 대한 지분을 상당부분(60% 이상) 소유
 - 회사 초기단계에 필요한 충분한 자금 및 재원 조달 가능

- 신청절차 : Business Finland 온라인서비스를 통해 사업계획안 등 필요서류 제출 → Business Finland 평가 및 합격 통보 → 이민청거주허가 신청 관련서류 제출 → 핀란드 사업자 등록
- 유효기간 : 최초 체류허가는 2년간 유효, 이후 심사를 통해 갱신
- 심사 기준
 - 해당 스타트업이 제품·서비스 아이디어가 충족시키는 고객 수요를 파악하고 있는지 여부
 - 잠재고객과 수익모델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글로벌 비즈니스로 성장시킬 계획의 보유 여부
 - 타깃 시장의 잠재성과 비즈니스 규모의 예측 여부
 - 해당 스타트업의 다양한 전문기술 보유 여부
 - 핀란드 경제에 대한 예상 기여도
- 소요기간 : 보통 기업심사에 1-2개월, 이민청 거주허가 발급에 1-2개월이 소요되므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신청할 것을 권유

② 핀란드 창업자 보조금 지원제도

- 지원사항 : 신규창업자에 32.40€/일의 보조금 지급(최장 12개월까지)
- 신청 자격*
 - 미취업 구직자
 - 현재는 실업 상태가 아니나, 보조금 지급 이후 유급 고용, 직업훈련, 또는 가사노동이 끝나면 풀타임 창업자가 될 자
 - 풀타임 창업자가 되려는 현재 파트타임 창업자
- * 외국인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원조건
 - 풀타임 창업자, 해당 사업에 적합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을 것
 - 지속적 수익창출을 위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 창업자의 생존에 보조금이 필수적인 상태여야 함.
 - 창업이 보조금 혜택을 받고 난 이후에 이루어져야 함.
- 신청방법 : 정부 취업지원기관 TE 온라인서비스 또는 전화 신청

바. 주요 스타트업 컨퍼런스

〈SLUSH〉

□ 행사개요: 2018.12.4~5, 헬싱키 전시장



자료원: SLUSH 웹사이트

□ 프로그램

- ① Slush100 : 스타트업 피칭 컨테스트(사전 선발 100개사 참가)
 - ' 17년 우승 : Altum Technologies(핀, www.altumtechnologies.com)
- ② VC 1:1 상담 :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주선된 투자상담 실시
- ③ 부스 시연 : 국가관 또는 개별부스를 통해 제품 시연
- ④ 세미나 : 기술 트렌드, 스타트업 운영 관련 다양한 주제의 강연
- ⑤ Recruiting : Start-up 대상 취업 지원 프로그램
 - Slush Recruiting App을 통해 구인 스타트업 ↔ 구직자 상담주선
- ⑥ 부대행사 : Slush 기간 전후로 통상 170여개의 부대행사 진행

< SLUSH 2017 한국관 참가개요 >

- 규모 : 26개사(협업기관 6개, 총 61명)
 - 중진공 청년창업 사관학교,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창업진흥원, 경기경제과학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분야 : 소프트웨어/서비스, 클린테크, 에너지, 교육, 게임, 생명과학 등

사. 스타트업 성공 사례

1) 슈퍼셀(Supercell)

	
기업명	슈퍼셀(Supercell)
설립연도	2010년
거점	핀란드
업종 및 품목	게임
기업가치	100억\$(2017년 기준 연매출 20억\$, 순익 8억\$)
해외진출 현황	미국, 한국, 중국, 일본 진출
직원 수	250여 명

□ 성장과정과 성과

○ 창업 동기/배경

- CEO 일카 파나넨(Ilkka Paananen) 등 게임 마니아들의 독창적인 게임개발 대한 동기로 시작
- 사업에 대한 욕심보다는 게임에 열정을 가진 청년들이 개인투자자금과 정부의 지원금(융자)을 초기자본으로 하여 창업
- 인기 게임을 카피하기 보다는 독창성 있는 게임을 개발, ‘Gunshine’ 출시를 통해 게임 시장에 진입

○ 성장계기

- Gunshine의 실패로 ‘오래 가는 게임’ 을 지향하며 성장

- 1-2개월 내 흥미를 잃는 소비자 반응을 분석, 게임의 지속가능성을 우선 목표로 두고 신제품 개발에 주력
- 컴퓨터, 태블릿, 스마트폰 등 기기를 넘나들며 꾸준히 하고 싶은 게임을 추구한 끝에 Hay Day, Clash of Clan 등 성공작 출시

○ 사업규모/해외진출

- 사업 초기단계부터 글로벌화 추구, 해외시장도 급속선점
- 현재 5개국(핀란드, 미국, 한국, 중국, 일본)에 현지법인 보유
- 영국, 미국 등의 게임 기업에 대한 끊임없는 M&A 및 투자를 통해 해외 사업 확장

□ 성공요인

○ 경영방식

- 기업의 규모를 확장하지 않고 ‘작은 조직’ 유지
- 비슷한 시기에 등장한 로비오, 크리티컬 포스 등과 달리 기업규모를 늘리지 않아 가용자원을 최소화 및 투자 대비 이익 극대화
- 작은 조직에서 가능한 외부변화에 대한 민첩성과 유연성 유지

○ 조직문화

- 부서·개인별 자율성과 독립성 부여, 실패경험을 독려
- ‘슈퍼셀’이라는 사명에 맞게 모든 셀(Cell, 개별 부서)이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방식으로 독립성을 보장하고 창의성 극대화
- 실패한 게임이 나오면 파티를 하는 등 실패를 통한 학습을 지지하는 경영방식을 통해 조직원으로부터 도전정신을 이끌어 냄.

○ 글로벌화

- 출시부터 해외시장을 타겟팅하고 ‘Go Global’ 추구
- 핀란드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발부터 해외시장을 겨냥하여 컨셉 구축
- 게임 개발자의 70%가 외국인인 장점을 살려 다문화에서 나오는 창의성을 최대화하고 국가별 게임 수요에 대응

○ 정부지원

- 초기 사업화 당시 정부의 스타트업 지원정책을 활용
- 개인투자자의 투자에 매칭펀드 형식으로 지원하는 지원제도를 발판으로 초기단계에서 정부지원금을 종자돈으로 창업에 성공

2) 베딧(Beddit)

	
기업명	베딧(Beddit)
설립연도	2007
거점	미국 (2017년 애플 인수로 핀란드→미국 이전)
업종 및 품목	헬스케어, 수면 모니터 장치 및 앱
해외진출 현황	미국
특징	2017년 애플에 의해 인수됨.(인수가 비공개)

□ 성장과정과 성과

○ 창업 동기/배경

- 헬싱키대학 학생들의 연구기술을 사업화하여 창업
- 유나스 파아라스마(Joonas Paalasmaa) 등 4명의 헬싱키대 박사과정 학생들의 학위논문 연구를 바탕으로 개발
- 수면 모니터링뿐 아니라 심박수, 호흡 등까지 측정하여 숙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디바이스 및 앱 서비스 제공

○ 성장과정

- 정부지원으로 개발 지속, 시드 펀딩을 받으며 사업 확장
- 2013년까지는 뚜렷한 성과를 얻지 못하였으나 디자인 기업 Nordkapp과의 협업 끝에 주목받기 시작
- Tekes(現 Business Finland)로부터 6년간 1.42백만 유로의 지원을 받으며 제품 및 서비스 개선에 주력
- 2010년부터 민간 VC Inventure로부터 50만 달러의 시드 펀딩을 받음.

○ 주요성과

- 클라우드펀딩에서 큰 성과, 애플에 인수
- 클라우드 펀딩 Indiegogo를 통해 총 US\$8백만 규모의 투자유치
- '17년 핀란드 기업 시상인 Grand One內 '가장 혁신적인 서비스 디자인상' 수상
- 같은 해 Apple에 인수, 현재 애플 헬스케어 부문 큰 비중 차지

□ 성공요인

○ 제품경쟁력

- 기술, 디자인, 소비자 경험디자인에만 집중하여 핵심가치 창출
- 기업이 재정적으로 힘들 때에도 마케팅보다는 기술과 디자인으로 승부

○ 창업자 역량

- 연속 실패에도 불구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개선 지속
- 창업 직후 글로벌 금융위기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으나 정부지원을 받으며 제품 개발, 디자인 개선을 위해 장기간 노력
- 디자인과 마케팅은 전문기업에 맡기고 창업자는 오로지 기술개발에 집중

<핀란드의 주요 스타트업>

분야	기업명	주요 내용
게임	슈퍼셀 (Supercell)	▶핀란드 및 다양한 국가의 게임 스타트업에 1,000억 원 이상 투자하여 사업 확장 중 ▶미국, 한국, 중국, 일본 등 해외사업 확장 지속
헬스케어	베딧 (Beddit)	▶수면 모니터링 및 심박수, 호흡 등 데이터 분석을 통한 숙면 보조 제품 및 앱 서비스 ▶Tekes(현 Business Finland)로부터 142만 유로 정부자금 지원 ▶클라우드펀딩 통해 총 8백만 달러 유치 및 애플에 인수 * 애플에 인수되었으므로 현재는 핀란드 스타트업이 아님.
드론	아에로몬 (Aeromon)	▶드론에 탑재된 센서를 활용한 환경 모니터링 서비스업체 ▶Tekes통해 정부자금 28만 유로 유치 ▶해양 교통, 교통관제 등에서 핀란드 정부에 크게 기여함.
빅데이터, 선박 솔루션	에니람 (Eniram)	▶선박운항 관련 데이터를 분석하여 최적의 운항경로 관리 및 성능 솔루션 제공 ▶Tekes로부터 250만 유로 R&D자금 지원 및 민간VC로부터 총 130억원 규모의 투자유치 ▶150명 이상 고용 창출, 미국, 영국, 독일 등 해외진출 활발

자료원: 코트라 헬싱키 무역관 조사 작성

아. 협력방안

□ SLUSH와 스타트업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투자처 발굴에 주력

- 단순히 현지 창업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핀란드 시장 및 투자처 발굴을 겨냥하고 실효성을 우선하여 진출할 필요
 - 스타트업 실패사례 1위는 시장수요 불매칭(42%), 2위는 자금난(29%)임을 고려할 때, 창업시 우선적 고려요소는 수요발굴과 자금조달*
 - * 스타트업 실패사유 : ① 시장수요 부족(42%) ② 현금부족(29%) ③ 팀원간 불화(23%) ④ 경쟁과열로 인한 퇴출(19%) ⑤ 단가(18%) 등(CB Insight 조사보고서)
 - Pre-start-up 단계에서는 전문가들이 성공가능성을 엄격히 진단, 통과되는 경우에 투자처 확보 단계로 진행되는 점을 감안해야 함.

□ 핀란드를 기반으로 창업초기부터 전체 유럽시장을 타깃팅

- 전체 EU시장 진출을 목표로 유망분야에 집중하여 효과 극대화
 - 작은 경제규모 및 협소한 내수시장으로* 핀란드 스타트업조차 자국보다는 유럽시장 진출을 목표로 창업하는 추세
 - * 성공한 대표 스타트업 역시 게임업 위주로서 업종에 한계
 - 핀란드 시장보다는 유럽시장 진출을 타깃으로 유럽 최저의 법인세 등 기업 친화적 핀란드 제도를 백분 활용해야 핀란드 창업에 의미를 가질 수 있음.
 - 한국 직항편(유럽 중 최단거리) 매일 운행, 기타 EU 국가로 이동 용이성 등의 장점으로 인해 지정학적 거점지로서 이점 보유
 - 핀란드 뿐 아니라 EU의 집중육성 분야인 게임 및 헬스케어 등 유망분야 스타트업에 중점 지원 시 성공 가능성 다대

8. 오스트리아 비엔나

가. 스타트업 생태계의 위상과 특징

□ 위상

- 오스트리아는 유럽 주요 도시와 대비 비교하여 창업가, 즉 인력(맨파워) 측면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나, 자금 조달 측면에서 약한 것으로 평가
- 또한 기업 설립·운영 측면에서 고용주의 높은 사회보장부담금 등이 부담
- 오스트리아 정부와 스타트업 진흥기관들은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자금 지원 및 서비스 제공 등에서 공공 부문의 역할을 강화하는 추세

□ 특징·장점

- 오스트리아 연방투자유치청(ABA : Austrian Business Agency) 관계자가 꼽는 오스트리아 특히 수도 비엔나의 스타트업 생태계의 강점

① 높은 교육 수준

-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력
- 오스트리아 내 공과대학 및 응용과학 대학들을 통해 우수 인력 배출

② 공공 부문 자금 조달의 용이성

- 오스트리아 R&D 진흥기금(FFG)과 오스트리아 비즈니스 서비스(AWS) 등을 통해 첨단 기술을 보유한 우수 업체들이 정책자금을 쉽게 지원받을 수 있음.
- 민간에서의 자금 조달 기회는 상대적으로 약한 편. 대부분의 오스트리아 금융 기관이 소매 금융 부문에 강점을 가지고 있어 스타트업의 오스트리아 내 투자은행, VC 등을 통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존재

③ 산학 연계

- 다양한 액셀러레이터 및 자동차, IT, 생명공학 등 여러 산업 부문에 걸쳐 활성화된 산학 연계 네트워크를 통한 자율적인 조직 구성 및 운영
- 2012년부터 매년 5월 개최되고 있는 파이오니어 페스티벌(Pioneer Festival)과 같은 다양한 관련 행사 및 홍보 활동이 진행 중

④ 오스트리아 엔젤투자협회(AAIA) 등 전문적인 초기 스타트업 육성시스템 구축

- 비즈니스, 파이낸싱 등 초기 단계에 필요한 다양한 컨설팅 및 실질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⑤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의 회사설립자본금

- 2013년 및 2014년에 이루어진 회사법 개정을 통해 5천 유로(개정 전 1만 750 0유로)의 현금만으로 회사 설립 가능

⑥ 투자자 친화적인 조세 제도

- R&D 투자에 대해 12%에 세액 공제 가능, 법인세는 25% 단일세율 적용

□ 스타트업 창업 추이와 대표 스타트업

- 오스트리아 스타트업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European Startup Monitor 2016, Country Report Austria).
 - 창업자 : 남성 92.9%, 평균 30.8세, 오스트리아 국적자 비율 67.8%, 창업 당시 종업원수 평균 2.34명(창업자 포함)
 - 스타트업 : 평균 업력 2.31년, 고용창출효과 9명(창업주 포함 종업원수), 종업원 중 외국인 비율 28%
 - 수도 비엔나에 본사를 두고 있는 스타트업 비율 50.7%
 - 전체 스타트업 중 Seed stage 20.1%, Growth stage 23.8%
 - 자금 조달 : 정부 지원금 및 보조금 55.4%, 비즈니스 엔젤 20.5%, 인큐베이터/엑셀러레이터 30.1% 등
- 전체 스타트업 중 디지털 산업 부문 비율 60.4%로 절대 다수
 - IT/소프트웨어 개발(13.3%), 소프트웨어 서비스(13.2%), 금융(10.1%), 소비자 모바일/웹(8.2%), 식품(7.5%), 교육(7.5%), 온라인 마켓(7.5%), 컨설팅(7.2%), 그린 테크놀로지(4.2%) 등으로 구성

<오스트리아 대표 스타트업 TOP 10>

순위	스타트업명	분야	비고
1	wikifolio	핀테크	소셜 트레이딩(금융상품)
2	LINEMETRICS	소프트웨어	4차 산업(에너지 사용 최적화)
3	TOURRADAR	소프트웨어	온라인 여행사
4	NUMMER26	핀테크	온라인 무료 은행 계좌
5	BITMOVIN	소프트웨어	온라인 영상 스트리밍
6	ANYLINE	모바일 앱	텍스트 인식 프로그램
7	PLAYBRUSH	모바일 앱	치아 건강 관리
8	TRACTIVE	모바일 앱	애완동물 위치 추적 프로그램
9	BUSUU	소프트웨어	언어학습 프로그램
10	DURCHBLICKER	소프트웨어	가격비교 사이트

자료원: Trend 'Austria's 10 best Startups'

나. 주요 창업 클러스터

□ Austrian Startups

○ 기관 정보

- 기관명 : Austrian Startups
- 주소 : Lindengasse 56, A-1070 Vienna, Austria
- 홈페이지 : www.austrianstartups.com
- 이메일 : info@austrianstartups.com

○ 기관 개요

- 오스트리아 스타트업의 통합 플랫폼 역할 수행
- 혁신적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독립적인 비영리 플랫폼으로서 스타트업, 아소가 등 관심 있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
- 커뮤니케이션 채널과 PR 활동, 오프라인 및 온라인 정보를 포함한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킹을 제공하여 적합한 지식을 탐구 및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독자적인 씽크탱크로서의 기능 수행
- 오스트리아에서 가장 큰 온라인 광고기업인 Netidee사와 Sponsorship을 맺고 있으며, Google을 포함한 58개 기업의 후원을 받음.

○ 주요 활동

- Stammtisch : 150명 이상의 창업가 및 전문가와의 만남, 새로운 정보 제공
- Startup Rolemodels : 오스트리아 스타트업은 Runtastic, Shpock, mySugar와 같은 성공 사례를 나눔. 이 기업들이 성공스토리를 들려주는 시간 제공
- Newsletter : 오스트리아에서 가장 중요한 스타트업 정보지로서, 스타트업 뉴스와 관련 업데이트 제공
- Local Representatives : 현지 대표자 네트워크를 통해서 오스트리아 전역의 스타트업들과 소통하며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
- Political Work : 스타트업들의 요구 및 필요 사항 등을 정치권에 전달함으로써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을 높여 영향력과 중요성 증대
- Ecosystem : 작업 장소, 투자자 등 스타트업 시스템 내의 모든 정보 제공
- Grants : 스타트업에 대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 소개 및 매칭 서비스 제공
- Investments : VC, 크라우드펀딩, 프리-시드 자금(Pre-Seed money) 등 창업 단계에 맞는 오스트리아 투자자 리스트 제공
- Social Entrepreneurship : 지속가능한 사업전략 및 사회 공헌 관련 정보 제공
- Students : 스타트업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연결하여 창업 지원

다. VC 현황

□ 투자 규모

- 2017년 VC를 통한 스타트업의 자금 조달은 총 66건, 1억 3354만 유로 규모
- 2016년(총 67건, 8134만 유로) 대비, 금액 면에서 64% 증가한 규모로서, 최근 VC를 통한 자금 조달이 증가 추세
- 건수는 전년 대비 한 건 줄어들었으나, 2017년 1백만 유로 이상의 대형 자금 조달이 다수 발생함으로써 자금 조달 규모가 크게 증가

<VC를 통한 스타트업 자금 조달 규모 추이>

년도	2015년	2016년	2017년
금액(천 유로)	20,500	81,335	133,540
전년 대비 증감(%)	-	+296.8	+64.2

자료원: 2017. Startup report 2016

- 비엔나는 오스트리아 스타트업의 중심지로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음.
- 2017년 기준 비엔나 소재 스타트업은 전체 자금조달 건수의 71%, 자금조달 규모의 84%를 차지
- 2017년 1백만 유로 이상 자금 조달의 경우 전체 29건 중 비엔나 소재 스타트업이 23건으로서 전체의 79.3%를 차지
- 투자자 유치 소요 기간은 평균 5.7개월, 26%의 스타트업이 최대 5개 투자자 확보에 성공
- 2017년 비엔나 소재의 의약품 스타트업 Hookipa Pharma가 5천만 유로의 자금 조달에 성공함으로써, 가장 큰 규모의 실적을 기록

<VC를 통한 스타트업 자금 조달 TOP 10(2017년)>

순위	업체명	소재 도시	분야	자금조달 규모 (백만 유로)	주요투자자	설립 년도
1	Hookipa Pharma	비엔나	의료	50.0	Sofinnova, Forbion, Hillhouse Capital, Gilead	2011
2	TourRadar	비엔나	여행/관광	8.5	Endeit Capital, Cherry Ventures, Hoxton Ventures, Speedinvest	2010
3	ROBART	린쯔	네비게이션	6.1	CMCIC, RBVC, INNOVACOM, SEB ALLIANCE	2009
4	wikifolio.com	비엔나	핀테크	5.3	New Alpha Asset Management, Postfinance	2011
5	SMARTAS SISTANT	비엔나	AI 기반 세일즈 도우미	5.0	Beringea, Ariel Luedi	2006
6	Smartbow	바이버른	축산	5.0	N/A	2009

7	Adverity	비엔나	마케팅 분석	3.2	Mangrove, Speedinvest, 42CAP, aws Founders Fund	2014
8	mything	그라쯔	3D 디자인	2.1	KaPa Ventures	2017
9	Amabrush	비엔나	치과	2.0	Kickstarter	2017
10	avedos GRC	비엔나	리스크 매니지먼트	2.0	Jadeberg Partners	2005

자료원: Startup Report 2017

□ 주요 투자 업종

- 모든 산업 부문에 걸쳐 IT/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스타트업이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음.
- 특히 의료, 금융, 여행/관광, 전자상거래 등과 관련한 솔루션 및 모바일앱이 주목받는 가운데, 우주/해양 분야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도 빠르게 증가

□ 주요 VC

회 사 명	AC & Friends GmbH
주 소	Siebenbrunnengasse 5a / 2, A-1050 Wien, Austria
전 화 번 호	+43 02256 81184201
연 락 처	office@acandfriends.at
웹 사 이 트	http://www.acandfriends.at/
개 요	2012년도에 설립되어 모든 산업분야의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투자하며, 금전적인 투자뿐만 아니라 경영전략적인 서비스 또한 제공.
전 문 분 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i-Tech IT - web and mobile - Disruptive technologies and innovations - Greentech and Circular Economy

회 사 명	lthuba Finmill2009
주 소	Stallburggasse 4, 1010 Vienna
전 화 번 호	+43 1 512 38 83 0
연 락 처	info@finmill.at
웹 사 이 트	http://finmill.at/
개 요	2018년도에 설립되었고 금융 전문가와 기업가로 이루어졌으며, 자본 시장의 핀테크 사업 투자에 초점.
전 문 분 야	- Fintech

회 사 명	Media4Equity Invest
주 소	Liechtensteinstraße 25/DG, 1090 Vienna, Austria
전 화 번 호	+43 699 108 77 805
연 락 처	ml@media4equity.eu
웹 사 이 트	http://www.media4equity.com/
개 요	스타트업 대상 투자뿐 아니라 광고 및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며 ICT 및 미디어 기반 기업 투자에 초점.
전 문 분 야	-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ies (ICT) and New Media

회 사 명	Apex Ventures
주 소	Habsburgergasse 2/1a, 1010, Vienna, Austria
전 화 번 호	N/A
연 락 처	office@apex.ventures.
웹 사 이 트	http:// www.apex.ventures/
개 요	스타트업 대상 투자뿐 아니라 사업파트너로서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4차 산업혁명의 딥테크 기반의 기업에 초점.
전 문 분 야	- Deep Tech

회 사 명	FSP Ventures
주 소	Neubaugasse 11/14 1070 Vienna
전 화 번 호	+43 1 236 58 59
연 락 처	j.krahwinkler@fspventures.com
웹 사 이 트	http://www.fspventures.com/
개 요	클린테크 분야의 혁신적 기술을 성공적인 사업으로 변화시키자는 목표 달성을 위해 설립되었고, 그런 혁신적 클린테크 기반의 기업에 초점.
전 문 분 야	- Cleantech (Environmental technology)

라. 주요 액셀러레이터

□ 오스트리아의 주요 액셀러레이터들은 산업별 대기업에 의해 운영

- IT(Kapsch), 통신(A1), 금융(Raiffeisen Bank, BAWAG) 등 디지털과 관련된 산업 분야의 주요 업체들이 직접 운영 또는 지원하면서 필요한 신기술 개발 또는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형태가 일반적

<비엔나 소재 주요 액셀러레이터>

이름	파트너 기업/기관	기간	기업 수	지원 내용	유망 협력 분야
Climate KIC	Climate KIC	18개월 (6개월씩 3단계)	30	- 금전적 지원 - 코칭, 멘토링, - 국제 네트워킹 - 대외적 쇼케이스 기회 제공 등	기후 변화 관련 혁신 기술
Kapsch TrafficCom	Kapsch TrafficCom	6개월	15	- 금전적 지원 - 마케팅 지원 - 멘토링, 네트워킹 - 대외적 전문가들과의 만남 제공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IT 기술
A1 Startup Campus	A1 Startup Campus	6개월	11	- 작업 공간 제공 - 비즈니스컨설팅 제공 - 사업 유통망 제공 - case에 따른 직접 투자 등	디지털 서비스, 클라우드 솔루션 등의 데이터 기반 기술
Raiffeisen Elevator Lab	Raiffeisen Bank International AG, FINTECH Circle 등	6개월	5	- 멘토링, 네트워킹 - 집행위원 및 투자자와의 만남 - 공동 파일럿 펀딩 등	핀테크 기술
Agro Innovation lab	RWA, BAWAG 등	5개월	6	- 시장 접근성 제공 - 네트워킹과 노하우 - 투자와 금전적 자원 제공 등	농업 기술

자료원: 코트라 베엔나 무역관 조사 작성

마. 지원정책

□ 정부 차원의 스타트업 육성 전략

-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자금 조달 부문에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가운데, 스타트업 포함 외국기업 유치를 위한 입지 경쟁력 강화에 중점
- 슈람벡(Margarete Schramboeck) 경제부 장관이 장기 전략의 일환으로 2018년 4월 발표한 ‘국가 인프라 강화 전략’은 다음의 5개 부문으로 구분

- 전력(에너지) 공급 : 총 20억 유로 예산 배정. 기존의 수력 발전 이외에 풍력, 태양력 발전 설비 확충 및 공급 인프라 강화
- 이동통신 네트워크 : 이동통신업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5G 통신망 전국 확대를 위한 네트워크 확충
- 도로, 터널 네트워크 확대
- 항공 운송 네트워크 : 환경 영향 평가 등을 고려한 비엔나 국제공항 확충 프로젝트 완료
- 관광 산업 지원 : 관광 산업이 국가 이미지 및 외국기업 유치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 다양한 관련 산업 지원 및 진흥책 마련

□ 지원제도

1) Start-Up-Package 2017

- 2017년부터 시작된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1억 8500만 유로 예산 배정
 - 핵심은 종업원 신규 채용에 따라 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장부담금에 대한 정부 지원으로, 총 1억 유로가 배정되었으며 2019년까지 3년간 지원 예정
 - 이를 통해 스타트업의 필요 인력 확충에 따르는 재정적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이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다른 지원 정책은 다음과 같음.
 - Uni-Spin-Off : 대학교 내 학생, 연구원 등의 창업 지원
 - 비즈니스 엔젤 펀드 재원 확충 : 우수 기술 기업에 대한 비즈니스 엔젤 투자 재원 2배 확대
 - aws-Seed, pre-Seed 파이낸싱 : 2018년까지 총 2천만 유로의 창업 지원금 지원
 - aws* 지급 보증 확대 : 금융기관을 통해 매년 3억 유로씩 창업자금 대출 지급 보증 * aws: austria wirtschaftsservice
 -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에 대한 정부 지원 : 투자자들이 리스크가 큰 신규 창업 기업에 투자했을 경우, 투자액 중 20%(최대 25만 유로)까지 정부 지원

2) GIN 프로그램

- 오스트리아 연구진흥원(FFG)과 경제진흥원(AWS)의 공동 TF인 Global Incubator Network(GIN)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오스트리아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외국 스타트업의 오스트리아 진출을 지원

- 해외 스타트업의 오스트리아 진출 지원 : Go Austria
 - 오스트리아 및 유럽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해외 스타트업의 오스트리아 유치를 위한 프로그램
 - 신청 스타트업 대상으로 사업모델 피칭 심사 후, 합격시 항공임, 2주간 오스트리아 체류 및 사무 공간 제공 등 인큐베이팅 지원
 - 최근 3년간 한국 스타트업 6개 선정

<Go Austria 최근 운영 현황>

회차	기간	장소	참가 스타트업 수	선정 한국 스타트업 (품 목)
1	2016. 5.24 - 6.7	비엔나	이스라엘(4개사) 등 8개국 7개사 (한국 1개사)	Swie.io (스마트팩토리 운영 플랫폼, 스위스와 공동창업)
2	2016. 10.17 - 27	비엔나	홍콩(3개사) 등 5개국 10개사	-
3	2017. 5.29 - 6. 13	비엔나	이스라엘(3개사) 등 5개국 10개사 (한국 1개사)	Bepro Global Company (빅데이터 영상기반 축구선수 플레이 분석 코칭 시스템)
4	2017. 10. 2 - 13	비엔나	이스라엘(4개사) 등 5개국 10개사 (한국 1개사)	Nexsys (스마트 헬멧 기반 작업안전제어시스템)
5	2018. 5. 22 - 6. 6	비엔나	한국(3개사) 등 6개국 10개사	①Insignary (소프트웨어보안프로그램) ②Minds Lab (인공지능 비즈니스 플랫폼) ③Mopic (3D 영상 구현 모바일 기기 커버 액세서리)
6	2018년 10월 중	그라츠	(모집 중)	-

자료원: 코트라 베엔나 무역관 조사 작성

- 오스트리아 스타트업 국제화 프로그램 : Go International
 - 오스트리아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및 투자 유치를 위해 2017년부터 진행, 세계 주요 도시에서 2주간의 현지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운영
 - Go TelAviv, Go Hong Kong(이상 2017년), Go Seoul(2018년 5월) 등이 성공적으로 개최된 가운데, Go Singapore(2018년), Go Tokyo(추후 예정) 등 예정

○ Go Seoul 프로그램 개요

- 목적 : 오스트리아 스타트업의 한국 진출 및 투자 유치 지원.
- 일정 : 2018년 4월 30일(월) ~ 5월 15일(화)
- 주요 내용 : 오스트리아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를 위한 한국 투자가 대상 피칭, 오스트리아 스타트업 대상 비즈니스 멘토링.
- 주관 : 오스트리아 연방상공회의소 / 주한오스트리아 무역대표부
- 국내 협업기관과 참가 오스트리아 스타트업의 현황은 아래와 같음.

<Go Seoul 프로그램의 국내 협업기관>

연번	기관명	기관 개요
1	창업진흥원 (Korean Institute of Start-up and Entrepreneurship Development)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창업을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관으로 2011년 공공기관 승인(2000년 사단법인으로 출범)
2	디캠프 (D-Camp; 은행권 청년 창업재단)	창업 생태계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만들어진 비영리 재단으로서 전국은행연합회 회원 금융기관(20개)의 지원으로 2012년 5월 출범
3	스파크랩스 (SparkLaps)	한국 및 미국 창업가들의 지원을 받아 출범한 민간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자료원: 코트라 베엔나 무역관 조사 작성

<Go Seoul 프로그램에 참여한 오스트리아 스타트업>

연번	기업명	품 목
1	Artivive GmbH	AR(증강 현실) 기술 활용 예술 작품 감상 어플리케이션
2	COZY(yetta GmbH)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 정보를 제공 플랫폼
3	Sofasession GmbH	작곡 및 음악 공유 플랫폼
4	Visual Vertigo Software Technologies GmbH	증강 현실 소프트웨어
5	byte heroes GmbH	e-Sports 경기 배팅 시스템
6	INS Insider Navigation Systems GmbH	증강 현실 기능 탑재 네비게이션 앱
7	Symptoma GmbH	빅데이터 기반 증상에 따른 질병 검색 앱
8	WisR GmbH	비즈니스 노하우 공유 위한 세대간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자료원: 코트라 베엔나 무역관 조사 작성

3) 스타트업 비자

○ 2017년 10월 비자법 개정 시 신규로 추가

- 오스트리아에서 스타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제3국 창업자 대상, 상대적으로 비자 취득이 용이하도록 만들어짐.

○ 신청 조건

- 대상 : 오스트리아에서 스타트업을 창업하여 성실히 비즈니스를 운영할 능력 있는 창업자
- 회사 설립 및 사업 계획서 제출
- 초기 자본금 최소 5만 유로(본인 지분 50% 이상)
- 아래 표에 따른 점수 총합 50점 이상(총점 85점)

<스타트업 비자 신청 시 항목별 점수표>

항목	점수
능력(Qualification)	30(최대)
- 연관 직업 교육 과정 수료	20
- 최소 3년 이상의 Diploma 프로그램 이수 또는 학사 과정 수료	20
- 오스트리아 내에서 Diploma 프로그램 이수 또는 학위 과정(학사, 석사, 박사) 수료	30
해당 분야 업무 경력	10(최대)
- 1년당	2
언어 능력	15(최대)
- 초상급 독일어(A2)	5
- 중급 독일어(B1, B2)	10
- 중급 영어(B2)	10
- 상급 독일어(C1, C2)	15
가점 항목	30(최대)
- 5만 유로 이상 추가 출자 증빙	10
-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입소 허가서 또는 오스트리아 펀딩 에이전시로부터의 자금 펀딩 확인서	10
- 나이(35세 이하)	10
총점	85(최대)

자료원: 코트라 비엔나 무역관 조사 작성

바. 주요 스타트업 컨퍼런스

□ 오스트리아에서 개최되는 국제적 규모의 스타트업 컨퍼런스는 2012년부터 비엔나에서 매년 열리는 Pioneers Festival이 유일

□ Pioneers Festival

1) 행사 개요

- 2012년 이후 매년 열리는 오스트리아의 대표적인 스타트업 행사
 - 국내외 창업자, 신생기업, 투자가, 기술자, 언론 관계자를 모아 미래의 지식과 기업가 정신 및 혁신적인 기술과 영감 등을 나누는 행사
 - 수도 비엔나의 호프부르크 왕궁 전시실(Hofburg)에서 이틀 동안 개최되며 (2016년 행사는 특별 이벤트 형식으로 일본 동경에서 개최), 유명한 연사들로 이루어진 강연 및 수준 높은 토론과 가장 핵심적인 이벤트인 파이오니어스 챌린지(Pioneers Challenge)가 진행됨.
 - 파이오니어스 챌린지는 스타트업들이 경쟁하여 투표로 가장 많은 득표를 한 업체 1곳이 선정되는데, 그 해의 최고 스타트업으로 뽑힌 기업은 5만 달러 상당의 상금 및 미국 실리콘밸리 견학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음.
 - 우수 스타트업과 잠재 투자자들을 실질적으로 연결해 주는 B2B 형식의 행사로, 이틀 행사 참관을 위한 ‘2-Day Pass’ 가격이 1390유로(부가세 제외)로 고가이기 때문에 일반인의 관람은 거의 없고 실제 관계자들만이 참여

<파이오니어 챌린지의 연도별 주요 행사>

연도	참가인원수	파이오니어 챌린지 우승 업체	주요 프로그램
2012	2500	Poikos : 하드웨어를 이용한 신체 측정기	스테로이드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피드백(Feedback on Steroid for Startup)행사 및 기업별 90초 PR 스피치 프로그램으로 구성됨
2013	2500	BabyWatch: 태아의 심장박동을 모니터링하는 하드웨어 장치	미래 주요 핵심 기술에 관한 스타트업 강연, 차세대 로봇 혁명에 관한 강연 및 토의
2014	3000	Oradian: 소액 금융 기관을 위한 서비스 솔루션, 클라우드 기반의 소프트웨어	세계 최초의 비행 자동차 Aeromobil 3.0에 대한 소개, 스타트업 관련 클래스 및 워크숍 행사
2015	4000	Dronamics:	하드웨어, 에너지, 운송, 엔터테

		소형 항공기 개발	이먼트 등 7가지 주제를 두고 토의 및 발표
2016	2500	Pleo: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카드 개발	생명과학, 금융 서비스 및 비즈니스를 주요 주제로 한 공개토론 및 워크숍 행사 프로그램 마련, 차세대 인공지능 Viv 및 AR과 관련된 신제품 시연, 체험
2017	2500	Stromkind: 원거리 지역까지 운송하는 드론 전문 업체	AI 주제로 미래 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및 게놈 프로젝트, 스마트 컨택트 렌즈에 관한 연구 및 발표 프로그램으로 구성

자료원: 코트라 비엔나 무역관 조사 작성

2) Pioneer Festival 2018

- 행사 기간 : 2018년 5월 24~25일
- 2018년 제7회 행사는 ‘희미해지는 경계선(Blurred Frontiers)’이라는 모토로 진행
 - ‘서로 다른 산업 사이, 기술과 인간 사이 등 기존 경계를 허문다’라는 의미로, 부문간 융합/복합을 주제로 기술, 혁신, 리더십 등과 관련한 1백개가 넘는 다양한 강연 및 세미나 개최
 - 약 5백 개의 스타트업이 참가한 가운데, 이틀 동안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2,500명의 참관객들이 행사장을 방문
 - 정식 행사 시작 전날인 23일에는 처음으로 ‘GovTech. Pioneers’이라는 행사가 개최됐는데, 유럽 각국의 정치인, 공공 기관 및 공기업 CIO, 관련 스타트업 및 투자자 등이 참석한 공공 부문 스타트업 행사였음.
 - 올해부터는 행사 주체가 기존 JFDI에서 Startup 300으로 변경되었는데(JFDI가 비즈니스 엔젤 네트워크인 Startup 300에 지분을 전량 매각), 이 과정을 통해 2018년 행사의 내용 및 범위가 더욱 풍성해진 것으로 평가됨.
- 2018년에는 비엔나의 스타트업인 SzelesSTIM가 파이오니어스 챌린지 1등을 차지
 - SzelesSTIM는 1등 상금으로 미국 실리콘밸리 건학과 함께 세계 각지에서 개최되는 스타트업 행사에 참가할 자격을 얻게 되는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태국에서 개최되는 스타트업 컨퍼런스인 Techsauce가 있음.
- 2018년 행사에는 의료, 우주, 금융, IT 등 분야의 우수 스타트업이 다수 참가했는데, 대표적인 업체들은 다음 표와 같음.

<2018년 파이오니어 페스티벌에 참가한 주요 스타트업>

No.	업체명	업체 개요
1	Atmosplay	헝가리의 모바일 게임 어플리케이션 개발 업체로 다양한 게임 개발과 3D기술로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선두주자로 활약하고 있음.
2	Blub Blub	슬로베니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 업체로 언어장애, ADHD, SPD 증후군 등' 언어 활동에 장애가 있거나 말을 할 때 불편을 겪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스피치 트레이닝을 시켜주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 업체.
3	Byrd	오스트리아 물류 배송 스타트업 업체로 물건 주문 후 원하는 장소, 시간대를 선택해서 개인별 맞춤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임.
4	Gustav	오스트리아 업체로 온라인으로 일자리 제공 서비스 및 기업 간의 업무 협력 서비스를 제공함
5	CodeBerry School	헝가리 스타트업 업체로 웹 프로그래밍 관련 교육을 온라인으로 교육 시키는 업체임.
6	MEDICUS	오스트리아 헬스케어 업체로 혈액 검사 후 결과 서비스를 앱을 통해 제공 받으며 개인별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함
7	Investory	오스트리아 업체로 스타트업 업체들을 대상으로 올인원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업체임
8	Gig FM	영국 스타트업 업체로 실시간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임
9	GOFOXBOX	오스트리아 업체로 포장 이사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업체임
10	Go Student	오스트리아 교육 업체로 온라인에서 과목별 교육 영상 제공 업체임.

자료원: 코트라 비엔나 무역관 조사 작성

- 한국에서는 4개 업체가 참가했는데, Justy's Adventure를 제외한 3개 업체는 오스트리아의 해외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인 Go Austria 참여 중


<2018년 파이오니어 페스티벌에 참가한 한국 스타트업>

No.	업체명	업체 개요
1	Insignary	오픈 소스 보안 전문 기업으로, 바이너리 파일을 분석해 오픈 소스 정보와 어떤 취약점이 존재하는지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
2	MINDs Lab	인공지능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 플랫폼 전문 기업으로, 빅데이터 분석에서 AI 플랫폼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3	MOPIC	다양한 3D 콘텐츠를 보다 쉽고 안전하게 시청할 수 있도록 3D 기술을 연구하고 상품화하는 3D 전문 기업
4	Justy's Adventure Co., Ltd	선박 수리 관련 ICT 플랫폼을 제공하며, 보다 빠르고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

자료원: 코트라 비엔나 무역관 조사 작성

사. 스타트업 성공 사례

1) Runtastic

	
기업명	Runtastic GmbH
설립년도	2009년
거점	파칭(Pasching), 오스트리아
업종 및 품목	피트니스 모바일 앱
기업가치	2억 2천만 유로(2015년 아디다스 인수액)
해외진출 현황	미국(샌프란시스코)
직원 수	195명(본사 160명)
주요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년 오버외스터라이히주 응용과학대 4명의 학생들이 설립한 업체로 모바일 피트니스 앱 개발 및 서비스 업체임. - 현재 同 앱은 누적 다운로드수 2억 1천만 회, 등록고객수 1억 1천만 명을 넘는 등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으며, 한국어를 비롯한 세계 18개국 언어로 서비스되며 피트니스 관련 세계 3대 앱 중의 하나로 인정받고 있음. - 2013년 독일의 대형 미디어 그룹인 악셀 스프링어(Axel Springer)가 50.1%의 지분을 인수하였으며, 2015년 8월 5일 글로벌 스포츠용품 업체인 아디다스가 同社의 지분 100%를 총 인수금액 2억 2천만 유로에 인수함으로써 오스트리아의 가장 대표적인 스타트업 성공 사례로 꼽히고 있음.

□ 성장 과정 및 성과

○ 창업 동기 및 배경

- 오버외스터라이히 대학(Fachhochschule Oberösterreich)의 학내 벤처 프로젝트로 출발, GPS를 이용하여 스포츠 활동 루트를 알려준다는 기본 컨셉에서 출발
- 2009년 10월 Florian Gschwandtner, Christian Kaar, Alfred Luger, Rene Giretzlehner 등 4명이 공동으로 창업한 후, 2010년 모바일 기기용 앱 출시
- 해당 앱 및 이후 개발 출시된 하드웨어 제품들은 사용자의 건강 및 피트

니스 정보를 추적, 분석 및 관리함으로써 사용자가 최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도록 동기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성장 계기

- 2012년 초 Runtastic은 기존의 소프트웨어에서 하드웨어 부문까지 사업영역을 확대하기로 결정
- 그 결과 맥박 수 측정 시계, 허리띠 등 관련 제품을 시장에 선보였으며, 세계화 전략의 일환으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현지 법인 설립
- 2015년 8월, 글로벌 스포츠용품 업체인 아디다스에 2억 2천만 유로(한화 약 3천억 원)에 인수됨.
- 업력 5년이 조금 넘는 진짜 ‘스타트업’ 기업의 인수합병 규모로는 당시 오스트리아에서 가장 큰 규모로서, 세간의 큰 관심을 모았음.
- 인수합병이 시장의 주목을 끈 이유는 그 인수가격 때문으로, 2013년 10월 Runtastic이 독일의 미디어 재벌인 Axel Springer에게 지분(50.1%)을 매각하였을 당시의 기업 가치 평가액이 2천 2백만 유로였던 것과 비교하여 2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기업가치가 10배나 증가했기 때문임.

○ 사업 규모 및 해외 진출

- 아디다스가 인수합병을 추진한 주된 이유가 스포츠용품 라이벌 업체인 나이키의 온라인 부문 성장세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알려진 만큼, Runtastic 인수 이후 아디다스의 온라인 부문에 대한 투자가 지속 증가
- 2017년 12월, 아디다스는 웨어러블 기기 제조를 중단하고 모바일 앱에 집중하기로 결정. 이를 계기로 Runtastic의 성장세는 더욱 탄력을 받음.
- Runtastic은 2015년 이후에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출시 중. 2017년 다이어트 및 칼로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런타스틱 발란스 어플리케이션(무료)을 출시하여 큰 인기를 얻음.
- 제품 개발 초기부터 오스트리아 또는 유럽 시장만이 아닌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모든 과정을 진행, 이러한 ‘세계화’ 전략은 현재에도 진행 중
- 제품 포트폴리오 다양화 및 세계화 전략의 성공적 수행으로, 현재 오스트리아 내 160명을 포함하여 전 세계에 195명이 근무

□ 성공 요인

○ 기술 또는 비즈니스 모델의 특징

- Runstatic은 ‘건강’ 과 ‘피트니스’ 라는 시장의 흐름을 빨리 파악하고, 시장의 ‘핵심 니즈’ 와 모바일 기기를 결합한 제품 출시
- Runstastic의 앱은 조깅, 자전거, 스키 등 사용자의 스포츠 활동시 GPS를 활용하여 현재 위치 및 향후 행로를 표시해주며, 거리, 속도, 페이스, 시간 등의 정보 이외에, 심장박동수, 칼로리 소모량 등 건강정보도 제공
- 이러한 정보는 모바일 기기에서 실시간으로 직접 조회해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회사 홈페이지의 본인 계정으로 자동 전송 및 분석됨으로써 사용자가 자신의 스포츠 활동을 계획 조정하는 데 유용한 정보로 활용
- 또한 사용자가 비슷한 유형의 사용자와 자신의 정보를 비교함으로써 보다 재미있게 스포츠 활동 및 그 결과를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시장 수요

- 자신의 피트니스 정보를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또 Runtastic의 피트니스 포탈, 이메일, SNS(페이스북, 트위터 등) 등을 통해 이 정보들을 친구들과 공유할 수 있는 장점이 사용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면서 시장 출시 14개월 만에 등록 고객 수 10만 명 돌파
- 현재 同 앱은 누적 다운로드 수 2억 1천만 회, 하루 평균 다운로드 15만 회, 등록고객 수 1억 1천만 명을 넘는 등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으며, 한국어를 비롯한 세계 18개국 언어로 서비스되고 있음.
- 피트니스 관련 세계 3대 앱 중의 하나로 평가

□ 성과

- Runtastic은 효과적인 운동 방법을 고안하고 정보 접근이 편리한 앱을 통해 대중의 의식을 헬스&피트니스 분야로 이끌고 있다고 평가받음.
- 다른 헬스&피트니스 장비 등 관련 산업의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

2) wikifolio



기업명	Wikifolio Financial Technologies AG
설립년도	2008 년
거점	비엔나, 오스트리아
업종 및 품목	핀테크, 금융 소프트웨어, 상거래 시스템 개발, 운용 및 마케팅
기업가치(매출액)	861만 유로(2017년)
해외진출 현황	오스트리아, 독일, 스위스
직원 수	35명
주요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년 : Startup Company 2011 (StartUp Austria): 최고의 스타트업 기업 1위 - 2014년 : Biggest Austro-Innovation in DACH stock markets (Börse Social Network and Deloitte) : 1위 - 2015년 : Zertifikate Awards: 1위 - 2016년 : Technology Fast (Deloitte EMEA500) 9위, European Fintech 100 개인금융관리부문 1위 - 2017년 : New Alpha Asset Management, Post-financ 두 벤처캐피탈로부터 총 530만 유로 자금 조달 성공. INiTs 와 I5 Invest 등 총 18개 스타트업 전문가들이 선택한 2017년 오스트리아 최고의 혁신 스타트업 선정

□ 성장 과정 및 성과

○ 창업 동기 및 배경

- 2008년, 창업자 Andreas Kern는 은행에서 한 금융상품을 추천받아 실제 투자수익률을 계산해 본 뒤 그 상품은 수수료만 들 뿐 실질적인 수익은 내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
- Andreas Kern는 전문가의 지식보다는 사람들의 참여, 다양성과 투명성으로 결정되는 현시대, 즉 소셜미디어 시대의 금융상품은 어떤 형태일까라는 생각을 했고, 이것이 wikifolio의 창업 아이디어가 됨.

○ 성장 계기

- 2011년 Handelsblatt Group에 파트너로서 가입하면서, 처음으로 재무적 투자자와 미디어 파트너를 만나게 됨. 2012년부터는 wikifolio certificate를 모든 은행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급성장
- 2012년과 2014년 사이 기간 동안 신규 가입자 3만 명, 6,500개의 wikifolio 유통, 1,750개의 wikifolio certificate(wikifolio 발급 무담보 채권 형식) 발급 등의 실적을 발판으로 2,600만 유로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
- 이러한 성장세를 바탕으로, 독일의 금융포털 OnVista.de, Focus Group Finanzen 100, Hamburg HPM와 같은 독일 자산운용가들, 그리고 독일의 가장 큰 온라인 중개소 comdirect, Sbroker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형성

○ 사업 규모 및 해외 진출

- 2014년 매출액 238만 유로, 2015년 391만 유로, 2016년 318만 유로, 2017년 861만 유로 등 지속적인 매출 성장세를 시현하고 있는 가운데, 종업원 규모 또한 2014년 14명에서 2017년 35명으로 증가
- 2012년 독일 시장에 wikifolio certificate를 선보인 이후, 2013년 오스트리아, 2015년 스위스 시장까지 진출하면서 글로벌화를 진행 중에 있음.

□ 성공 요인

○ 기술 또는 비즈니스 모델의 특징

- 비즈니스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은 Social Trading Platform이라는 것임. Wikifolio는 유능한 금융 분야 전문가들의 거래 아이디어를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 공간을 만들었고, 사람들이 이 공간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 25만 개의 주식, 상장지수상품, 펀드들로 자신만의 wikifolio를 구성할 수 있음.
- wikifolio certificates를 담보화할 수 있게 하여 certificate 투자에서 발생하는 손실 위험을 헤지(hedge)하는 것도 가능. 이 서비스의 도입 이후 10만 유로 이상의 주문이 큰 폭으로 증가

□ 성과

- 수수료를 배제하는 등의 혁신적이고 투명한 서비스로 일반인 또는 투자전문가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에 크게 기여

<오스트리아의 주요 스타트업>

분야	기업명	주요 내용
온라인 게임	Bwin	- 1997년 12명의 직원으로 설립된 업체로, 현재 3,100명의 직원으로 연 7억 60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리는 최대 온라인 게임 제작 업체로 성장.
인터넷 전화	Jajah	- 2005년 설립된 웹 기반 전화 서비스 제공 업체로, 2009년 스페인 업체인 텔레포니카(Telefonica)에 1억 4500만 유로에 인수됨
온라인 결제	Paysafecard	- 2000년 설립된 업체로, 최초로 은행법 승인을 받은 온라인 결제 방법을 도입하여 현재 유럽 시장의 선두 업체로 자리매김
기상예보	UBIMET	- 2004년 2인 기업으로 설립된 기상예보 서비스 업체로, 관련 분야에서 유럽 내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업체로 평가받고 있음. 2012년 세계적 에너지 음료 업체인 레드불(Red Bull)이 지분 참여.
생명공학	AFFiRiS	- 2003년 설립된 생명 공학 관련 스타트업으로, 알츠하이머와 파킨슨 병, 당뇨병 백신을 개발하였으며 2012년 세계 최초로 파킨슨 병 백신에 대한 임상 실험 도입하였음.

자료원: 코트라 비엔나 무역관 조사 작성

아. 협력방안

□ 글로벌 기업 프로젝트 및 투자자 발굴 관련 노력 필요

- 민간 부문 또는 양국간 정부, 관계기관 차원의 협력 방안 모색이 바람직
 - VC 등 오스트리아 자체의 대규모 투자처는 그리 많지 않으며, 그동안의 오스트리아 스타트업의 성공 사례들은 글로벌 기업이 자체 운영 또는 후원하는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통해 탄생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음.

□ 관련 행사를 통해 나타난 유망 산업 부문 집중 공략 필요

- 2018년 파이오니아스 페스티벌 행사를 통해 잠재 투자자들의 관심을 특히 많이 끈 부문은 우주과학, 의료, 금융, IT 등임.
- 우주과학 부문은 연구 및 실험 목적의 가상현실 관련 솔루션이 큰 인기를 끌었으며, 이와 함께 해양 연구 부문도 높은 관심을 받았음.
- 의료 부문의 경우, 태블릿, 스마트폰 등 기존 스마트 기기와 결합한 유용한 솔루션들이 다수 선보였음.
- 금융 부문의 경우 보안 및 결제 시스템 등과 관련한 솔루션이 높은 관심을 받은 가운데, Speedinvest, Raiffeisena Bank International, UNIQA 등 금융기관들이 합작으로 직접 스타트업 지원 펀드를 조성하여 우수 스타트업을 모색하는 등 매우 적극적인 행보를 보임.

□ 양국 주요 글로벌 기업이 공동 참여하는 스타트업 육성 협의체 구성

- 협의체는 양국 글로벌 기업 담당자 및 스타트업 진흥기관 관계자로 구성
- 상대국 스타트업에 제공할 자국 글로벌 기업 주요 구매, 기술 협력 및 투자 프로젝트 정보를 상시 공유하고, 우수 스타트업 공동 발굴·육성

□ 상대국에서의 창업을 지원할 원스톱 지원시스템 구축

- 현재 오스트리아에서 시행 중인 Go Austria 프로그램은 2주 내외의 인큐베이팅 과정 외에 실질적인 현지 창업 지원 기능이 없어 우리 스타트업의 오스트리아에 진출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상황

□ 현지 회사 설립 및 운영 여건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점을 숙지할 필요

- 법인세율(25%) 및 사회보장부담금 등 기업 활동에 수반되는 비용이 인근 동유럽 국가들 대비 높은 편이고, 외국인 스타트업 창업주의 체류 및 노동허가 취득을 위한 행정비용 발생

자. 유용한 정보원

이름	설명	웹 페이지/(가능할 경우) 연락처
ABA	연방투자진흥청	www.aba.gv.at
VBA	비엔나 기업진흥청	https://viennabusinessagency.at/
WKO	연방상공회의소	www.wko.at
Advantage Austria	연방상공회의소 대외무역부	www.advantageaustria.org
Gruender Service	상공회의소 창업지원부	www.gruenderservice.at
Austrian Startups	오스트리아 스타트업 포탈	www.austrianstartups.at
Pioneers Festival	스타트업 페스티벌	https://pioneers.io/events/pioneers18
Startup Report	오스트리아 스타트업 연례보고서	www.startupreport.at
FFG	오스트리아 연구진흥원	www.ffg.at
aws	오스트리아 비즈니스 서비스	www.aws.at
GIN	GIN의 'Go Austria' 프로그램	http://www.gin-austria.com/

자료원: 코트라 비엔나 무역관 조사 작성

9. 폴란드 바르샤바

가. 스타트업 생태계의 위상과 특징²⁾

□ 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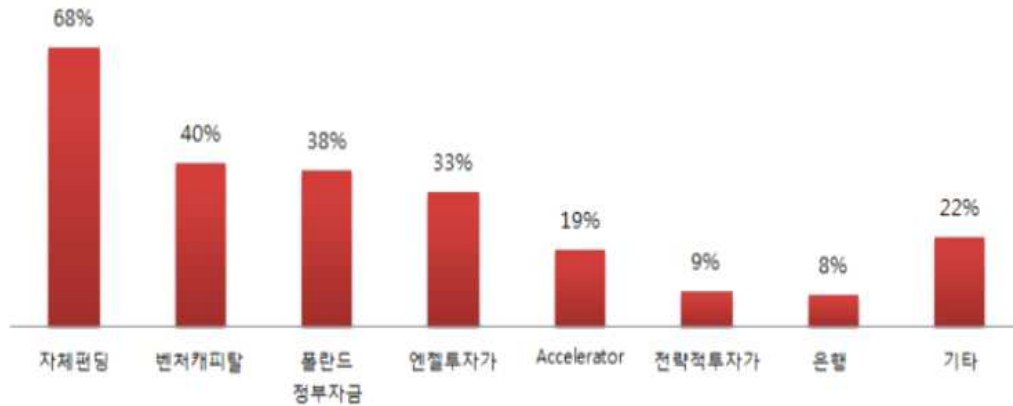
- 최근 몇 년간 폴란드 스타트업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여 유럽의 떠오르는 스타트업 생태계로 주목받고 있음.
 - 폴란드에서 활동 중인 스타트업은 약 3,000개사로 매년 증가 추세이고, '15년 바르샤바에 구글 캠퍼스가 전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설치되는 등 중동유럽 스타트업 허브로 부상
 - 3% 중반의 경제성장률, 글로벌 기업의 투자확대(유럽 내 5위), 중동부 유럽 최대 내수시장과 우수한 제조 산업 인프라 보유
 - 전문 개발자 수는 유럽 내 8위(Atomico. State of European Tech 2016)
- 비즈니스하기 좋은 환경을 갖추었지만, 혁신 부문의 저조 등 스타트업 사업 환경 저해 요소는 개선 필요
 - World Bank에 따르면 비즈니스하기 좋은 국가로 2018년 폴란드가 전 세계에서 27위, EU회원국 중 12위를 차지해 중동부 유럽에서 가장 높음.
 - 그러나 Global Innovation Index 2018에 따르면 폴란드는 혁신 부문에서 39위를 차지해 EU 내 후순위, R&D 부분 투자 비중은 2016년 GDP대비 1% 수준에 불과(OECD)

□ 특징·강점

- 자금조달 여건
 - 2017년 약 68%의 스타트업이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하였는데, 이는 전년의 50%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서 스타트업이 활성화되는 여건에서 자금조달 여건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는 상황으로 판단됨.
 - 외부 자금조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국내외 VC이며(40%), 그 다음이 폴란드 기업개발청 또는 국립R&D센터를 통한 EU 기금 조달임(38%).
 - 정부는 혁신기업 투자 확대, 외자 유치, 투자시장 부양 등 프로그램 시행

2) 본 절에서는 바르샤바는 물론, 폴란드 전역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다루었음.

<폴란드 스타트업의 주요 자본조달 방식 설문 결과(복수응답 포함)>



자료원 : STARTUP POLAND. 2017. Polish Startups Report 2017

○ EXIT 수준

- 폴란드는 5억 9천만 유로의 투자회수를 보이며 중동유럽 최대 스타트업 엑시트 시장으로 부상(Central and Eastern Europe Statistics 2017)
- 그러나 스타트업 엑시트를 위한 제도적 환경은 미비한 편
- 폴란드 정부는 중소기업의 증권거래를 활성화하는 NewConnet 주식시장의 개설을 통해 신생 기업들이 혁신적 사업을 수행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폴란드 스타트업 인수 환경 개선 도모

○ 대외 개방성

- 2017년 외국인 창업주는 전체 폴란드 스타트업 가운데 약 12%를 차지
- 폴란드 전체 스타트업 중 28%가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인 38%, 미국인 25%, 영국인 15%, 독일인 12%, 기타 42%의 순(Startup Poland 2017)
- 폴란드 기업기술부는 해외 스타트업의 유치를 위해 최근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였으며, 특히 Poland Prizes는 1500만 즈워티(약 400만 달러) 규모의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등 해외 스타트업 유치에 노력

□ 스타트업 창업 추이와 대표 스타트업

- 2017년 기준 폴란드 내 약 3천개 사의 스타트업이 활동 중이며, 대부분은 소프트웨어 기업(Startup Poland 2017)

- 향후 창업 유망 분야는 모바일 소프트웨어(14.2%), 전자상거래(13.8%), 사물인터넷(10.4%), 빅데이터(10.4%) 등 소프트웨어 부문이 중심
- 폴란드 스타트업들은 대도시 중심으로 위치하고 있으며, 바르샤바(25%)에 가장 많은 스타트업이 소재
- 뒤를 이어 브로츠와프(12%), 크라쿠프와 포즈난(각 7%), 토룬과 Tricity지역(각 6%) 순으로 많이 소재

<폴란드의 대표 스타트업>

스타트업명	분야	비고
CD Projekt Red (Unicom)	비디오게임	Witcher trilogy 등 비디오게임 개발
Brand24.com	소프트웨어	실시간 인터넷 모니터링 기술
Base CRM		a web-based all-in-one sales platform that features tools for email, phone dialing, pipeline management, forecasting, reporting and more
Booksy.net		Website and mobile application for online appointment scheduling; addressed to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from the Health&Beauty industry
DocPlanner		의료서비스 온라인 예약 플랫폼
Quotiss		물류 소프트웨어
Estimote	근거리 무선통신	비콘 하드웨어 및 솔루션
UXPin	디자인	UX 디자인 시스템, 프로토타이핑 툴
Silvair	사물인터넷	조명제어 솔루션
Brainly	에듀테크	온라인 학습 네트워크 플랫폼
Azimo	핀테크	온라인 송금 서비스
LiveChat Software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 헬프데스크 및 온라인채팅 소프트웨어
Growbots.com		All-in-one 수출 플랫폼
SALESmanago		마케팅 자동화 플랫폼
SHOWROOM.PL		개인 디자이너 및 브랜드 판매 플랫폼
Zortrax	3D 프린터	3D 프린터 제조
Vigo System	적외선 탐지기	첨단 적외선 탐지기 제조
Booksy.net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헬스&뷰티 서비스 예약 모바일앱
Medicalgorithmics	건강	부정맥 진단 시스템 개발
Braster		원격진단 의료기기

자료원: 코트라 바르샤바 무역관 조사 작성

나. 주요 폴란드 창업 클러스터

□ 구글캠퍼스 바르샤바

- 소재지 : 바르샤바
- 홈페이지 : <https://www.campus.co/warsaw/en/>
- 특징
 - 구글캠퍼스는 신생기업가들의 교육 및 창업지원을 위한 공간으로 신생 스타트업을 위한 캠퍼스 입주 프로그램(Campus Residency)을 통해 6개월 간 스타트업 운영관련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 가능

□ 크라쿠프 첨단과학기술단지

- 소재지 : 크라쿠프
- 홈페이지 : <http://www.kpt.krakow.pl/>
- 특징
 - 스타트업 최적화 비즈니스 공간
 - 약 350여 기업이 참여하며 높은 수익창출과 최적의 비즈니스 환경을 이루어나가도록 지원

□ Hub Club

- 소재지 : 루다실롱스카
- 홈페이지 : <http://hubclub.pl/>
- 특징
 - 실레지안 지역 창업 클러스터인 Hub Club은 Rudzki Incubator Entrepreneurship의 인재양성 프로그램으로 구축
 - 정보통신분야 관련기업들과 멀티미디어 산업군의 협력으로 실레지안 지역의 혁신적이고 새로운 시장가치 창조를 이끌고 있음.
 - 동 창업 클러스터는 국제간 경제협력의 최적 조건을 마련하여 혁신 제품과 서비스의 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 기업인력 양성 교육기관

- 소재지 : 폴란드 각 지역
- 홈페이지 : <https://inkubatory.pl/>
- 특징
 - 폴란드 청년 기업인 양성을 위한 최대 교육기관으로 폴란드 학제 최우수 고등교육기관 31곳 중 하나로서, 동유럽 최대 네트워크 구축
 - 1,100여 개의 중소기업들이 기업인력 양성 아카데미에서 활동

□ Lower Silesian Incubator of Entrepreneurship

- 소재지 : 브로츠와프
- 홈페이지 : <https://www.technologpark.pl/>
- 특징
 - 학생 및 교원을 대상으로 기술산업 분야의 창업 지원
 - 2년간 무선통신 서비스 및 인프라 이용, 사무실 임대 등 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서비스 제공

□ Startup Zone

- 소재지 : 그드니아
- 홈페이지 : <http://ppnt.pl/pl/startup>
- 특징
 - 포메라니안 지역 과학기술 단지로 스타트업이 활동할 수 있도록 부속건물, 실험실, 컨퍼런스홀, 전시장, 직원휴게소 등 네트워크 장소 제공

다. VC 현황

□ 투자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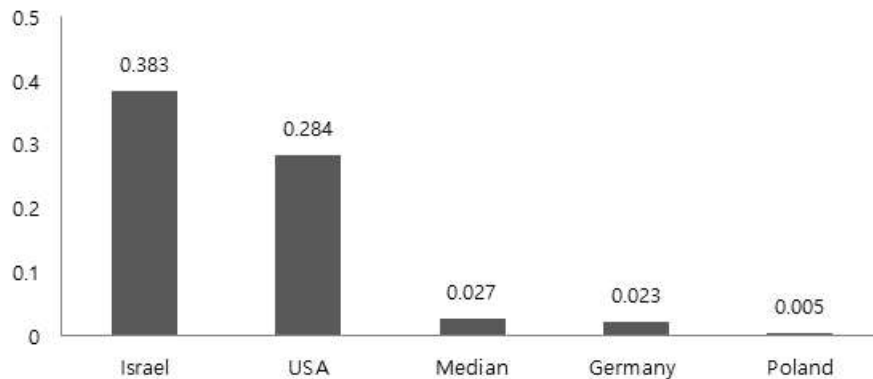
- 공공자금을 활용한 투자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
 - 사기업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높은 세금으로 인해 주식이나 부동산에 비

하여 투자매력도가 떨어지는 상황

- 이에 따라 폴란드 기술산업 분야 기업들은 정부 자금에 상당부분 의존
- 폴란드의 VC 투자액은 GDP의 약 0.005%로서, 약 2,300만 유로 규모(OECD Entrepreneurship at a Glance 2017)로서 주요국에 비해 활성화되지 않은 편³⁾
- VC 기업은 85개로 최근 10년간 750개 스타트업에 투자(Polish Startups Report 2017)

<GDP 대비 VC 투자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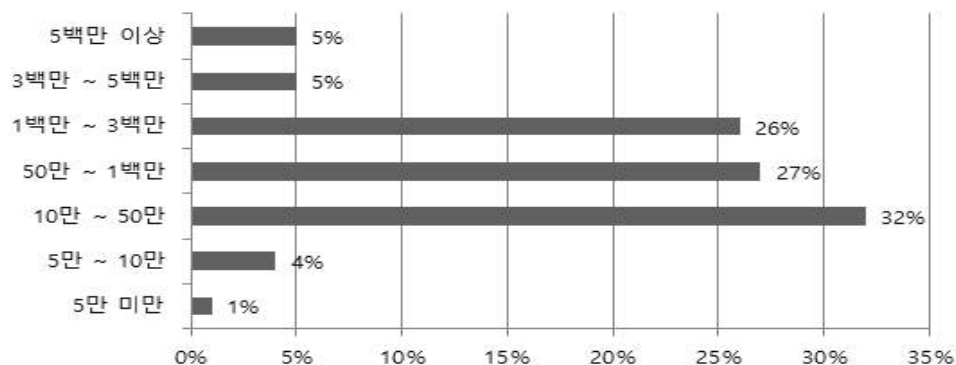


자료원: OECD.org . 2017. OECD Entrepreneurship at a Glance 2017

- 폴란드 내 VC의 시드라운드 투자규모는 5만~1,500만 즈워티(약 14만~4백만 달러)
- 33백만 즈워티(약 8백만 달러)를 넘는 투자는 전체의 10% 정도이며, 대부분 10만~3백만 즈워티(약 2.7만~8백만 달러)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짐.

<폴란드의 규모별 VC 투자 비중>

(단위: 즈워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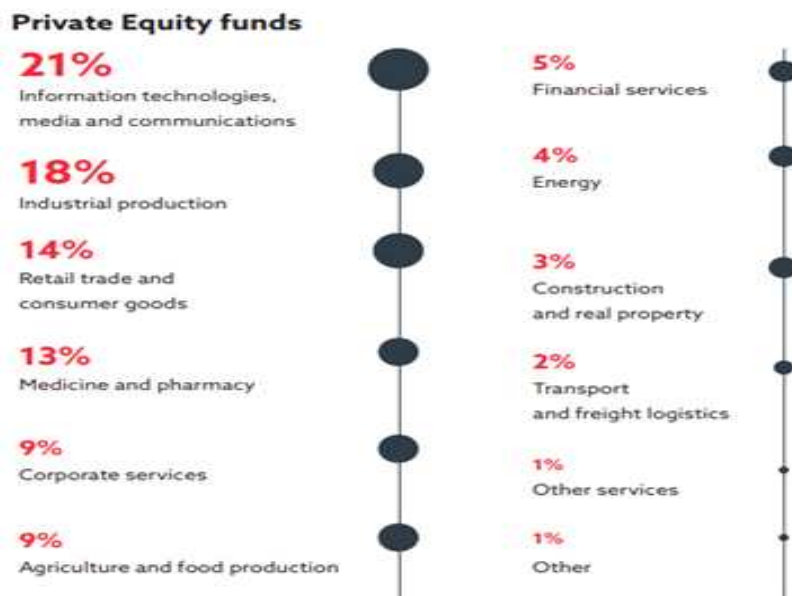
자료원: Startup Poland. 2018. Złota Księga Venture Capital w Polsce 2018

3) 폴란드의 VC 시장규모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는 실정임. 폴란드 VC 시장규모가 상기 수치의 두 배가 넘는 약 5,000만 유로라는 추정도 있음(Kukwa, Agata. 2016. "How Big Is VC Market In Poland?". 150sec.com).

□ 주요 투자 업종

- 폴란드 사모펀드의 주요 투자 분야는 IT 및 미디어·통신으로, 높은 수익 창출 가능성과 고도성장에 주목
 - 그 밖의 투자 분야는 산업 생산, 유통·소비재, 의료·의약 등임.
- VC는 2015년 전체 투자규모 중 61%를 차지하고 있으며, 평균 투자액은 2012년 9백만 유로에서 2015년 2천만 유로로 크게 증가
 - VC는 최첨단 기술에 주로 투자하는 성향을 보이나, 업종에 상관없이 수익성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추정

<폴란드 사모펀드의 투자 분야>



자료원: KPMG. 2016. Report Private Equity Market in Poland 2016

□ 주요 VC

회사명	Experior Venture Fund(EVF)
주소	al. Przyjaciół 6/7, 00-565 Warszawa
전화번호	+48 22 462 73 90
연락처	office@evf.com.pl
웹사이트	http://evf.com.pl/pl/
개요	고성장 잠재력을 가진 혁신기업과 특수 산업분야의 경험을 가진 기업에 주로 투자 스위스와 폴란드 간 협력프로그램인 NCF(National Capital Fund)와 함께 설립
전문분야	TMT, IT, 헬스케어, 생명과학, FMCG, B2B, B2C

회사명	Joint Polish Investment Fund
주소	ul. Słomińskiego 15/ 509, 00-195 Warszawa
전화번호	+48 22 490 94 01
연락처	info@jpifund.com
웹사이트	http://www.jpifund.com/
개요	주로 생명공학 분야 기업들에 투자 국제 정보교류 및 글로벌 과학협력을 지원
전문분야	생명공학 분야

회사명	InnoEnergy
주소	ul. Wielicka 28, 30-552 Kraków
전화번호	+48 12 446 70 40
연락처	ce@innoenergy.com
웹사이트	http://www.innoenergy.com/
개요	사업 초기부터 모든 단계의 혁신기업에 투자 유럽전역의 파트너 기업들, 사업가, 연구원들과 네트워크 형성 상업적 성공과 위험의 헤징을 위해 맞춤형 서비스 제공
전문분야	친환경, 지속가능한 에너지

회사명	SpeedUp Venture Capital Group
주소	ul. Obornicka 330, 60-689 Poznań, Poland
전화번호	+48 61 827 09 99
연락처	info@speedupgroup.com
웹사이트	http://www.speedupgroup.com/en/
개요	자가 개발 기술력으로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고자 하는 중동유럽의 초기단계 스타트업 투자의 선두주자
전문분야	consumer internet, 핀테크, martech, IoT, hardware, medtech

회사명	Luma Investment
주소	Emilii Plater 28, 00-688 Warsaw
전화번호	+48 22 630 31 80
연락처	anna.zieciak@luminvestment.eu
웹사이트	http://luminvestment.eu/en/about-us/
개요	IT산업 벤처 캐피탈 펀드 Luma Ventures 총 거래액 5백만 유로 총 자산관리 규모 5억 유로
전문분야	빅데이터, 정보분석&정보과학, 핀테크, 블록체인, B2B, IoT

회사명	3TS Capital Partners
주소	Itämerenkatu 11-13, FIN-00180 Helsinki, Finland
전화번호	+43 1 890 16 98
연락처	info@3tscapital.com
웹사이트	http://3tscapital.com/
개요	유럽 기술집약적 벤처 캐피탈 선두회사 중 하나. 인터넷,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등 고성장 산업분야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
전문분야	TMT, Technology Enabled-Services, e-commerce, Digital media

회사명	Impera Capital
주소	Wolaska 22A, 02-675 Warsaw
전화번호	+48 22 398 82 70
연락처	kontakt@imperaalfa.pl
웹사이트	http://imperaalfa.pl/
개요	모회사가 바르샤바 증권시장에 상장된 벤처캐피탈 주요 투자분야는 특수기술 연구개발에 집중
전문분야	농식품 관련기술, 친환경, 재생산가능 에너지, 정보통신기술

회사명	eMerge
주소	ul. Kobylińska 3, 61-424 Poznań
전화번호	+48 791 224 602
연락처	kontakt@evig.pl
웹사이트	http://www.evig.pl/
개요	2012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벤처캐피탈 펀드 고위험 고수익 잠재력을 보이는 초기 스타트업에 투자
전문분야	신기술분야, RES, 바이오기술, 전자상거래, 의학, 화학

라. 주요 액셀러레이터

<폴란드의 주요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이름	도시	파트너 기업/기관	기간	기업 수	지원내용	유망 협력 분야/기술
Enterprise Forum Poland	바르샤바	PKO Bank Polski, Adamed Group, AgriTechHub, PGNiG	1년	8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지원 약 5.4만 달러 - 5만PLN 상당의 전문서비스 - 컨설팅, 멘토링, 네트워킹 - 보스턴(MIT) bootcamp 참가지원 	핀테크, 4차 산업, 에너지, 헬스케어, 농업기술, 보험
Orange Fab	14개 지역	Orange	12주	24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워크샵, 멘토링, 코칭 - 회의개최, 파트너 이벤트 - VC funds, 투자자, 스케일업 기회 제공 	소비자만족 관리, 인공지능, IoT, 빅데이터, 전자상거래, 사이버보안, 핀테크, 블록체인
Space3ac Intermodal Transportation	각지역	Pomerania 경제특구, 폴란드 항공우주국, Gdansk항, Gdynia항	6개월	N/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지원 약 6.8만 달러 - 멘토링, 워크샵 	복합 운송 관리, 위성 기술
Ideo	각지역	Aspiro, Netia, Aviva, Autosan, Arkus Romet, Olimp Labs and Kirchhoff Automotive	10개월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지원 약 5.4만 달러 - 약 1.4만 달러 규모의 상당 멘토링/워크샵 	IoT, 헬스케어, 자동차, 핀테크, 인슈어테크
Huge Thing	각지역	Alior Bank	7개월	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지원 약 5.4만 달러 - 멘토링, 워크샵 - 투자자들과 스피드 데이팅 	핀테크
FundingBox	바르샤바	-	12개월(프로그램별 상이)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만 유로 자본 무료 제공 - 6개월 액셀러레이션 프로그램 - 250시간 멘토링 	식품, IoT, 스마트시티, 디지털솔루션
Startup Hub Poland (program: StartVenture@ Poland)	바르샤바 등	Wroclaw Technopark, 폴란드 국립 R&D센터 (NCBR), Gdynia市, Warsaw市	-	1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잠재적 상업화탐색 및 비즈니스 전략 수립 - IP보호 전략 준비 - 연구 및 사업팀 구성 - 사업지원 최대 30만 달러, 사업개발지원, 비자발급 	농업/식품, 생체공학, 의료기기, 신소재, 나노테크, IT, 모바일

자료원: 코트라 바르샤바 무역관 조사 작성

마. 지원정책

□ 정부 차원의 스타트업 육성 전략

- 2017년 ‘책임개발전략(Responsible Development Strategy)’를 통해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토대 마련
 - 상기 전략은 향후 25년간 폴란드 경제개발을 이끌 핵심전략으로, 5대 핵심요소 중 ‘혁신기업 육성’ 전략을 통해 창업 지원정책 추진
 - 용이한 창업 환경 마련, 연구와 실행 촉진, 경제활동의 규제 완화, 비즈니스 헌법 도입 등으로 혁신기업 발전에 기여 목표

<Responsible Development Strategy의 5대 핵심요소>



자료원: 폴란드 경제개발부

- 폴란드 정부는 2020년까지 R&D 지출을 GDP 대비 1%에서 2%로 확대 계획
 - 목표 달성을 위해 폴란드 정부는 혁신에 관한 새로운 법률을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 인프라 및 자원의 경제성을 위한 연구기관의 혁신 추진
 - 또한 신생기업이 개발한 혁신 솔루션 상용화를 지원하는 ‘Start In Poland’ 프로그램과, 경제혁신 중요분야의 빠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First speed’ 프로그램 시행

□ 지원제도

〈Start in Poland Programme〉

- 젊고 혁신적인 회사를 위한 유리한 사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신생기업이 폴란드에서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혁신위원회(Innovation Council)와 함께 폴란드 경제개발부에 의해 진행
 - 중동유럽 최대 혁신기술 지원 프로그램으로서, 경제개발부는 창업 지원을 위해 6년간 28억 즈워티(약 7억 6천만 달러) 배정
 - 인큐베이션과 액셀러레이션 단계뿐 아니라, 사업 확장 및 해외진출 단계 지원
 - 또한 외국 기업들이 폴란드에서 사업을 시작하고 확장하는 것을 돕고, 유망한 기업의 자본 유치 지원

〈Poland Prize〉

- 해외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져와 폴란드 경제의 혁신성 향상
 - EU 외 국가의 신생 기업 및 벤처 기업을 유치하는 프로그램으로 외국 신생기업에게도 폴란드에서 창업할 수 있도록 경쟁기회 제공
 - 혁신적인 기업가들이 폴란드에서 획기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도록 장려하며, 참여기업은 폴란드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폴란드 기업개발청(PARP, Polish Agency for Enterprise Development)이 관리
 - 창업 지원경험이 풍부한 프로그램 운영자가 스카우팅, 모집 및 선발, 원활한 시장정착, 액셀러레이션 등에 대해 책임을 가지고 지원

〈Poland Prize 진행 절차〉



자료원: 코트라 바르샤바 무역관 조사 작성

- 스타트업 선발은 솔루션 및 아이디어의 혁신성, 잠재적 가치, 개발 가능성과 여타 시장에서의 사업 수행 가능성 등으로 평가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폴란드 정착을 위해 비자 취득, 행정절차 지원, 사법문제 및 폴란드 체류와 관련된 사항을 도와줄 책임자(concierge)를 지명
 - 약 50명의 젊은 혁신 기업이 파일럿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소규모 기업은 무료로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폴란드 내 사업체 설립 및 이전, 멘토링, 사업 연락망 구축, 투자자 찾기, 비자 발급 및 합법적 폴란드 체류 등 지원
 - 액셀러레이션 단계에서는 폴란드 혁신 생태계의 확장을 목표로 하는 멘토링 서비스, 전문기술컨설팅, 법률 컨설팅, 네트워킹 등의 활동 포함
 - 이외에도 신생기업은 사업별 최대 25만 PLN(약 6만8천 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보조금은 국가 법원 등록부(National Court Register)에 등록된 회사에만 지급
- 액셀러레이션 프로그램 1회당 3~6개월이며, 6곳의 프로그램 운영자(액셀레이터)가 Poland Prize 선정 스타트업을 지원

<Poland Prize 액셀러레이터>

번호	액셀러레이터	홈페이지
1	Space3ac Enterprise	https://www.bluedotsolutions.eu/
2	The Prize	http://startuphub.pl/
3	Huge Thing	http://huething.vc/
4	Gdańsk Entrepreneurship Foundation	http://gfp.com.pl/
5	AD Ventures	http://www.ad-ventures.pl/
6	Brinc Limited	https://www.brinc.io/

자료원: 코트라 바르샤바 무역관 조사 작성

<Scale Up>

- 폴란드 기업개발청(PARP, Polish Agency for Enterprise Development)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으로 EU기금을 활용한 첫 혁신지원 프로그램
 - 액셀러레이션에 중점을 두어 신생 기업의 빠른 발전을 도모

- 소규모 기업만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기간은 3~6개월
- 세부적으로 10개의 액셀러레이션 프로그램이 있으며, 자문 및 멘토링 뿐만 아니라 최대 6천만 즈워티(약 1천6백만 달러)의 자금을 지원

〈PFR Ventures〉

- 폴란드 개발기금(PFR, Polish Development Fund)의 자금 지원 프로그램으로 중동유럽 최대 규모
 - 금융 중개기관을 통해 선정된 벤처자금이나 투자자가 상환 가능한 자금 제공
 - 폴란드에서 창업한 회사는 약 30억 즈워티(약 8억 달러)의 투자 자금을 지원 받음.
 - 운영 초기단계인 프리시드 단계부터, 시드 단계, 성장 및 확장 단계에 이르는 다양한 계층의 혁신 기업 지원

〈The Good Idea Program〉

- 비즈니스 활동에 시작하지 않은 혁신가의 시장성 확인 및 상업화 지원
 -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아이템으로 회사의 창업과 자금 조달에 대한 조언뿐만 아니라, 개발 과정에서의 멘토링 등 전문적 지원

〈국립R&D센터〉

- 국립R&D센터(NCBR, The National Centre for Research and Development)는 폴란드의 혁신 개발을 지원하는 기관
 - 프로젝트 초단계에서 기업가, 설립자, 대학 또는 투자자에게 자금 지원
 - BRidge Alfa, BRidge Classic, BRidge Mentor, BRidge VC, NCBR CVC, TDJ Pitango Ventures 등 기금 운영 중

〈StartVenture@Poland〉

- Startup Hub Poland가 이스라엘 Giza Polish Venture와 제휴하여 운영하는 시드 펀드
 - 폴란드 국립R&D센터의 기금을 활용하여 최고의 기술과 재정 상태를 식별해 잠재적 상업화탐색 및 비즈니스 전략 수립 지원
 - 또한 IP 보호 전략 준비, 연구 및 사업팀 구성, 최대 35만 달러 시드머니 제공, 사업개발 등 지원

바. 주요 스타트업 컨퍼런스

1) InfoShare



☐ 행사개요

- 기간 : '18.5.22~23 (2014년부터 매년 1회 개최)
- 장소 : 폴란드 그단스크 AMBEREXPO
- 규모 : 참가자 6천명 이상, 연사 200명, 스타트업 500개 이상
- 홈페이지 : <https://infoshare.pl/>
- 특징
 - 중동부유럽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컨퍼런스
 - 개발자, 스타트업 운영자, 글로벌기업 경영인 등 수많은 관계자 참가
 - Inspire Stage, Startup Stage, Tech Stage 등 세미나와 워크숍을 위한 무대가 다수 존재하며, 많은 강연자들이 참석해 행사 내내 프로그램 진행

☐ 프로그램

- ① 스타트업 피칭 컨테스트 : 20개사 사전 선발, 우승상금 2만 유로
 - ' 18년 우승 : ThinAir(영국)
- ② 부스 시연 : Microsoft, Intel 등 개별부스 참가를 통해 제품 시연
- ③ 세미나 및 워크숍 : Slack, Netflix, Google의 신기술 추진사례 등 기술 트렌드·스타트업 운영 관련 다양한 주제 강연
- ④ 부대행사 : 네트워킹 파티, 콘서트 등 10여개의 부대행사 진행

☐ 한국관 참가실적 : 없음.

2) Wolves Summit



□ 행사개요

- 기간 : ' 18.4.10~11(2015년부터 매년 상반기 1회씩 개최)
- 장소 : 폴란드 바르샤바 문화과학궁전
- 규모 : 300여개 투자기업, 400여개 스타트업 기업 등
- 홈페이지 : <http://www.wolvessummit.com/>
- 특징
 - 비즈니스 미팅 중심의 행사로서, 스타트업과 전세계 투자자가 참가
 - 폴란드 기업기술부 장관을 비롯해 각 분야 명사를 초청하여 핀테크 및 사이버보안 등 IT 융합기술에 대한 주제, 4차산업혁명 및 공유경제 등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에 따른 기술 변화와 전망에 대하여 발표 및 논의

□ 프로그램

- ① 피칭 프레젠테이션 : 유망기술을 보유한 50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기업별 3분의 발표시간과 4분의 질의응답으로 진행
 - ' 18년 상반기 우승 : Cardiocube(폴란드), Shelfwise(폴란드)
- ② 상담회 : 행사 참가자들이 JUBLIA MATCHMAKING TOOL을 이용해 관심사와 스케줄을 입력하여 즉석에서 파트너를 찾아 상담
- ③ 전시부스 : 헬스케어, 클린테크, 핀테크, AI 등 소프트웨어 중심의 IT 융복합 기술기업들이 운영, BAYER, PGNiG, PFR 등 글로벌기업 및 정부기관이 파트너사로 참여
- ④ 컨퍼런스 : 기업기술부 장관을 비롯해 각 분야 명사를 초청하여 현재 스타트업과 관련 있거나 떠오르는 주제로 총 35건의 컨퍼런스 진행

□ 한국관 참가실적 : 없음.

3) CEE impact



□ 행사개요

- 기간 : '18.6.13~14 (2016년부터 매년 1회 개최)
- 장소 : 폴란드 크라쿠프 ICE Krakow Congress Center
- 규모 : 참가자 약 6000명, 연사 약 250명
- 홈페이지 : <https://impact18.impactcee.com/>
- 특징
 - 5G, IoE(에너지 인터넷), 인더스트리 4.0, 핀테크, 바이오 기술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토론 진행
 - 폴란드 총리 및 정부 부처 장관들이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
 - 스타트업 피칭 컨테스트 및 B2B 미팅 지원

□ 프로그램

- ① Startup4export : 스타트업 피칭 컨테스트(사전 선발 7개사 참가)
- ② Impact Link :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주선된 투자상담 실시
- ③ SciTech Poland : 국가관 또는 개별부스를 통해 제품 시연
- ④ Business Booster : 기술 트렌드·스타트업 운영 관련 다양한 주제 강연
- ⑤ 부대행사 : 이스라엘 스타트업과 조찬, 네트워킹 이벤트 등

□ 한국관 참가실적 : 없음.

4) European Start-up Days



□ 행사개요

- 기간 : '18.5.15~16 (2016년부터 매년 1회 개최)
- 장소 : 폴란드 카토비체 International Congress Centre
- 규모 : 연사 75명, 스타트업 250개
- 홈페이지 : <http://www.estartupdays.eu/pl/>
- 특징
 - 중유럽 주요 비즈니스 컨퍼런스인 European Economic Congress와 동시 개최
 - 혁신적인 젊은 기업가들과 대기업 및 투자기업 등 전문가간 융합

□ 프로그램

- ① Start-up Challenge : 스타트업 경연 (사전 선발 100개사 참가)
- ② 부스 시연 : 국가관 또는 개별부스를 통해 제품 시연
- ③ 세미나 : 기술 트렌드, 스타트업 운영 관련 다양한 주제의 강연
- ④ 부대행사 : 토론, 네트워킹 이벤트, B2B 미팅

□ 한국관 참가실적 : 없음.

사. 스타트업 성공 사례

1) BRAND24

	
기업명	BRAND24
설립연도	2011
거점	폴란드 브로츠와프
업종 및 품목	브랜드 이미지 및 커뮤니케이션 채널 관리 온라인 시스템
기업가치	96백만 즈워티 (약 2천6백만 달러)
해외진출 현황	미국, 뉴질랜드, 남아공, 호주, 캐나다, 영국
직원 수	40명
주요 성과	2018년 NewConnet 증권거래시장 상장

□ 성장과정과 성과

○ 창업 동기 및 배경

- BRAND24는 폴란드의 사업가 Micha ł Sadowski가 개발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Software as a Service) 기반 인터넷 및 소셜미디어 모니터링 시스템
- 창업자는 Patrz.pl 등 소셜 웹사이트를 개설할 때 유저 모니터링을 하였고, 여기서 나온 아이디어가 BRAND24의 개발로 이어짐.
- 기존 시장에서는 창업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적절한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시스템을 개발하기에 나섰고, 효율적이고 빠른 모니터링 툴이 개발되자 자사용을 넘어 상업화 시작

○ 성장 계기

- 초기에는 BRAND24의 잠재성을 이해하는 투자자가 없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첫 6개월 동안은 자사 재원을 활용해 프로젝트를 발전
- 유명 마케팅 전문가와 신기술 전문 언론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며 주목받기 시작하였고, 혁신적인 측면보다는 경쟁자들에 비해 더 나은 제품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호평을 받음.

○ 사업 규모 및 해외진출

- 2018년 BRAND24는 소규모 기업들을 위한 주식시장 NewConnect에 상장되었으며, 기업가치는 9천6백만 즈워티(약 2천6백만 달러)로 추산
- 2017년 9월 기준 전세계 85개국으로부터 1,912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하고 있으며 이중 63%는 폴란드 기업
- 해외고객은 호주가 전체의 46%, 미국이 3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영국이 8%, 인도네시아와 캐나다가 각각 4% 차지
- 2018년 수익의 절반 이상이 해외에서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체고객수를 2018년 말 2,935명, 2020년에는 6,213명으로 끌어올릴 것을 목표로 함.

□ 성공요인

○ 기술 또는 비즈니스 모델의 특징

- Brand24는 회사명인 동시에 대중소 브랜드와 Facebook, Twitter 등 소셜 미디어, 블로그, 웹사이트 등 온라인 미디어를 모니터링하는 툴의 명칭
- 소프트웨어를 웹에서 쓸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인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모델을 사용하여 현재 약 46,000개의 브랜드를 관리
- 서비스 가입 수수료가 주 수익모델이며, Personal Plus, Professional Premium, Professional Business, Professional Max 등 사용목적에 따라 다양한 범위의 서비스를 제공

○ 시장 수요

- 소셜 미디어 및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기업은 약 6천만 곳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하는 곳은 0.1% 미만으로 시장성이 높음.
- 온라인상에서 회사 및 브랜드 이미지를 관리하려는 수요는 지속 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므로 동 사업 분야의 발전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
- 해외 수요도 점차 확대되어 폴란드어 및 영어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어 등 제 3세계 언어도 서비스할 예정

□ 성과

- 2018년 BRAND24는 NewConnect 주식시장에 상장하였고, 빠른 기업의 성장에 따라 60명의 직원 채용 및 매달 100개의 신규 고객을 모집하고 있음.

2) TRAVELIST

TRAVELIST	
기업명	TRAVELIST
설립연도	2013
거점	폴란드
업종 및 품목	회원전용 온라인 숙박 프로모션 예약 시스템
기업가치	미공개
해외진출 현황	스페인, 독일, 스위스, 헝가리, 노르웨이 등 21개국
직원 수	100명
주요 성과	200만 고객 모집 2014년 영국 투자자 Secret Escaped Group에 인수 2015년 Google Ventures 6천만 달러 투자

□ 성장과정과 성과

○ 창업 동기 및 배경

- 창업자 Kristen Slizgi는 폴란드에는 아직 개발되지 않았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온라인 기반 비즈니스 모델을 모색
- 폴란드 여행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것을 보고 회원에게만 제한적으로 프로모션을 제공하는 숙박 예약 사이트 개설 추진
- 창업 당시 영국, 프랑스 등 서유럽 국가에서 동 서비스가 매우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었고, 폴란드 내에는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자가 없었음.
- TRAVELIST는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호텔에서 며칠간 휴식을 즐기고자 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운영을 시작

○ 성장 계기

- 창업 당시 폴란드 여행 산업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었지만 제한된 여행자를 위한 맞춤형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은 폴란드 내에 없었음.
- 세계 최대 온라인 예약 서비스인 Booking.com은 주로 해외여행자와 기업 고객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고, 폴란드 내 고급호텔에 대한 정보는 부족
- 이에 따라 폴란드 사람을 위한 폴란드 전문 숙박예약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니치마켓이 됨.

○ 사업 규모 및 해외진출

- Travelist는 폴란드 시장을 대상으로 폴란드 사용자를 위한 마케팅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해외시장 확장을 계획하고 있지만 먼저 자국 내에서 성공한 브랜드로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노력
- 사업시작 9개월 만에 손익분기점을 상회하였고, 현재 고객은 사업 개시 때보다 5배 이상 확대되어 약 2백만 수준
- 해외진출을 위해 2014년 5월 영국계 회원제 여행 서비스인 Secret Escapes와 협업을 시작하였고, 이로 인해 더욱 많은 투자를 유치
- 최근 슬로바키아, 체코, 헝가리, 러시아 등 중동유럽 영업을 시작하였고 프라하, 브라티슬라바, 부다페스트, 자그레브에 지사 설립

□ 성공요인

○ 기술 또는 비즈니스 모델의 특징

- Travelist는 포털을 통해 예약되는 개별 건에 대하여 수수료 부과
- 고객이 실질적으로 선택해 이용으로 이어지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수익금의 대부분을 마케팅에 재투자
- booking.com 등에 비해 더 휴가를 즐기기 좋은 날짜의 선택과 가격의 범위에 대한 정보를 제공, 최대 70%까지 저렴한 가격에 상위권 호텔 이용 가능

○ 시장 수요

- 폴란드 관광 시장은 최근 몇 년간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고객의 수요에 부응하는 서비스 제공이 많지 않음.
- 고객을 유치하려는 다양한 숙박업소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고객 맞춤형 여행 서비스 찾는 소비자의 니즈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여 이를 중간에서 매칭시키는 서비스는 계속 인기가 있을 것으로 전망

□ 성과

- Travelist는 고객을 유치하려는 서비스 제공자와 더 자신의 기호에 맞는 서비스를 찾으려는 소비자 사이에서 양쪽의 니즈에 부합하는 매칭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서비스 시작 1년 만에 영국계 멤버십 예약 사이트를 운영하

는 Secret Escapes Group에 인수

- 이로 인해 Travelist는 폴란드뿐만 아니라 중동부유럽 시장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고, 더 빠른 속도로 사업규모를 확장
- 인수 1년 후 Travelist의 매출은 약 500% 상승하였고, Secret Escapes의 전체 매출 중 20%를 차지
- 최근 Google Ventures가 Secret Escapes Group에 6천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면서 Travelist의 확장세는 더욱 박차를 가하에 될 전망

아. 협력방안

□ 폴란드는 중동부 유럽의 스타트업 허브로 부상

- 폴란드의 스타트업 생태계는 빠른 성장세를 보이며 전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친 스타트업 환경으로 거듭나고 있음.
- 특히 중동부 유럽의 스타트업 허브로 부상하고 있으며 다양한 외국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들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 중동유럽 시장 진출의 거점으로 유망(Startup Hub Poland 대표 Maciej Sadowski)

□ 액셀러레이션 등 대부분 프로그램이 폴란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하므로, 현지 파트너를 찾는 것이 현지 진출에 용이

- 폴란드 정부는 Poland Prize 등 외국 스타트업의 폴란드 진출 유인책을 마련하였으나, 여전히 폴란드 스타트업 지원에 초점
- 또한 폴란드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이해와 정부 관계자, VC, 에인절 투자자 등 원활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파트너십 구축 필요

□ 대부분의 폴란드 액셀러레이터는 첨단기술 개발 초기단계의 스타트업에 관심

- AI, IoT, 사이버보안, 의료바이오 등 유망 첨단기술에 대한 지원을 선호하여 동 분야 스타트업을 계획하는 것이 폴란드 시장 진출에 유리
- 해외의 다양한 기술들이 소개되면서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신기술이 아닐 경우 고전할 수 있다고 평가(Startup Poland 대표 Julia Krysztofiak Szopa)

- 소프트웨어 분야의 발전 성공사례가 많으므로 첨단 기술이 결합된 소프트웨어 개발 시 투자금 확보 용이성 높은 것으로 평가
- 한국 기업은 폴란드에서 실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기술을 소개해 액셀러레이터에 선정되는 것이 폴란드 생태계 진입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PARP 스타트업 개발부 Anna Brussa)

자. 유용한 정보원

이름	설명	웹 페이지
폴란드 기업개발청 (PARP, Polish Agency for Enterprise Development)	폴란드 내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 혁신 관련 유럽집행위원회 및 폴란드 정부의 정책 시행기관	https://www.parp.gov.pl/
폴란드 기업기술부	혁신 기업 개발, 폴란드 기업의 해외진출, 스타트업 지원 담당 정부부처	https://www.mpit.gov.pl/
폴란드 개발기금 (PFR, Polish Development Fund)	폴란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업 대상 재정자문 수행 기관	https://www.pfr.pl/en/
Startup Poland	폴란드 내 스타트업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자문 기관	http://startuppoland.org/en/
Biznes.gov.pl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정보 및 서비스 제공 정부 웹사이트	https://www.biznes.gov.pl/en
폴란드 투자무역청	해외투자유치, 해외투자 활용방안 개발, 해외투자자 정착 지원, 폴란드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등 무역투자진흥 수행 기관	https://www.paih.gov.pl
Startup Hub Poland	중동부 유럽 스타트업 지원 인큐베이터	http://startuphub.pl/
web.gov.pl	PARP 운영 스타트업 정보제공 웹사이트	http://www.web.gov.pl/
국립 R&D 센터	폴란드 유망 기술 연구개발 주도	https://www.ncbr.gov.pl/
MITEF (MIT Enterprise Forum)	MIT bootcamp 참가 지원 액셀러레이터	https://www.mitefpoland.org/
space3ac	폴란드 그단스크 거점 액셀러레이터	https://www.space3.ac/
Funding Box	스타트업 투자금 조달 활성화 커뮤니티	https://fundingbox.com/

자료원: 코트라 바르샤바 무역관 조사 작성

10.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

가. 스타트업 생태계의 위상과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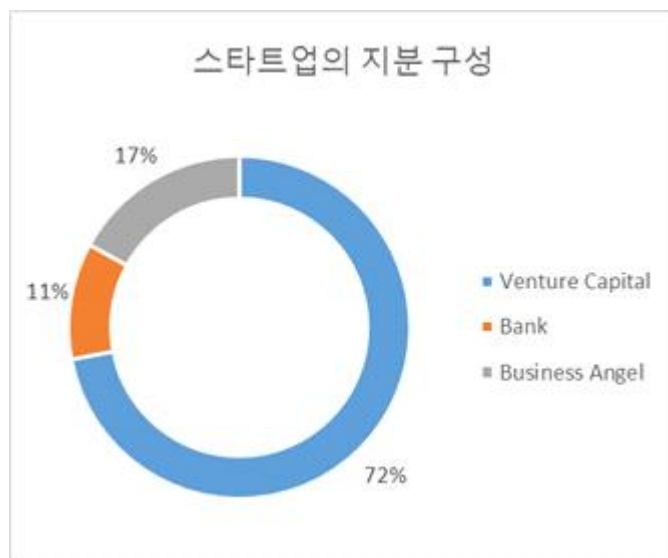
□ (위상)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 10년차, 소규모 생태계

- 국내 개발자(Developer) 인구가 34,059명으로 유럽 27위
 - 세르비아(47,351명, 26위) 보다 기술부문 창업가능 인구가 적고 크로아티아(31,812명)보다 소폭 많음(자료원 : the State of European Tech 2017).
 -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부재로 Startovac(체코), Kickstarter, IndieGoGo(글로벌) 이용

□ (특징·강점) 설립 및 EXIT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며, 서유럽 접근성 높음.

- (자금조달 여건) 일반적으로 벤처캐피탈이 EU지원금, 슬로바키아 정부, 기업, 개인투자가를 통해 펀드를 조성하여 스타트업을 심의한 후 자금 지원

<슬로바키아의 스타트업 지분 구성>



자료원: Startup Survey Slovakia 2016, KPMG

- (EXIT) 스타트업에 유리한 단순합자회사(JSA: Simple Joint-Stock Company)제도 도입
 - 최소 1유로의 자본 투자, 단순한 조직구조로 회사 설립이 가능하여 소요 비용이 최소 600 유로 수준

<슬로바키아의 법인의 설립 형태별 비교>

구분	단순합자회사 (j.s.a.)	유한회사 (s.r.o. , Co. Ltd.)	유한책임회사 (a.s. , Inc.)
최소 자본	1€	5,000€	25,000€
최소 설립자 수	법인 1 또는 자연인 1	법인 1 또는 자연인 1	법인 1 또는 자연인 2
법인설립 서류	설립서류 또는 설립계약서	설립계약서	설립서류 또는 설립계약서
파트너, 주주의 책임	주주의 책임 없음	파트너는 주주에게 보유주의 가치만큼만 채무의무가 있음	주주는 회사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음
파트너, 주주의 익명성	주주의 명단이 웹 (Central Depository - CDCP)에 공개됨	파트너의 명단이 상업 등기에 게재됨	주주의 명단 비공개
법인설립 총 비용(추산)	680€	250€	880€

자료원: Startitup.sk

- (대외 개방성) 대외개방성이 높아 非EU 국가의 진입장벽 없으나, 국제화 초기 단계
 - 70개의 스타트업, 140명 이상의 회원, 15개국의 회원사에 코워킹 공간을 제공하는 0100Campus는 중동(이란)의 회원이 유일한 非EU 국가 시민

□ 스타트업 창업 추이와 대표 스타트업

- 슬로바키아는 우수한 인재가 많이 배출되는 ICT산업을 중심으로 보안, 온라인 쇼핑, 모바일 게임 스타트업이 발달

<슬로바키아의 대표 스타트업>

기업명	국적	제품 또는 서비스
INNOVATRICS	보안, 생체인식SW	지문 및 얼굴인식 신원확인 등
eyerim	전자상거래	선글라스 및 안경 최저가 판매
PIXELFEDERATION	모바일 게임	Trainstation, Seaport 등
DECENT	블록체인(가상화폐)	디지털 콘텐츠 거래 화폐

자료원: 코트라 브라티슬라바 무역관 조사 작성

나. 주요 창업 클러스터

□ 0100캠퍼스(0100CAMPUS, 벤처캐피탈 0100Ventures의 프로젝트)

- 주요목적 : 공동사무실 제공 및 스타트업간 네트워킹 지원
- 주소 : Stare Grunty 18, 841 04 Bratislava, Slovakia
- 담당자 이메일 : members@0100campus.com
- 웹사이트 : www.0100campus.com

□ 인큐비(INQB, 슬로바키아 기술대학(STU) 산하 스타트업 지원 플랫폼)

- 주요목적 : 공동사무실 제공 및 프리시드(pre-seed) 인큐베이팅
- 주소 : Pionierska 15, 831 02 Bratislava, Slovakia
- 담당자 이메일: vavrekovas@inqb.sk
- 웹사이트 : www.inqb.sk

다. VC 현황

- 개별 프로젝트는 5만유로 수준이며, VC별로는 유럽연합의 자금을 포함 2천 5백만 유로 규모로 투자 진행

□ 주요 투자 업종

<슬로바키아의 VC 투자 분야>

분야	스타트업 비중(%)	투자가 비중(%)
FINTECH	7	75
EVENTECH	2	19
CLEANTECH·LIFE SCIENCES	2	25
TELECOMS	4	25
CYBER SECURITY	5	63
CONSUMER SERVICES	12	50
HARDWARE	18	25
ENTERPRISE SOFTWARE	4	63
MANUFACTURING	4	13
BUSINES SERVICES	23	25
OTHER	19	37

주: 투자가는 분야별 복수 응답 가능

자료원: KPMG. 2016. Startup Survey Slovakia 2016

□ 주요 VC

- 슬로바키아의 주요 VC로는 Neulogy Ventures(아래 표 참고), Speed Invest, Credo Ventures, Limerock Advisory, ADV Europe, Crowdberry, Fund of Innovation and Technology, G4 Investment club, Braun Holding, Pioneers Ventures, LR J Capital, BridgeStart 등이 있음.

회사명	Neulogy Ventures
주소	Tallerova 4, 811 02, Bratislava, Slovakia
전화번호	+421 2 2077 4437
연락처	info@neulogy.vc
웹사이트	www.neulogy.vc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년부터 슬로바키아의 유망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펀딩 운영 - 초기투입자본은 5만 유로 ~ 20만 EUR 지원 - 이후 벤처자금으로는 투자 횟수당 30만 유로에서 최대 150만 유로를 지원하면 각 회사당 최대 450만 유로까지 투자 받을 수 있음.
전문분야	정보통신기술, 신재생에너지, 진단의학 분야

라. 주요 액셀러레이터

□ 플레미오(Flemio) : 프리시드(pre-seed) 단계부터 투자 및 상업화까지 밀착 지원



- 주소 : Zahradnicka 64, 821 08 Bratislava, Slovakia
- 연락처 : 모니카 로스타로바(Monika Rostarova) / flemio@flemio.com
- 웹사이트 : www.flemio.com
- 주요 지원 내용
 - 플레미오는 스타트업 및 비즈니스 액셀러레이터 업체로 중동유럽에서 막 시작하는 IT 기업에 집중

- 액셀러레이터팀은 세 단계에 거쳐 기업들을 지원하며 약 6개월이 소요
- 지원 단계별 과정
 - ① 심사를 통과한 스타트업이 플레미오와 장기 파트너십 체결*
 - * 신생기업의 주식 공유 협약 포함
 - ②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린 캔버스 및 MVP(최소기능제품) 설정
 - ③ 기업 활성화 과정으로 5만 유로 상당의 내부 펀딩, 제품 및 비즈니스 멘토링, 자문 회의 및 제품 시험 지원
- 지원 심사 및 이력
 - 전체 신청자들의 약 4% 정도가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 승인됨.
 - 한 번에 진행하는 프로젝트는 3개사이며 현재까지 20개사를 졸업시킴.
 - 현재까지 프로젝트 종료 후 6개월 이내 외부 투자를 받은 곳은 회원사 중 40%에 달함.

<슬로바키아의 주요 액셀러레이터>

이름	도시	파트너 기업/기관	기간	기업	지원내용	유망 협력 분야
Flemio	브라티슬라바	Flemio Vienna	6개월	3	- 비즈니스모델 개발 - VC의 투자 유치 - 멘토링, 파트너십, 네트워킹 등	신생 ICT 기업
CEED Tech	브라티슬라바	Startup Wise Guys (Estonia) Open Coffee Club (Lithuania) The Spot (Slovakia) Startup Yard (Czech Republic) Digital Factory (Hungary)	3개월	111 (2011년부터 누적)	- 투자 금액 - 멘토링, 파트너십, 네트워킹 - FIWARE를 통한 디벨로핑	핀테크, 전자상거래, IoT, 위치기반서비스, 보안 소프트웨어
LAUNCHER	브라티슬라바	Startup Awards StartupGRIND AJ TY V IT	3개월	10	- 투자 금액 - 작업 공간 제공 - 멘토링, 파트너십, 네트워킹 등	ICT(클라우드 서비스, 블록체인), UAV, 핀테크

자료원: 코트라 브라티슬라바 무역관 조사 작성

마. 지원정책

□ 정부 차원의 스타트업 육성 전략

- 슬로바키아 정부는 자동차와 전자제품 외국인투자 유치 일변도의 경제성장 전략을 보완하기 위해 산업구조 다양화 및 고부가가치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ICT 및 R&D분야 지원의 일환으로 스타트업을 지원

□ 해외 창업자 지원제도: 스타트업 비자(Startup Visa)

- 非EU 국가의 시민권자이면서 슬로바키아에 창업하고자 하는 기업가는 슬로바키아의 이익을 위해 발급된 국가 비자를 기반으로 체류할 수 있음.
- 창업 프로젝트의 혁신성을 평가하는 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적용
- 창업 목적의 비자 및 임시거주 가능성에 관한 정보는 슬로바키아 공화국 경제부와 내무부 그리고 해외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경제외교관에 의해 공표

바. 주요 스타트업 컨퍼런스

- **StartUp Awards** : 슬로바키아에서 가장 큰 스타트업 이벤트로서, 신생 기업은 예술 및 디자인, 디지털, 과학 및 사회의 네 가지 범주로 경쟁. 심사위원 앞에서 피칭시간 4분이 주어짐.
- **Pioneers Bratislava** : 비엔나의 Pioneers Festival Vienna의 자매 컨퍼런스 형태로 개최. 사전 심사를 통과한 8개의 스타트업이 슬로바키아 및 외국인 투자가를 대상으로 피칭
- **Startup Weekend Bratislava** : 성공한 기업가의 도움을 받아 야심 찬 신생 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54시간동안 개최. 전 세계 500개 도시의 1000개 이상 컨퍼런스와 연계하여 개최
- **Smart Point** : 브라티슬라바 지역에서 혁신적인 기업가 정신을 지원하는 기관의 네트워크로 브라티슬라바시(市), 브라티슬라바 내의 공동사무실, 그리고 브라티슬라바 경제대학교가 함께 개최. 워크숍, 멘토링 연수회 등의 프로그램 제공
- **StartUs Connect** : StartUs와 RubixLab이 공동으로 주최 하는 #StartUsConnect

mentoring & networkig 이벤트 시리즈의 일부로서, 브라티슬라바 커뮤니티와 비엔나 및 부다페스트와 같은 인접도시와 연계 개최

<슬로바키아의 주요 스타트업 컨퍼런스>

컨퍼런스명	개요	프로그램	특징	웹 페이지
StartUp Awards	웹페이지 참조	2018년 9월 지원을 시작으로 준결승전, 워크숍, 결승전(2019.1.1.) 진행	슬로바키아 최대 스타트업 경진대회	http://www.startupawards.sk/
Pioneers Bratislava	웹페이지 참조	컨퍼런스, 피칭 대회	Pioneers Festival Vienna 연계 개최	https://archive.pioneers.io/global/bratislava/
Startup Weekend Bratislava	웹페이지 참조	컨퍼런스, 피칭 대회	52시간에 걸친 CEE지역 스타트업 경연대회	http://communities.techstars.com/slovakia/bratislava/startup-weekend/10204
Smart Point	웹페이지 참조	컨퍼런스, 피칭 대회	브라티슬라바시, 브라티슬라바 경제대학교, 공동 사무소가 협력	https://www.facebook.com/smartpointSK/
StartUs Connect	웹페이지 참조	컨퍼런스, 피칭 대회	비엔나, 크로아티아, 헝가리, 우크라이나, 알바니아 등 CEE지역 네트워크 연결	https://www.facebook.com/pg/startus.cc/events/


자료원: 코트라 브라티슬라바 무역관 조사 작성

사. 스타트업 성공 사례

1) eyerim

eyerim®	
기업명	아이림(eyerim) (www.eyerim.sk)
설립연도	2014
거점	슬로바키아 슈피츠스카 노바 베스(Spišská Nová Ves)
업종 및 품목	선글라스, 안경
기업가치	2백만 EUR (2017년 연매출 270만 유로)
해외진출 현황	유럽연합 17개국 진출
직원 수	10-19명
주요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자이너 브랜드의 선글라스 및 안경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온라인 스토어 - 0100캠퍼스의 도움으로 그들은 '쓰리티에스 캐피탈 파트너즈(3TS Capital Partners)'에서 새로운 국제 벤처펀드로 157만 유로의 투자를 받음.

2) INNOVATRICS

	
기업명	이노바트릭스(INNOVATRICS)
설립연도	2006
거점	프랑스 파리,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
업종 및 품목	생체인식SW
기업가치	940만 유로(2017년 연매출 752만 유로)
해외진출 현황	전 세계 시장 진출
직원 수	50-99명
주요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립자 안 룬테르(Ján Lunter)는 파리에서 회사설립 4년 후에 고향인 슬로바키아로 돌아와 회사를 운영하겠다고 결정 - 인큐비의 도움을 통해 슬로바키아에 안정적으로 재정착 - 인큐비의 협조로 생체 인식 프로젝트, 특히 지문 및 안면인식 분야에서 선도적인 소프트웨어 제공 - 7억 개 이상의 “메이트 바이 이노베트릭스(Made by Innovatrics)” 알고리즘을 통해 사람들을 인식하는 500여개의 프로그램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거둬 생체인식의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

아. 협력방안

□ 성숙 되지 않은 작은 스타트업 생태계

- 슬로바키아는 국가인구 540만, 수도 브라티슬라바 인구 43만의 작은 국가
 - 스타트업 육성 인프라 및 컨퍼런스에서는 인근국의 수도 비엔나에 의존적인 면을 보이며, 크라우드펀딩 또한 1993년 독립 전 한 국가였던 체코 프라하의 플랫폼 사용
- 국제화정도가 낮아 현지어로만 진행되는 스타트업 컨퍼런스가 많지만, 이러한 여건에서 역으로 외국의 스타트업을 받아들이려는 움직임이 있음.

□ 슬로바키아의 우수 IT 인력의 이점, 그리고 국제화가 필요한 생태계

- 슬로바키아는 우수한 IT, 정보통신, 공학 엔지니어 대졸자가 풍부
 - 또한 신생기업에 관심을 가지는 투자자가 경제 규모에 비해 많아서 자본 가용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

- 슬로바키아 기술대학(STU)의 인큐베이터 INQB사의 CEO에 따르면, 슬로바키아에는 프리시드(pre-seed) 단계의 스타트업이 부족
- 정부, 기업, VC 등 지원 플랫폼은 일반적으로 非EU 스타트업을 차별하지 않음.
 - 현지 주요 VC인 뉴올로지벤처스(Neulogy Ventures)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한국의 IT 수준이 높아 IT관련 스타트업은 매우 환영 받을 것이라고 함.

□ 스타트업 지원 생태계 네트워킹을 통한 협력

- 협업기관 : 0100Campus(창업사무실), Flemio(엑셀러레이터), 슬로바키아 기술대학(STU, 인큐베이터)
- 단순합자회사(JSA: Simple Joint-Stock Company) : 최소자본 1유로, 설립 비용 600유로
- 스타트업 비자 : 30일내 발급(일반비자 90일내), 재정증명의무 60% 감소

□ 주변국 진출을 고려한 진출전략

- 시장의 제품들에 EU 기준이 적용되고 소비자의 선택 기준도 까다로운 편 이어서 신제품과 아이디어를 테스트하기 위한 훌륭한 시장이지만, 시장이 작아 주변국 진출 가능성을 고려하여 현지 창업을 계획할 필요

□ 복잡한 행정 절차 대비

- 정부 보조금을 받거나 지원프로그램에 참가하려면 복잡한 행정절차 요구되며, 이러한 절차가 모두 현지어로 이뤄지기 때문에 현지어를 구사하는 인력의 채용 또는 파트너십이 필수적

자. 유용한 정보원

이름	설명	웹 페이지/(가능할 경우) 연락처
Startup India	주슬로바키아 인도 상공회의소의 스타트업 지원 및 홍보 페이지	http://www.indianchamber.sk/programy/startup-india/383-startup-overview-in-slovakia
Slovca	슬로바키아 벤처캐피탈(VC)협회	http://www.slovca.sk/en

자료원: 코트라 브라티슬라바 무역관 조사 작성

I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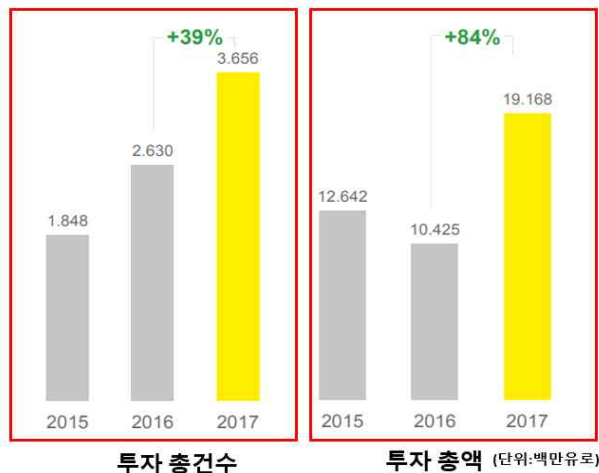
협력방안과 시사점

1. 유럽 스타트업 생태계 위상과 진출 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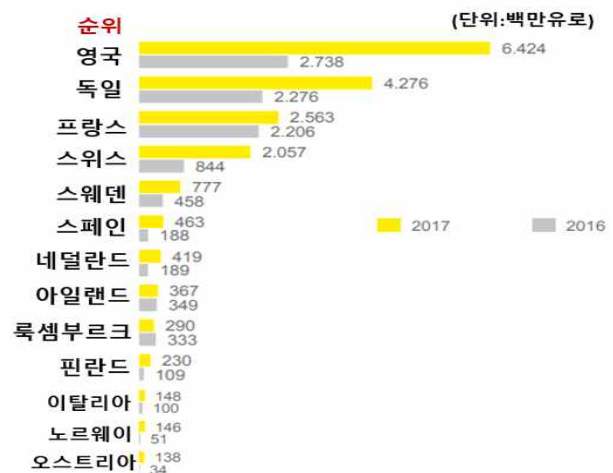
□ 유럽은 최근 전세계 혁신스타트업이 모이는 ‘Tech Startup Hub’로 도약

- 유럽은 2017년, 전년대비 84% 증가한 191억 6,800만 유로의 기록적인 스타트업 투자규모를 시현
 - 유럽 전역에서 성사된 스타트업 투자건수 역시 3년 연속 눈부신 약진을 기록하며 2017년 전년대비 39% 급증한 3,656건 기록
- 유럽 각국은 4차산업혁명 전략 추진과 더불어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에 역점
 - 특히 런던, 베를린, 파리, 스톡홀름, 암스테르담은 ‘글로벌 20대 창업생태계’(Startup Genome 선정)에 진입하여 유럽 스타트업 생태계 성장을 견인

<유럽 스타트업 생태계 투자규모 3개년 추이>
(단위: 백만 유로)



<2017년 스타트업 투자총액 유럽국 순위>
(단위: 백만 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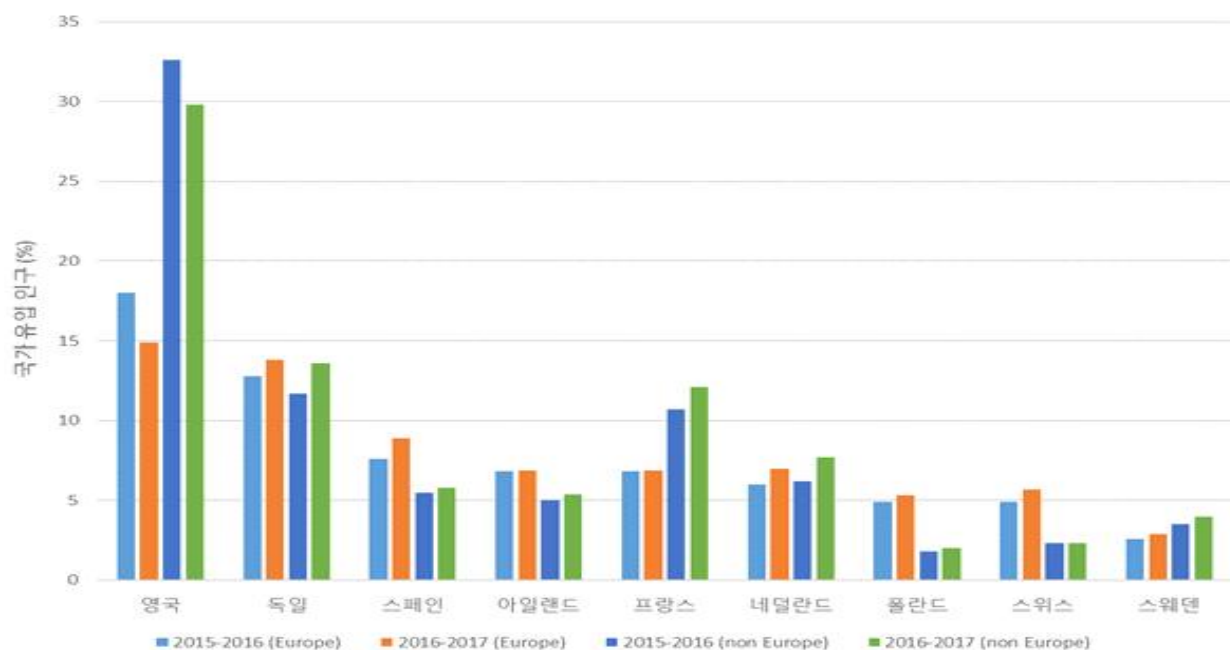
자료원: Ernst & Young, 2018, Startup Barometer Europe(3월 발표)

□ 유럽은 국내의 잠재력 있는 스타트업이 해외 진출을 통해 성장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유망 파트너

- 유럽 스타트업 생태계는 비즈니스 친화적 환경, 자금조달의 용이성, 창업 클러스터 활성화, 해외 창업자에 대한 개방성 등 생태계 전반의 조건이 우수
 - 유럽은 창업역량, 신기술 흡수역량(ICT 수준), 국제화역량(대외개방도)이 우수(Global Entrepreneurship Index 2018)

- * 유럽 스타트업의 고객 중 약 20.7%가 비유럽 고객으로 이는 he지역 스타트업 글로벌 고객 평균치(12.8%)를 약 1.5배 상회
- EU 집행위는 ‘Entrepreneurship 2020 Action Plan’ (2012)을 발표, 洲EU 차원에서 창업 지원, 행정장벽 철폐, 기업가정신 육성 등 추진
- 유럽 국가들은 우수한 해외 스타트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 스타트업 관련 해외(非유럽) 인력의 유입이 활성화
 - * 영국 테크 네이션 비자: 디지털기술 분야의 우수 창업자 대상 특별 비자 발급
 - * 프랑스의 French Tech Ticket(국가 차원)과 Paris Region Starter Pack(수도권)으로 혁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해외 창업자 지원
 - * 스페인 Rising Startups Spain: 자국 시장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한 해외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스페인 내 창업 지원

<유럽 주요국가별 스타트업 분야 해외 인력 유입 비율>



자료원: Atomico

- 우리 스타트업의 유럽 진출은 아직 많지 않으나, 고부가가치 영역에 집중
 - 한국의 해외 진출 창업기업 가운데 61.6%가 동북아, 29.7%가 동남아에 진출하고 있으며, 유럽 진출 창업기업 비중은 10.1%(창업진흥원 2018)
 - 유럽 진출 창업기업의 비중은 낮지만, 사업, 영상·정보통신, 전문·과학·기술, 교육 등 고부가 서비스업 중심

<한국 창업기업의 주요 업종별 해외진출 지역(2017. 개, %)>

업종	기업 수	동북 아	동남 아	중앙 아	남아 시아	서남 아	유럽	북미	중남 미	오세 아니아	아프 리카
전체	36,711	61.6	29.7	10.2	9.9	6.2	10.1	9.1	4.4	2.4	2.0
제조업	14,100	61.6	17.8	1.8	9.7	1.4	13.8	13.6	4.5	0.8	3.1
광업	2	0.0	0.0	100.0	0.0	0.0	0.0	0.0	0.0	0.0	0.0
건설업	70.3	30.7	0.0	53.5	15.6	0.0	0.0	15.8	0.0	0.0	0.0
운수업	635	67.0	63.7	33.0	15.9	15.9	0.0	0.0	15.2	0.0	0.0
출판, 영상, 정보	1,524	55.1	24.7	5.5	5.5	5.5	28.0	17.1	14.0	5.5	5.5
사업서비스업	290	14.3	71.3	14.3	28.2	28.8	42.5	28.2	42.5	13.9	0.0
전문 과학, 기술	1,887	55.5	30.1	5.1	8.4	4.4	41.6	22.5	3.0	8.4	11.9
보건, 사회복지	244	100.0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농림어업	16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전지, 가스, 수도	7	0.0	0.0	100.0	0.0	0.0	0.0	0.0	0.0	0.0	0.0
도매 및 소매업	13,073	76.2	35.0	20.3	13.1	13.1	0.0	2.0	3.8	0.0	0.0
숙박 및 음식점업	1,655	0.0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금융 및 보험업	48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예술, 스포츠, 여가	97	32.1	0.0	32.1	0.0	0.0	0.0	35.9	0.0	0.0	0.0
하수폐기물 처리업	164	100.0	20.6	0.0	0.0	0.0	0.0	20.6	0.0	0.0	0.0
교육서비스업	1,375	0.0	15.8	0.0	0.0	0.0	32.9	16.4	0.0	34.9	0.0
개인서비스업	321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부동산, 임대업	570	100.0	22.5	0.0	0.0	0.0	0.0	0.0	0.0	0.0	0.0

주: 설문조사 결과로서, 진출지역 복수응답

자료원: 창업진흥원(2018)

2. 유럽 스타트업 생태계 진출방안

□ 딥테크(인공지능을 비롯한 첨단 디지털기술)를 중심으로 유럽 각국의 육성 분야와 수요에 주목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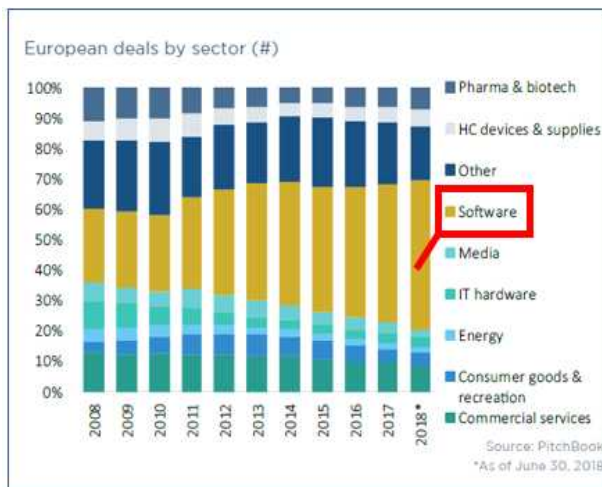
- 유럽의 주요 스타트업 투자분야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사이버보안, 로봇틱스, 전자상거래, 핀테크 등
 - 인공지능의 경우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국의 전략적 육성 분야로서 2012~17년 유럽 내 스타트업 투자규모는 총 46억 달러로 추산
 - ‘EU 지급결제시장 통합계획’ *으로 인해 핀테크 분야 투자 수요 급증

* EU Payment Service Directive II: EU내 모든 금융기관은 지급결제 서비스에 대해 API를 공유해야 함. 이를 통해 은행이 보유한 시스템을 핀테크 기업들과 공유함으로써 핀테크 기업들은 API를 기반으로 은행과 고객간 중개인으로 기능할 수 있음.

- 유럽 각국 기업과 정부는 신기술 확보를 위해 해외 스타트업과의 협력을 늘려 가는 추세로서, 한국 스타트업과의 잠재적 협력 수요가 풍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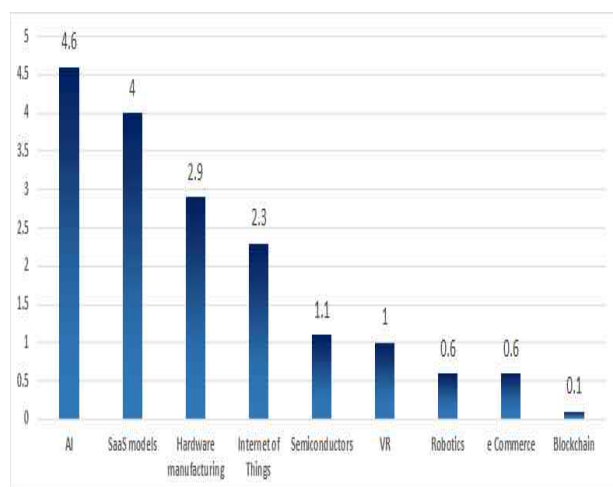
* 암호화폐 기술을 가진 국내 핀테크 스타트업 G사, 독일 핀테크 기업 M사와 '17년 MOU 체결, 블록체인 개발 협업 중이며, 독일 Beiersdorf사는 한국 스타트업 C사와 기술협력 중(휴대용 피부진단기 개발)

<연도별 유럽내 벤처캐피탈 투자분야 추이>
(단위: %)



자료원: Pitchbook 2018 Q2 European Venture Report

<유럽내 스타트업 집중투자분야(12~17 누계)>
(단위: 십억 달러)



ATOMICO. 2017. State of European Tech 2017

□ 현지 창업을 통한 스타트업 생태계 신속 진입

- 현지 인큐베이터, 액셀러레이터 및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시장조사, 대기업과의 협업, 컨설팅의 기회 확보 등 역량 강화가 중요
 - 해외 스타트업은 현지 협력 체계 안에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어야 성공적으로 기업 생태계에 뿌리내릴 수 있음.
- 국별, 도시별로 다양한 스타트업 클러스터 또는 액셀러레이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특성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면밀한 선택이 요구
 - 막연한 현지 창업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타깃 시장 및 투자처 발굴을 겨냥하고 실효성을 우선하여 진출할 필요*
 - * 스타트업 실패요인 1위는 시장수요 미매칭(42%), 2위는 자금난(29%)임을 고려할 때, 창업시 우선적 고려요소는 수요발굴과 자금조달(CB Insight 조사보고서)
 - 코트라 등 유관기관의 현지 액셀러레이터 참가 지원프로그램도 활용 필요*
 - * 최근 한국 기업이 현지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통해 초기 투자(15,000 유로)와 멘토링을 받고, 유럽 VC에게 IR을 실시하여 글로벌 기업과 협업사업을 진행

<유럽의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파리>

이름	파트너 기업/기관	기간	기업수	지원내용	유망 협력 분야
La French Tech	공공투자은행, 투자진흥청, 투자위원회, 외교통상부, 기업청 등	6개월 이상	320	-신속한 행정처리 -보조금 지원 -인큐베이터 서비스 -French Tech Ticket	핀테크, IoT, AI, 디지털, 3D 프린팅, 메디테크 등
Station F	BNP Paribas, Thales, L'Oréal, Amazon, MS 등	1개월 이상	1,000	-업무 및 공동 주거공간 제공 -글로벌 기업들이 주도하는 프로그램 운영	블록체인, 핀테크, 3D프린팅, 바이오 테크 등
Paris & Co	파리 시청, 공공투자은행, AirFrance, Total, Carrefour 등	1개월 이상	1,000	-사업 계획(법령, 재정, 채용 등) 솔루션 -투자자 및 비즈니스 전문가와의 만남 주선	디지털 출판, e스포츠, 원격의료, 스마트 푸드 등
NUMA	La French Tech, Google, Paypal, OVH, AirFrance, Aircall 등	6개월	300	-1대1 멘토링 교육, 사업 로드맵 제시 -국내외 네트워킹 -파트너십 알선	이동성/운송, 클라우드, IoT, AI, 애그리테크 등
Paris Pionnières	파리시청, 일드프랑스 지방정부, FDJ, BNP Paribas, Contrex 등	4~6개월, 1년	350	-월간 맞춤 멘토링 -투자자와 교류주선 -사무실 제공 -커뮤니티, 네트워킹	디지털/정보기술, AI, 로봇공학, 바이오 테크 등
Le Village by CA	La French Tech, Sanofi, Engie, Orange, PSA Groupe 등	최대 2년	652	- 숙박 시설 제공 -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과의 비즈니스 관계 - 전문가 자문	헬스테크, 핀테크, 푸드테크, 블록체인 등
WAI BNP Paribas	공공투자은행, France Angel, Croissance Plus 등	6개월, 2년	2,000	- BNP 기업과의 네트워킹 - 작업 공간 제공 - 자금 지원	핀테크, 로봇공학, 증강현실, AI, 의료, 교통 등

자료원 : 코트라 파리 무역관 조사 작성

□ 주요 CVC 프로그램을 통해 Global Partnering 기회 창출

-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면서 규모의 경제의 중요성이 낮아지고 기업 기능의 수직적 분해가 확대됨에 따라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협력 중요성 증가
 - 액셀러레이터 전문기업 뿐 아니라, 대기업 및 금융기관들도*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에 적극적 * Barclays, Natwest, HSBC, Unilever 등
 - 대기업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Pain Points)를 명확히 파악하여 이에 최적의 솔루션을 제안해야 함.

성공 사례: 국내 스타트업 ‘스카이랩스(Skylap)’ (독일 대기업 육성 프로그램 선정)

- ‘스카이랩스’사는 40대 이상 인구 4명 중 1명이 앓고 있는 만성질환 심방세동의 정확한 진단과 맞춤 관리를 위한 초소형 반지형 탐지기 ‘카트(CART)’를 개발
- 독일 바이엘 본사로부터 투자금 지원 (총 61개국 450여 개 스타트업 지원) 선정 ('17)
 - 총 5만 유로의 지원금 수혜 및 독일 베를린에 위치한 제약부분 본사에 입주
 - 3개월 동안 바이엘의 다양한 지원 하에 디지털 헬스 프로젝트를 진행
 - 이외 바이엘 임직원 및 외부 전문가들이 선발 스타트업의 프로젝트와 사업모델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멘토링과 코칭을 제공받음.
- 성공요인 : 바이엘의 경구용 항응고제 등 심혈관 질환 분야 제약기술과의 시너지효과

<유럽의 CVC: 스페인>

구분	기업특징	협력 희망 기술	지원사항
Telefonica	가입자 기준 세계 3위 통신기업, 14개국에 스타트업 프로그램 운영	사이버 보안, 동영상 기술, 엣지 컴퓨팅, 5G 기술, Wife 기술 등	4만 유로(현금), 6만 유로(엑셀러레이팅), 코워킹 스페이스, 전문가 멘토링
Iberdrola	스페인 최대 전력생산 기업이자 세계 최고 풍력에너지 기업	전력 스마트 솔루션, 신재생 에너지 통합시스템, 이모빌리티 등	Iberdrola 기술/노하우/데이터 접근, 기술 실재 적용(Pilot) 기회, 투자 등
Repsol	스페인 최대의 석유, 에너지 기업	CO2저감 기술, 이모빌리티, O&G 다운스트림 신기술, 데이터 분석 등	Repsol 기술/노하우/데이터 접근, 기술 실재적용 기회 (Pilot), 투자 등
EDP	포르투갈 최대 규모의 전력기업	스마트 그리드, 에너지 저장기술, Data-Leap 등	투자, EDP 및 파트너사와 협업기회, 멘토링 등

자료원: 코트라 마드리드 무역관 조사 작성

□ 유럽 주요 스타트업 행사 참가를 통한 현지 진출 가능성 모색

- 유럽 현지의 스타트업 포럼, VC 네트워킹 행사 참가를 통해 유럽 현지 창업 트렌드 파악하고, 관련 분야 핵심 네트워크 확보를 위한 노력 필요
 - 유럽 주요 스타트업 컨퍼런스에 한국관을 구성하여 실제 VC 투자가들과 피칭, 1:1 상담의 장 활용
 - 현지에서 잠재 고객과 직접 만나고, 피드백도 받을 수 있는 귀중한 장
- 유럽 내에 매우 다양한 스타트업 밋업, 네트워킹 이벤트가 열리므로, 출장 시 확인하여 네트워크를 늘리는 것도 좋은 방법

<유럽의 주요 스타트업 행사(2018년 기준)>

연 번	행 사 명	일 정	국 가, 장 소	연 번	행 사 명	일 정	국 가/도 시
1	MWC 2018	2.26~3.1	스페인, 바르셀로나	8	iFA	8.31~9.5	독일, 베를린
2	Hannover Messe	4.23~4.27	독일, 하노버	9	The Conference	9.4~9.5	스웨덴, 말뫼
3	Viva Technology	5.24~5.26	프랑스, 파리	10	Pirate Summit	9.6~9.7	독일, 쾰른
4	TNW Conference	5.24~5.25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11	Oslo Inovation Week	9.24~9.28	노르웨이, 오슬로
5	Pioneers	5.24~5.25	오스트리아, 빈	12	Web Summit	11.5~11.8	포르투갈, 리스본
6	Cebit	6.11~6.15	독일, 하노버	13	TechCrunch Disrupt	12.4~12.5	독일, 베를린
7	London Techweek	6.11~6.17	영국, 런던	14	Slush	12.4~12.5	핀란드, 헬싱키

자료원: 코트라 유럽지역본부 조사 작성

□ 스타트업 혁신분야 협력 및 상대국 진출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책적 노력

○ 국가 간 협업·교류 위한 민·관 네트워크 확보

- 독일 등 주요국의 스타트업 이해관계자와의 정부 차원 교류 강화*

* 독일경제교통부 Zypries 장관은 최근 독-이스라엘간 스타트업 교류를 전폭 지원하며 이스라엘 스타트업의 독일 진출을 장려하는 등 경쟁력 있는 해외 스타트업과의 교류에 큰 관심

- 정부 차원의 스타트업 공동 지원 펀드 조성을 통한 스타트업·VC·엑셀러레이터에 대한 지원 확대*, 테크 스타트업간 전략적 교류 프로그램 운영

* 유럽의 경우 미국에 비해 여전히 투자에 보수적인 성향으로 정책적 지원 없이는 초기 투자가 어려울 수 있음. 쌍방향의 펀드 활용 통해 양국 스타트업·VC 등의 상대국 진출 및 네트워크 확대 통한 양국 경쟁력 제고 가능

○ 국내 인재의 현지 창업 추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 국내 우수 인재의 현지 진출·창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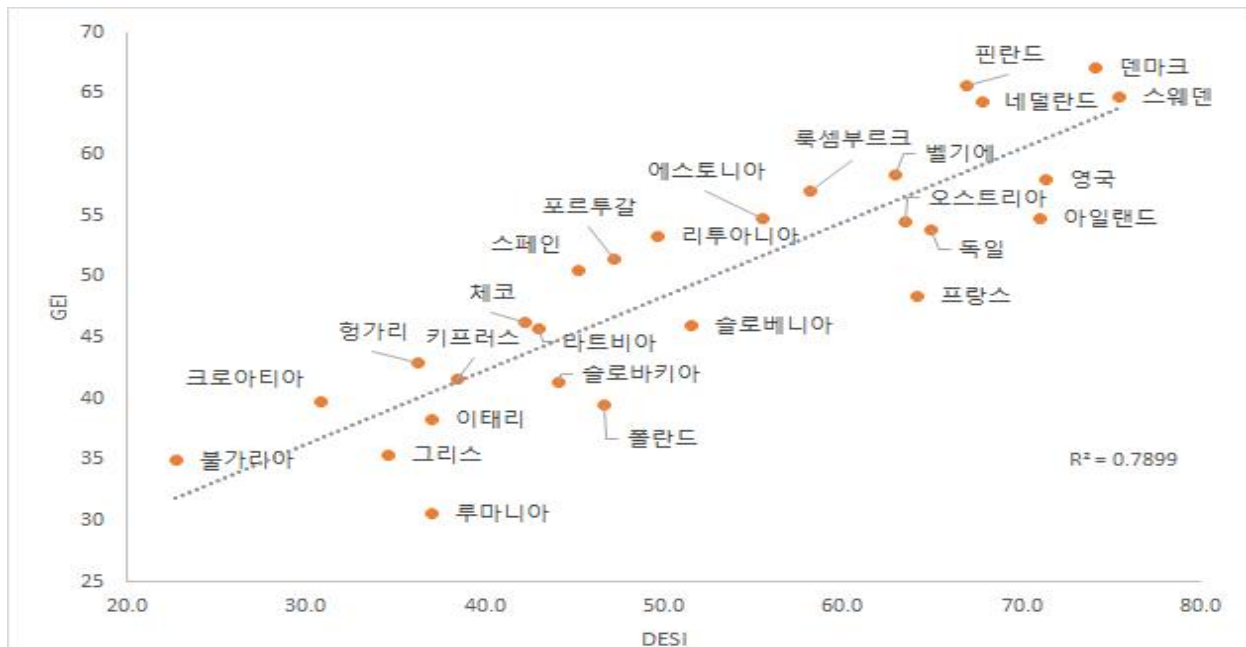
* 독일은 인더스트리 4.0 추진으로 IT, 비즈니스서비스 분야 인력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독일 노동청 등과의 전략적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3.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에 대한 시사점

□ 스타트업 생태계의 활성화는 4차산업혁명 추진역량과 직결

- 국가 디지털 경쟁력은 기업가정신의 활성화 정도와 뚜렷한 정(+)의 상관관계

<디지털 경쟁력과 기업가정신 활성화(GEI) 수준의 상관관계: 유럽의 경우>



자료원: European Commission. 2017. Digital Economy and Society Index(DESI) 2017 및 Global Entrepreneurship and Development Institute. 2017. Global Entrepreneurship Index(GEI) 2017

□ 정부가 스타트업 생태계의 역할과 위상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 Amsterdam Science Park, ACE 인큐베이터 소장, Erik Boer 인터뷰

- 스타트업은 미래 신성장동력 마련과 일자리 창출과 직결
 - 보다 민첩하게 움직이는 스타트업은 기존의 중소기업 및 대기업에 자극을 주며, 새로운 혁신을 불러올 수 있음.
 - 노키아의 쇠락 시 핀란드의 사례와 같이, 스타트업 활성화는 대기업에 편중된 경제구조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기회
- 유럽의 경우 약 29만개 신생 스타트업(5년 이하)이 창출한 고용 규모는 약 110만 명, 870억 유로의 가치에 해당
 - '06~' 15년간 디지털경제 분야에서 유럽 국가 중 가장 많은 고용 창출을 이룬 국가는 핀란드, 스웨덴, 영국, 네덜란드로서 EU 평균의 8배를 기록(EU Commission).

○ 스타트업 생태계는 지속성장을 위해 후손에게 물려줄 유산

- 스웨덴의 대표적 유니콘인 Spotify의 설립자 다니엘 에크(Daniel Ek)는 “스웨덴 스타트업들이 단지 돈을 벌기위한 목적보다는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유산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 크고 높은 비전을 갖고 스타트업들을 지원해달라” 고 주장
- 이는 “스타트업이 단순한 경제 원리를 넘어 후세들에게 남겨줄 유산 창출에 힘을 쏟아야 함”을 강조

<유럽 주요 도시별 스타트업 고용창출>

국가	도시명	5년 미만 스타트업(개)	수익 창출액 (백만 유로)	고용 창출규모(명)
영국	런던	161,059	70,300	585,037
	맨체스터	26,641	9,002	85,156
	더블린	1,108	2,590	10,830
독일	베를린	55,270	3,110	207,931
	뮌헨	27,581	1,500	104,183
프랑스	파리	3,768	-	20,582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2,468	814	13,153
벨기에	브뤼셀	3,056	1,520	12,262
핀란드	헬싱키	3,258	4.34	37,128
스웨덴	스톡홀름	1,838	8.2	4,627
	말뫼	201	0.1	1,348
덴마크	코펜하겐	394	0.06	294
노르웨이	오슬로	45	-	189
스페인	마드리드	1,435	1.1	8,621
이탈리아	로마	43	1.04	50
그리스	아테네	23	0.2	14
오스트리아	비엔나	3,546	1.21	16,804

자료원: EU Commission. 2017. Web Entrepreneurs and Startups Ecosystem Project 2017

□ 산업별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국내 스타트업의 기술 역량을 강화 필요

○ 유럽의 주요 스타트업 생태계는 산업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태동, 확장

- 산학연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기술 협력 및 트렌드 공유는 경험이 부족한 초기 스타트업들의 기술 역량을 강화시켜 스케일업으로 성장하게 하는 중요한 열쇠로서, 산업별 클러스터 조성은 건강한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의 주요 과제

○ 우수한 테크기업 유치와 산업 생산성 향상

- 영국 정부는 최적의 기업환경으로 해외의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테크기업과 인재들을 유치함으로써 미래 영국경제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
- 이에 따라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성장시키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해야함을 주요 정책 과제로 추진
- 런던 동부를 중심으로 창업가들과 개발자들이 몰려들면서 스타트업 생태계가 형성되자, 영국 정부는 테크시티(現 테크네이션)라는 기관에 자금을 투입하고, 민간 전문가를 CEO로 영입하며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을 지원

○ 정부는 지원 플랫폼 구축에 집중하고, 클러스터-대학-기업으로 연결되는 실질적인 생태계 형성에 노력할 필요*

* 네덜란드 Yes!Delft 인큐베이터 소장 Evert Jaap Lugt 인터뷰

- 네덜란드는 상호 협력, 합작, 파트너십,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통한 기회 창출로 또 다른 성장을 견인하는 선순환 생태계 구축에 집중

○ 개방적 생태계 구축의 중요성

-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생태계 구축 및 유망기업 육성에 집중할 필요*

* 글로벌 고객확보에 초점을 맞추는 스타트업은 21배 빠른 성장률을 보임(Startup Genome. 2017. Global Startup Ecosystem Report)

- Startup Genome의 2017년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글로벌 연결 지수’는 2.1, ‘외국인 고객비율’은 14%로 글로벌 평균인 6.1, 23%에 크게 못 미침.
- 적은 인구를 가진 스웨덴이 세계적인 스타트업 허브로 부상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혁신 기술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개발노력은 물론 창업 초기부터 글로벌 시장을 겨냥했기 때문

□ 각 부문별 균형 있는 발전이 필수적

- 효율적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창업 환경, 자금 조달, 인큐베이팅 시스템 등 각 부문이 균형 있게 발전하는 것이 필수적
- 오스트리아의 경우 민간 자금조달 시장의 상대적 취약성으로 인해 정부 및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대만큼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평가

- 스타트업 생태계의 개별 구성요소들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바탕으로, 부족한 부문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 대기업과 벤처가 ‘원-원’ 하는 주요 사례 창출 필요

- 스타트업의 성장과 투자 회수 단계에서의 대기업 역할이 주목되며, 왕성한 M&A를 통해 동반 성장
- 네덜란드의 경우 델프트(Yes!Delft), 헤이그(Impact Booster), 로테르담(Erasmus Centre for Entrepreneurship), 아인트호벤(Hightech XL), 위트레흐트(Utrecht Inc.) 등 각 지역별 대표 대학 기반 인큐베이터를 형성, 대기업과 연결되는 생태계 구축

□ 글로벌 투자 수요가 몰리는 유망분야 스타트업 집중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 프로그램 확충

- 유럽 및 글로벌 투자가들의 최근 투자 트렌드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핀테크, 블록체인과 같은 딥테크 분야로서, 해당 분야를 중심으로 해외 진출을 염두에 둔 국내기업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 및 다양한 해외진출 지원 프로그램 요구
- 프랑스의 경우 정부 및 액셀러레이터를 중심으로 고학력 인재들의 첨단산업 분야 스타트업 창업을 적극 홍보하고 다양한 이니셔티브 프로그램을 제공, 딥테크 기반 스타트업 투자건수는 유럽 1위로 성장

□ 창업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스케일업(성장)’

- 실질적인 혁신과 일자리 창출은 스타트업이 스케일업(Scale-up)했을 때 발생
- 진정한 창업의 가치는 혁신보다 지속적인 성장에 달려있으며, 이는 스타트업 기업가정신에도 필수적
 - 네덜란드 정부가 스타트업 거주비자 발급 시 퍼실리에이터의 조력을 필수조건으로 요구하는 것과 같이, 창업 이후 성장을 위한 컨설팅의 역할이 중요

<유럽 주요국의 스타트업 지원정책>

국가	스타트업 육성 전략	스타트업 지원 제도
E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타트업 유럽 이니셔티브(2014) - 매년 25만개 스타트업 일자리 창출, EU GDP 의 9.5%에 해당하는 스타트업의 경제기여 달성 - 전문인력, 스타트업, 연구기관, 지역생태계 간 네트워킹 및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ME Instrument - 성장 단계별 지원: ① 사업컨셉 수립, ② 개발·데모, ③ 출시 - 5만~250만 유로 재정 지원. 비즈니스 코칭 프로그램, 네트워킹 지원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산업전략(2017) - 생산성 향상을 위한 혁신경제, 사업환경 조성 - 인공지능과 데이터 혁신 선도 - 양질의 일자리 창출, 수익성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ech Nation 성장 프로그램 - 창업 초기단계: 네트워킹 지원 - 업스케일: 6개월간 멘토링 제공 - Future 50: 50개 유망기업 선정, 기업 연결 지원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 대계획((Grand Plan d'Investissement, 2018) - 친환경, 직업교육, 혁신기반 경쟁력 확립 및 디지털국가 건설 · 스타트업 육성전략 - IT, 패션디자인 등 장래 유망 분야 스타트업 육성 지원 - 인공지능(AI) 분야 스타트업 강국으로 도약 - 공기업 지분 매각 통해 100억 유로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rench Tech Ticket - 디지털, 메디테크, 바이오테크, 핀테크 등 창업 프로젝트 지원 - 프랑스 국적 또는 해외 국적자 - 체류 비자 신속 취득 지원 - 연간 45,000 유로 보조금 지원 - 41개 인큐베이터 시설 제공 - 정착문의 전담 헬프데스크 운영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타트업 어젠다 2017(독일 스타트업 협회) - 연방정부는 스타트업 육성에 5억 유로 지원 - 창업교육, 창업자 지원, 외국인 창업자를 위한 제도 개선*, 유럽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스타트업을 위한 세제 개선 등 - 외국인 고용 시 사유서 제출 폐지, EU역외 시민 대상 스타트업 비자 개설, 외국인 대상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웰컴센터 설립 등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테크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 최대 30,000 유로 생활비 지원 · 베를린 경제진흥기관 "Berlin Partner" - ① 사무실 물색, ② 재정지원 프로그램 주선, ③ 인재 채용 서비스, ④ 협업 연계, ⑤ 국제화 서비스, ⑥ 비자 발급 지원
스페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진흥법(2013) - 창업 후 최대 30개월 간 사회보장세 감면 - 부채 발생 시 개인자산 보호(30만 유로 미만의 거주용 부동산) - 부도시 최대 3년간 부채 지불유예, 25% 탕감 - 기업설립절차 간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ising Startups Spain - 성장잠재력이 큰 혁신기업 유치 - 창업비자 취득 지원 - 마드리드/바르셀로나 사무공간 제공 - 최대 1만 유로 보조금 지급 - 맞춤형 멘토링 서비스 등 · 바르셀로나 지원정책 - 초기 스타트업 보조금 지원
네덜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타트업 델타(Startup Delta) - 비영리 공공-민간 파트너십. 정부, 연구기관, 스타트업, 금융기관 등의 협업 플랫폼 - 네덜란드 각 지역의 허브 연결 - 경제부는 기업이 빠르게 창업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 규제개혁, 창업비자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타트업 초기 자금조달 지원 - 4.82%(18년)의 이자율로 대출 - 정부예산 800만유로 투입 - 중소기업과 5년 이하 스타트업 · 학술지식 상업화 지원 등



작성자

- ◆ 유럽지역본부 이주혜 대리
- ◆ 런던 무역관 배열리미 과장
- ◆ 파리 무역관 이경미 과장, 김영호 차장, 유제동 대리
- ◆ 함부르크 무역관 김수민 대리
- ◆ 마드리드 무역관 이성학 현지
- ◆ 암스테르담 무역관 이소정 과장
- ◆ 스톡홀름 무역관 이수정 현지
- ◆ 헬싱키 무역관 성새롬 과장
- ◆ 빈 무역관 김현준 현지
- ◆ 바르샤바 무역관 김재일 과장
- ◆ 브라티슬라바 무역관 정봉원 과장
- ◆ 본사 시장조사팀 김정곤 전문위원



Global Market Report 18-029

유럽 스타트업 생태계 현황과 협력방안

발 행 인 | 권평오
발 행 처 | KOTRA
발 행 일 | 2018년 10월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현릉로 13
(06792)
전 화 | 02) 1600-7119(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문 의 처 | 시장조사팀
(02-3460-3368)

ISBN : 979-11-6097-787-5 (93320)
979-11-6097-788-2 (95320) (PDF)



Global Market Report
